

2019년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가을 학술발표대회

링구아프랑카, 영어 그리고 진정한 인문학
Lingua Franca, English and Genuine Humanities

- 일시: 2019. 10. 25(금), 12:00~18:00
- 장소: 강원대학교 인문대 1, 2호관
- 주최: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 주관: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일정

시 간	행 사	장 소
12:00~12:50	등록 및 점심	인문대2호관 208 점심: 구내식당
12:50~13:00	개회식	인문대 2호관 208
13:00~13:50	[특강] 대학영어교육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교수법	인문대 2호관 208
14:00~17:10	분과별 논문발표	분과별 해당강의실 휴게실 (2호관 210)
17:10~17:20	지역별 총회	강원(2호관 210) 충청(2호관 208)
17:20~17:45	연구윤리 [특강](한국연구재단)	인문대 2호관 208
17:45~18:00	전체 총회	인문대 2호관 208
18:00~20:00	저녁 만찬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임원진

(2019. 6. 1 ~ 2020. 5. 31)

(1967년 창립, 2000년 통합학회 창립, 2001년 통합학회지 *영어영문학연구* 출간, 년4회 발행)

회 장	한광석(강원대)			
수석부회장	이두원(한국교통대)			
편집위원장	김경렬(강원대)			
연구윤리위원장	박병주(한국교통대)			
부 회 장	강남길(극동대) 김형연(고려대) 이승복(춘천교대) 황병수(강릉원주대)	권영탁(세명대) 박미애(춘천교대) 이우학(건국대)	김인옥(춘천교대) 윤홍섭(충북대) 채수경(강릉원주대)	
총무이사	이승복(춘천교대)	박준석(세명대)		
편집이사	나경희(충북대) 이영애(한라대)	이용희(강원대)	이용철(청주대)	
재무이사	조형숙(서원대)			
정보이사	윤택남(춘천교대)			
섭외이사	구은숙(청주대) 박창범(서원대) 신진범(서원대) 조남호(한국교통대)	권종일(경남대) 신소나(한라대) 정원돈(세명대)	노종진(한국해양대) 엄병호(영동대) 정은숙(중앙대)	
학술이사	김연규(강릉원주대) 박인규(충북대) 정은숙(춘천교대)	김지애(중앙대) 오수진(서원대) 권영환(부산교대)	노은미(한림대) 이해련(서원대) 박용준(상지대)	
감 사	김종미(강원대)	유유순(여주대)		
연구윤리위원	김명섭(한림성심대) 장윤상(한국기술교육대)	신원철(강원대) 조인희(선문대)	오상룡(한국교통대)	
편집위원	강남길(극동대) 김인옥(춘천교대) 김영민(대구교대) 맹은경(아주대) 박창범(서원대) 양윤정(건국대) 윤택남(춘천교대)	김경한(한국교원대) 김정렬(한국교원대) 노은미(한림대) 박선화(건국대) 신진범(서원대) 양창용(제주대) 이상민(경희대)	김대중(강원대) 김진두(한국교통대) 류승구(강릉원주대) 박인규(충북대) 양용준(제주대) 윤태진(성신여대) 이정식(원광대)	
연구이사	강상구(청주대) 김규민(청주대) 김옥례(한국교통대) 양은미(현도사회대) 이창수(영동대) 조형묵(한국교통대)	강성우(청주교대) 김성중(고려대) 박찬규(중원대) 이강훈(서원대) 정문영(계명대)	김상현(한국교통대) 김애주(동국대) 박채희(선문대) 이경욱(한국교통대) 정의순(중앙대)	
고 문	고양성(강원대) 김성중(서원대) 박주현(충북대) 신길호(강원대) 이성실(강원대) 조길행(강릉원주대) 최상길(강원대)	구자혁(강릉원주대) 김영식(청주대) 성기서(서원대) 유인호(충북대) 이진환(충북대) 조일현(한중대) 탁기현(상지대)	김기섭(한국교원대) 노창식(서원대) 손충동(청주대) 윤만근(청주대) 임희진(상지대) 조홍섭(한국교통대)	김덕규(춘천교대) 박순봉(건국대) 송석호(서원대) 이상희(상지대) 전홍실(충북대) 최명정(청주대)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옵는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어영문학 연구에 대한 사랑과 소명의식 그 하나로 일평생 학문연구에 정진하고 계신 우리학회 회원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학회 회장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영어는 현재 약 76억 세계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7,100여개 언어 가운데 하나이지만, 중요성, 역할, 영향력 등의 모든 면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21세기 현재 대표적인 링구아프랑카 즉, 국제통용어입니다. 링구아프랑카라는 용어는 중세시대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중동의 이슬람문명이 충돌하였던 십자군 전쟁 때 당시 유럽의 맹주였던 프랑스의 언어가 유럽연합의 공용어로서 사용되었던 Lingua Franca에서 유래합니다.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링구아프랑카로서 영어의 위치는 향후 100년 동안에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한 좋은 근거로 현재 세계 230개국 가운데 70여개 국가에서 영어를 모국어, 공용어 또는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도 영어는 한국어 못지않게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삶의 질과 사고의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학회 회원 대부분은 대학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관련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소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진정한 인문학으로서 영어영문학 연구의 목적과 영어영문학자와 영어교육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영어교육 및 영어영문학 연구 발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진정한 인문학 연구 활동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 학술발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장님과 영어영문학과장님, 우리학회 학술대회 준비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걸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장 한광석

특강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김상균 교수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김상균 교수는? 거짓 4개를 골라주세요.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자문교수	2 좋아하는 게임은 암살자가 주인공인 "어쌔신 크리드"	3 SSAFY 자문교수	4 고향은 강원도
5 영어이름은 "Leslie"	6 온라인게임 개발사 출신	7 캘리그래피에 능함	8 강원대 최우수수업상, 교육상 등 4회 수상
9 성격은 좀시 내장직	10 클래시오브클랜(게임) 클랜장	11 유튜버로 활동 중	12 예전 별명은 "피브르"
13 GS칼텍스 자문교수	14 등단작가 (소설가)	15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 & 양두"	16 삼성인력개발원 자문교수



"OOO 내놔" []만원짜리 아이템 때문에
XXX에 소송 낸 60대, 결국---

- []만원 XXX 아이템 살 것처럼 속이고
- []억원 가로챈 형제

	1	2	3	4	5	6	7	8
A	구글드렌드	Final Fantasy 14 최후의 날	Battle의 게이머 유형	위즈 슬레	통의리지 아닌 게임	뽕	지식/경험, 스킬, 문	급속의 정당성
B	세계	불안	뽕	전자책	Sight Systems	뽕드미	직접경험	정형이슈 지적불
C	Pine & Gilmore	다경	책임회피	외재적 동기	대이제어 엔더	경지가 & 최방균	특권행사성	Speed Camera Lottery
D	세계지도	뽕	경쟁경제학	당대	가역 강조	진구주구경	정형경제학	뽕
E	패는 왜가지	Grach	정연부	메이플라이 인공의 신	가르다	4-프르세스	IBM 빛안연구스	개인 핵고시경
F	뽕	게임 밸런스	가공품	Lepper et al.(1973)	뽕	공감	뽕	휴식의 감정
G	뽕	전통 수거	파블러스	리디브드	Solomon Asch	전불	네트워킹경	통가기준
H	암시장	인플라이신	피어블	뽕	단절	충격자	뽕	INS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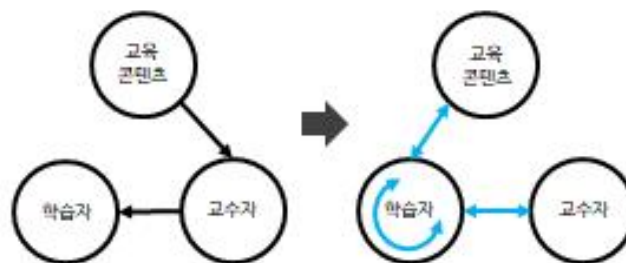


게임은 선인가? 악인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

게임의 선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접목
지식 & 경험 전달, 사고 변화, 행동 변화를 유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지향점



퀴즈앱 활용 - 카훗, 클래스카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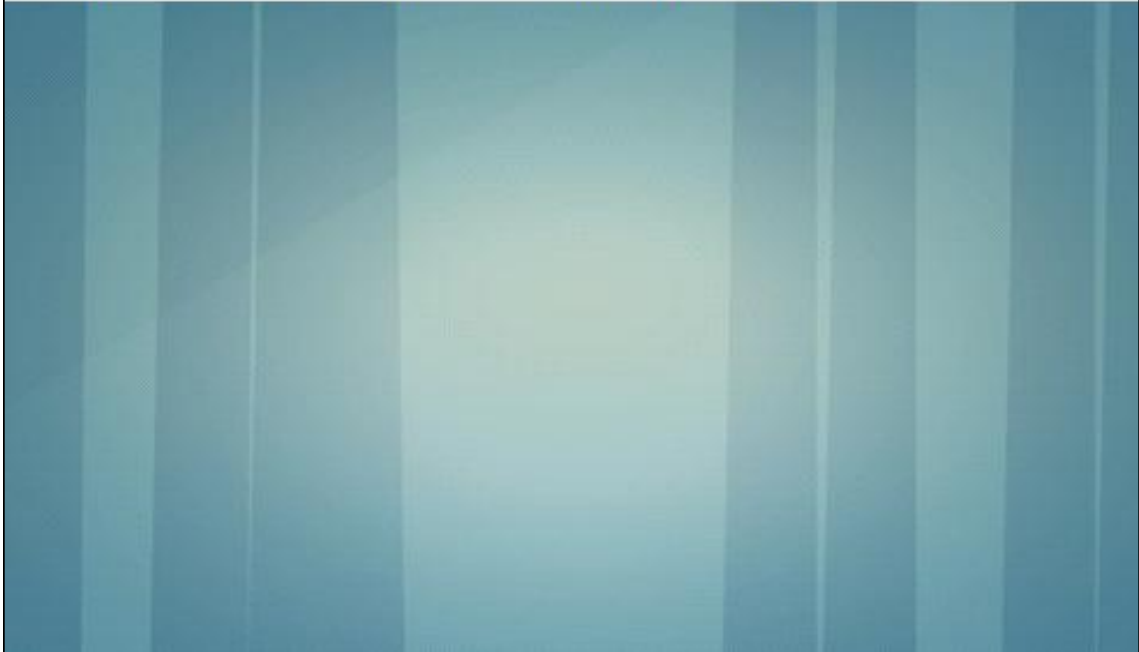


오승로 대학에서 진행하는 장면



태국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장면

언어교육 전용앱 활용- 캐치잇잉글리시, 케이크, 듀오링고 등



FluentU(케이크 해외 버전)

유튜브 클립, 유명한 영화 & 드라마의 한 장면을 반복 학습
 영상 길이는 5분 이내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퀴즈 풀이 형식으로 복습



마법카드



마법카드



영문학 드라마분과 (인문대1호관 305호)

분과위원장 및 좌장: 오수진(서원대)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비 교 문 화 학	14:00~14:40	엄미혜	강원대	『비네가 톰』에 나타난 여성혐오가 빚어낸 억압과 침묵 깨기의 재현	박수미 (강원대) 강혜윤 (강원대)	성기서 (서원대)
	14:40~15:20	채수경	강릉 원주대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 세대 간의 갈등과 젊은 세대의 희생의 의미	김상현 (세명대) 이용희 (강원대)	
	15:20~15:40	휴식				
	15:40~16:20	박정은	강원대	영미드라마의 도발: 유튜브 연극 리뷰 채널,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김영지 (강원대) 오수진 (서원대)	채수경 (강릉 원주대)
	16:20~17:00	엄태용	한림대	『피그말리온』 사회언어학적 고찰	김미경(상지대) 오수진(서원대)	

『비네가 톰』에 나타난 여성혐오가 빚어낸 억압과 침묵 깨기의 재현

엄미혜
(강원대)

I

1970년대 이후 영국 페미니즘 연극에서 높이 평가되어 온 카릴 처칠(Caryl Churchill, 1938~)은 성, 계급, 인종의 차별을 남성중심적 사실주의 극 전통을 벗어나 새로운 극 형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오랫동안 수용하고 구현해왔던 보편적인 여성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네가 톰』(Vinegar Tom)은 1975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극단인 몬스트러스 레지먼트(Monstrous Regiment)와 합동으로 극작과 초연을 한 작품이다. 『비네가 톰』은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마녀로 몰아 억압하는 현실을 극적으로 재현한다. 당시 만연했던 “여성에 대한 혐오증”(misogyny, Keyssar 90)이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여성을 억압하는 인물을 “남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서도 엿볼 수 있어 충격을 더한다. 마녀로 치부되는 여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로부터 괴롭힘의 대상인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마녀의 역사적 재현은 여성 혐오를 담고 있는 마녀와 여성성의 개념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카릴 처칠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기, 1970년대 영국에서는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해 “새로운 물결”(New Wave), 또는 정치적 연극(Political Theatre)이라 불리는 작가 및 연출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카릴 처칠과 팸 젤스(Pam Gems), 루이스 페이지(Louise Page), 사라 대니얼스(Sarah Daniels) 등 여성 극작가들도 연극계에 다수 등장했다.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극을 써야 했던 처칠과 같은 여성 작가들은 여성의 실제 삶과 그동안 무대 위에 재현된 여성의 존재에 관심을 가졌다. 페미니즘 작가들은 여성들에게 부여된 “언어적, 시각적 이미지들”을 만들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하고 정당화해 왔음”(모리스 32)에 주목하고 사회가 형성한 여성이 아닌, 실제 여성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연구자의 전형이 된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는 『제2의 성』에서 여성들이 “남자들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도와주는 “타자”의 역할에 불과함에 주목한다(“모리스 33). 여성은 “그 자체로 아무런 정체성도 갖지 못하는 타자로 자주 지배집단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부여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작용한다”(모리스 33)는 것이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남자들이 여자를 타자로 여김으로써 여성성은 단지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여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다(모리스 33).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남성성은 긍정적인 자질을 나타내며, 여성성은 자연이나 아름다운 순수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악이나 타락, 마녀와 같은 부정적인 자질을 보인다는 여성에 대한 오랜 편견을 지적한다. 보부아르가 “우리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되어간다”(Beauvoir, 295)고 주장했듯이, 여성성으로 규정되었던 여성의 모습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성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고 기존의 여성성을 타파해야 함을 강조한다.

케이스(Su-Ellen Case)가 보부아르가 활동했던 시기의 급진적 페미니즘이 “젠더에만

집중한 나머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지만, 계급과 인종에 따라 형성된 여성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Dolan 9)고 지적했듯이,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도시 빈민층에 속하는 여성이나, 백인 아닌 흑인여성, 혹은 레즈비언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놓치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된지 한참이나 지난 현재 여성의 주체를 찾고 권위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한 가지의 목소리로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계급이나 인종,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여성들 내의 다양한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 이후 시작된 제3물결 페미니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성을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 관계로 생겨난 억압을 받는 하나의 계층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화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해체한다”(Dolan 10).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엘렌 식수(Helene Cixous)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되찾아야 하며, 여성의 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의 성을 드러내 놓고 표현할 것을 주장한다(이봉지 46). 식수는 먼저 여성이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면 여성의 성을 발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이 자신의 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것은 언어적 체계를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여성적 글쓰기”(L'écriture feminine, Dolan 8)를 통해 남성적 텍스트를 전복해야함을 강조한다. 아직까지는 “여성적 글쓰기”의 이론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여성성의 문제가 현대에도 중요한 화제로 등장하는 만큼 여성적 글쓰기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는 여성성의 본질 규명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식수는 남성적/여성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하고, 가부장적 권위 아래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억압되거나 무시되어 온 주제들을 담은 여성적 글쓰기를 제시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가 만들어 놓은 여성성을 해체한다. 식수가 제시하는 연극무대에 따르면, “만일 무대가 여성이라면. . .플롯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Dolan 8).

처칠은 기존의 사실주의 전통극으로는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겨 정진을 비롯한 기존의 극작가들이 다루었던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극작가라 할 수 있다. 처칠은 1970년대 동시대 작가들과는 달리 새로운 극적 형식을 차용해 여성혐오를 수용하고 이어온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가정폭력과 강간, 혹은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남성 작가들이 다룰 수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시적이면서도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면들을 결합하여(Croft, 42) 독특한 극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처칠이 “마녀를 소재로 한 역사적 재현은 실제로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낸 여성혐오증을 재현”(Case 74)한다는 데 있어서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재현하고자 하는 마녀들의 재현과 여성들의 실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조건과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개인의 경험과 갈등이 연결되어 인종, 계급, 성차에 의해 차별받아 온 여성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영역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주제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극의 특성을 창조해 계층과 경제적 힘의 위계 맥락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불평등함을 제시하고 여성혐오증을 해체한다는 면에서 『비네가 톰』은 식수가 제시한 형태의 연극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극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네가 톰』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사실주의 극의 전통을 벗어난 극적장치를 통해 사회가 여성성을 어떻게 조장해왔는지를 고찰해보고, 여성혐오

에서 벗어난 마녀의 의미를 어떻게 전복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1.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여성혐오

『비네가 톱』은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여 마녀 혐의를 받고 억압을 겪거나 희생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 처칠은 당시 가부장제도 아래 여성의 불리한 위치와 모습을 재현하는데, 여성에 대한 혐오가 “마녀”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음에 주목한다. 억압을 당하는 마녀의 삶을 통해 그들을 둘러싼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과연 마녀로 내몰려 죽임까지 당해야만 했던 마녀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처칠은 여성들의 문제를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독교가 절대적이었던 17세기에는 종교와 국가가 함께 남성중심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성성을 악마화하여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 당시에는 마녀가 악마와 결탁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다고 생각했다. 기독교가 절대적이었으므로 신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그 처벌 또한 무거웠다. 마녀 재판 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불안한 상황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 사회불안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김화선 58). 여자가 유산을 시키거나 출산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약을 먹는 것조차 당시에는 교회의 교리에 위반하는 행위로 범죄로 여겼다. 『비네가 톱』의 등장인물 수잔(Susan)은 여러 번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다. 산통과 임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지혜로운 여인”이라 불리는 엘렌(Ellen)을 찾아가지만, 산통을 없애기 위해 약 먹는 것을 죄라고 여겨 이를 거부한다. 산통으로 몸이 아픈 것도 죄악으로 여기는 수잔은 남편에게도 고통을 호소할 수 없다.

처칠에 따르면, 과거 15-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까지도 영국에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했다. 노트스테인(Wallace Notestein)은 『영국의 마녀 역사』(*The History of Witchcraft in England From 1558-1718*, 2003)에서 “주술과 마술을 사용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마의 도움을 받는 사람”(2)을 마녀라 정의 한다. 당시 사회는 성서를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남성에게 순종적이지 않은 여성을 사악한 여성 혹은 창녀라는 부도덕한 개념으로 왜곡하여 마녀 처형을 정당화했다. 극중에서 엘렌이 산통을 없애기 위해 수잔에게 약을 주고 부적을 주는 행위는 교회에 반하는 행위로 나중에 마녀로 몰리는 이유가 된다.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타자로 여겨지는 유약한 여자를 마녀로 몰아 고통을 주거나 처형을 일삼고 있음을 암시한다. 『비네가 톱』의 마을사람들은 여자이자 가난하고, 낙태를 하거나 그들의 사회규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여자를 마녀라 치부했다. 극 중 인물들이 드러내는 여성에 대한 견해는 17세기는 물론 20세기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지녔던 여성혐오의 관념이다. 극에서 마녀로 치부되는 여성은 어떤 여자인지, 노래 ”물에 뜨면“(If You Float)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넌 네 엄마이거나 자식이거나 아니면, 창녀이거나
불평하면 넌 마녀
아니면 다리를 절어도 넌 마녀
몸에 점이 있거나 다르다면 더 확실하게

젓가슴이 크다면 넌 마녀
행동이 험프다면 넌 마녀 (170)

”물에 뜨면“에서처럼,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놓은 바람직한 여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험프보이거나 몸매가 드러나고, 하물며 점이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결국 남자의 눈에 예뻐 보이지 않은 여성은 모두 마녀라는 것이다.

『비네가 톱』에는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이 많이 등장한다. 제1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자신을 “난 어둠의 남자, 악마야”(135)¹⁾라고 말하며 이름도 없이 그냥 “남자”(Man)라 소개한다. 남자는 길거리에서 엘리스와 섹스를 나누지만, 엘리스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엘리스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하지만, 냉정하고도 잔인하게 거절당한다. 당시에는 결혼 하지 않은 여성이 섹스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나는 남자 때문에 상처 받았어”(135)라고 말하는 엘리스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부터 비난 받고 박해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결국 가부장적 사회에서 엘리스가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 섹스를 한 행위는 마녀로 치부당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극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마녀로 치부되는데, 그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결혼이다. 극 중 등장인물 엘렌이 베티(Betty)에게 충고했듯이,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부자와 결혼하는 것”(169)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내를 가지는 게 남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169)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마녀로 취급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결혼이라는 것이다.

당시 사회가 억압을 가하는데 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도 한몫했다. 처칠이 『비네가 톱』에서 “마녀가 등장하지 않는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130)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가난이나 멸시, 그리고 편견, 또는 마녀로 몰린 여성들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130)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듯이, 처칠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차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난하고 늙은 노인 조안과 그녀의 딸, 빈곤하고 결혼하지 않은 엘리스의 삶처럼 여성의 불안정한 상황은 마녀라는 의심을 받기에 좋은 조건이다. 조안과 엘리스에 대한 증오심과 경멸을 담은 편견은 잭(Jack)의 태도를 통해 명백하게 재현된다.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잭은 가난한 엘리스를 사과 두 개로 유혹한다. 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잭은 엘리스에게 사과 두 개를 건네고는 섹슈얼한 관계를 요구한다. 잭은 엘리스에게 성적으로 농락하고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그녀를 마녀라 주장한다. 성적 불능과 거절에 대한 굴욕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엘리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처음에 잭은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 우리처럼 이렇게 벌을 받지는 않아. . . 저렇게 소가 몸을 떨며 냄새를 풍기고는, 또 저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건 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거지”(152)라며 자신의 탓을 했었지만, 갈수록 자신의 성적 불능의 원인도 재산이 줄어드는 재앙의 원인도 자신보다 약자인 엘리스와 조안의 탓으로 돌린다. 조안은 나이가 들고 빈곤한 여성으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조안은 밤에 밖에 나가서 즐기는 엘리스에게 혼자 있는 외로움을 토로하며 “다 늙어 버린 노인네를 누가 원하겠어”(141)라며 고령이며 과부인 여성의 사회적 인식의 잔혹함을 드러낸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아”(“Nobody Sings”)는 조안이 겪고 있는 노년층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잘 드러낸다.

1) Caryl Churchill, *Plays: One*. 이후 이 책의 본문 인용은 쪽수만을 밝히겠음.

처칠은 권위적인 남성뿐만 아니라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지배하려는 모습도 놓치지 않는다.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뿐만 아니라 계층과 인종과 같이 가시적인 이유로 드러나는 차이에 대해 차별하며 억압을 가했다. 극 중에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마저리는 남성인 잭의 능력과 경제적 자산에 따라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이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소를 키우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일도 한다. 제19장에서 조안이 처형당할 때, 마저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악마를 처벌했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한다. 마저리는 어리석게도 가난하고 하류 계급에 속한 불쌍한 여자를 죄의 굴레로 뒤집어 씌워 악마와 같은 짓을 해놓고는, 마녀를 없애는데 일조했다면서 축복받을 거라 기뻐한다. 『비네거 톱』에서 여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또 다른 인물로는 마녀 사냥꾼 패커(Packer)와 그의 보조자 구디(Goody)가 있다. 패커와 구디는 마녀로 의심되는 여자를 붙잡아 처형을 행하는 인물이다. 패커와 구디는 마녀로 의심되는 여자를 잡아 검열하고 마녀라 단정한 이후 처형을 행함으로써 상당한 이윤을 남긴다. 마녀를 사냥한 대가로 돈을 벌고, 또 나쁜 여자를 퇴치하는 지위마저 얻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인 마저리와 구디 같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형성된 위계질서에서 획득한 “특권층의 여성이 노동계층 여성을 억압”(Case 83)하는 행위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잭이 마저리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처칠은 여성을 억압하는 인물을 남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 양자 모두에 적용하고 있기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권력관계를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관계로 한정된 페미니즘을 초월하는 극작가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2. 여성성의 전복과 침묵 깨기

『비네가 톱』은 21개의 장으로 진행된다. 극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평범하지 않은 여자를 마녀로 몰아 마녀 사냥을 행하면서 불행에 빠진 여자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된다. 에피소드들은 계급, 인종, 젠더, 나이 등이 각각 다른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모순된 사회의 주제를 분산해서 보여준다. 에피소드식 극은 전통적 극 형식을 벗어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극의 형식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해체시킨다. 각각의 막은 기존의 서사의 흐름으로 구성된 극과는 달리 파편화된 독립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남자와 엘리스가 길거리에서 성교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제1장에서 마을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엘리스를 소개한다. 하지만 제1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엘리스: 너를 악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돌아와. 이름을 알려줄래?

남자: 알거 없어. 다신 오지 않을 거야. (138)

라는 대화로 갑자기 1장을 끝낸다. 남자와 엘리스가 열연한 2인극은 나중에 극 중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관계의 발전도 없이 더 이상 무대에서 볼 수 없다. 에피소드적 극은 식수가 제시한 여성글쓰기처럼 “논리나 합리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구문은 발견되지 않는다”(모리스 205). 그러나 주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 남자와 엘리스의 둘의 관계는 젠더의 차이로부터 생긴 자유의 간극으로 인해 남성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난한 젊은 여성 엘리스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극의 전반부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사회이슈가 소개된다. 성적인 불평등

과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생긴 계층, 불행 속에 놓인 삶들이 극의 후반부가 되면서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이유로 작용한다. 21개의 장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모두 11개의 다른 장소가 등장함으로써 서사의 흐름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공간도 분리되어 드러난다. 각각의 장은 극의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보여준다. 에피소드식 사건들은 플롯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뜨리면서 관객의 공감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에피소드식 극의 진행은 관객들에게 극으로부터 현실감을 상실하도록 하고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다.

『비네가 톱』에서 처칠은 여성의 목소리를 노래로 표현하여 서사의 통일성을 파괴하고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는 “교차 배역”(cross-casting)을 통해 극의 흐름을 무너뜨림으로써 남성중심적 사실주의 극 전통을 전복시킨다. 사실주의 극 전통을 벗어난 독특한 극적 장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을 겪은 여성의 현실과 침묵 당해 온 여성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복원한다. 교차 배역의 경우, 과거 아테네 극장에서 여성을 배제하고자 남성이 여성인물의 배역을 하는 것(Case 22)과는 반대로, 남성의 배역을 여성이 맡아서 공연하는데, 이는 성에 의해 정의된 여성의 사회적 개념, 즉 가부장적 사회의 편견을 강조하는 역사적 관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교차배역은 “고정된 성 이데올로기를 낫설게 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관습에서 비롯된 성차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전복시킴으로써 성 정체성에 이목을 집중시킨다”(Keyssa 3). 다양한 극적 장치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극을 벗어난 처칠의 노력은 관객들에게 사회의 모순과 부당함을 극적으로 재현하여 극의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달한다.

『비네가 톱』에서 크래머(Kramer)와 스프랭거(Sprenger)는 남자 신학 교수들이지만 여성들이 역할을 맡는다. 두 명의 신학 교수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맞추어 여성을 억압하는 인물들로, 마녀사냥을 주제로 집필한 『마녀를 잡는 망치』(*The Hammer of the Witches*)의 작가로서 “왜 마녀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지?”(176)라는 질문을 여성들에게 던진다. 그들은 “여성 혐오”에 대해 이야기 하며, 여성을 증오했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악함은 여성의 사악함보다 보잘 것 없습니다’”(177)라는 크래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최악의 사악함은 여성들에게서 비롯된다는 신학교수들의 주장에는 여성혐오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 신학 교수들의 역할을 여성이 맡아 연기함으로써 여성의 본질에 대해서 부조리하게 만들어진 개념을 극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신학 교수들의 역할에 대한 교차배역은 특히나 과거 전통적인 관념, 여성혐오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웃으며 전복시킨다.

이어지는 노래는 현대 의상을 입고 부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처칠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여성과 남성을 교차시키며, 관객들에게 등장인물들로부터 거리를 뒀으로써 여성혐오의 개념을 뒤엎는다. 크래머와 스프랭거의 대화 이후에 부르는 “사악한 여자들”(“Evil women”)도 마녀가 대부분 여자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방해한다. 역사적인 서사의 결말에서 두 명의 배우들, 극에서는 17세기에 마녀로 몰린 여성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곧이어 에드워드 시대의 뮤지컬에 노래 부르는 배우들이 다시 나타난 노래를 부른다. “사악한 여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노래로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사악한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 중 “물위에 뜨면”(“If You Float”)은 특히 마녀 사냥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여자는 모두 마녀이며, 마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여자는 억압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위에 뜨면”은 여성의 부조리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물위에 뜨면 마녀야. . . 물에서 가라앉으면 죽는 거지”(170). 노래는 가부장 제도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과거 17세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배우는 반드시 동시대 의상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다(133). 동시대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배우들은 관객에게 거리를 두어 공감과 몰입을 방해한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극적인 순간을 인식함으로써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III

처칠은 『비네가 톱』에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여성혐오를 바탕으로 마녀로 치부되어 억압을 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재현한다. 극중에서 마녀로 치부되는 여성들로는 산파이면서, 정신과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지혜로운 여인” 엘렌과 늙고 가난한 조안, 그리고 그녀의 딸, 미혼모 조안과 그녀의 친구 수잔이 있다. 엘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남성의 영역으로 구분된 의사의 위치를 위협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반하는 죄로서 주술을 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려 처형당하게 된다. 조안은 나이가 들고 가난하기에 사회에서 불필요하며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기에 엘렌과 함께 처형당한다. “물에 뜨면”에서처럼,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놓은 바람직한 여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해피보이거나 몸매가 드러나고, 하물며 점이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결국 남자의 눈에 예뻐 보이지 않은 여성은 모두 마녀이다. 따라서 관객은 여성을 마녀로 치부하는 당대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처칠은 여성을 억압하는 인물을 남성인물뿐만 아니라 마저리와 구디를 구현함으로써 남성적/여성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해체한다.

네 명의 여성과 같이 마녀에 대한 개념을 타파하기 위해 처칠은 전통적인 극의 형식을 벗어난 독특한 극적장치를 이용했다. 에피소드적 극적 장치는 서사의 흐름을 깨뜨리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뒤엎는 힘을 지닌다. 21개의 장들 사이의 7개의 노래는 현대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부르는데, 이것도 관객들로 하여금 극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재현된 여성성의 개념을 해체한다. 마녀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크래머와 스크랭거는 남성 신학교수들이지만 여성이 배역을 연기해낸다.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는 교차배역은 신학교수들의 이야기를 해체해 여성성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힘을 발휘한다. 처칠은 남성적/여성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초월하여 여성혐오증이 빚어낸 여성성의 개념을 전복시킴으로써 새로운 여성의 의미를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Case, Su-Ellen. *Feminism and Theatre*. Routledge, 1988.
 Caryl Churchill, *Plays: One*. Methuen, 1985.
 Dolan, Jill. *The Feminist Spectator as Critic*. U of Michigan P, 1988.
 Keyssar, Helene. *Feminist Theatre*. Macmillan Education. 1985.
 모리스, 팸. 강지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 : 세대 간의 갈등과 젊은 세대의 희생의 의미

채수경
(강릉원주대)

I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1594-1595)은 청춘 남녀의 사랑과 비극적 운명이라는 드라마틱한 플롯 덕분에 이 희곡이 연극무대에서 공연된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되어 왔다. 이들 장르 중에서 특히 영화로 제작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읽기 어려운 원작보다도 더 일반대중에게 셰익스피어의 예술성을 알리는데 공헌했다. 현재까지 제작된 셰익스피어 각색영화 중 예술적인 면에서나 흥행 면에서 성공을 거둔 영화의 하나는 프랑코 제피렐리(Franco Zeffirelli)의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이다.²⁾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스토리 라인에 있어서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각색 영화로 알려졌다. 제피렐리는 각색영화 제작에 대해 “연출가에게는 원작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출한 작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원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Zeffirelli 439)라고 생각했다. 셰익스피어 원작의 주요 플롯은 캐플릿(Capulet)가와 몬태규(Montague)가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의 반목으로 인해 사랑에 빠진 두 집안의 청춘남녀가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피렐리는 비록 원작의 상당수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원작의 핵심적인 주제를 포인트로 삼아 자신의 각색영화에 충실하게 담아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대간의 갈등과 청춘남녀의 비극적 사랑과 그 희생이다.

제피렐리는 바로 이 핵심적인 주제를 그의 각색영화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해 낸다. 그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자신만의 예술적 기교로써 원작에 독특한 영상미와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주요 주제인 세대 간의 갈등과 청춘 남녀의 비극적 사랑과 그들의 희생의 의미를 제피렐리가 어떻게 영화적 언어로 변용·각색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원작이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 것처럼 제피렐리의 영화도 1960년대 미국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제피렐리는 이 영화가 제작된 60년대의 미국 젊은이들의 정서를 그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60년대의 미국은 냉전시대이며 흑백갈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폭동,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등장과 암살 등의 폭력과 갈등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록 음악, 히피문화 등으로 나타난 대항문화가 유행했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관습 등을 거부하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을 벌이며 구세대에 저항하였다. 더스틴 호프만(Dustin Hoffman)이 기성세대를 거부하는 반항아로 열연하여 성

2)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개봉된 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작품성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1969년 제 41회 아카데미상에서 촬영상과 디자인상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다른 영화제에서도 총 13회 수상했고, 1969년 골든 글로브 상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공을 거두었던 청년영화 〈졸업〉(The Graduate, 1967)이 제작되었던 것도 이 시기였다.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반발양상이 부각되었던 60년대라고 하는 미국의 시대적 경향은 이 영화를 성공으로 이끈 요소 중의 하나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개인적 사랑이 베로나라는 사회, 특히 몬태규 가와 캐폴릿 가로 대변되는 구세대에 깊이 뿌리박힌 반목과 원한에 의해 좌절당하고 희생되는 스토리는 미국뿐 아니라 유사한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제피렐리의 영화를 비교 연구한 카트멜(Deborah Cartmell)도 제피렐리가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갭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평한다(218).

이러한 60년대의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제피렐리의 영화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대조를 강조한 것은 다른 버전의 영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제피렐리의 각색영화에서만 특징이다. 영화는 구세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오프닝 신에서 몬태규 가와 캐폴릿 가의 하인들에서 시작된 싸움은 티볼트(Tybolt)와 벤볼리오(Benvolio)의 싸움으로, 결국에는 두 집안 전체의 싸움으로 변진다. 베로나를 폭력의 장으로 만드는 두 집안의 대립은 먼저 의상의 색깔로 상징된다. 캐폴릿 가는 빨간 색으로 몬태규 가는 파란색으로 상징되어 서로 대비되는 색깔에 의해 영화는 두 집안의 분쟁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카메라는 두 집안의 싸움 장면을 점점 템포가 빠르게 보여주다 하이 앵글 룡 샷으로 전체 장면을 비추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칼날이 번득이고 상처가 생긴 광경을 클로즈업으로 비추고, 시장의 채소가 망가지고 아기를 안은 아낙네가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된 한낮의 광장장면을 하이 앵글로 잡는다. 이 싸움은 베로나의 영주가 나타나서야 중단된다. 이처럼 카메라는 시작부터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두 가문의 불화로 인해 베로나 전체가 위협받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당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어진 장면에서 영화는 폭력적인 오프닝 시퀀스와는 대조적으로 신세대를 대표하는 로미오를 등장시킨다. 카메라는 룡 샷으로 꽃 한 송이를 들고 평화롭게 돌담길을 걷고 있는 로미오를 비춘다. 이 모습은 60년대 당시 꽃을 들고 반전운동을 펼치던 젊은 세대인 플라워차일드(Flower Child)를 모방한 것으로 로미오가 60년대 미국의 젊은 세대를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메라는 바로 이어서 두 집안의 싸움으로 인해 부상당한 시민들이 몬태규 집안사람인 로미오를 보자 원망스런 눈길을 돌리는 장면을 잡는다. 원작과는 달리 로미오는 실연 때문이 아니라 두 집안의 원한과 폭력을 피해 홀로 고독 속으로 침잠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는 베로나가 사랑보다는 증오가 가득한 곳이라며 꽃을 버리고 골목길을 내려간다. 로미오는 폭력을 일삼는 구세대와는 대조적으로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제피렐리는 원작에서 로미오가 로잘린(Rosaline)이란 여성을 연모하여 힘들어하다가 줄리엣을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변덕스런 모습,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자살하기 위해서 약제사를 찾아가 불법으로 독약을 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묘지 장면에서 패리스(Paris)를 죽이는 장면을 삭제한다. 반면 로미오가 자신이 죽인 티볼트의 시체에 정중하게 용서를 비는 대사는 그대로 둔다. 제피렐리는 로미오라는 주인공을 낭만적이고 순수하며 깨끗한 이미지의 젊은 세대로 그려낸다.

줄리엣의 첫 등장 또한 앳되고 순수한 모습으로 연출된다. 카메라는 유모와 장난치는 줄리엣을 룡 샷으로 잡은 후 어머니의 부름에 대답하는 장면을 건물 밑에서부터 트레킹으로 잡고 올라와 창문에 프레임된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제피렐리는 그녀를 순진한 소녀로 연출하기 위해 원작에서의 성적인 호기심과 대담성을 나타내는 대사나 로미오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패리스와 결혼하라고 하는 유모에게 “천벌 받을 노파! 사악한 악마”(3.5.235)라고 저주를 퍼붓는 대사 등을 삭제한다. 그러나 발코니 장면에서와 로미오와의 첫날 밤 장면에서 줄리엣은 땀났던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과감한 노출 의상을 입고 나오으로써 청순함과 성적 매력을 지닌 이미지를 자아내기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의 희곡 중 외설적인 농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으로 꼽힌다 (Wells 81). 그러나 제피렐리는 젊은이들의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삭제한다.

이 영화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비가 가장 확실하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이미지화 된 것은 캐플릿 가의 연회장면이다. 제피렐리는 자신의 영화에서 특히 청춘과 노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비를 통해 청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찬양하고 있다. 원작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기성세대의 폭력과 편협함에 의해서이다. 제피렐리는 기성세대의 어두운 이미지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대변되는 신세대의 순수함과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을 대조시킨다. 실제로 제피렐리는 신세대의 젊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원작의 줄리엣의 나이가 14세인 것에 맞춰 비슷한 나이의 배우들을 캐스팅했다. 제피렐리는 이미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 아니라 16세의 레오나드 화이트링(Leonard Whiting)과 15세의 올리비아 허시(Olivia Hussey)를 각각 로미오와 줄리엣에 캐스팅하는 모험을 했다. 그 파격적인 선택은 10대의 주인공들의 청춘의 열정과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를 대성공으로 이끌었고 제피렐리를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들어주었다.

원작에서처럼 로미오가 운명의 대상인 줄리엣을 처음 보는 곳도 바로 이 연회장이다. 이곳에서 로미오는 한 여자를 바라보다가 그 여자 뒤에 등장한 줄리엣을 보고 첫 눈에 반한다. 카메라는 로미오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그가 사랑에 빠졌음을 확인해 준다. 곧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레오나드(Leonard)라는 가수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 한가운데 서서 ‘청춘이란 무엇인가?(What Is a Youth?)’를 부르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 장면은 가수가 감미롭고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청춘의 덧없음과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노래할 때 상대에게 반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를 애타게 갈구하는 장면으로, 시청각적인 영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명장면이다. 가수의 노래는 청춘이란 얼마나 빨리 시들며 얼마나 빨리 죽음이 찾아오는 지에 대한 애절함을 담고 있어서 젊을 때 사랑하고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 노래는 큐피드의 지배하에 놓인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춘의 특권임을 강조하며 청춘을 찬양한다.

카메라는 가수의 노래를 향수에 젖은 표정으로 듣고 있는 나이든 사람들을 비춘다. 가수 장면은 원작 2막의 첫 부분에 나오는 코러스를 변용시킨 제피렐리의 버전이다(재인용 이해경 301).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 뒤에서 십대의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만 의식한다. 갓 피어난 장미 꽃 같은 싱그러운 로미오와 줄리엣은 젊음도 열정도 시들고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살며시 내려앉은 구세대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 장면은 관객에게 눈부신 젊음을 지닌 두 청춘남녀를 부각시키고 영화 후반부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더 애처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외에도 젊은 세대를 나타내는 인물로 티볼트(Tybalt)와 머큐쇼(Mercutio)가 있다. 원작에서 티볼트는 몬태규 집안을 극도로 증오하며 적개심을 품고 있는 잔인한 인물로 묘사된다. 제피렐리의 영화에서는 그의 잔인함은 감춰지고 싸움을 즐기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연출된다.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티볼트가 머큐쇼를 칼로 찌르는 것은 로미오가 갑자기 싸움에 끼어들어서 실수로 죽이게 된 것처럼 묘사된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사람을 죽인 것은 실수일 뿐 폭력적이고 잔인해서가 아님을 보여주는 감독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머큐쇼 역시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처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가 기성세대의 한 사람인 유모의 치마를 들치고 희롱하는 장면은 그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제피렐리는 원작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의 이미지를 원작보다 좋게 보이도록 신경 써서 연출하고 있다.

영화는 계속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지닌 젊은 세대와 대조시켜 기성세대를 책임감 없고 비

굴한 인물들로 이미지화시킨다. 오프닝 신에서 하인들의 싸움이 두 집안의 싸움으로 번지자 캐플릿은 칼을 들고 몬태규를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다 최고 권력자인 영주가 나타나자 즉시 굴복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줄리엣에게 패리스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캐플릿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가부장적인 인물로 재현된다. 로미오와 첫날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줄리엣은 캐플릿 부인으로부터 패리스와의 결혼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격렬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줄리엣이 이 결혼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캐플릿이 격노해서 그녀를 패대기치는 장면은 그가 가부장제의 억압과 폭력을 보여주는 기성세대의 대표 격인 인물임을 나타낸다. 캐플릿 부인 역시 줄리엣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나도 네 나이 때 이미 엄마가 되었어”(1.3.71-3)라면서 자신의 관습적 행동을 딸에게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장면 역시 전통적 가치와 관습에 젖어있는 기성세대를 비난하는 연출로 볼 수 있다.

영화는 또한 캐플릿 부부를 통해 기성세대의 사랑과 젊은 세대의 사랑을 대조시킨다. 패리스가 줄리엣에게 청혼하러 왔을 때 “더 젊은 나이에 행복한 어머니가 된 여자도 있어요”(1.2.12)라고 말한다. 그 직후 카메라는 캐플릿 부인을 줌인 하여 이미 노화에 접어든 얼굴을 비춘다. 그러자 캐플릿은 “너무 일찍 시집을 가면 쉽게 시들기 마련이요”(1.2.13)라고 말한다. 캐플릿의 대사는 이들 부부의 사랑이 이미 식었고 부부사이가 좋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 장면은 구세대의 메마르고 시든 사랑과는 다른 로미오와 줄리엣의 풋풋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영화는 신세대 편을 들어서 젊은이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기성세대의 완고함과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좌절당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연출해냄으로써 관객 역시 젊은 세대에 마음이 기울게 만든다. 줄리엣이 패리스와의 결혼을 거부한 후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유모조차도 변심하여 로미오를 폄하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녀가 보이는 표정연기는 탁월하다. 기성세대의 속물근성에 충격 받은 줄리엣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화면을 가득 채울 때 관객은 그녀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상황에 따라 번덕스럽고 쉽게 배신하는 구세대에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성세대에 대한 질타는 로렌스 신부(Friar Laurence)에 대한 제피렐리의 연출에서 정점을 이룬다. 로렌스 신부가 결혼식을 재촉하는 로미오에게 “지혜롭게 천천히. 너무 서두르면 실수한다”(2.3.94)라고 타이르자마자 자신이 발을 헛디더 넘어질 뻔 하는 장면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조롱한다. 원작에서 셰익스피어는 로렌스 신부를 책임감 있는 인물로 설정한다. 원작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계획이 실패한 후 로렌스가 줄리엣에게 “당신을 수녀원에 맡겨 수녀들과 함께 지내도록 해 주겠소”(5.3.56-7)라고 말한다. 또한 원작의 라스트 신에서 그는 두 남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에 대해 자신이 처벌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제피렐리의 로렌스 신부는 처음에는 로미오의 진정한 멘토 역할을 하지만 종국에는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영화의 주제에 맞춰 비겁한 인물로 그려진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권하지만 줄리엣이 말을 듣지 않자 로렌스 신부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구나”(5.3.159)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달아나 버린다. 이처럼 제피렐리는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로렌스 신부마저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인물로 연출하고 있다.

영화는 심지어 패리스와의 결혼을 모면하고자 줄리엣이 약을 마시고 거짓죽음 후 다시 깨어나면 로미오에게 그녀를 데려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장면에서도 로렌스 신부를 상황판단이 부족한 인물로 그린다. 원작은 편지 전달을 맡은 존(John) 수사가 가는 도중에 역병에 걸린 집 안에 갇혀서 아예 로미오에게 편지를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운명적인 힘의 작용을 강조한다. 반면 영화에서는 신부의 편지를 전달하는 수사가 느린 노새를 타고 가기 때문에 빠른 말을 타고 달리는 로미오의 하인에게 뒤처지는 상황이 설정된다. 로렌스 신부가 심부름 맡은 수사에게 빠른 말을 타고 가라든지 서두르라고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어긋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또한 기성세대의 둔하고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여준다.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라스트 신에서도 구세대와 젊은 세대를 대조시킨다. 원작의 5막 3장에서는 캐폴릿이 “오 몬태규 형님, 형님 손을 내게 주오”(5.3.295)라면서 몬태규와 손을 잡고 나누는 대사를 통해 두 가문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캐폴릿과 몬태규, 레이디 캐폴릿과 레이디 몬태규는 서로를 바라만 볼 뿐 손을 잡지는 않는다. 영화에서 두 가문의 화해는 두 집안의 젊은 하인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이 장면은 결국 두 집안의 해묵은 원한과 증오를 버리고 진정한 화해를 하는 것도 젊은 세대가 주도할 것이며 젊은 세대가 더 열려 있음을 암시한다. 영주가 “당신들의 미움에 어떤 천벌이 내렸는지 보라”(5.3.292)고 말함으로써 로미오와 줄리엣, 티볼트와 머큐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희생에 대해 기성세대를 비난할 때 그들의 희생의 의미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즉 젊은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두 집안의 해묵은 원한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캐폴릿가의 연회장에서 가수가 부른 “죽음이 곧 우리를 침묵케 하리라, 꿀보다 달콤하고 쓸개즙보다 쓴”이란 노래가사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그들의 불꽃같은 사랑은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장례식 의상으로 변해버린 결혼식 의상을 입은 두 청춘남녀의 죽음은 폭력적이고 혼란스럽던 베로나 사회에 질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오프닝 신에서 서로 대조되는 색깔의 옷을 입은 것과 달리, 모두가 검은 상복을 입고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라스트 신은 이 영화의 비극적 결말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베로나에 평화와 질서가 찾아올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로써 영화는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춰 르네상스의 젊은이들을 연출함으로써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청춘이란 기성세대의 잘못에 반발하고 저항할 수 있으며, 순수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고, 도덕적으로 우세하며 편협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세대이다. 그런 점에서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젊은 세대를 위한 영화이며 시대정신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제작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각색영화로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제피렐리가 원작의 기본 플롯에 충실하면서도 세대 간의 갈등과 젊은 세대의 희생을 통한 화해라고 하는 보편적 주제를 자신만의 시청각적 이미지로 탁월하게 영상화한 덕분일 것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영화에서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음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근간을 이루는 미학적 핵심이며 영화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라 할 것이다.

제피렐리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교육·지적 수준이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정말로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다”(재인용 헵굿 96)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각색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분명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작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호화스럽고 풍부한 색채의 미장센이 돋보이는 그의 영화를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알게 되고 어렵게만 여겼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인 제피렐리가 언어와 문화, 시대적 배경, 세대 차이를 뛰어 넘어 영국 거장의 희곡을 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은 그의 뛰어난 영화적 기법과 감각 덕분이다. 각색영화와 원작과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며 시너지효과를 주기 때문에 제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고전에 익숙하지 못한 현대 관객들에게 고전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재미까지 함께 선사하고 있다.

Works Cited

- 셰익스피어, 윌리엄. 『로미오와 줄리엣』. 이덕수 옮김. 서울: 형설출판사, 1990.
- 이혜경. 『셰익스피어 극의 각색과 변용 I』. 서울: 동인, 2011.
- 합굿, 로버트. “셰익스피어를 대중 속으로!: 프랑코 쟈피렐리의 예술적 기교.” 『셰익스피어와 영상문화: 셰익스피어를 대중 속으로: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비디오』. 린다 부스, 리처드 버튼 엮음. 장원재 역. 서울: 연극과 인간, 2002. 96-143.
- Bloom, Harold. *Shakespeare: The Invention of the Human*. London: Fourth Estate, 1999 Print.
- Cartmell, Deborah. "Franco Zeffirelli and Shakespeare."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 on Film*. Ed Russell Jackson. NY: Cambridge Univ. Press, 2000. 216-225. Print.
- Wells, Stanley. *Shakespeare: The Poet & His Plays*. London: Methuen, 1997. Print.
- Zeffirelli, Franco. "Staging Shakespeare." *Directors on Directing*. Eds. Toby Cole and Helen Chinoy. New York: Bobbs-Merrill. 437-40. Print.

영미드라마의 도발: 유튜브 연극 리뷰 채널,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Project D: 이보영, 이동호, 박정은, 김시선, 강혜윤
(강원대)

1. 서론

우리는 전공으로 '드라마'라는 장르를 배운다. 영어영문학과에서 드라마를 읽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드라마는 공연을 전제로 하고 쓰인 문학이다. 따라서, 드라마를 읽는 것은 최종적으로 연극을 보는 것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영어영문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연극에 관심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Project D는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3명 중 연극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39명(90.7%)이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연극을 본 사람은 21명(48.8%)이었다. 먼저 입학 후 연극 관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20.9%) 접근성이 떨어진다고(55.8%) 응답했다. 또한 연극 관람 비용의 인식을 묻는 항목을 통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도 알 수 있었다. 반면, 입학 후 연극 관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서 보이는 연기의 생동감'을 선호했다. 그리고 연극 관람 전 연극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골고루 분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응답 없음' 항목이 16명(37.2%)으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분류한 두 집단(대학 입학 후 연극 관람 경험의 유무)의 공통점은 '연극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활동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연극의 대중화'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했다. 유튜브는 21세기 미디어 중심 사회의 특징 즉, 누구에게나 진입장벽이 낮아 접근성이 높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의 목표와 적합하다.

우리는 'Project D'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영상은 연극 관람 후 그에 대한 Review(약 10분)와 그 주제에 대한 Post-discussion(약 15분)으로 구성된다. 연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크리에이터 작업을 통해 인문학을 '수동적이고 탈 맥락화된 활동'에서 '생산적 활로'로 몰고갈 트는 두 번째 활동 목적을 가진다. 또한, 영상에서 해당 연극의 주제는 현재 사회적 이슈와 상관있다는 것을 거론함으로써 세 번째 활동 목적을 가진다. 이제 이제 세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현시점인 9월까지 나아간 활동 과정과 성과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2. 본론

우선 연극 관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했다. 이는 강원대학교 메이저 러너 프로젝트 동아리와 (학과 주도형) 창업 동아리로 나오는 지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메이저 러너는 학과 프로젝트 동아리로써 전공 공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지원받는 프로그램이고 (학과 주도형) 창업 동아리는 학과의 특색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원금 이외에도 영상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이에 우리는 교육혁신원에서 주관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특강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되기'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연극을 선정할 때 우리의 세 번째 목적인 ‘사회적 민주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제들로 정했다. 또한 KOPIS(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기준으로 가장 인기순위가 높은 연극들을 관람함으로써 연극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연극 관람 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제들을 선정했다. 총 6개의 주제가 나왔고 ‘여성, 사회적 소수자, 안락사, 주거, 경쟁, 대중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여성’에 관한 연극 <인형의 집 Part 2>, <콘센트 동의>, <말팔랑이 길들이기>를 선정했다. <인형의 집 Part 2>를 통해 기존 헨리크 요한 입센 <인형의 집> 시기에 있었던 여성 문제와 그리고 현대 여성에 대한 문제를 비교해 보았다. 게다가 셰익스피어의 <말팔랑이 길들이기>를 통해 당시 여성을 억압했던 분위기나 여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대의 여성 문제를 연결해보았다. 그리고 현재에 처해 있는 여성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콘센트-동의>를 선정했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극은 <레라미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연극은 항상 어느 시대나 사회적 소수로 취급받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더 나아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무의식적인 혐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안락사’에 관한 연극은 <킬미나우>를 선정했다. 과연 안락사를 인간의 자유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연극이었다. 또한 안락사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기에 더욱 우리 영상의 주제와 알맞은 연극이었다.

넷째, ‘주거’에 대한 연극은 <포스트 아파트>를 선정했다. 20~30대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주거이다. 현대인들은 과학의 발달과 산업혁명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주’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과연 시간만이 ‘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룬 연극으로 <포스트 아파트>를 정했다. 또한 이 연극은 무대 연출 및 연극 관람 방법을 혁신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 흥미로웠다.

다섯째, ‘경쟁’에 관한 연극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선택했다. 이 작품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주제가 다양한 부조리극이다. 대학생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연극의 주제를 ‘경쟁’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대학 입학 전까지 과도한 입시경쟁과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능력이지만 주입식 교육은 이성의 능력을 극대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성과 관련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졌고 OECD 회원국 중 한국 자살률은 1위로(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2018) 자살, 우울증이 사회에 만연해있다. 또한 이 연극은 이성을 몰입시키기 위해 경쟁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성’에 대한 연극은 <R&J>와 <어나더 컨트리>를 택했다. 이 작품들은 KOPIS에서 1,2위를 차지했고(2019.06.26~2019.07.03 전국 기준) 연극의 트렌드를 살펴보기에 적합했다. 이를 통해 인기 순위의 기준에 의문을 가졌고 정보와 리뷰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연극 관람 후 Review 영상 제작 시, 내용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다. 서론은 연극 관람에 대한 정보(연극 상연 기간, 할인정보)를 제공하고 본론은 그 작품에 대한 소개(배경, 줄거리)를 한 후 결론에 그 연극의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연극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이 영상 감상 후 직접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극의 내용뿐만 아니라, 연극 관람에 대한 정보 또한 서론에 제공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

까지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전 설문지와는 차이점은 Project D 채널의 영상 중 <레라미 프로젝트>를 관람한 후, 설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세부 질문까지 총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영상의 내용 이해가 수월했냐는 질문에 91.3%의 학생이 ‘그렇다’를 답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연극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했기 때문(65.2%)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은 상연 정보, 시각적 정보가 충분했기 때문(13%)이라고 답했다. 반면, ‘아니오’를 응답한 학생들은(8.7%) 연극에 대한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기 때문(100%)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연극 두 번째로, 영상에 소개된 연극을 직접 관람하길 원하는지 질문했고 이에 82.6%의 학생이 ‘그렇다’를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무대와 공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43.5%)이고 그다음은 사회 이슈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26.1%)이라고 답했다. ‘아니오’를 응답한 학생들은(17.4%) 연극 내용에 흥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75%)이라는 이유와 영상의 내용만으로 충분하다(25%)는 이유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세 번째, 이 채널을 통해 연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냐는 질문에 78.3%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응답했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를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장르(영화, 뮤지컬, 오페라 등)와 다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아니오’를 응답한 학생들은(21.7%) 연극 콘텐츠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타 장르와 다른 매력을 못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네 번째, 영상을 통해 연극 관련 정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며 26.1%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21.7%의 학생이 ‘보통이다’를 응답했다. 다섯 번째로, 영상의 보완점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상 편집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여섯 번째, 연극 관람 전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느냐는 질문에 60.9%가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 17.4% 학생이 극단 홈페이지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Project D 채널과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여부를 묻자 73.9%의 학생이 둘을 포함해서 댓글까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위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 세 가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먼저 2번과 3번 질문의 응답을 통해 첫 번째 목표인 연극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 연극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1번과 4번 질문의 응답을 통해 두 번째 목표인 인문학의 생산적 활로를 촉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고 인문대학 학생들은 수동적이라는 편견과 달리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효과적인 정보 전달에 성공했다. 마지막 목표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민주주의식 고취는 7번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직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댓글 수가 증가하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댓글까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채널이 활발해지면 댓글의 순기능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민주주의식을 자극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Project D는 유튜브 연극 리뷰 채널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연극의 대중화를 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생산적 활로를 촉발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 민주주의식 고양을 목표로 했다. 초반에 활동을 준비할 때 연극 관람과 영상 제작에 대한 경제적 능력과 제작 지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원하는 메이저 러너 프로젝트 동아리와 (학과주도형) 창업 동아리, 그리고 교육혁신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특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연극의 대중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사회적 민주주의식과 관련된 연극 주제

를 선정하고 이를 연극 인기순위(KOPIS)와 비교하여 ‘여성, 사회적 소수자, 안락사, 주거, 경쟁, 대중성’을 기준으로 대중에게 알맞은 주제들을 선정했다. 현대인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 설문지를 통해 영상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연극의 정보와 인문학도의 관점에서 진행된 리뷰가 시청자들에게 연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람에 대한 장벽을 허물게 해주었다. 이는 우리의 목표였던 연극의 대중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했던 것은 학교의 경제적인 지원 덕분이다. 연극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적 전공 지식이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이 절대적인 요건이었다. 따라서 인문대학 학생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생산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쌍방향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활동을 지속해 갈 수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참고해 보완한다면 연극의 대중화와 인문학의 생산적 활동 증가, 사회적 민주의식 고양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Project D의 연극, 인문학,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는 위의 소개된 과정들을 통해 현시대의 정보산업 기술과 인문학 지식이 결합한 창작 프로젝트이다. 우리의 도발이 인문학의 미래에 새로운 지표가 되길 바란다.

『피그말리온』 : 사회언어학적 고찰

엄태용
(한림대)

I. 서론

조지 버너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피그말리온』(*Pygmalion*, 1912)은 60여 편에 달하는 그의 희곡들 중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데에는 상업적인 의도가 있었다. 영화와 뮤지컬의 제작자들이 주인공 헨리 히긴스(Henry Higgins) 교수와 꽃 파는 소녀 일라이자 둘리틀(Eliza Doolittle)의 관계를 점진적인 로맨스로 운색하고 관객들에게 해피엔딩을 암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의 『피그말리온』은 언어와 계급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예시하고 교육을 통한 언어적 격차의 해소와 사회적 평등의 지향을 제시하는 희극적인 교훈극이다. 쇼는 극의 주제에 대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1916년에 간행된 초판본의 본문과 후일담(sequel)의 일부를 수정하고 영화 시나리오에서 추가된 장면들을 포함하여 1939년에 『피그말리온』의 최종본을 완성한다(McGovern 9-10). 이 최종본이 1941년에 펭귄출판사(Penguin Books)에서 표준판본(Standard Edition)으로 출판된다(McGovern 10). 쇼는 『피그말리온』의 초판본부터 표준판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히긴스와 일라이자의 신데렐라(Cinderella) 스토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Holroyd 439-40). 『피그말리온』의 희곡 본문과 서문(preface) 및 후일담을 포함한 파라텍스트(paratext)까지 관찰한다면 극의 주제가 언어, 교육, 계급, 사회경제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극은 에릭 벤틀리(Eric Bentley)도 언급했듯이 “음악적인 말과 재치 넘치는 말이 끊임없이 흐르는”(with a constant flow of verbal music and more than verbal wit. 148) 언어의 향연장이다. 쇼를 폄하하는 보수적인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조차 “『피그말리온』은 잉글랜드의 계급체계에서 언어가 갖는 역할에 대한 쇼의 관심을 실증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Pygmalion had received considerable scholarly attention because it demonstrates Shaw's interest in the role of language in the English class system. Abla 80 재인용)고 평한 바 있다. 따라서 쇼의 『피그말리온』을 언어, 계급, 사회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평적 태도는 타당하며, 다양한 언어현상과 계급 및 사회적 현실의 관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국내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중 『피그말리온』의 언어, 교육, 계급, 상징적 질서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일부 있지만 배우의 입을 통해 발화하게 되는 구체적인 언어현상들과 계급 및 사회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해외 학계의 경우 『피그말리온』의 대사에 나타난 구체적인 발음과 언어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계급, 사회구조, 약호와 상징, 문화 등에 적용하여 분석한 사례가 국내 학계보다 더 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의 많은 대사들의 다양한 언어현상을 대표적인 언어학이론들에 비추어 관찰하려는, 이를 통해 언어, 계급, 사회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우선 언어학 선구자들의 이론에 비추어 『피그말리온』의 대사에 담긴 다양한 기호들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와 고찰을 통해 쇼의 『피그말리온』이 언어는 경제 못지않은 중요한 계급적 지표임을 제시하고 언어, 계급,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조명하려고 한 리얼리즘 드라마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언어학적 고찰

1. 소쉬르의 이론과 기호학적인 고찰

구조주의언어학의 창시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문자언어가 아닌 일상에서 발화되는 음성언어를 언어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언어를 하나의 기호체계(system of signs)로 간주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말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공통된 규약체제이므로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발화행위나 “구체적인 음성적 현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음운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진우 144).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를 보면 언어적 현상은 음절로 인식되는 “청각적 인상”(acoustical impressions)과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소리”(sounds)의 연관으로 나타나고, 이때의 말소리는 “생각”(idea)과 결합되어 “복잡한 생리적-심리적 단위”(complex physiological-psychological unit)를 형성하며, 이렇게 생성되는 “언어행위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둘 다 보유하는”(Speech has both an individual and a social side.) 것이다(8). 소쉬르는 전체적인 언어행위로서의 “랑가쥐”(human speech [langage])와 개인적인 말하기[발화]인 “빠롤”(speaking [parole])과 이 빠롤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관행이자 약속으로서의 “랑그”(language [langue])를 구별한다(9, 13). 빠롤의 대상이자 랑그의 구성요소인 언어적 기호(sign)는 개념과 소리이미지를 우리의 두뇌 속에서 “연상적 유대”(associative bond)에 의해 결합시킨다(Saussure 66). 소쉬르는 기호의 개념을 “의의”(signified, signifié)로, 소리이미지를 “기표”(signifier, signifiant)로 지칭한다(67).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자의적”(arbitrary, 67)이지만, 그 결합에 어떤 필연적인 동기가 없고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힘이 없다는 점에서 기호는 사회적 협약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소쉬르의 언어학이론은 무대에서 배우들의 연기로 발화되는 희곡의 언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쇼의 『피그말리온』에서 맨 처음 호칭되는 이름은 “Freddy”(9)이다. 프레디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부를 때는 “Freddy”이지만 히긴스 부인(Mrs Higgins)의 손님맞이날에 초대되어 등장할 때는 “Mr Eynsford Hill”(57)로 소개된다. 프레디의 아인스포드 힐(Eynsford Hill) 가족이 경제적으로 몰락했어도 신분제의 잔재가 여전히 상당한 위력을 떨치던 시대에 프레디를 “신사”(gentleman, 11, 109)로 부르고 “Frederik Eynsford Hill, Esquire”(118)로 일컫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기호 “Freddy”, “Mr Eynsford Hill”, “Frederik Eynsford Hill, Esquire”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뿐 그것의 기표와 기의는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호와 대상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람을 인간적 관계나 대화의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른 기호로 호칭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차별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제3막에서 아인스포드 힐 부인은 이미 안면이 있는 히긴스 부인에게 “How do you do?”(56)라고 인사한다. 그리고 처음 소개받은 히긴스 교수에게도 “How do you do?”(56)라고 인사한다. 첫 번째는 예의상 간단히 안부를 묻는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인 “처음 뵙겠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기표가 청자의 처지에 따라 달라진 기의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늦게 도착한 프레디는 히긴스 부인, 피커링, 히긴스에게 세 번 모두 ‘How do you do?’ 대신 “Ahdedo?”(57)라고 발음함으로써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잉글랜드문화 관찰하기』(*Watching the English*)의 저자 케이트 폭스(Kate Fox)는 잉글랜드 사회의 하류층과 상류층을 언어적 특징에 따라 구별하면서 ‘half past ten’을 종종 하류층 사람들은 “ah pass ten”으로, 상류층 사람들은 “hpstn”으로 발음하고, ‘handkerchief’을 하류층은 “ankercheef”으로, 상류층은 “hnrchf”으로

발음한다고 지적한다(102). 하류층 사람들은 주로 자음을, 특히 두음 [h]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두드러지며, 상류층은 입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자 과도하게 모음을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상류층은 “plastic” 같은 낱말에서는 오히려 모음 [a]를 기식음 [h]를 붙여 [aah]로 길게 늘어 발음한다고도 한다(Fox 102). 폭스는 하류층의 화법이 저학력 화자의 말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상류층의 화법이 고학력자의 화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도 진술한다(103). 예의 “Ahdedo?”는 경제적 하류층이자 저학력자인 프레디가 상류층의 언어적 습관을 흉내 내려다가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쉬르는 기표를 문자이미지가 아닌 청각적 인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프레디의 “Ahdedo?”는 ‘How do you do?’와는 분명 기표도 기의도 일치하지 않는 또 하나의 기호로 보아야 한다.

2. 야콥슨의 실어증 이론에 따른 고찰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언어의 두 측면과 실어증의 두 유형」(“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에서 “말하기”(speech)는 화자와 청자가 공통의 약호에 따라 “언어적 개체들(linguistic entities)”을 선택하여 한층 더 고차원적인 “언어적 단위”(linguistic units)로 조합하고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97). 조합은 실제로 발화된 “메시지”(message)의 언어적 개체들이 문맥에 의해 “인접”(contiguity)의 상태에서 결합되는 것이고, 선택은 두뇌 속 언어저장소에서 “약호”(code)로 매개된 언어적 개체[기호]들이 “유사성”(similarity)의 정도에 따라 연결되는 것이다(99).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특히 실어증(aphasia) 환자는 언어적 단위들의 조합 및 선택의 능력이 손상된 사람이다. 야콥슨이 관찰한 “선택 결함”(selection deficiency, 100)의 환자는 주어진 문맥에 반응하여 대답은 잘하지만 먼저 대화를 여는 데 어려워하고 추상적 대응어들과 대명사 등으로 말의 열개만을 구성하는 “유사성 장애”(similarity disorder, 106)를 겪는다. 이것은 “은유”(metaphor) 능력의 결함으로서 “메타언어적 기능의 퇴화”(deterioration of metalinguistic operations)를 수반한다(109). 반면 “인접성 장애”(contiguity disorder)로 명명되는 “문맥화 결함 실어증”(contexture-deficient aphasia)에서는 언어적 개체들을 더 고차원적인 언어적 단위로 조합하는 “통사적 규칙”(syntactical rule)의 능력이 없어서 문장이 “낱말 무더기”(word heap)와 같은 형태가 되거나 유아들처럼 “한 낱말 문장”(one-word sentences)으로 말한다. 이러한 장애는 “환유”(metonymy) 능력의 결함으로서 “언어적 단위들의 위계”(hierarchy of linguistic units)를 유지하지 못한다(109). 언어장애 환자는 실어증의 두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어느 한 쪽의 증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라이자는 화나고 괴로울 때나 기쁘고 감동적일 때나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면 명료한 언어적 기호로 표현하는 대신 강아지나 아기처럼 음소를 구별하기 어려운 괴성 ‘Ah-ah-ow-oo!’를 감정 상태에 따라 고저장단을 달리하며 되풀이한다. 언어적 기호를 문맥에 따라 조합하여 말하지 못하고 분절적이지 않은 이상한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인접성 장애의 하나이다. 즉, 일라이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의 조합 및 문맥화에 능숙하지 않은 환유적 능력의 결함 증세를 보인 것이다. 비슷한 경우를 일라이자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이없어 하거나 황당하다고 느낄 때마다 종종 “Garn!”(12, 18, 30, 48. 헐!)이라는 1음절 간투사를 내뱉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환유 능력의 부족은 은유 능력의 부족을 일정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라이자의 ‘Ah-ah-ow-oo!’ 혹은 ‘Garn!’의 반복은 대화의 문맥과 감정상태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데서 드러나는 유사성 장애의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라이자의 은유 능력의 부족은 자신이 거리의 여자가 아닌 자립을 꿈꾸는 정숙한 여자임을 내비치기 위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I’m a good girl”(15, 30, 31, 33, 35. 난 착한 소녀예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히긴스 부인의 손님맞이날에 일라이자는 돌아가신 숙모님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근데 내 생각엔 분명 사람들이 그 노친네를 해치웠을 거예요”(But it’s my belief they done the old woman in)라고 말하자, 당혹해하는 히긴스 부인이 “해치웠더니요?”(Done her in?)라고 되묻는다(60). 히긴스로부터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배웠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던 일라이자는 ‘done in’ 대신 다른 적절한 낱말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다. 일라이자는 문맹은 탈피한 것으로 보이나 일찍이 부모의 보호 없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 내몰려 빈민들의 발화 속에서 살아왔기에 정연한 말과 작문을 배울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라이자의 환유적, 은유적 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능력 부족이기에 앞서 사회적, 역사적 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층민인 일라이자의 아버지앨프레드 돌리틀(Alfred Doolittle)의 언변은 놀랍다. 히긴스가 앨프레드 돌리틀(Alfred Doolittle)에게 딸 일라이자의 소재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물어보자, 그는 음악적인 목소리로 “I’m willing to tell you. I’m wanting to tell you. I’m waiting to tell you”(43. 기꺼이 말씀드리죠. 기대하는 바이니 말씀드리죠. 기다린 바이니 말씀드리죠.)라고 대답한다. 언어적 단위인 문장 내에서 언어적 개체 낱말 “willing”을 “wanting”으로, 다시 “waiting”으로 바꾸는 돌리틀의 말재간은 야콥슨에 따르면 수사적 은유와는 구별되는 “유사은유적 표현들”(quasi-metaphoric expressions, 107)의 구사이다. 돌리틀은 인접성 장애 환자와는 달리 언어적 단위의 문맥화와 환유적 능력에 아무런 결함이 없이 유사은유적 표현들을 거침없이 활용하는 뛰어난 달변가이다. 돌리틀은 상스러운 기표 ‘bloody’(쫓나, 졸라)를 조금은 순화된 ‘blooming’(옛나, 열라)으로 대체하여 피어스 부인 앞에서는 “like a blooming monkey”(44. 옛같은 원숭이처럼)로, 히긴스에게 말할 때는 “in his blooming will”(88. 그의 옛같은 유연장애)로 표현하기도 한다. 돌리틀의 뛰어난 은유적 말재간은 노동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거시적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하층민들이 많아진 시대상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돌리틀의 언변은 그가 모든 설교가들과 총리들의 연설을 듣고 정치, 종교, 사회개혁 등에 흥미를 가진 “생각 있는 사람”(thinking man, 46)으로 자부하는 데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III. 사회언어학적 고찰

1. 발음과 계급

쇼는 『피그말리온』의 서문에서 영어의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말소리에 부합하는 표기체계의 미비로 말미암아 어휘의 철자만을 보고서는 올바르게 발음할 수 없는 영어의 현실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어휘들을 평소에 들리는 대로 발음하는 사람들과 문자적 표기를 의식하며 말하는 사람들의 발음이 동일할 수는 없다. 문자언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은 저학력자와 문자언어와의 접촉이 일상화된 고학력자의 발음은 다를 수밖에 없고 교육 및 문화적 환경의 격차가 경제적 수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발음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케이트 폭스(Kate Fox)는 잉글랜드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계급을 즉각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one cannot talk at all without immediately revealing one’s own social class, 101)고 말할 정도로 언어와 계급 간의 높은 상관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계급을 잘 드러내는 언어적 인자인 용어와 발음 중 “발음이 더 신뢰할 만한 지표”(Pronunciation is a more reliable indicator, 101)라고 단언한다. 사회학적인 도시방언학(sociological urban dialectology)의 선구자 윌리엄 라보프(William Labov)는 역저 『뉴욕시 영어의 사회적 계층화』(*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를 준비하면서 “말씨의 변이 및 사회적 계층화의 정형들이 음소체계와 교차한다”(patterns of style

shift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tersect with the phonemic system. 345)는 사실을 포착한 데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전이모음들(gliding vowels)의 변형이 하층계급, 노동계급, 중하층계급, 상층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상세한 말씨 계층화 도식들”(detailed style stratification diagrams, 371)을 제시하였다. 피터 트러트길(Peter Trudgill)도 『노리치 시 영어의 사회적 분화』(*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에서 “언어공동체 내의 이질적 속성”(heterogeneity of linguistic communities, 2)에 기반하여 사회계급들의 개별성 및 지속성의 문제들과 “공동체의 계급구조”(class structure of the community)를 조명하고자 했다(5). 트러트길은 특히 “잉글랜드 노리치 시의 구어 영어”(the English spoken in the city of Norwich, England, 6)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음운적 변수를 지닌 발음들”(pronunciations of the phonological variables, 133)이 성별이나 세대차 이상으로 사회계급에 따라 구별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피그말리온』에서 중상류층과 대비되는 하층계급의 발음은 세인트 폴 교회 앞에서 프레디와 부딪히며 등장한 일라이자의 거친 런던빈민사투리, 즉 코크니(Cockney)의 구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Nah then, Freddy: look wh' y' gowin, deah. . . .
 Theres menners f'yer! Te-oo banches o voylets trod into the mad. . . . (10)
 Ow. eez, y-ooa san, is e? Wal, fewd dan y' de-ooty bawmz a mather should, eed now
 bettern to spawl a pore gel's flahrzn than ran awy athaht pyin. Wil ye-oo py me f'them?
 (11)

쇼가 묘사한 일라이자의 코크니 구사가 당시 이스트엔드(East End) 하층민들의 도시방언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우선 ‘where -> wh’’, ‘dear -> deah’, ‘for -> f’’, ‘your -> y’’, ‘girl’s -> gel’s’에 서처럼 모음 뒤에서 [r]음이 생략되는 [r]음 무음화(non-rhotic)이다(Drobot 821). 둘째, ‘going -> gowin’, ‘paying -> pyin’의 경우처럼 ‘-ing’형의 [ŋ]음이 [n]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Drobot 820). 셋째, ‘without -> athaht’, ‘pay -> py’의 경우처럼 [aʊ], [eɪ]가 각각 [æ:], [aɪ]로 발음되는 이중모음의 전이이다(Gramley 190). 음운의 변이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violets -> voylets’, ‘spoil -> spawl’도 이중모음의 전이로 볼 수 있다. 반면 ‘duty -> de-ooty’, ‘Two -> Te-oo’의 경우처럼 장모음 [u:]가 이중모음 [əu]로 변하는 현상 또한 코크니 발음의 전형이다(Mott 75). 넷째는 ‘He’s -> eez’, ‘He -> e’, ‘he’d -> eed’와 같은 첫소리 [h]음 탈락 현상이다(Gramley 192). 다섯째는 ‘bunches -> banches’, ‘mud -> mad’, ‘son -> san’, ‘done -> dan’, ‘mother -> mather’, ‘run -> ran’의 적지 않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ɹ]음이 [a]음으로 변이된 현상이다(Mott 75). 트러트길의 연구를 보면 이 중에서 [r]음 무음화(159), 이중모음의 전이(161), [h]음 탈락(182) 등은 노리치(Norwich) 시 사람들의 발화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잉글랜드 남동부 영어(Estuary English)의 대중적인 발음으로 볼 수 있다. 일라이자의 코크니 대사를 표준발음의 올바른 철자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Now then, Freddy: look where you are going, dear. . . .
 There are manners for you! Two bunches of violets trodden into the mud. . . .
 Oh, he’s your son, is he? Well, if you’d done your duty by him as a mother should, he’d
 know better than to spoil a poor girl’s flowers, then run away without paying. Will you
 pay me for them?³⁾

이봐요, 프레디.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다니라구요. . . .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의란 게 있는 거예요! 제비꽃 두 다발이 진흙 속에 묻개졌잖아요. . . .
 어, 저 남자가 아들이예요, 예? 글썄,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해야 할 본분을 다 했다면,
 불쌍한 아가씨의 꽃을 망가뜨리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갈 만큼 모자라진 않을 텐데요.

3) 이한섭 옮김, 『피그말리온』, p27, 29; Yoko Kiser, “Pygmalion Grammatical Usages,” p63

꽃값을 주시겠어요?

쇼의 코크니 묘사는 무대 위에서 코크니를 선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일라이자의 코크니 구사를 통해 중상류층과 하층민의 발음에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그것이 언어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된 격차임을 시사하기 위해서이다.

2. 언어적 약호와 계급의 관계

바질 번스타인(Basil Bernstein)은 역저 『계급, 약호, 통제: 제1권』(*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1*)에서 언어적 재능의 계급적 차이는 “화법”(modes of speech)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계급에 따른 화법은 지능의 수준과 상관없다고 말한다(61). 번스타인은 화자가 말을 할 때 의미를 조직하기 위해 어떤 “통사적 요소들”(syntactic elements)을 사용할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언어적 약호를 “정교한 약호”(elaborated code)와 “제약적 약호”(restricted code)로 구분한다(76). 정교한 약호를 사용하는 화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약호들 중에서 통사적 요소를 선택하므로 그 “문형”(pattern)을 예측하기 어렵고, 반면 제약적 약호의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요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그 문형을 예측하기 쉽다(Bernstein 77). 두 약호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의 기능들이나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의 특질들을 반영하는데(Bernstein 77), 공동체와의 동일시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시골 사람들과 하층 노동계급은 제약적 약호에 익숙하고, 개인의 “삶의 기회”(life chance)를 살리고자 주관적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는 중산층은 주로 정교한 약호를 선호한다(Bernstein 108-09).

『피그말리온』의 첫 장면에서 거리의 구경꾼은 “Well it ain’t my fault, missus.”(9, 싸모넬,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요)의 발화에서도 “ain’t”는 중상류층과는 거리가 먼 비표준어이다. 조금 늦게 등장한 꽃 파는 아가씨[Eliza]도 “I ain’t done nothing wrong”(13, 난 잘못(안)한 게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ain’t’와 이중부정을 발화한다. 이때의 ‘ain’t’는 ‘haven’t’를 대신한 것으로 ‘isn’t’를 대신한 구경꾼의 ‘ain’t’와는 통사적 성격이 다르다. 즉, 이들의 화법은 통사적 요소의 대체가 제한적인 제약적 약호에 익숙하다. 이 구경꾼이 옆에 있던 히긴스에게 “She thought you was a copper’s nark”(13, 저 앤 당신이 째새 꼬나풀이라고 생각했나보군)라고 말하자 히긴스는 “What’s a copper’s nark?(13, copper’s nark가 뭐요?)”라고 물어본다. ‘nark’ 자체가 속어이고 ‘copper’는 주로 구리 혹은 동전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히긴스와 같은 중상류층 사람이 ‘copper’s nark’를 처음 들었을 때 ‘경찰 정보원’을 얼른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히긴스에게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를 일으킨 “copper’s nark”는 구경꾼이 속한 언어집단에서는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의미의 제약적 약호인 셈이다. 어떤 기표가 특정한 문맥에서 이질적인 기의와 결합하는 언어 현상들은 동질적 집단 내에서, 특히 하층계급에서 대체어군이 발달하지 않아 특수한 의미의 활용이 많은 제약적 약호의 특징이다.

『피그말리온』에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가장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인물은 히긴스의 집사인 피어스 부인(Mrs Pearce)이다. 그녀는 흥분할 때면 속어와 욕설을 마구 내뱉는 히긴스에게 주의를 줄 정도로 언행과 사회적 지위의 상관성을 잘 알고 있으며, 상류층의 주변부에 머물면서 늘 정교한 약호의 화법을 의식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가끔 실수할 때도 있다. 그녀는 일라이자가 택시를 타고 왔다는 사실에 우쭐해하자 “Nonsense, girl! what do you think a gentleman like Mr. Higgins cares what you came in?”(26, 참 어이없군! 히긴스 선생님 같은 신사분이 네가 뭘 타고 왔는지 신경이나 쓰실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핀잔을 준다. 이 문장은 첫 번째 “what”이 생략되거나 혹은 두 번째 “what” 앞에 ‘about’이 삽입되어야 문법에 맞다. 피어스 부인은 피커링과 말하는 중에 “there’s more ways than one of

turning a girl's head;"(29, 계집애를 자만하게 만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죠.)라고 대답하면서 동사와 주어의 불일치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같은 실수들은 통사적 규칙을 너무 의식한 탓에 발생한 과잉교정(hyper-correction)의 단적인 예이거나 잠깐 동안의 방심의 결과일 수 있다. 케이트 폭스는 BBC영어 혹은 옥스퍼드 영어(Oxford English)로 불리는 “고학력 화법”(educated speech)을 “중상류층”(upper-middle)의 화법으로 간주하고 상류층 화법과는 확실히 구분한다(103). 또한 영어에 유입된 외래어의 발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중하층 혹은 중류층 출신”(lower-middle or middle-middle origins)이라고 한다(Fox 104). 이에 따르면 영어를 정교한 약어로 가장 정확하게 발화하는 계층은 상류층이 아닌 중류층 사람들이다. 피어스 부인은 집주인 히긴스를 대하는 태도나 주눅 들지 않는 언행 등으로 보아 하녀나 가정부 같은 하류층보다는 중류층에 가까운 인물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를 더 정확하게 구사하려는 피어스 부인의 노력은 하류층과는 거리를 두고 싶고 상류층과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 혹은 정체성과 연관 있을 것이다.

IV. 결론

쇼의 『피그말리온』은 이상에서 언급하고 참조한 언어학적인 연구성과들보다 세상에 먼저 등장하여 관객과 독자들에게 언어와 계급의 사회적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쇼의 사회적 통찰력이 당대의 급진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치 및 경제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 및 예술의 사회적 메커니즘까지 꿰뚫었다는 점에서 가히 선진적이고 탁월하다고 평할 수 있다. 다만, 거리의 소녀와 상류층 언어학자의 우연한 만남, 거리의 소녀 일라이자의 놀라운 언어적 천재성, 청소부 둘리틀의 전혀 예상치 못한 백만장자로부터의 유산상속 등은 극적 전개를 위한 희극적 설정임을 감안한다 해도 쇼의 리얼리즘에 옥의 티 같은 아쉬움을 남긴다.

참고문헌(Works Cited)

- 김진우. 「제3장 Saussure의 언어이론」. 『언어와 언어이론: 소쉬르에서 촘스키까지』. 초판 2쇄. 서울: 한국문화사, 2015. 141-254. Print.
- 쇼오, 버나드. 『피그말리온』. 이한우 역. 서울: 동인, 2002. Print.
- Abla, Ahmed Kadi, and PR. Serir Mortad Ilhem. "Language as a Marker of Social Status in Shaw's *Pygmal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rts, Medicine and Sciences*. 4.11 (2016): 79-84.
- Bentley, Eric. *Bernard Shaw*. New York: Applause, 2002. Print.
- Bernstein, Basil.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1*. London: Routledge & Kegan, 1971. Print.
- Drobot, Irina-Ana. "Phonological Features of Cockney English Illustrated in *My Fair Lady*." *US-China Foreign Language*. 9.12 (2011): 817-823. Web. 9 Mar. 2019.
<https://www.academia.edu/7854446/Phonological_Features_of_Cockney_English_Illustrated_in_the_Film_My_Fair_Lady>
- Fox, Kate. "Linguistic Class Codes." *Watching the English*. 2nd ed. London: Hodder & Stoughton, 2014. 101-16. Print.
- Gramley, Stephan. "8.2.5 Phonotactic change." *The History of English*. New York: Routledge, 2012. 188-92. Print.
- Holroyd, Michael. *Bernard Shaw: the One-Volume Definitive Edition*. 1997. New York: W. W. Norton, 2006. Print.
- Jakobson, Roman.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Language in Literature*. Ed. Krystyna Pomorska, Stephen Rudy. Cambridge: Harvard U, 1987. 95-114. Print.
- Kiser, Yoko. "*Pygmalion*: Grammatical Usages." *Memoirs of Shonan Institute of Technology*. 29.1 (1995): 61-69. Web.
- Labov, William. "The Structure of the New York City Vowel System."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2nd ed. New York: Cambridge UP, 2006. 345-79. Print.
- McGovern, Derek. "From Stage to Hybrid: Shaw's Three editions of *Pygmalion*." *SHAW: The Annual of Bernard Shaw Studies*. 31 (2011): 9-30. Print.
- Mott, Brian. "Traditional Cockney and Popular London Speech." *Dialectologia* 9 (2012): 69-94. Print.
- Saussure, Ferdinan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Ed. Charles Bally, Albert Sechehaye. Trans. Wade Baskin. New York: McGraw-Hill, 1959. Print.
- Shaw, George Bernard. *Pygmalion*. London: Penguin, 2003. Print.
- Trudgill, Peter. "Introduction", "1 Norwich," "8. The Norwich Diasystem."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London: Cambridge UP, 1974. 1-19, 133-40. Print.

영문학 시분과 (인문대1호관 306호)

분과위원장 및 좌장: 김연규(강릉원주대)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시 분 과	14:00~14:30	사공철	경운대	토마스 하디의 『시선집』에 나타난 신(神)의 하위주체	김연규(강릉원주대)		
	14:30~15:00	유건상	강원대	시가 마음을 만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문학치료 사례	백금희(강원대)		신원철(강원대)
	15:00~15:30	이선희	강원대	셀리의 여성편력과 그 아이러니	박경희(강원대)		
	15:30~15:50	휴식					
	15:50~16:20	전승희	강원대	에이츠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양상 -상징과 해학을 중심으로-	박현경(남서울대)	신원철(강원대)	
	16:20~16:50	장철우	강원대	Emersonian "Circle" in Whitman's Poetry (휘트먼 시에 나타난 에머슨의 "원")	이선희(강원대)		

토마스 하디의 『시선집』 4)에 나타난 신(神)의 하위주체

- 「W. T. S. M」 5)의 시 6편을 중심으로 -

Subaltern Subjects of God in Thomas Hardy's *Collected Poems* :
Focused on 6 Poems of 「W. T. S. M」

사공 철
(경운대)

하디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 (*The Well-Beloved*)을 출간(1897)한 이후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시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는 소설가로서의 문학적 역량이 바탕이 되어 무려 1,000여 편의 주옥같은 시를 내놓게 되는 데, 그로 하여금 시가 소설보다 더 훌륭한 문학 장르라고 믿게 된 배경에는 당대의 시대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전반의 기독교인들은 신의 초월성과 그 창조물의 신성을 믿었으며 오직 신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세상과 자연은 그러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회의가 빅토리아 조 사람들의 정신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서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감은 당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겪게 되는 체험이 되었다. 하디의 신앙심도 그 만큼 약화되어 이 세상은 오직 무심한 우연에 의해 지배될 뿐이라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다.

당시대 사람들의 신앙심의 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들은 라이엘(Charles Lyell)의 『지질학 원리』 (*Principles of Geology*, 1830)⁶⁾와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1859)⁷⁾이다. 지질학적 시대 배경과 『진화론』 (Darwinism)이 기독교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종래의 우주관과 인간관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정통적 기독교 가치관이 서서히 붕괴 된 것이다. 하디는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과 급진적 사상의 보급으로 전통적 종교관과 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당시의 상황에서 허무적이고 절망적인 세계관과 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하디로 하여금 인간이 고통에 처했을 때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4) 토마스 하디의 『시선집』 (*Collected Poems of Thomas Hardy*, 1930)은 모두 8부분의 소(小) 시집으로 나뉘어져 있다. 「Wessex Poems」 (웨섹스 시집, 1898), 「Poem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과거와 현재의 시, 1901) 「Time's Laughing Stocks and Other Verses」 (세월의 웃음거리와 기타 시편들, 1909), 「Satires of Circumstance, Lyrics and Reveries」 (상황의 풍자, 서정시와 공상, 1914), 「Moments of Vision」 (환영의 순간, 1917), 「Late Lyrics and Earlier」 (후기 서정시와 이전의 서정시, 1922), 「Human Shows, Far Phantasies, Songs, and Trifles」 (인간의 모습들, 먼 환상들, 노래와 하찮은 것들, 1925), 「Winter Words in Various Moods and Metres」 (다양한 분위기와 운율로 쓴 겨울의 언어, 1928) 등이다.

5) 「W. T. S. M」은 『시선집』에 나오는 소 시집의 첫 글자이다. 「Wessex Poems」; 「Time's Laughing Stocks and Other Verses」; 「Satires of Circumstance, Lyrics and Reveries」; 「Moments of Vision」을 일컫는다. 이들 시는 주로 하디 시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6) 라이엘(1797~1875)은 『지질학 원리』에서 '자연 현상들 중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7) 다윈(1809~1882)은 『종의 기원』에서 생물들 사이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이 유전과 환경의 산물이며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맹목적이고 무심한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극적 운명관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하디는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인간을 불가항력적이며 세상에 살고 있는 무기력한 생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좌절과 패배의 고통을 겪게 되는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는 절대적인 기독교적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디는 맹목적이고 적대적인 우주에 내재한 의지(Immanent Will)를 신, 운명, 제1원리(the ultimate cause), 주재자(mover)와 자연(nature)으로 부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김선향 6 재인용). 그런 이유로 인간이 내재의지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의 불행이며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불행이다. 그러므로 이종의 불행에 처해있는 인간들의 삶을 불쌍하고 아이러닉하며 비극적으로 보는 것이다. 하디는 생(生)을 ‘맹목적인 삶의 의지’로 보고 이성(理)은 의지의 시녀이며 생명은 살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다. 악의 술책으로서 고통의 세계일뿐만 아니라 최악의 세계라고 보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의 철저한 염세주의 영향을 받아 천상의 신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나 위안이 되지 못하며 지극히 냉담한 우주 의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하디는 무책임한 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희망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의 존재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신은 천상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권위를 지닌 전지전능한 위상이 아니며 지상에 끌어 내려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디의 『시선집』의 소(小) 시집에 나타난 시 6편⁸⁾을 통해서 신의 “하위주체”(Subaltern Subject)⁹⁾로 분석된다고 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요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디의 시 속에서 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그 신이 우리 인간과 자연물에 무능력한 신의 하위주체 모습으로 추락되어가고 있는 지에 대한 그 양상을 밝혀보고,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하디의 하위주체로서의 신에 대한 인식은 「우연」(“Hap”)(7)¹⁰⁾에서 아주 잘 그려지고 있다. 이 시에서는 인간과 신의 대립 구조 속에서 신에 대한 권위 의식을 깊이 고뇌하는 진정한 “인생행로”(pilgrimage)에서 신의 하위주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떤 사악한 신이 저 높은 하늘에서
 “너 고통 받는 자여,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요,
 너의 사랑의 상실은 내 미움의 이득임을 알아라!”
 라고 내게 외치면서 꺾꺾대고 웃는다면
 . . . (1-14)

8) 본 논문에서는 「Wessex Poems」에 나오는 시 2편, 「Time's Laughing Stocks and Other Verses」에 나오는 시 2편, 「Satires of Circumstance, Lyrics and Reveries」에 나오는 시 1편, 「Moments of Vision」에 나오는 시 1편, 모두 6편을 다루었다.

9) 본 논문에서 하위주체란 탈식민 담론가인 바바(Homi Bhabha)와 스피박(Gayatri Spivak)이 “양가적(ambivalent)” 하위주체(Subaltern Subject)를 설명하는데서 사용된 용어이다. 하위란 ‘억압 받거나’, ‘아래에 놓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하위주체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 대상이나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세계나 현실 등에 의지적으로 인식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의존적 주체라 할 수 있다.

10) 이 시는 『시선집』의 「Wessex Poems」에 나오는 시이다. 이하 『시선집』에 나오는 시는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한다. 본문에 나오는 시구의 인용은 쪽수 표기 없이 겹 따옴표를 사용하고 괄호 속에 원문을 병기한다.

이 시에서 신은 인간에게 “사악하고”(vengeful), “겉겉대며 웃는”(laugh) 악의적이고 조롱하는 존재로 표현된다. “너의 슬픔”(thy sorrow)은 “나의 기쁨”(my ecstasy)으로, “너의 사랑의 상실”(thy love’s loss)은 “내 미움의 이득”(my hate profiting)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인간과 신의 갈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신의 권위를 “우연”(Casualty)¹¹⁾, “시간”(Time), “재판관들”(Doomsters)들로 대치시키면서 맹목적이고 저항이 불가능한 운명인 내재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쁨과 희망은 없고 대신에 “신음소리”(moan)만 던지고 있을 뿐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우연” 앞에 붙은 “어리석은”(Crass), “시간” 앞에 붙은 “주사위 던지는”(dicing), “재판관들” 앞에 붙은 “반쯤 눈먼”(purblind)과 같은 수식어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행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더해 주면서 인간들은 우연과 환경의 노예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 이상 인간의 삶 속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은 사라진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의 신의 권위 상실이 곧 신의 하위주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모습보다 더 나약한 하위주체로서의 신의 모습은 또 다른 시 「자연의 질문」 (“Nature’s Questioning”)(58-59)¹²⁾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죽음과 크고 작은 비극은 처음부터 모두 차원 높은 의식이 우주에 충만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주를 초월하여 외재하는 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존재하는 즉 ‘내재의지’의 작용에 의한 것이고 세상 만물의 움직임은 이 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하디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다. 이러한 ‘내재의지’는 “살아있되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으나 도덕의식이 없기도 하고, 도덕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Zietlow 123. 조병화 149 재인용). 그래서 하디는 내재의지에 의해서 신의 형상은 “어떤 거대한 ‘백치의 신’”(some vast Imbecility)으로 또 “자동기계”(Automation)로, “살아 있는 유골”(live remains)로 대치¹³⁾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처럼 신의 권위에 회의를 느낀 하디는 기독교 신앙의 상실로 전통 기독교가 제시한 신에 대한 환상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능한 기독교의 초월적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즉 신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더구나 신은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자가 더 이상 아님을 깨닫게 된다.

화자는 왜 “이젠 아무렇게나 우리를 내버려 둔 건가?”(left us now to hazardry?)라고 묻는다. 신의 권위가 상실되어가는 것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 하디는 “그 답을 나는 모른다네 . . .”(No answerer I . .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신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어떤 거대한 ‘백치의 신’이
만들어 내고 혼합해 내는 힘은 막강하지만,
돌보는 힘은 없어서,
장난삼아 우리를 만든 다음, 이젠 아무렇게나 우리를 내버려 둔 건가?” (13-16)

신은 조물주로서 피조물을 만들고 혼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조물을 보살피지 못한다. 오히려 장난삼아 우리를 만든 다음 위협에 빠뜨리는 거대한 “백치의 신”으로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동기계” 장치에 불과하다.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신을 품고 있는 우리는 결국 꼭두각시, 허수아비, 앵무새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삶과 죽음이 가까운 이웃”(Life

11) 하디는 ‘Casualty(사상자)’를 이 시의 제목인 ‘Hap’(우연)의 의미로 보고 있다.

12) 이 시는 『시선집』의 「Wessex Poems」에 나오는 시이다.

13) 이 시에서 대치시키고 있는 ‘백치의 신’, ‘자동기계’, ‘살아있는 유골’은 신으로 나오는 ‘나’를 의미하는 듯하다.

and Death are neighbours nigh)이 되어 인간의 삶도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다. 이 시에서 “버려진 희망”(Forlorn Hope)이라는 표현은 전지전능한 신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추락해 가는 존재로서 하위주체로서의 신의 모습이다.

전통적인 신이 아닌 내재의지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시가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 (“The Unborn”)(268-269)¹⁴⁾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밤중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의 동굴”(The Cave of the Unborn)을 방문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꿈꿔 오는 낙원을 생각한다. 그곳에서 화자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곳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A scene the loveliest, is it not?)라며 반문해 보지만, 인간으로 태어날 사람들과 “말없는 우두머리”(the silent Head)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힘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암시”(백원기 2001, 94)는 무력한 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인간들이 그리는 것과는 달리 고통스런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세상 실정을 알고 있는 신은 “괴로워하며”(anguished)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다.”(could not frame a word) 그리고 저 만큼 “말없이 물러나서”(silently retired) “가만히 지켜보는”(watched them still) 모습은 이미 권위를 상실한 나약한 신의 하위주체 모습이다.

나는 밤중에 일어나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의 동굴’을 방문했다네,
태어난 후의 삶이 어떠한 지를 물으려고,
형상들이 몰려들어 나를 에워쌌다네,
도래하는 아침이 서둘러 오도록
말없는 ‘우두머리’에게 오래도록 기도했던 형상들이. (1-2)

그리고 나는 말없이 물러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네,
그러자 그들이 어중이떠중이처럼
앞으로 쫓기듯 허둥-지둥 나왔다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 속으로,
만물에-내재하는 의지에 의해. (19-24)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주의 질서로서 “만물에-내재하는 의지”(the all-immanent Will)에 의해 쫓기는 균중처럼 세상 속으로 “허둥-지둥 나오게”(came helter-skelter out)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우두머리”(Head)인 신에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세상에 보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방향도 없이 모든 곳에 “내재하는 의지”에 의해 휘둘릴 뿐이다. 이점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차라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다”(허정자 170). 이 시는 태어날 인간의 크고 작은 불행한 현실의 삶을 예고한다. 즉 신의 하위주체로서 인식되어지는 세계는 혼돈과 혼란의 세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만물에 내재하는 힘의 지배아래 있다는 하디의 생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는 「둘의 충돌」 (“The Convergence of the Twain”)(288-289)¹⁵⁾이다. 이 시는 빙산에 충돌 한 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태닉(Titanic) 호¹⁶⁾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삼았다. 이 시에서

14) 이 시는 『시선집』의 「Time’s Laughing Stocks and Other Verses」에 나오는 시이다.

15) 이 시는 『시선집』의 「Satires of Circumstance, Lyrics and Reveries」에 나오는 시이다.

16) 타이태닉(Titanic) 호는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하는 호화로운 여객선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다. 그 배를 만들 당시에는 ‘절대자인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항해에서 빙산에 충돌해 1912년 4월 15일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했다. 하디는 이 시에서 타이태닉(Titanic) 호와 빙산이 부딪치는 비극을 ‘내재의지’의 주제로 이루어진 둘의 충돌이라는 독특한 운명론으로 다루고 있다.

하디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허영과 오만을 경멸하면서 내재의지에 의해 휘둘리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1

외진 바다 속에, 그녀를 설계한
인간의 허영과 삶의 오만함에 떨리,
그녀는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

2

불도마뱀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장작더미들인
강철로 된 선실들이 이제는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울동적인 조수의 수급으로 변한다. (1-6)

이 시에서는 “그녀”(her, she)와 “불도마뱀”(Steel chambers), “기쁨의 보석(Jewels in joy)”과 “도금한 물체”(the gilded gear)는 모두 ‘타이태닉’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사라진 타이태닉 형상의 운명은 우주 “내재의지”(The Immanent Will)의 운명에 따르는 것으로 “세월의 실을 짚는 자”(Spinner of the Years)에 의해 ‘타이태닉 호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그러나 이 자는 인간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관심도 없다. 다만 “필연은 인간에게는 우연이고, 완성은 인간에게 파괴이며, 탄생은 인간에게는 죽음”(우상균 323)이라는 충돌과 합일은 우주를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만일 신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안겨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즉 이미 인간을 위한 전능한 신의 권위가 상실되어 신의 섭리가 아닌 내재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세월의 실을 짚는 자”는 내재의지의 다른 이름으로서 신의 하위주체의 양상이다. 하위주체로서의 신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신이 아닌 우연다름 아닌 맹목적인 내재의지로의 위상을 파악하게 만든다. 맹목적인 내재의지가 인간의 모든 삶에 무자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하디의 기계적, 숙명적 세계관은 다분히 19세기 당시의 시대적인 영향 중 전통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인한 종교적 신념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인간의 삶을 기독교의 창조의 관점에서 진화론과 적자생존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삶의 질서를 와해시켰다. 또한 지질학과 천문학의 발달을 통한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 공간과 오랜 지구 역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인간을 왜소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인간은 단지 하나의 세포 혹은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사고는 인간의 위상과 영혼의 실체 그리고 불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하디는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진화와 신학은 타협될 수 없는 것”(Hands 143)이어서 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정통 기독교 중심의 우주관을 더 이상 지니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신을 지난 50년 동안 찾아왔다. 만약 신이 있다면 나는 그를 발견했어야 했다”(Florence 1965, 224 허정자 167 재인용)라고 그가 고백하였듯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과학적으로 전면 부정되는 상황에서 신의 존재는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그는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지배하는 어떤 인격적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자연법칙, 우연, 환경에 의해 지배되며 그로 인해 인간이 우연히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의 틈새에 끼이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전능한 존재인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디로 하여금 삶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갖게 하고 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 존재’, ‘신의 형상’, ‘신의 속성’, ‘신의 역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를 느끼고 신이 없는 인간 삶에 대한 불안과 고통의 문제들이 그의 시에 끊임없이 제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디의 신의 권위와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기독교와 관련된 시 「소들」 (“Oxen”)(439)¹⁷⁾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 화자는 크리스마스 전야 밤 열두 시에 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전통에 대하여 과거에는 믿었던 것을 현재는 믿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런 전통을 보러 가자고 한다면 가보겠다는 심리이다. 이 시의 화자는 세상에서 신에 대한 회의가 가득 차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사라져버린 신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묻어나고 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꾸며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 하지만, 난 이런 생각이 든다네,
만일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가 보자, 황소들이 무릎을 꿇는 걸 보러,

우리 어렸을 적에 자주 가던 저 너머 산골짜기
외로운 웅가 헛간으로”라고 말한다면,
나는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그 사람과 함께 밤길을 가리라는. (9-16)

옛날 영국 시골에 크리스마스 전야 열두 시가 되면 황소들이 예수 강림의 밤, 강림의 시각으로 알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전설이 나온다. 이 시에서 하디는 유년 시절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기독교 신앙과 성인이 된 현재의 쇠퇴한 신앙을 대조시키고 있다. 과거의 신앙을 회고하는 화자의 어조는 부드럽고 향수에 젖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과 신의 대립 구조에서 신의 권위가 상실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전통적 신의 권위가 상실되고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라는 주제는 「생명 탄생이전과 이후」 (“Before Life and After”)(260)¹⁸⁾에서 보다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디는 이 시에서 “의식이 생겨나기 전”(Before the birth of consciousness)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던 때가 있었다”(all went all)고 말한다. 만약 신이 존재하였다면 “병(sickness), 사랑(love), 상실(loss), 회한(regret), 절망(starved hope), 가슴앓이”(heart-burnings) 같은 비극을 가져오는 삶의 불가피한 요소들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하디의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피조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로 그려지는 신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리고 사실 지구의 증거들이 말하듯이—
의식이 생겨나기 전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던 때가 있었다. . . .(1-4)

화자에게 의식이전의 세계는 그가 아쉽게 잃어버린 또한 돌아가고 싶은 행복했던 순간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연에서 “얼마나,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How long, how long?)라 물으며 그 잃어버린 신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죽은 이후에 돌아가고 싶은 대상이기도 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결국 그가 혹은 인류가 그 상태에서 출발한 낙원과 같은 세상이다. 만물이 파멸된다 해도 개의치 않는 것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비친다. 다시 말해 그의 철학이 모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허무주의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세상에 대해 품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를 통해서 병, 사랑, 상실, 회한, 절망, 가슴앓이

17) 이 시는 『시선집』의 「Moments of Vision」에 나오는 시이다.

18) 이 시는 『시선집』의 「Time's Laughing Stocks and Other Verses」에 나오는 시이다.

같은 이러한 양상은 모두 신의 부재로 나오는 감정이다.

III

지금까지 하디의 시에서 나타난 하위주체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시에서 인간에게 희망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당대의 전통적인 초월적인 기독교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그가 그려내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심한 신의 모습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관을 뒤집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신이 있다면 신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신이 존재해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지각의 과정을 통해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Collins 24) 지상으로 끌어내려진 하위주체로서의 신을 그리고 있다. 하위주체로서의 신의 인식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신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삶을 받아 들여 인간들끼리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하디는 신의 구원보다는 인간 자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점으로 보인다. 결국 하디는 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애와 사랑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젠더와 신의 영역에 관한 탈식민 담론이 제기하는 중요한 요점은 기존 사회의 기저에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양가적 평등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억압받거나 아래에 놓인 불행한 존재들의 삶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 애정 어린 사랑을 공유하고자 하는 깊은 성찰이다. 이러한 성찰은 당대의 사회적 제도와 인습의 모순으로 억압받아왔던 하위주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디가 그려낸 하위주체들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의 연속에서도 어둡고 슬픈 삶의 비극을 넘어 내일의 삶의 행복을 믿고 희망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면에는 하디의 인간에 대한 영원불멸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깃들여 있다. 하디의 시는 천상의 신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지상의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자애’의 메시지를 우리 인간에게 전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디 시는 신의 하위주체 양상을 끊임없이 탐색한 작품이며 하디는 ‘인간과 신의 성찰’을 통해서 ‘인간’ 과 ‘신’ 과 ‘자아’ 를 탈시대적으로 승화시킨 20세기 시대적 전환기의 시인으로 볼 수 있다. 하디야 말로 “진정한 현대의 비극적인 인본주의”(Widdowson 24) 시인라고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김선향, 이경아. “토마스 하디의 염세주의-그의 시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3집. Vol. 13. 2000.
- 백원기. 『하디 시의 이해』. 서울: 경진문화사, 2001.
- _____. “토마스 하디의 시: 불교의 자비(Metta) 사상 실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7호, 2002.
- 우상균. 『교양을 위한 영시 공부』.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0.
- 조병화. “토마스 하디의 시: 이상향으로서의 과거.” 『현대영미시 연구』. 제13권, 2호. 2007.
- 허정자. “토마스 하디 시에서의 신의 이미지.” 『현대영미시 연구』. 제 11권, 1호. 2005.
- Bailey, James. O. *The Poetry of Thomas Hardy: A Handbook and Commentary*.

- Chapel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70.
- Bhabha, Homi K. "Remembering Fanon: Self, Psyche and the Colonial Condition,"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P, 1994.
- Collins, Deborah L. *Thomas Hardy and His God*. London: Macmillan, 1990.
- Florence, Hardy E. *The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62.
- _____. *The Life of Thomas Hardy*. New York: St. Martin's, 1965.
- Gerber, Helmut E. and Eugene Davis W. comps. and eds. *Thomas Hardy: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Writings about Him*. Dekalb: Northern Illinois UP, 1973.
- Gibson, James. *The Complete Poems of Thomas Hardy*. New York: MacMillan, 1976.
- _____. "The Characteristic of All Great Poetry: Thomas Hardy," *New Perspectives on Thomas Hardy*, Ed., Charles P. C. Pettit, London: Macmillan, 1994.
- Hands, Timothy. "A Bewildered Child and His Conjurors: Hardy and the Ideas of His Time." *New Perspective on Thomas Hardy*. Ed. Charles C. Pettit. London: Macmillan, 1994.
- Hardy, Thomas. *Collected Poems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30.
- Southerworth, James G. *The Poetry of Thomas Hardy*. New York : U of Columbia P, 1947.
- Spivak, Gayatri C.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P, 1994.
- Widdowson, Peter. *Hardy in History*. London: Routledge, 1989.
- Zietlow, Paul. *Moments of Vision: The Poetry of Thomas Hardy*. Cambridge: Harvard UP, 1974.

시가 마음을 만지다

: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문학치료 사례

유건상
(강원대)

I. 서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급속히 변화하는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라 할 만큼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직면하며 살고 있다. 의학과 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신체적 건강이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 또한 안겨주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가 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은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학업,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아정체감 확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장래에 대한 대비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겪게 된다(한주리·남궁은정, 2008).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외부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동기가 되므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성장의 촉진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갈등과 좌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미정 외, 1996).

이에 연구자는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인 생활의 적응에도 도움을 주고자 문학치료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적응을 위한 효과적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학치료의 활용가능성을 고찰함에 있다.

II. 문학치료와 시의 힘

문학치료는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인성을 함양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치유책이다(변학수, 2006). 문학치료는 독서치료와 글쓰기치료, 즉 읽기와 쓰기를 통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예로부터 많은 시인들이 시 쓰기의 치유적 효능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가령 바이런(Lord Byron)은 “시는 상상력의 용암으로, 그것의 분출이 지진을 막는다”고 노래했으며, 블레이크(W. Blake)는 「독나무」(“A Poison Tree”)에서 직접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나 친구에게 화가 났네.
내 분노를 말했더니, 그 분노 사라졌네.
나 적에게 화가 났네,
나 말하지 않았더니, 그 분노 자라났네. (1-4행)

헤닝어(Owen E. Heninger)는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들이 표현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증후(症候)로 형성되어질 수 있다. 시 쓰기와 읽기 과정은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심리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안전한 배출구를 제공하며, 그럼으로써 심리적·정신적 균형을 회복시켜준다”(56)고 시 쓰기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다. 이처럼 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결과 우리 속에 내재된 갈등의 해소능력과 적응기능이 향상된다(Reiter, 1997). 이것이 바로 시 쓰기의 힘이자 문학의 힘이고, 더 나아가 인문학의 힘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모(某)대학교 영문과에서 진행한 “영문학과 문학치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수강한 대학생 30명이다. 그들은 대체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첫날 실시한 설문 결과, 강좌 수강 이유를 학문적 호기심 외에도 “아날로그적 방법을 통해 치유 받고 싶다,” “소통 부재로 인한 상처를 힐링받고 싶다,”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 등 정서적 치유나 안정으로 답한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5월 까지 회기 당 75분, 주 1회로 총 10회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집단 프로그램이므로 내밀한 자기표현이나 노출이 용이하도록 6명씩 조를 짜서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1)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Person in the Rain: PITR)

이 기법은 그린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나 대처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로 그림 속에 묘사된 사람은 자아상을 나타내며, 비는 외부적 곤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을 상징한다. 이 검사로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 및 스트레스 상황,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 태도를 알 수 있다(박현주, 2011).

3. 문학치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10회기로, 초기(1-2회기), 중기(3-8회기), 종결기(9-10회기)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초기는 친밀감 형성 및 긴장완화를, 중기는 자기탐색과 현실수용 및 긍정적 사고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종결기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행복한 미래를 계획함을 목표로 하였다. 회기별 구성은 처음 15분간은 간단한 호흡이나 명상 등을 하였다. 다음 55분간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5분간은 소감을 나누거나 마치지 못한 내용을 마치게 함으로써 종료를 이끌었다.

IV. 연구결과

1. 회기별 변화 및 결과물 분석

1) 초기단계: 1-2회기

이 단계에서는 소개와 소망, 현재의 느낌 나누기, 지점토 작업과 협동화 그리기를 하였다. 지점토 작업은 Feiffer의 그림동화 *Bark, George*를 활용하였다. 감상 후, 마지막에 조지는 “안녕!”이라고 인사했는데 나라면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하였다. 각자 인사한 이미지나 떠오른 이미지를 클레이로 만들고 나눔 후, 각자의 작품들을 조원들과 상의하여 도화지에 배치하고 더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그려 넣어 협동화를 완성하였다.



<협동화: 동물들의 파티>

2) 중기단계: 3-8회기

이 단계에서는 내 삶의 파노라마 그리기, 나의 장단점 알아보기, 자화상 쓰기,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한 시 쓰기, 걱정 던져버리기와 협동시 쓰기 등을 하였다.

내 삶의 파노라마 그리기는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족관계에서 내 모습을 통찰하는 시간이다. Roetheke의 시 “My Papa’s Waltz”를 감상한 후,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명상한다. 명상 시 떠오른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속의 인물이나 내게 소중한 대상에게 편지쓰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돌아가신 할머니, 친구, 어린 시절의 애완견 등에게 편지를 썼다. A는 학업에 억눌렸던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힘들면 안 해도 돼.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별 일 아니야!”라고 적었다.

나의 장단점 알아보기는 자기탐색을 위한 문제 표출과 자기직면을 위해 진행되었고, Baum의 *The Wizard of Oz*를 활용하였다. 영화 감상 후,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맨, 사자 등 각 캐릭터의 특징과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어휘를 적어보고, 등장인물 중 나와 가장 가까운 인물을 골라 나와 그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만일 내가 _____ 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문장 완성하기를 하고, 이에 대한 글쓰기를 하였다. 아래는 학생 B의 글이다.

나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싶다는 말은, 나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나는 나를 질책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굉장히 피곤하다. 나는 나의 어두운 부분조차도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자화상 쓰기는 내가 보는 내 모습과 남이 보는 내 모습 적어보기로 시작하였다. 아래는 C의 글이다.

남이 보는 내 모습: 사람들은 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 왜 저 사람은 아직 학교에 있는 거지?
내가 보는 내 모습: 나를 열심히 살아보려 고군분투 하는 중.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님.
제 밥그릇 뚫은 하며 살아갈는지 심히 우려스러움.

Heaney의 시 “Digging”을 감상한 후, 자화상 쓰기를 하였다. 자기 직면이 힘들었는지 이 활동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D는 “지금 내 모습에 대한 객관화는 다른 무엇을 설명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고, 무언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나를 미화하는 거 같기도... 그럼에도 글을 써보니 결국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삶의 소중함을 깨닫자’라는 결과에 도달해서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였다. 다음은 E의 시 “자화상”이다.

차가워 보이는 입 꼬리는
올라가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옆에 같이 웃을 이가 생기면
한없이 밝은 미소를 지을 줄 안다.

강해 보이는 두 눈은
힘든 일만 꺾어서가 아니다.

내 사람들의 일엔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안다.

남이 보는 자신은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성격이 강해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리고

잘 웃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고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한 글쓰기는 Yeats의 “Down by the Salley Gardens”를 활용하였다. 시 감상 후, 나는 지금의 내 삶 혹은 삶의 태도에 만족하는가, 시의 주인공처럼 훗날 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활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등을 나눔하였다. 그 내용을 토대로 글쓰기를 하였는데, 다음은 F의 “나였기 때문이다”라는 글이다.

모든 부분이 나였기에 실수가 무서웠다.
.....
계속해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연속 속에 갇혀있었다.
...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기에
나는 내 실수를 드디어 커버할 수 있었다.

내가 아닌 우리였기에
실수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자의식 강하고 완벽주의자인 그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실수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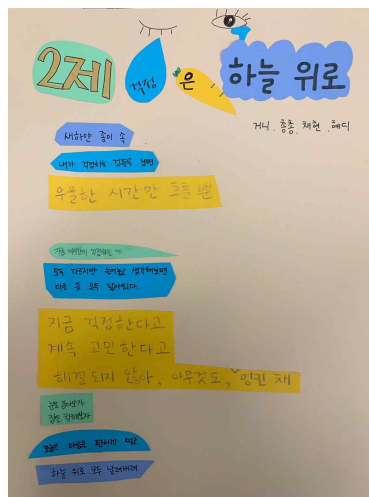
걱정 던져버리기의 목적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수립이다. 모두 함께 Keats의 “When I have fears”를 큰 소리로 낭송하고 현재 자신을 짓누르는 걱정/스트레스들을 A4용지에 적어 나눔 후 비행기로 접어 날리기를 하였다. 각자 다양한 색지에 “걱정 날려 버리기”를 주제로 시를 쓴 후, 본인의 시 중 마음에 드는 행을 오려 조원들과 협동시를 완성하였다. 학생들의 고민거리는 주로 시험, 취업, 스펙 쌓기, 경제적 어려움, 이성 친구, 나태함과 게으름 문제 등이었다. 다음은 “2제 걱정은 하늘 위로”라는 협동시이다.

새하얀 종이 속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
우울한 시간만 흐를 뿐
지금 이 시간에 걱정하는 게
모두 다르지만 늘어놓고 생각해 보면
마른 듯 모두 닮아 있다.

지금 걱정한다고
계속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아무 것도, 영킨 채

눈을 감아보자
잠을 청해 보자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늘 위로 모두 날려 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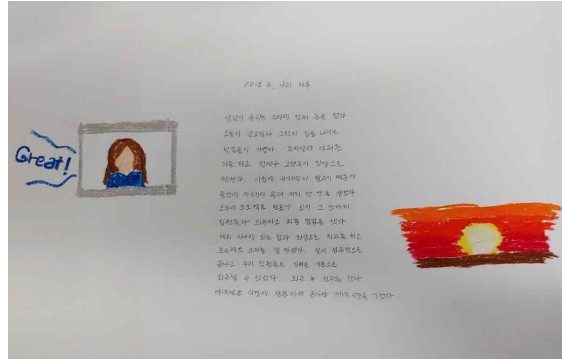


학생들은 서로 다는 내용의 각자의 시행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시가 된다는 것에 신기해하였고, 협동시 중 마음에 들었던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기를 종료하였다.

3) 종결단계: 9-10회기

이 단계에서는 나의 미래 그려보기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마치며”란 글쓰기를 하였다. 나의 미래 그려보기는 Frost의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감상

후,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나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은퇴하고 사진작가가 되어 전 세계를 누리고 있는 모습, 스튜어디스가 되어 하늘을 나는 모습 등 다양한 꿈을 시와 그림으로 묘사하였다.



위는 H가 10년 후, 외국 기업에 취업하여 해외 지사 팀과 화상 회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시차로 인한 아침과 저녁의 묘사가 재미있다. 그녀는 “10년 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글을 써보면서 나의 목표가 간절해졌다. ...당장의 안락을 추구하기 보다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을 마치며”란 제목으로 소감 쓰기 및 간단한 설문문을 하였다. 학생들은 좋았던 점으로는 “나도 잘 모르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신기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 자신을 많이 찾았다,” “글쓰기를 통해서 위로 받았고 그것이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영시를 찬찬히 가슴으로 읽다 보니 작가의 고민들이 느껴지고, 요즘 나의 주된 걱정거리인 고민들과 연관하여 시가 주는 느낌이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다” 등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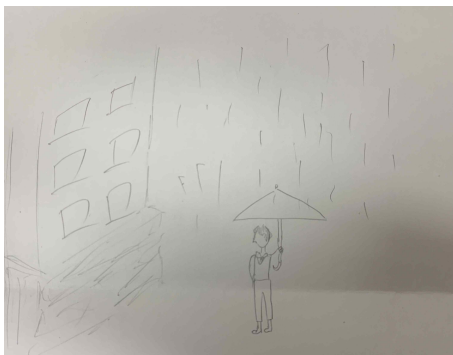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기 노출의 수위를 정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점차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들까지 다 사랑하고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협동하는 과정이 두려울지라도 동시에 그것은 누군가와 감정과 모든 순간을 공유할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학생도 있었다.

기대한 바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는데 힐링되었다,” “영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사전·사후검사 결과 및 분석

1)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PITR)

다음은 I의 프로그램 실시 전(좌)과 후(우)를 비교한 결과이다.



I는 사전검사 시, 쏟아지는 비속에 우산을 든 남자를 묘사하였다. 남자는 건물 안의 여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용서를 빌고 있다. 남자는 우산을 썼으므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늘이 무너질 듯” 세차게 내리는 “장대비”에 그의 몸은 흠뻑 젖었다. 반면 사후검사에서, J는 우산속의 연인을 묘사하고 있다. 비는 “잔잔하게” 내리고, 연인들은 파라솔 아래에서 담소하며 웃고 있다. 야외지만 커다란 우산 아래에 있으니 그들은 비를 맞지 않으며, “빗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뿐 아니라, 연인의 얼굴 표정, 우산과 음식의 섬세한 묘사 등 세부 묘사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의 크기 증가는 자존감의 증가를 상징한다.

이처럼 I의 Pitr 결과, 비의 양이 줄고, 세부묘사와 사람 수가 증가하고 연인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등 문학치료가 그의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문학치료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A대학 영문과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75분씩 총 10회기 동안 영시 감상 및 창작 등 시 활동 위주에 미술, 음악, 영화 등의 기법을 보조적으로 가미한 문학치료를 진행하였다. 진행 결과, 학생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회기 중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나눔 시에 어색해하고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상대에게 조언을 하는 등 자기표현 능력과 자신감 등도 향상되었다. 시나 글에도 부정적인 어휘나 표현이 점차 주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Pitr 사전·사후 검사 결과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문학치료는 대학생의 회기별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둘째, 문학치료는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론적으로 영시를 활용한 문학치료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정 외.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현황」. 『이화간호학회지』 29 (1996): 78-93.
- 박현주. 『미술치료 진단 기법의 이해』. 양서원, 2011.
- 변학수. 「문학치료와 문학적 경험」. 『독어독문학』 10집 (2006): 267-300.
- 한주리·남궁은정.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의사소통의 양과 질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 『아동학회지』 29.1 (2008): 325-37.
- Heninger, O. E. “Poetry Therapy in Private Practice.” *Poetry in the Therapeutic Experience*. Ed. A. Lerner. New York: Pergamon, 1978. 56-62.
- Reiter, Sherry. “Poetry Therapy: Testimony on Capitol Hill,” *Journal of Poetry Therapy* 10.3 (1997): 169-78.

셸리의 여성편력과 그 아이러니

이 선 회

(강원대)

I

영국 남부의 시골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Oxford)에 진학했을 때 「무신론의 필연성」(*The Necessity of Atheism*)이라는 소책자를 써서 배포한 일로 6개월 만에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때부터 셸리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여성의 존재는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셸리에게 있어서는 그의 작품에 영감을 불어 넣는 원천이 된다. 셸리의 연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인 셸리가 만들어지는데 여성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시인됨은 여성의 희생과 사랑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기에 그 고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셸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난 호그(Hogg, Thomas Jefferson)와 함께 「무신론의 필연성」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와 절친한 친구로 지낸다. 그러나 호그는 셸리 평생 동안 셸리의 연인들을 유혹한다. 셸리는 어린 시절부터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읽었으며 과학과 역사에 열중했지만 특히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된 메리 셸리(Shelley, Mary Wollstonecraft)는 그가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셸리가 사상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자신의 시 속에 뚜렷이 새겨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셸리 자신도 1819년에 피콕(Peacock, Thomas Love)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가 도덕적, 정치적인 지식에 종속된 것(Hodgart 64)이라고 적고 있어 셸리가 시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인 관심은 셸리가 한 여성과의 사랑에 안주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들과 염문을 뿌리는 이유가 된다. 나비가 꽃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세속적인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셸리에게 있었던 것이다.

셸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다던 작품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1820)를 이탈리아에 체류 중이던 1818년과 1819년 사이에 썼는데, 그 당시에 셸리는 무신론자, 혁명주의자 특히 여자문제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혹평과 부인 메리의 거듭되는 유산과 태어난 아기들이 연달아 죽는 등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간의 이러한 혹평들에 대해 그는 『시의 옹호』(*A Defence of Poetry*, 1821)에서 시인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시인의 사상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변명한다. 시는 그 시인의 지고한 사상이며 가치인 동시에 영혼의 표현으로 개인 생활이나 행동에서 오는 모순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작은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I

셸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난 후 자신의 여동생 헬렌(Hellen)의 친구인 헤리엇(Westbrook, Harriet)을 만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Edinburgh)로 도피하여 결혼을 한다. 그는 자유연애를 주장했기에 헤리엇과 결혼을 했을 때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극복해야만

했다. 또한 호그가 헤리엇을 유혹하려고 시도했을 때에도 셸리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격차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 후에 셸리는 결혼이 자유로운 정신의 결합이라는 믿음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 된 메리를 호그와 공유한다. 호그는 셸리의 동의하에 메리 셸리의 호의를 공유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셸리가 죽고 나자 예상대로 호그는 셸리의 마지막 사랑인 제인(Williams, Jane)과 결혼한다.

셸리가 헤리엇과 달아났을 때 셸리는 19세, 헤리엇은 16세가 채 되지 않았었다. 1811년 8월에 헤리엇과의 스코틀랜드로의 도망으로 셸리는 가족들과 결별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했으며 1815년 5월까지 무려 2900파운드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다. 1814년 말에 셸리는 헤리엇에게 쓴 절망적인 편지에서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 축축한 감방에 가두어진다면, 6펜스(하찮은 돈)도 없이 또 친구도 없이... 나는 필시 굶어 죽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빵을 살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한다.”라고 자신이 처한 곤경의 비참함에 대해 말한다.

셸리는 헤리엇과 만나는 동안에도 자신보다 10살 정도 더 많은 여교사 엘리자베스 히치너(Hitchener, Elizabeth)에게 관심을 갖고 서신을 교환한다. 셸리는 헤리엇 보다도 히치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녀로부터 영감을 받고 『퀸 맵』(*Queen Mab*, 1813)을 쓴다. 『퀸 맵』은 또한 셸리가 진보적인 정치 철학자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 1793)의 영향을 받고 쓴 작품이기도 하다. 셸리는 히치너를 지적이며 철학적인 관심을 지닌 비범한 재능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한다. 히치너는 셸리에게 있어서 진보적인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친구였다. 그러나 그는 히치너에게 매우 많은 것을 기대했기에 영혼의 친구였던 그들의 관계는 1년 만에 끝나고 만다.

물론 셸리는 히치너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헤리엇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헤리엇이 정말로 사랑스러웠으며 활짝 핀 꽃 같았다고 말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이 잘 손질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헤리엇의 아름다움에 대해 분홍색과 흰색의 꽃을 닮았다고 그는 말한다. 헤리엇은 그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 많은 양의 책을 읽었으며 셸리로부터 라틴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헤리엇의 이러한 노력도 셸리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불완전했다. 셸리는 한동안 자신이 그렇게도 추구했던 지성과 아름다움의 유쾌한 혼합을 그녀에게서 찾기를 희망했지만 불쌍한 헤리엇은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헤리엇은 셸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결여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헤리엇이 교태를 부렸으며 경솔하며 트릭에 정통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만으로도 그녀는 셸리를 냉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록 헤리엇에게는 지적인 것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셸리의 지적인 추구를 쫓아가기에는 부족했다. 헤리엇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으며 이제 더 이상 고상한 보헤미안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셸리는 시를 감상할 수 있고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연인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헤리엇은 그 두 가지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셸리는 잃어버린 포도를 무가치해 보이게 만드는, 매우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쁨을 느꼈다. 그는 헤리엇이 절망감의 고통에 빠져있는 것을 봤을 때 오래전에 그녀와 함께 보냈던 달콤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지만, 새롭게 마주한 메리의 면전에서 메리의 평온한 매력에 자신을 다시 바치기 시작했다.

헤리엇과 메리 이 두 여인을 두고 셸리의 친구들은 각자의 취향대로 얘기를 한다. 피콕(Peacock, Thomas Love)은 메리보다 헤리엇을 더 좋아했으며 헤리엇을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묘사했다. 피콕에게 헤리엇은 전형적인 장미와도 같았지만 그는 셸리에게는 메리가 지적

으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냉정하게 말한다. 헤리엇에 대한 피콕의 연민은 셸리가 메리와 함께 달아나고 난 뒤에 태어난 두 아이 이안테(Ianthe)와 찰스(Charles)와 함께 내 버려진 아내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에 호그는 애초에 헤리엇을 유혹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녔으며 대단히 매력적인 여인이라고 말해 메리에게 또 호감을 나타냈다.

III

1814년에 고드윈의 집에서 셸리가 메리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됨과 동시에 이때부터 헤리엇과의 사이에서는 불화가 생겨나는 원인이 된다. 16살의 메리는 인상적인 외모에 더해 매우 총명해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셸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던 당시에 우연히 접했던 『정치적 정의』의 저자 고드윈과 『여성의 권리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1792)의 저자로 유명한 울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Mary)의 딸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었다. 『여성의 권리 옹호』 역시 1812년에 셸리가 책 판매업자로부터 주문해 읽었던 책으로, 그 책은 페미니즘과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셸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셸리의 작품 『이슬람의 반란』(*The Revolt of Islam*, 1818)의 신여성인 시스나(Cythna)는

동등한 법과 정의를 가르친다
오랫동안 짓밟히고 더럽혀져 온 여자들에게;

doth equal laws and justice teach
To Woman, outraged and polluted long; (1594-95)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계몽가로 활약하는 시스나는 울스톤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 옹호』가 바탕이 되어 나온 여 주인공이다.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도 이튼(Eton College)의 마지막 학기였던 1809년에 셸리가 접했던 책으로, 그는 고드윈의 사상에 빠져들어 고드윈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다. 당대의 진보적인 정치 사상가 고드윈의 저서와 여성 페미니스트인 울스톤크래프트의 저서를 이미 읽었던 터라 셸리가 첫눈에 메리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은 당연하다. 그는 울스톤크래프트의 정신이 마치 메리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어느 날 저녁 메리의 어머니 울스톤크래프트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방안에 셸리와 메리 둘만이 남겨졌을 때 메리는 셸리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한다. 메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죽은 어머니 울스톤크래프트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재혼한 Mrs. Godwin을 몹시 싫어했으므로 그 집은 그녀에게 혐오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메리가 평화로움을 느끼는 유일한 곳은 팬크라시 묘지(St Pancras churchyard)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옆이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메리는 책을 들고 그곳으로 찾아가 독서를 하거나 명상에 잠기곤 했다. 셸리와 메리가 만나고 난지 한 달 뒤에 울스톤크래프트의 묘지에서 이들은 사랑의 언약을 하는데 그 곳은 그들이 사랑을 언약하는 장소로 적합해 보인다. 그 일이 있은 뒤 바로 그 다음 달에 셸리는 메리와 함께 메리의 이복 여동생 클레어(Mary J. Claire)를 데리고 프랑스를 거쳐 스위스로 도주했다가 돈이 바닥이 나자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다. 셸리는 여행 중에 헤리엇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들과 함께 지낼 것을 제안하나 헤리엇은 응하지 않았다. 셸리의 제안은

그의 맹목적인 이상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여행하던 1814년의 프랑스는 전쟁과 굶주림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Patricia Hodgart 54). 셸리는 당시 상황의 참혹함에 대해 헤리엇에게 편지를 썼으며 메리와 클레어 역시 자신들의 일기에서 당시의 끔찍함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한다. 셸리는 자신이 실제로 목격했던, 전쟁과 기근으로 약탈당한 프랑스의 참담한 모습을 『이슬람의 반란』 (*The Revolt of Islam*, 1818)에 옮겨 온다.

..... 주위에는
여자와, 아기와, 남자들이 살해되어 어질러져 있었다.
시장에 있는 샘물 옆에서
말에서 내려 시체들이
실눈을 뜬 채 서로의 얼굴을,
땅을 또 허공을 그리고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and around did lie
Women, and babes, and men, slaughtered confusedly.
Beside the fountain in the market-place
Dismounting I beheld those corpses stair
With horny eyes upon each other's face
And on the earth and on the vacant air,
And upon me, (2740-57)

셸리, 메리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한 클레어는 울스턴크래프트가 메리를 낳고 죽은 후 고드윈이 재혼 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다. 울스턴크래프트가 고드윈과 결혼했을 때에도 이미 그녀에게는 프랑스에 있던 동안에 낳은 사생아 페니 임레이(Fanny Imlay)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드윈의 집에는 메리와 더불어 울스턴크래프트가 다른 곳에서 낳아서 데리고 온 페니와 울스턴크래프트가 죽고 나서 아버지 고드윈이 재혼한 새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클레어가 모두 함께 자란다. 셸리가 이러한 상황의 고드윈 집에서 메리와 만나는 것을 계기로 메리뿐만 아니라 페니, 클레어 등의 세 여자들은 모두 셸리와 사랑에 빠지나 셸리는 후에 메리와 결혼을 한다.

클레어는 셸리와 메리의 가정에 영원히 따라다녔다. 셸리와 클레어의 관계는 셸리의 전기 작가들에게 미해결된 미스터리이다. 1821년에 셸리가 클레어에게서 떠나 있을 때 “당신을 향한 나의 애정이나 걱정이 영원히 멈추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클레어에게 쓴 셸리의 편지를 보면 그가 클레어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리도 클레어가 자신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했으며 클레어가 자신의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질투를 했다는 것만 봐도 그들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클레어와 바이런 사이의 아이로 알려진 아기 알레그라(Allegra)에 대해 일부 평자는 셸리와 클레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고도 말한다.

1816년에 셸리는 스위스에서 바이런을 처음 만나는데, 이때 셸리는 메리, 클레어와 함께 제네바 호수에 머물고 있었으며 바이런 역시 그 호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머물고 있었다. 셸리와 메리, 클레어, 바이런 그리고 바이런의 주치의인 존 윌리엄 폴리도리 이들은 제네바의 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며 바이런의 제안으로 메리는 『프랑켄슈타인』을 쓰게 된다. 이때 클레어는 이미 바이런과 불륜관계를 맺고 바이런의 아이 알레그라를 가졌는데, 그 후 셸리는 클레어와 그녀의 아기의 양육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바이런을 찾아 가기도 한다. 바이런과 셸리는 둘 다 비참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무엇보다

다 중요한 것은 그들 둘 모두가 시인이라는 점이다. 셸리와 바이런은 서로의 관계를 즐겼으며 함께 말을 타거나 사냥을 하거나 요트를 탔으며 정치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관점을 지녔으며 자연에 대해 깊은 이해를 공유했다.

1816년에 그들이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셸리 부부는 두 건의 비극적인 일에 직면한다. 셸리 부부가 매우 좋아했던 메리의 이복 여동생 페니 임레이와 헤리엇의 자살 사건이 그것이었다. 페니는 쾌활한 클레어와 메리에 비해 다소 우울한 성격의 평범한 소녀였다. 고드윈은 편지에서 페니를 조용하고 겸손하며 수수한 기질이라고 말한다. 페니는 자신에 대해 “불행한 탄생이며 자신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노트에 적어 놓았다. 페니의 자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달에 런던 하이드파크의 강 서편타인(Serpentine River)에서 헤리엇이 투신 자살을 한다. 헤리엇의 죽음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 무렵 헤리엇은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언니 엘리자(Westbrook, Eliza)에게 맡겨 두고 헤리엇 스미스(Harriet Smith)라는 이름으로 첼시(Chelsea)에서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자살 직전에 알려진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엘리자에게 자신의 절망감과 고독감을 나타내는 편지를 쓴 것이었다. 헤리엇의 죽음은 셸리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메리와 사랑에 빠진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도 셸리는 페니의 죽음이 헤리엇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셸리가 헤리엇의 자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즉 2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잉글랜드에서 메리와 결혼한다. 잉글랜드는 헤리엇이 물에 빠져 자살한 곳이며 또한 셸리가 메리와 결혼한 장소이기도 하다. 강심장을 가진 셸리의 여러 행동들은 맹목적인 이상주의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셸리 부부는 1818년에 영국을 영원히 떠나 이탈리아로 와서 자리를 잡는데 이곳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셸리 부부의 행복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이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모두 잃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죽음은 메리를 거의 미치게 할 정도로 절망 속으로 몰아갔다. 한 아기는 1815년에 조숙아로 태어나 이미 죽었으며, 클라라는 9월에 베네치아에서, 막 세돌 반이 된 윌리엄은 다음 해 6월에 로마에서 숨졌다. 윌리엄이 죽고 나서 그녀는 리 헌트(Hunt, James H. Leigh)의 아내에게 자신은 그 어떠한 것에도 적합한 사람이 아니며 또한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편지를 썼다. 설상가상으로 그녀 남편의 공공연한 다른 여자들- 클레어, 에밀리아 비비아니(Emilia Viviani), 제인(Jane Williams)-에 대한 관심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메리는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1819년 11월에 네 번째 아이 퍼시 플로렌스(Shelley, Percy Florence)를 출산함으로써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1822년에 셸리는 라스페치아 근해에서 요트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여 익사한다. 그는 비아레조 해안에서 익사할 때까지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로 인도에서 기병대로 근무했던 에드워드 윌리엄즈(Edward Williams)의 내연의 처 제인(Williams, Jane)을 사랑했다. 제인은 셸리부부와 친하여 같은 지역에서 살았으며 미모와 정숙함을 갖춘 여인이었다. 셸리는 제인을 사랑하였으며 그녀를 위해 「제인에게」(“To Jane”, 1822)라는 시를 여러 편 썼다. 셸리는 제인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사랑했으며 그녀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녀의 목소리에도 취하여 음악과 같은 환상의 세계로 몰입했다.

IV

여러 연인들 중에서 셸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메리이다. 메리와 함께 했던 삶은 서로의 지적인 관심과 기호를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셸리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했다.

메리는 남편만큼이나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독서가였으며 또한 학자 집안 출신으로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썼을 때에는 그녀의 나이 19세였다. 셸리는 1812년에 플라톤의 작품을 접했는데 그가 메리와 함께 살았던 1815년과 1816년이 되어서야 그리스 고전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셸리는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그리스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스 고전에 대해 박식하고 열정적인 학자였던 피콕이 셸리를 격려해주었다.

셸리의 사후에도 메리는 글을 쓰거나 편집 일을 하면서 문학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다작의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였다. 메리의 편지와 일기는 8년 동안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녀의 일기는 1814년 프랑스로 도피한 것을 시작으로 그들이 함께했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다. 그 기록들은 주로 날씨에 대한 것이나 그들의 친구들에 대한 가끔의 스케치와 그녀와 셸리가 읽은 만만찮은 책들의 목록과 그녀의 비범한 지적인 범위를 알려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편지와 일기는 신중하며 남편의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 하지 않는다. 단지 그녀가 마리아 기스본(Maria Gisborne, 1822년 3월 7일)에게 쓴 편지에서 셸리의 이탈리아의 플라토닉 러브를 끝내는 에밀리아 비비아니의 결혼이나 혹은 셸리의 시간과 많은 관심을 끌었던 클레어가 떠났을 때 안도감을 나타낸 것에 대해 아이로니컬하게 썼을 때는 약간의 진실도 묻어낸다.

셸리의 여러 여성들과 만남은 용서할 수 없는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결과를 낳았다. 그의 사랑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그들을 자살로 이끌었다. 이러한 행동들을 야기 시킨 셸리의 내면에는 자신의 아내조차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존재이기보다는 인류의 일원으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평등주의 사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랬기에 셸리는 메리와 유럽으로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헤리엇에게 자신들의 여행에 함께 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었다. 셸리의 생각들은 그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물론 보수적인 당시 영국 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여성들에 대한 셸리의 사랑의 흔적은 「헤리엇에게」(“To Harriet”), 「메리에게」(“To Mary”), 「제인에게」(“To Jane”) 등의 시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장시에도 남아 영향을 끼친다.

셸리의 여인은 셸리가 죽어서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메리는 셸리의 사후에 그의 유고작을 만들어 재조명 받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셸리가 낭만주의의 대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반석 같은 여성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 1859)에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서병훈 113). 이렇듯 인간은 내면에서 생겨나오는 에너지에 따라 자라는 생명체이지만 셸리를 사랑했던 여인들은 셸리와의 관계 맺음에서 더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유를 상실하고 희생당했다. 그러나 여인들의 죽음과 희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시인 셸리라는 꽃을 피우게 한다.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퀸 맵』(*Queen Mab*, 1813)과 『이슬람의 반란』(*The Revolt of Islam*, 1818), 그리고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1820) 등의 장시에서 만약 여 주인공들이 빠져 나온다면 그 작품들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셸리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셸리가 그토록 상처를 주었던 여성들이다. 난봉꾼과도 같았던 셸리에게 여성의 존재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원천이었던 것이다.

참고 문헌

- 프레스, 즈느비에브 외, 『여성의 역사 4 : 페미니즘의 등장』, 권기돈·정나원 옮김. 새물결, 1998.
- 밀, 존 스튜어트. 『자유론』. 서병훈 역. 책세상, 2005
- 울스틴크래프트, 메리. 『여권의 옹호』, 손영임 옮김. 한길사, 2008.
- Hodgart, Patricia. A Preface to Shelley. Longman, 1985.
- Maurois, Andre. Ariel. A Shelley romance. Pimlico, 1991.
- Wollstonecraft, Mary.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Edited by Carol H. Poston. new York : W·W·Norton&Company, 1988.

예이츠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양상

- 상징과 해학을 중심으로

전 승 희
(강원대)

I

본 연구는 예이츠 시에 나타난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고찰하고 예이츠의 사랑에 대한 시들을 연구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일랜드 민족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1865-1939)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노르만 정복 때부터 700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노력을 했다.

그는 문예부흥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가 오랫동안 관심 가져왔던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과 종교들을 통합하여 ‘존재의 통합’을 이루고자 애썼다.

그와 더불어 그를 끊임없이 작품을 쓰도록 한 원동력은 사랑일 것이다. 유약하고 여성적인 성품이었던 예이츠가 23세이었던 1889년 겨울에 처음 모드 곤을 만난 일, 1903년 그녀의 결혼, 그리고 1916년 마지막 청혼이후 다음 해 갑작스러운 그의 결혼 모두 그의 일생을 통해 큰 전환점이 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이츠 삶과 그의 예술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그의 모드 곤(Maud Gonne, 1866-1953)을 향한 사랑은 그녀가 일반인이 아닌 아일랜드 독립투사인 영웅적인 여인이었기에 쉽지만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사적, 시간적 수많은 사건들과 변화들 속에서 예이츠는 다양하게 그녀를 표현하고 다루고 있다.

예이츠의 사랑에 대한 시들은 상당히 상징적이며 단일한 의미의 은유적 표현보다는 이미 지화되고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 의미들을 제 3자들이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또한 그의 사랑은 이루어 질수 없는 사랑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기 보다는 해학적인 면모가 많다. 직설적인 사랑고백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할 것이라 둘러말하기도 하고 무심한 그녀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보다 공격적인 사랑도 서슴치 않는다.

본 연구는 예이츠 작품에 나타난 예이츠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의 사랑시들이 가진 상징의 해학에 대하여 보다 깊이 연구할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II

예이츠는 모드 곤을 처음 만난 날을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날은 고전적인 봄의 화신처럼,“그녀는 여신처럼 걷네.”라는 베르길리우스의 찬사가 오로지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꽃잎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과꽃처럼 빛났고, 가득 핀 꽃 덩굴 옆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을 창을 통해 본, 그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난다.(『자서전』 163)

존 올리어리의 소개장을 들고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온 모드 곤을 처음 본 예이츠는 그녀를 '사과꽃'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시 「화살」에 새겨 놓았다.

그대의 아름다움을 생각했더니, 걱정적인
생각에서 빚어진 이 화살이 내 골수에 들어 있소
어떤 남자도 그 어떤 남자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리,
이제 한 여인으로 갓 성장하여
큰 키에 당당하지만 얼굴과 가슴은
사과꽃처럼 섬세한 색깔 띤 여인을 바라볼 때 같이.
이 미녀는 한결 상냥하지만, 이유가 있으며
늙은 것이 한물값음을 나는 슬퍼한다오.(예이츠 시전집 151)

예이츠가 모드 곤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을 '사과꽃'에 비유했는데 엘만은 이는 지상에 없는 완벽함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았다.(Ellmann 99)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인 당대 아일랜드 영웅인 모드곤의 모습에 예이츠는 첫눈에 반해 버리고 그녀를 향한 마음이 화살이 되어 골수에 박혀버렸다고 말한다. 누구도 자기처럼 이 여자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운명같은 사랑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격한 독립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아일랜드 영웅과의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기쁨보단 큰 고통과 좌절을 가져왔다.

예이츠는 그의 마음을 몰라주는 모드 곤을 「물고기」에서 어부의 그물을 잘도 빠져나가 버리는 무심한 물고기로 표현하였다.

당신이 달빛 지는 창백한 조수의
호름 속에 가만히 숨어 있어도,
앞으로의 인간들은 내가 던진
그물의 크기를 알리라.

어떻게 당신이 작은 은사 너머로
마음 너머 시대를 뛰어넘었는지도,
당신이 몰인정하고 냉혹하다고
수많은 혹설로 비방하리라.(예이츠시전집 109)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서운하지만 그물을 피하는 것이 물고기의 본능인 것을 공연이 세상 사람들이 예이츠의 사랑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모드 곤을 비난할까 염려하는 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세상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할 거라 넌지시 알려주는 듯한 이중성이 나타나 있다.

「연인이 충고하다」에서 예이츠는 그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시끌벅적한 군중들의 목소리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새 친구들,
비록 그대가 잘 나가지만,
매정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옛 친구를 극진히 대하라.
시간의 가혹한 물결이 일어,
그대의 미가 쇠퇴하고 나면
내 눈은 아니지만 모든 이의 눈에서 사라질 것이니.(예이츠시전집 140)

지금이야 모드 곤이 아름답고 아일랜드의 영웅적인 여인으로 잘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늙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니 옛 친구인 자신에게 잘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눈은 아니지만..’이라 말하며 자신은 변하지 않을 사람임을 알려 준다.

초기시에서 모드 곤을 사과꽃, 장미, 흰 새, 물고기같은 동식물의 비유했다면 중기이후에는 헬렌이나 몰락한 군주로 묘사되어진다.

먼저 「호머가 노래한 여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젊은 시절 나는
어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면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는 생각에
미움과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지.
그러나 그 친구가 무관심한 눈으로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지나칠 때면
아! 그건 더욱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1연, 예이츠시전집 172)

모드 곤에게 남자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갈까봐 걱정되면서도 그녀는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인지라 그녀 곁에 사람들이 없으면 또 다른 걱정이 몰려오는 미묘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젊은 시절 그녀의 피는
불처럼 뜨거웠고,
호머가 노래한 여인처럼
구름 위에 노닐 듯,
그토록 부드럽고 자부심 넘치는 자태로
발걸음도 가볍게 쏘다녔지.
그러기에 삶과 문학은 오직
영웅적인 꿈으로 여겨졌다네.(3연, 예이츠시전집 172-173)

호머가 노래한 여인은 헬렌으로 모드 곤을 상징하고 자신은 그녀를 노래하는 호머라 대입되어 질수 있고 그녀 또한 불같은 열정으로 뜨겁고 여신처럼 아름다우며 자부심 넘치는 자태를 가졌기에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삶과 문학이 가치있다고 말한다.

그는 「제2의 트로이는 존재하지 않기에」에서도 아름다운 그녀를 그리스의 헬렌에 비유하였다.

내가 왜 그녀를 비난해야 하는가?
그녀가 내 삶을 온통 비참하게 만들고,
최근에 무지한 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용기만 있다면
아주 난폭한 것을 저지르도록 가르치고,
작은 길을 큰 거리로 내던지게 했다고 해서.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
고결함 때문에 불같이 단순해지고,
팽팽히 잡아당긴 활처럼 아름다우며,
고귀하고, 고고하며, 너무나 준엄하여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여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불태울 또 다른 트로이가 있었던 말인가?(에이츠시전집 175)

에이츠는 모드 곤을 헬레네에 비유하여 이런 여자에겐 아일랜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녀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상적인 여인으로 넘치는 여자라고 찬양하고 있다. 비록 그녀가 에이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정치를 펼쳐 사람들을 거리로 쫓아져 나오게 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비난받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8행부터 11행까지는 모드 곤의 속성을 소개하며 그녀가 고결하며 아름답고, 고귀하며 고고하고 너무나 준엄하여 오늘 날과 같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탓이라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에이츠는 그녀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려 한다.

또한 「몰락한 군주」에서는 그녀를 군주라 묘사한다.

예전에는 그녀가 얼굴만 한번 내밀어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심지어 노인들 눈까지 흐릿해졌으나, 이제는 이 손만이,
마치 짐시들의 야영지에서 몰락한 군주에 대해 궁시령거리는
마지막 궁정인처럼, 사라져버린 것들을 기록하는구나.

생김생김들, 웃음을 달콤하게 만든 마음,
이것들, 이것들은 남아있지만 나는 사라진 것들을 기록한다.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불타는 구름과 같았던 한 존재가 걸었던
그 거리를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리.(236)

제목의 ‘몰락한 군주’는 인기 시들은 모드 곤을 상징한 것으로 그녀의 과거의 현재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에이츠 자신은 ‘궁정인’으로 “사라져버린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예전에 불타는 구름과 같았던 한 존재”였던 모드 곤이 몰락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 일은 그녀에 대한 글을 써내려 가야할 시인의 역할인 것이다. 그녀의 지나친 열정들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헬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호메로스처럼 자신도 그녀에 대해 시를 쓰는 일은 계속 하겠다한다.

에이츠는 이후 「그의 불사조」라는 시에서는 “나는 젊은 시절에 불사조를 알았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잊으려고 잊으려 할수록 되살아나는 그녀의 이미지를 불사조라고 표현하였다.

에이츠는 『나선 계단과 기타시편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자유로운 영혼의 미친제인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무너진 참나무로 날 데려가요
그리하여 한밤중 정각에
(모두 무덤에선 안전하지.)
지금은 죽어 없는 내 사랑 짝 때문에
나 그의 머리 위로 저주를 불러내도록
기껏해야 그는 열간이라 말했지.
웅골찬 인간과 열간이.

그의 과문이
날뎀팔이 짝을 추방시켰을 때
결코 그는 주교가 아니었지.

(모두 무덤에선 안전하지.)
결코 그 교구의 사제조차도 아니었지.
그러나 그는, 주먹 속에 낡은 책 한 권 들고
외쳤지. 우리 짐승과 짐승처럼 살았다고.
옹골찬 인간과 열간이.

신도 알고계시지. 그 주교가
거위 발처럼 쭈그러 피부를 가진 것을
(모두 무덤에선 안전하지.)
결코 그는 신성한 검은 망토 속에
그 해오라기 같은 굵은 등을 숨길 수 없지.
그러나 한 그루 자작나무가 내 책을 일으켜 세웠지.
옹골찬 인간과 열간이.

책은 내 처녀성을 갔지.
이제 날 그 참나무로 초대하네. 그는
(모두 무덤에선 안전하지.)
밤 속을 떠돌아다니고
그 아래에 피난처있기에,
그러나 그 다른 이가 온다면 난 침 뱉으리.
옹골찬 인간과 열간이.(에이즈시전집 494-495)

죽음 이후의 세계에 그 가치를 두고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아일랜드 카톨릭 주교에 굴하지 않고 장인 책을 사랑하는 제인은 오히려 주교가 ‘위선자’(한국에이즈학회 역, 143)이며 그의 성경책이 ‘낡은 책 한 권’(“an old book”)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외친다. 그래서 「미친 제인과 주교」에 나오는 후렴구 “옹골찬 인간과 열간이”(“The solid man and the coxcomb”)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주교가 옹골찬 인간이고 죽은 책이 열간이겠으나 3연에서 주교를 “거위 발처럼 쭈그러 피부를 가진”과 “해오라기 같은 굵은 등”으로 묘사하고 그가 추구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의 가치 조차 보잘 것 없으니 오히려 책이 옹골찬 인간일 수 있고 주교가 열간이 일수 있기에 중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이츠는 「미친 제인의 최후의 심판일」에서 제인의 입을 통하여 “사랑이란/ 육체와 영혼/ 전체를 취하지 않으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Love is all/ unsatisfied/ that cannot take the whole / body and soul”)하면서 사랑은 영혼과 육체 모두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진정한 사랑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될 때 가능하며 완전한 사랑 또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진 「미친 제인이 주교와 얘기하다」에서 제인은 주교를 만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길에서 주교를 만났어요.
우린 많은 얘기를 나눴지요.
‘그 젓가슴은 이제 납작해지고 축 늘어졌구나.
그 핏줄도 곧 쪼그라들 게 분명해.
천국의 집에 살라고,
그런 더러운 우리 말고 말야.’

‘아름다움과 더러움은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름다움은 더러운 게 필요하구요.’라고 내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내 친구들은 다 가버렸지만, 그게 진실인걸요.
무덤도 침대도 부인할 수 없고
몸을 낮춰
마음의 자부심에서 배우는.’

‘여자는 사랑에 집중할 때
자부심 있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자신의 집을
배설의 장소에 지어요.
갈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단독자도 전체도 될 수 없어요.’(에이츠시전집 501)

제인이 하는 사랑을 못마땅해하는 주교는 그녀의 변해가는 육체의 모습을 조롱하며 지상의 사랑에 가치를 두라며 설교를 하지만 제인은 오히려 그에게 아름다움은 더러움의 존재로 인해 가치가 있고 천국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우리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영혼이 중요한 만큼 육체도 소중하며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영혼이 하는 일만큼이나 육체가 하는 일 또한 그 가치가 못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III

에이츠의 시는 정치시, 사랑시, 그리고 존재의 통합에 대한 상상력의 시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징과 이미지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와 그의 사상을 나타내고자 노력했다. 현실도피적이며 몽환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던 그는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노력을 통하여 현실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들을 한데 모을 이상적인 사상을 완성해나간다.

그중에서 본 연구는 그의 시에 나타난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에이츠의 사랑에 대한 상징과 해학을 찾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에이츠의 사랑에 관한 시들은 60편이 넘을 만큼 많아서 본 연구에서 다 다룰 수 없었지만,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유기체적인 변화하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긍정연애풍의 사랑에서 후기 ‘미친 제인’에 이르기까지 모드 곤에게 목을 매던 순진한 에이츠가 점점 여성에 대해 온갖 생각을 쏟아낸다. 에이츠는 그녀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이를 수 없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이는 그녀의 탓이 아니며 그것으로 인해 그녀에 대해 시를 써야하는 그의 숙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켜버린다. 하지만 절대미를 가진 여인의 파괴적인 힘에 힘들어하면서 점차 현실적인 솔직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며 진정한 사랑은 ‘존재의 통합’과 같이 영혼과 육체 모두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에이츠의 사랑은 대부분 상징이며 상당히 해학적이다. 대상을 분리해서 비판이나 비난하고자 하는 풍자보다는 해학은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하는 따스함과 감싸 안는다. 에이츠의 사랑엔 유머가 있고 세상을 관조하는 시인을 모습이 엿보인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기에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에이츠의 사랑에 관한 작품을 연구하는 데 귀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상무 역. 『에이츠 서정시전집: 제 2권 사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진용우. 『20세기 영미시 읽기』. 서울 : 브레인하우스, 2006.
- 존가렛. 최영승 역.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서울: 동인, 2013.
-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이철 역.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자서전』. 서울: 한국문화사, 2018.
- 한국에이즈학회 역. 『나선계단과 기타시편들』.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에이츠 시 전집』. 서울: 동인, 2011.
- W. B. Yeats. Richard J. Finneran Ed.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New York:Scribner Paperback. 1983.

Emersonian “Circle” in Whitman’s Poetry (휘트만시에 나타난 에머슨의 “원”)

장철우
(강원대)

휘트만(Walt Whitman)은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민 시인 반열에 오른 시인이고 그와 동시대에 에머슨의 영향을 받아서 “초절주의”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철학적 담론을 발전시킨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휘트먼은 그는 1891년에 뉴욕 주 롱아일랜드 헌팅턴 웨스트 힐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쇄소나 신문사의 식자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시를 쓰게 되고 그 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육군병원에 간호사로 자원하고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의 시에 투영된 에머슨의 초절주의의는 미국 역사의 근간이 되는 17세기 청교도적 사상과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하관계의 전통적 종교관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초절주의는 우리 개인 자신 속에서 신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왜 휘트먼을 미국이 국민시인이라고 부르는가?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문에 미국은 수많은 희생을 겪고 그 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고 휘트먼은 정치적 해법보다 시를 통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시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확장시켜 개인과 군중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개인의 영혼이 크게 확장하여 전체의 영혼이 될 수 있고 그 점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는 시도를 했다. 따라서 그가 바라보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시인이 예언자적 역할을 하여 종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철학적 사상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에머슨의 주요 Essay중에서 그의 철학적 사상을 잘 표현한 “Circles”를 통해서 휘트먼의 시 「강을 건너는 부르클린 배」(“Crossing Brooklyn Ferry”)를 읽어 보려고 한다. 이 시에서 작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맨하튼에서 쏟아져 나와 배(Ferry)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도시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 자신의 과거의 모습(조상), 현재의 모습(화자), 미래의 모습(후손)을 연상해 보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사이의 간극을 석양노을 아래서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없애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선조의 모습이 현재의 자아가 되고 현재의 자아는 미래의 후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본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고 개인은 한계를 넘어 크나큰 하나의 그림 속에 일부로 존재하는 개인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이민 역사와 국적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이,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동일하게 접칠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흐름처럼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러한 반복과 도약의 모습은 에머슨의 에세이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Circle”의 개념을 이해하면 더욱 쉽게 이해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휘트먼과 에머슨의 철학적 결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19) 장철우, 「윌트 휘트먼-“생성”(becoming-)과 “숭고”(sublime)의 종교적 의미」, 한국현대영미학회학회
논문집, 『현대 영미 종교시의 이해』, 희동. 2016. p. 2.

그러면 에머슨이 이야기하는 “Circle”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에머슨은 시인의 역할을 그의 에세이 「시인」(“Poet”)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것들을 흉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인은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인위적인 것이나 혹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다시 자연에, 전체에 깊은 통찰력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것들도 없애버릴 수 있다. (Emerson 455)

For as it is dislocation and detachment from the life of God that makes things ugly, the poet, who re-attaches things to nature and the Whole,—re-attaching even artificial things and violations of nature, to nature, by a deeper insight,—disposes very easily of the most disagreeable facts.

다시 말하면, “시인은 언어가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듯이 영혼(soul)이 육체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휘트먼은 “영혼”(soul)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각각의 개인이 지닌 주체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크게 확장을 시도하였다“ (6). 휘트먼은 영혼을 역동적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있어서 부분이 전체에 속하도록, 그리고 전체가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1

Flood-tide below me! I see you face to face!
Clouds of the west—sun there half an hour high—I see you also face to face.

Crowds of men and women attired in the usual costumes, how curious you are to me!
On the ferry-boats the hundreds and hundreds that cross, returning home, are more curious to me than you suppose,
And you that shall cross from shore to shore years hence are more to me, and more in my meditations, than you might suppose.

2

The impalpable sustenance of me from all things at all hours of the day,
The simple, compact, well-join'd scheme, myself disintegrated, every one disintegrated yet part of the scheme,
The similitudes of the past and those of the future,
The glories strung like beads on my smallest sights and hearings, on the walk in the street and the passage over the river,
The current rushing so swiftly and swimming with me far away,
The others that are to follow me, the ties between me and them,
The certainty of others, the life, love, sight, hearing of others.

Others will enter the gates of the ferry and cross from shore to shore,
Others will watch the run of the flood-tide,
Others will see the shipping of Manhattan north and west, and the heights of Brooklyn to the south and east,

Others will see the islands large and small;
Fifty years hence, others will see them as they cross, the sun half an hour high,
A hundred years hence, or ever so many hundred years hence, others will see them,
Will enjoy the sunset, the pouring-in of the flood-tide, the falling-back to the sea of the
ebb-tide.

3

It avails not, time nor place—distance avails not,
I am with you, you men and women of a generation, or ever so many generations hence,
Just as you feel when you look on the river and sky, so I felt,
Just as any of you is one of a living crowd, I was one of a crowd,
Just as you are refresh'd by the gladness of the river and the bright flow, I was
refresh'd,
Just as you stand and lean on the rail, yet hurry with the swift current, I stood yet was hurried,
Just as you look on the numberless masts of ships and the thick-stemm'd pipes of
steamboats, I look'd.

「강을 건너는 부르클린 배」(“Crossing Brooklyn Ferry”)에서 휘트먼이 말
하는 영혼의 의미는 “나를 항상 지탱해온 인지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힘은 명료하고
완벽한 전체의 조직에 힘이고 그 전체의 그림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종속되는 않는
것이다” (“The impalpable sustenance of me from all things at all hours of the day, /
The simple, compact, well-join'd scheme, myself disintegrated, every one disintegrated
yet part of the scheme,”) 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개인이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유사한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를
묶어내는 힘은 단순히 같은 공간 속에 타자와의 결합만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영역에서도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The similitudes of the
past and those of the future”). 따라서 휘트먼은 “영혼”을 개인과 군중을 하나로 묶어내는
초월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혼이 지닌 힘은 종교의 역할까지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휘트먼의 이러한 철학적 사상은 에메슨의 초절주의를 구현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메슨은 그의 에세이 「원들」(“Circles”)에서 모든 인식의 시작은 “원”에서 출발하고
그러한 원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변화한 환경에서 우리는 경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간다고 주장한다. 우선, 우리의 “눈”이 처음 출발하는 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원의 변형인 수평선을 인지하고 이러한 원의 형상은 자연 속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의 원리는 자연 속에 뿌리 박혀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항상 어디에서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The eye is the first circle; the horizon which it forms is the second; and throughout nature this
primary figure is repeated without end. It is the highest emblem in the cipher of the world. St.
Augustine described the nature of God as a circle whose centre was everywhere, and its
circumference nowhere. We are all our lifetime reading the copious sense of this first of forms.
One moral we have already deduced, in considering the circular or compensatory character of
every human action. Another analogy we shall now trace; that every action admits of being
outdone. Our life is an apprenticeship to the truth, that around every circle another can be drawn;
that there is no end in nature, but every end is a beginning; that there is always another dawn

risen on mid-noon, and under every deep a lower deep opens.

그리고 자연 속에 잠재해 있는 “원”의 특성은 단순한 단일한 원 하나가 아니고 동심원 구조로 되어있고 이는 다시 말해서 크기와 규모가 상황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심원의 성질을 적용해 보면 상층과 하층의 조화도 가능하고 원인과 결과도 한 가지 사실의 다른 측면이고 이러한 것이 높은 단계에서 존재하는 동심원 구조라고 볼 수 있다.

The natural world may be conceived of as a system of concentric circles, and we now and then detect in nature slight dislocations, which apprise us that this surface on which we now stand is not fixed, but sliding. These manifold tenacious qualities, this chemistry and vegetation, these metals and animals, which seem to stand there for their own sake, are means and methods only, – are words of God, and as fugitive as other words. Has the naturalist or chemist learned his craft, who has explored the gravity of atoms and the elective affinities, who has not yet discerned the deeper law whereof this is only a partial or approximate statement, namely, that like draws to like; and that the goods which belong to you gravitate to you, and need not be pursued with pains and cost? Yet is that statement approximate also, and not final. Omnipresence is a higher fact. Not through subtle, subterranean channels need friend and fact be drawn to their counterpart, but, rightly considered, these things proceed from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soul. Cause and effect are two sides of one fact.

네오나드(Neufeldt Leonard)는 이러한 에메슨의 초월주의 사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멈춰져있거나 고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상이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도 일시적으로 변증법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이러한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살아 움직이는 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Although Emerson has rejected the possibility of grasping and claiming ultimate truth or, for that matter, fixing truth and thus fixing perception on definitive truth, his dialectics have a way of making the transcendental signified flicker on as a presence. It is a strange, shimmering, illusive truth that will always evade us, but this seems not to matter, for the approximations with which we are left are the stuff from which the future will be made, the “lively stones” of Circles,“ of the literary artist, and of the reader. (108)

결론적으로, 휘트먼의 시에 나타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리고 시간을 넘나드는 영혼의 활동은 개인이 전체의 모습 속에 존재하게하고 전체가 개인을 포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기계적으로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구성원이 또 다른 살아 움직이는 큰 틀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역학적 과정이 에메슨이 주장하는 “원” 특히 “동심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심원의 형성은 반복과 변화 그리고 도약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장철우, 「윌트 휘트먼-“생성”(becoming-)과 “승고”(sublime)의 종교적 의미」, 한국현대영미학회 위임, 『현대 영미 종교사의 이해』, 희동. 2016. 1-17.
- Aspiz, Harold. *So Long: Walt Whitman's Poetry of Death*.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4.
- Bloom, Harold. “Emerson and Whitman: The American Sublime,” *Poetry and Repression: Revisionism from Blake to Steve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Emerson, Ralph Waldo. *Ralph Waldo Emerson: Essay and Poems*. Ed. Joel Porte, Harold Bloom, and Paul Kane.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96.
- Greenspan, Ezra, ed. *Song of Myself: A Source Book and Critical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04.
- Hutchinson, George. “Kuebrich, David. Minor Prophecy: Walt Whitman's New American Religion [review].” *Walt Whitman Quarterly Review* 8(1990):103-109.
- Kuebrich, David. *Minor Prophecy: Walt Whitman's New American Religion*. Bloomington: Indiana UP, 1989.
- Neufeldt, Leonard, and Christopher Barr. “‘I Shall Write Like a Latin Father’: Emerson's ‘Circles.’” *New England Quarterly* 59 (1986): 92-108.
- Vendler, Helen. *Poets Thinking: Pope, Whitman, Dickinson, Yea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Weiskel, Thomas. *The Romantic Sublime: Studies in the Structure and Psychology of Transcendence*.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 Wilson, Eric. “Whitman's Rhizomes.” *Arizona Quarterly* 55 (1999): 1-21.
- Wilson, Rob. *American Sublime: The Genealogy of a Poetic Genr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1.
- Whitman, Walt. *Democratic Vistas. The Portable Walt Whitman*. Ed. Mark Van Doren. New York: Penguin, 1945.
- _____. *Leaves of Grass: Comprehensive Reader's Edition*. Ed. Harold W. Blodgett and Sculley Bradley. New York: New York UP, 1965.

영문학 소설분과 (인문대1호관 307호)

분과위원장 및 좌장: 박선화(건국대)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소설분과	14:00~14:30	조준희	한라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헤밍웨이 주인공의 성장: “세 단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황혜숙(강원대) 신진범(서원대)		
	14:30~15:00	김경미	경동대	D. H. 로렌스 작품 속 아이의 ‘소리’와 ‘침묵’: 「흔들목마의 승리자」를 중심으로	공명수(대진대) 이영준(한남대)		
	15:00~15:30	박선화	건국대	블루머 복장을 입고 가부장제에 맞서다: 피터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	김덕규 (춘천교대) 이경화(단국대)		
	15:30~15:40	휴식					
	15:40~16:10	조비결	강원대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의 윤리: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연구	이영애(한라대) 노은미(한림대)		
	16:10~16:40	노종진	해양대	올라우다 에퀴아노의 자전 서사에 서의 언어의 중요성	신진범(서원대) 최지윤(강원대)		
	16:40~17:10	김효실	강원대	꿈을 통해 들여다 본 믿음의 종교화	박용준(강원대) 송종민(백석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헤밍웨이 주인공의 성장
— “세 단계 변화”를 중심으로

조준희
(한라대학교)

I. 서론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사망 직후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두 번의 세계대전과 그 사이 벌어진 스페인 내전 등은 유럽 전역을 황무지로 만들지만,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1961) 주인공들은 만연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현실을 수용한 후 자신의 일에 정통하고 중국에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이상적 인간형으로 발전한다. 낡은 가치의 파괴와 이성철학에 결별을 고했던 니체처럼 헤밍웨이 역시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장식과도 같았던 기존의 글쓰기를 배척하고 자신만의 간결한 문체로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철학자 니체와 소설가 헤밍웨이는 젊은 시절 왕성한 저작 활동과 노년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점에서 운명적으로도 닮았다. 철학과 문학을 통해 이들이 평생 동안 천착했던 이상적 인간형은 실존적 인간을 넘어 중국에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인식론과 도덕철학을 비롯하여 니체가 관여한 모든 철학분야가 결국 인간문제로 귀결되듯이, 헤밍웨이 또한 인간이 처한 비극적 운명 속에서도 이를 극복해내며 이상적 인간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니체 철학 사상의 시적 형상화라는 평가를 받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는 인간 정신의 “세 단계 변화”를 역설한다. 무거운 짐을 진 ‘낙타’에서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하는 ‘사자’로, 그리고 성스러운 긍정의 상징인 ‘어린 아이’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헤밍웨이 주인공의 성장과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은 니체의 철학이 D.H. 로렌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또한 맨프레드 푸츠(Manfred Putz)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집성하여 『미국 문학과 사상 속의 니체』(*Nietzsche in American Literature and Thought*)를 출간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체의 철학이 미국의 문학과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체의 사망 1년 전 태어난 헤밍웨이는 니체와 시기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방대한 독서량을 통하여 니체의 철학적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도 있다. 위에 언급된 푸츠가 편집한 논문집에서 크리스토프 쿤(Christoph Kuhn)은 파리 시절 헤밍웨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oke Zarathustra*)를 접했던 기록을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Shakespeare and Company) 서점의 대출 목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쿠바의 핑카 비히아(Finca Vigia) 서재에도 『이탈리아에서의 니체』(*Nietzsche en Italie*)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나아가 그는 헤밍웨이의 최초 단편집 『우리들의 시대에』(*In Our Time*)와 최초 장편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 그리고 논픽션 『오후의 죽음』(*Death in the Afternoon*)이 니체의 『비극의 탄생』(*The Birth of Tragedy*)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쿤의 논문은 헤밍웨이에 대한 니체의 직접적 영향을 밝히고 있지만 초기작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헤밍웨이 작품에 대한 철학적 분석의 기준은 주로 실존주의가 담당해 왔고 남자 주인공의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비판하는 페미니즘 비평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6년 유작

『에덴동산』이 출간된 이후에는 동성애와 젠더 문제로 비평적 지평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니체의 철학이 문학과 예술 분석의 근간으로 거의 모든 장르에서 시도되었던 반면 헤밍웨이 소설 분석의 직접적인 틀로 삼아 비교분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인’, ‘힘의 의지’, ‘영원회귀’등 니체의 핵심 철학이 시적 언어로 집약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헤밍웨이 작품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 중 “세 단계 변화”를 중심 틀로 활용하여 니체가 추구한 이상적 인간형과 세파를 헤치며 변화·발전하는 헤밍웨이 주인공이 서로 일치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II. ‘낙타’로서의 초기 주인공들

위에서 언급한 쿤의 논문에서 그는 니체의 저작이 헤밍웨이 초기작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쿤의 논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초기 주인공들의 행동양식을 지배한 전쟁이라는 참혹함에 주목하고자 한다. 윈스턴 처칠(Winston S. Churchill)은 제1차 세계대전을 기록한 자신의 저서에서 이 전쟁을 인류 최후의 피멸적인 대결전을 뜻하는 아말겔돈(Armageddon)으로 묘사한 바 있다. 전쟁터에서 죽음과 대면하고 종전 후에도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초기 주인공들은 시대가 부과한 짐을 짊어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의 비극적 삶은 『우리들의 시대에』의 주인공 닉 아담스(Nick Adams)와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의 주인공 프레드릭 헨리(Frederic Henry), 그리고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의 제이크 반스(Jake Barnes)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닉과 헨리는 전쟁터에서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고, 헨리는 비극의 현장에서 벗어나 스위스로 도피하지만 출산 중이던 아내의 죽음과 태아의 사산을 목격한다. 헤밍웨이 초기 주인공들의 삶은 전쟁과 부상, 사회 복귀와 부적응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은 젊은 시절을 시대와 함께하며 “낙타처럼 짐을 가득 싣고,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달려간다”(차라투스트라 36). 그들은 차라투스트라의 “세 단계 변화” 중에서 그 첫 번째 여정을 운명적으로 살아간다.

그의 두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척추에 충상을 맞은 상태였다. 얼굴은 땀에 젖어 더러웠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날씨는 매우 더웠다. 등판이 큰 리날디는 장비를 아무렇게나 버린 채, 땅에 얼굴을 대고 벽에 기대 누워 있었다.

Both legs stuck out awkwardly. He had hit in the spine. His face was sweaty and dirty. The sun shone of his face. The day was very hot. Rinaldi, big backed, his equipment sprawling, lay face downward against the wall. (*In Our Time* 63)

몸이 나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밖으로, 바람에 휩쓸려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몸 전체가 빠르게 밖으로 날려갔고,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I felt myself rush bodily out of myself and out and out and out and all the time bodily in the wind. I went out swiftly, all of myself, and I knew I was dead.

(*A Farewell to Arms* 54)

헤밍웨이 초기 주인공들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대부분 심한 부상을 입는다. 헨리는 인간에게 드리워있는 생물학적 덫(biological trap)을 인식한다. 그러나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짐을 가득 싣고”(차라투스트라 36)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대 후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닉과 제이크는 또 다른 짐을 지고 산다. 「병사의 집」

에서 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크랩스(Harold Krebs)는 주변과 교류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너,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라는 어머니의 물음에 “사랑하지 않아요. 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IOT 75)라는 그의 대답은 초기 주인공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그들은 전투 신경증(shell shock)을 겪으며 무기력과 허무의식으로 가족과도 어울리지 않고 자신을 소외시킨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의 제이크 역시 참전과 부상의 후유증으로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종전 후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향락과 허무의식으로 나날들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how to live in it)(SAR 148)를 고뇌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

Ⅲ.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사자’의 정신

20세기 전반기는 전쟁의 시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 스페인 내전은 전쟁의 모든 참혹함을 한 곳에 펼쳐놓은 총체적 비극의 현상이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 이념갈등의 축소판이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공화파를 지지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몰려왔다. 중기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의 주인공 로버트 조던(Robert Jordan)도 그 중 한 사람으로 대의에 헌신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차라투스트라 37)을 향해 ‘사자’의 삶을 선택한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인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결국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다. 동료들을 보내고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조던은 “희망을 가진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승리에 찬 죽음을 맞는다”(125). 헤밍웨이 인물을 논하는데 있어서 규범은 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던의 신념과 행동양식은 ‘세계의 본질은 의지’라는 니체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 공화파에 대한 조던의 열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곳곳에 서려있다. 초기 주인공들이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낙타)”(37)이었던 반면, 조던은 대의에 대한 신념과 희생으로 “인내심 많고 외경심을 가진 정신”(37)의 소유자로서 낙타의 삶에 머물지 않는 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서 도피하여 이웃 사람들에게게로 달아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103).

그것은 세계의 모든 탄압받는 자들에 대한 책임에 헌신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체험처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너 자신의 죽음까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죽음이란 너의 임무완수에 방해가 되므로 피해야 할 것에 불과했다.

It was a feeling of consecration to a duty toward all of the oppressed of the world which would be as difficult and embarrassing to speak about as religious experience ... and the reasons for it that your own death seemed of complete unimportance; only a thing to be avoided because it would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your duty. (FWBT 235)

조던의 정신은 초기 주인공들에서 드러나던 “자아도취, 염세주의, 허무주의와 실존적 극기로부터 자의식이 강한 인본주의와 극기주의, 집단적 연대, 그리고 사랑과 신념을 향하여 진전하고 있다”(Backman, Death 126). 그의 신념과 행동양식은 현재의 억압에 맞서고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자의 정신”(차라투스트라 37)이라고 할 수 있다. 조던은 차라투

스트라 가르침의 궁극적인 단계인 새로운 창조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이를 위해 “사자의 힘으로 자유를 획득”(37)하려 분투한다.

IV. 성스러운 긍정, ‘아이’의 정신

젊은 시절 시대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사막을 달려갔던 초기 주인공들은 중년이 되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신념과 헌신으로 용맹한 사자의 삶을 살았다. 이제 헤밍웨이의 주인공은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의 산티아고(Santiago)가 되어 인생의 노년을 맞는다. 이 중편소설은 작가가 “나의 모든 글쓰기의 에필로그”(SL 757)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듯이 헤밍웨이 문학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청새치와 벌이는 고독한 사투 속에서도 상대에 대한 연민의식을 잃지 않는다. 홀로 작은 조각배에서 접하는 모든 자연물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다. 싸움의 대상인 청새치도 친구가 되고 하늘의 달과 별도 그의 친구가 된다. “저 물고기도 내 친구.”(75)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는”(OMS 92) 산티아고는 청새치에게 존엄한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신과 청새치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한다. “나의 적들도 나의 더없는 행복의 한 부분이 되는”(차라투스트라 144) 순간이다. 이와 같은 산티아고의 초월적 범애정신은 차라투스트라가 제기하는 ‘아이’의 단계와 밀접해 보인다. 니체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창조를 주장했던 것처럼 헤밍웨이는 산티아고를 통하여 전쟁과 죽음으로 얼룩진 시대를 넘어 인류가 조화롭게 살아갈 가치를 제시했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차라투스트라 38)

헤밍웨이는 젊은 시절 무의미한 사냥으로 동물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을 후회하고 다소 파괴적이었던 행위들을 반성한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며 작가의 세계관이 성숙하듯 노년이 된 헤밍웨이 주인공 산티아고도 초기와 중기 주인공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초월하여 진정한 용기와 사랑, 순수함으로 다시 태어난다. 산티아고의 정신은 싸움의 대상 청새치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아이의 순진무구함’이다. 힘겨운 사투 끝에 얻은 청새치를 상어에게 잃고 빈 배로 돌아오면서도 다음을 기약하는 ‘성스러운 긍정’이다. 따라서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니체가 제시한 인간 정신의 세 단계 변화의 마지막은 헤밍웨이 최후의 주인공인 산티아고의 규범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헤밍웨이 초기 주인공들은 ‘외로운 늑대주의자’이며, 기존의 권위에 순응하고 현실에 대한 저항 없이 살아간다. 그들은 ‘무겁기 그지없는 모든 삶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가는’ 낙타와 같다. 중기 작품의 주인공인 조던과 그의 동료들은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그들의 ‘정신이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무너지지 않는 가치로 상징되는 ‘용’은 그들에게 굴복과 현실순응을 강요하지만, 새로운 가치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사자가 되고 사자의 힘이 된다. 헤밍웨이의 주인공은 어느덧 산티아고 노인이 되어 생사를 다투는 상대에게 연민하며 친구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우주의 일원으로 초월적 범예정신을 구현하는 산티아고는 헤밍웨이 모든 작품 중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사투 끝에 얻은 청새치를 상어에게 모두 빼앗기고 빈 배로 돌아오지만, 노인을 돌보아주는 소년 마놀린(Manolin)의 말처럼 그는 결코 물고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의 패배는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선량함의 승리이다. 이처럼 헤밍웨이의 주인공들은 초기와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들이 이루어내는 성장과 발전은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하는 ‘낙타’와 ‘사자’, ‘아이’로 나아가는 인간 정신의 ‘세 단계 변화’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I. Primary Sources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옮김. 서울: 민음사, 2018.
- Nietzsche, Friedrich.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95.
- Hemingway, Ernest. *In Our Time*. 1925;rp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_____. *The Sun Also Rises*. 1926;rp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 _____. *A Farewell to Arms*. 1929;rp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2003.
- _____. *For Whom the Bell Tolls*. 1940;rpt. New York: Charles Scribner's, 2003.
- _____. *The Old Man and the Sea*. 1952;rpt. New York: Scribner, 1999.
- _____. *Ernest Hemingway: Selected Letters, 1917-1961*. Ed. Carlos Baker. New York: Scribner's, 1981.

II. Secondary Sources

- Backman, Melvin. "Death and Birth in Hemingway." *The Stoic Strain in American Literature: Essays in Honour of Marston LaFrance*. Ed. Duane J. MacMillan Toronto: U of Toronto P, 1979
- Cooper, Stephen. *The Politics of Ernest Hemingway*. Michigan: U.M.I. Research Press, 1985.
- Fiedler, Leslie.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Urbane: Dalkey Archive Press, 1998.
- Fruscione, Joseph. Ed. *Teaching Hemingway and Modernism*. Kent, Ohio: Kent State UP, 2015.
- Hotchner, A.E. *Hemingway in Love: His Own Stor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5.
- Hutchisson, James M. *Ernest Hemingway: A New Lif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UP, 2016.
- Kuhn, Christopher. "Hemingway and Nietzsche: The Context of Ideas." *Nietzsche in American Literature and Thought*. Ed. Manfred Putz. New York: Camden House, 1995. 233-238.

- Lamb, R. Paul. *Art Matters: Hemingway, Craft,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Short Story*. Louisiana: Louisiana State UP, 2011.
- Mazzeno, Laurence M. *The Critics and Hemingway 1924-2014: Shaping an American Literary Icon*. Rochester, New York: Camden House, 2015.
- Oliver, Charles M. *Critical Companion to Ernest Hemingway: A Literary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Inc., 2007.
- Wyatt, david. *Hemingway, Style and the Art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P, 2015.

D. H. 로렌스 작품 속 아이의 침묵의 서사 역할 「흔들-목마의 승리자」를 중심으로

김경미
(경동대)

I. 들어가며

로렌스(D. H. Lawrence)는 일찍이 언어의 기표와 기의, 그리고 실체와 재현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절대적인 일대일의 상응 관계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작품 속에서도 언어의 임의적·일시적·가변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표들 사이의 혹은 재현들 사이의 차이성을 여러 각도로 부각시킨다. 이에 따라 그에 의한 텍스트 내의 재현은 항상 순간적 혹은 일시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의미나 해석에 의한 재현이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함으로써 결국 궁극적인 결말은 유보된 채 계속해서 지연되기도 한다.

「흔들-목마의 승리자」(“The Rocking-Horse Winner”)에 나오는 아이들의 빈번한 ‘침묵’은 바로 이러한 로렌스의 인식을 바탕으로 어른들의 의미 체계와 대조를 이루면서 독자들에게 불연속적인 단절과 함께 전복을 동반한 낯선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 간의 대화 중에 등장하는 폴(Paul)의 침묵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탈중심적인 관점으로 어른들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통찰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스티어스(Judith Stiers)는 「D. H. 로렌스의 ‘피아노’와 ‘흔들-목마의 승리자’ 내의 목소리 활용」(“The Use of Voice in D. H. Lawrence’s ‘Piano’ and ‘The Rocking-Horse Winner’”)에서 「흔들-목마의 승리자」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발화는 권력에 의해 잠식되어 있던 “사회적인 양심의 소리”(the voice of social conscience)로서 “침묵하고 있던 인물들의 소리”(the voice of silent characters)와 “숨어있던 비밀스런 소리”(hidden secret voice)를 내포한다고 파악한다(58). 로렌스는 이처럼 깊이 내면화되어 있던 소리를 예민하게 포착하여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의 단편소설인 「흔들-목마의 승리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소설에서 물질만능주의/물질자본주의에 의해 병폐되어가는 내면의 “비밀스런 소리”는 마치 유령처럼 출몰하면서 속삭이는데, 등장하는 어른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이 소리에 직관적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은 실체에서 멀어진 물질적 존재 가치인 ‘돈’에만 사로잡힌 채 삶의 생생한 영혼의 소리와 차단되어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지만, 오히려 어른들의 가식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은 그 “비밀스런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로렌스가 ‘아이’라는 인물들에 대해 스클레니카(Carol Sklenicka)가 『D. H. 로렌스와 아이들』(D. H. Lawrence and the Children)에서 분석하듯이 낭만적으로 순수한 영혼의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 메이어스(Jeffrey Meyers)도 「D. H. 로렌스의 아이들」(D. H. Lawrence’s Children)에서 스클레니카가 로렌스의 ‘아이’에 대해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점에 반박하면서, 로렌스 작품 속 아이들은 “사실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주의적인 인물”(realistic character)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이어스는 그 아이들이 작품 속에서 예민하고 명민한 감각으로 어른들 세계의 문제점을 통찰하면서 때로는 희생적인 피해자로서, 또 때로는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해결사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논자는 바로 이와 같은 메이어스의 분석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로렌스가 이들 아이의 ‘침묵의 서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흔들-목마의 승리자」인 폴(Paul)

「흔들-목마의 승리자」에서 주인공인 아이 폴(Paul)은 로렌스의 친구인 신시아 애스퀴스(Lady Cynthia Asquith)의 딸아들인 존(John)을 모델로 한 것이다(Davies 121). 4세에 자폐증이라는 확진을 받았던 존은 로렌스와도 자주 만났는데, 로렌스는 존을 “노랑수선화”(Jonquil, 122)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 점은 1913년 로렌스의 편지를 통해서도 엿보이는데, 그는 존에 대해 “황금빛 미소를 지닌 수선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How is the jonquil with the golden smile, *The Collected Letters of D. H. Lawrence*, 220)라고 묻기도 한다. 로렌스는 존의 자폐증 원인이 “그녀의(신시아) 회의적인 태도와 냉소”(her scepticism and cynicism, *Diaries* 19-20)에 있다고 파악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정신이 “경직되고 절제력 강함”(hard and stoical) 상태여서 “일종의 활력 있는 믿음”(a living belief, *Diaries* 22)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녀 자신의 영혼을 경도시킬 뿐만 아니라 존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로렌스는 신시아 부부가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면도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여겼다. 이는 신시아의 일기 속에는 한 일화가 적혀있는데, 신시아가 집에서 차를 마신 후 자신의 거실에 있던 루이15세 테이블에 대해 언급하자, 갑자기 로렌스가 “벗어나세요. 당장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의 가구가 당신 아래가 아니라 당신 꼭대기에 있게 될 거예요”(Come away. Free yourself at once, or before you know where you are, your furniture will be on top instead of under you. Davies 124 재인용)라고 외친 적이 있었다는 일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시아의 모습은 「흔들-목마의 승리자」에서 폴의 어머니인 헤스터(Hester)로, 그리고 자폐증을 앓던 존의 모습은 작품 속의 폴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 「흔들-목마의 승리자」의 주요 배경인 폴의 집안은 온통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해!”(There must be more money! There must be more money!)라는 “비밀의 속삭임”(the secret whisper)으로 가득하다. 이에 가족들, 특히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그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놀다가도 문득 멈추고 침묵한 채 서로의 ‘눈’(eyes)만을 통해서 상대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를 확인하곤 하지만 결코 서로가 이것을 입 밖으로 발화하지는 않는다(445).

폴은 엄마에게 자신의 집이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자 엄마는 “너희 아빠가 운이 없어서 그래”(it’s because your father has no luck)라고 답하고, 이에 폴은 “행운이 돈인가요, 엄마?”(Is luck money, mother?)라고 되묻는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며 다만 “행운은 돈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It’s what causes you to have money)라고 말한다(445). 그런데 한편으로 여기서 ‘행운’은 일종의 기표이고, ‘돈’은 일종의 기의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이 예기치 않은 우연에 의해 임의적으로 주어지고 그 의미로서 여겨지는 ‘돈’은 폴의 가족이 소모하는 갖가지 물품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기표인 ‘행운’과 기의인 ‘돈’은 일대일의 상응 관계가 아니고, 기의인 ‘돈’은 떠도는 유령처럼 계속적으로 시물라크르(simulacre)만을 양상하면서 “돈이 더 있어야 해! 돈이 더 있어야 해!”라는 기이한 속삭임만이 온 집안을 에워싼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의 기표인 ‘행운’을 얻게 된 폴은 승리하는 경마를 예측하고 이로써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를 지켜 본 정원사 바세트(Bassett)는 폴을 마치 행운의 화신인양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행운’을 통해 기의인 ‘돈’을 가지게 되었던 폴도 결국 소설 결말에 죽게 됨으로써 ‘과연 폴이 기의를 포착했던 것일까?’라는 근원적인 의구심이 들게 된다. 이것은 기의인 ‘돈’이 다양한 기표로 변이하며 확장됨에 따라 결국 그 원천으로 보이던 ‘돈’이라는 기의에

대해 품게 되는 의구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로렌스는 이렇게 기의의 절대성을 반복해서 해체하고 있다. 즉 넘쳐나는 시물라크르의 범람으로 인해 기의와의 일대일 관계를 불신하게 되고 심연에 빠짐으로써 오히려 그 기의는 사라지고 복제물만이 과편처럼 남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렌스는 작품 속에서 기표와 기의의 역할을 변용하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지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지연이 「흔들-목마의 승리자」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린 폴의 침묵의 서사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III. 폴의 침묵의 역할

「흔들-목마의 승리자」에서 폴은 온 집안을 어둡게 짓누르며 속삭이는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엄마에게 계속 질문한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날 때마다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곤 하는데, 이러한 침묵의 서사는 “looked/watched/stared/saw/glared”(445-447) 등의 다양한 단어로 변형된 응시의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로렌스는 어른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엄마의 말들 사이사이에 아이인 폴의 침묵의 서사를 여러 가지로 변형된 응시에 대한 단어들로 대체함으로써, 이전에 폴의 엄마가 발화한 의미 체계를 전복시키고 그 결과 차이와 흔적만을 남기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언어로 발화한 의미 체계는 폴의 침묵과 이러한 침묵의 서사를 대신한 응시의 여러 변형된 단어들에 의해서 유희됨으로써, 진중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보다는 마치 한 조각 과편처럼 또 다른 형태로 전이될 뿐이다. 초드후리(Amit Chaudhuri)는 「로렌스의 그림 수사법」(“Lawrence Pictography”)에서 로렌스가 이미지리와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의 피상적인 표면, 즉 기표를 의도적으로 마치 미술의 콜라지(collage) 기법처럼 계속해서 병치하면서 텍스트의 탈중심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86), 어린 폴의 침묵의 서사와 함께 응시에 대한 단어의 변용은 반복되고 중첩될수록 어느 한 중심 이미지로 구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변적으로 변이를 할 뿐이다.

또한 작품 속 아이의 간헐적인 침묵은 어른들에 의한 의미 체계의 일관된 흐름의 맥락에 제동을 거는 낯설음을 제시하며 독자의 주목을 끌게 한다. 어른들 위주로 발화된 의미 체계에 불쑥 찾아드는 아이들의 말없는 침묵은 독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단절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이 두 의미 체계 사이에 메타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 의해 새로 생긴 의미 체계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아이들의 의미체계는 기존의 어른들에 의한 의미 체계와 균열을 이루면서 “부재의 유령”(a ghost of the absent, Ingersoll 95)으로 남게 되고, 이 또한 늘 가변성을 내포한 채 불안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렇게 두 의미 체계 간의 차이와 균열이 부각되면 될수록 텍스트는 더욱 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데이비스(Robert Con Davis)는 로렌스가 작품 속 인물들을 바라보거나 보이는 대상으로 계속해서 변환함으로써, 자신의 텍스트를 “어떤 무대에서든지 결코 결말에 이르거나 총체성을 구성할 수 없는 탈중심화된 위치”(a decentered set of positions [which] never —at any stage—reaches an end or comprises a totality, 985)에 놓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응시의 변용에 의한 기법과 마찬가지로 작품 속 아이들의 간헐적인 침묵 또한 로렌스의 실체와 재현 사이의 불확정성에 대한 의도된 수사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이들의 침묵에 의한 서사를 통해 결말의 모호함을 유도함으로써 독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III. 결론부

로렌스는 「소설」(“The Novel”)이라는 산문에서 ‘소설’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가장 훌륭한 인간 표현 형식”(the highest form of human expression, 179)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소설 양식은 결코 절대적인 형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소설가의 역할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면서 고정성을 회피하고, 세상의 미묘하면서도 복합적인 관계성을 유동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흔들-목마의 승리자」는 바로 로렌스가 지향하는 이러한 예술관이 두드러진다. 특히 작품 속 아이의 침묵의 서사는 계속적으로 어른들의 기존 의미체계를 단절시키고 전복시킴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생성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결과 텍스트의 의미가 더욱 다원화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로렌스는 이들의 침묵의 서사를 여러 가지 변형된 응시의 단어들을 통해서 형상화함으로써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하듯이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소설 속 아이의 침묵의 서사를 통한 유동적인 다원성은 로렌스가 독자들에게 텍스트 속의 재현이 또 다른 재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해주는 메타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다.

□ Works Cited

- Chaudhuri, Amit. "Lawrence Pictography". *D. H. Lawrence and 'Difference'*. Oxford: Oxford UP, 2003. 83-112. Print.
- . "An Alternative Aesthetic". *D. H. Lawrence and 'Difference'*. Oxford: Oxford UP, 2003. 113-165. Print.
- Davies, Rosemary Reeves. "Lawrence, Lady Cynthia Asquith, and 'The rocking-Horse Winner'". *Studies in Short Fiction*. Newberry College. 2002. 121-126.
- Ingersoll, Earl G.. *D. H. Lawrence, Desire, and Narrative*.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1. Print.
- Lawrence, D. H.. "The Rocking-Horse Winner". *Selected Essays*. Harmondsworth: Penguin P, 1950.
- . *The Collected Letters of D. H. Lawrence*, ed. Harry T. Moore. New York: The Viking Press.
- . "The Novel." D. H. *The Cambridge Edition of the Letters and Works of D. H. Lawrence.: Study of Thomas Hardy and Other Essays*. ed. Bruce Stee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77-190. Print.
- Meyers, Jeffrey. "D. H. Lawrence's Children." *The Kenyon Review*. 2014. Volume/Issue 36/1. 229-241.
- Sklenicka, Carol. *D.H. Lawrence and the Child*. Columbia: U of Missouri P, 1991.
- Stiers, Judith. "The Use of Voice in D. H. Lawrence's "Piano" and "The Rocking Horse Winner". 58-61.

블루머 의상을 입고 가부장제에 맞서다: 피터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

박선화
(건국대)

I. 부커상 수상자 피터 캐리와 작품 『오스카와 루신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호주 작가 피터 캐리(Peter Carey: 1943-)는 영국의 부커상 제도가 발굴한 작가 중 한 명이다. 캐리는 1988년 『오스카와 루신다』(*Oscar and Lucinda*) 그리고 2001년 『켈리 일당의 실화』(*True History of Kelly Kang*)라는 소설로 1969년 부커상 제정 이래 제임스 파렐(James Farrell), 존 콧시(John Coetzee), 힐러리 만텔(Hilary Mantel)과 함께 권위 있는 부커상을 2회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호주 빅토리아 바쿠스 마쉬(Bacchus Marsh) 출신의 캐리는 1961년 멜버른 소재의 모나쉬(Monash)대학에서 화학과 동물학을 전공했지만 사고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고 건강을 회복한 이듬해 광고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생업으로 광고업에 뛰어들었던 캐리는 광고업 자체로 유럽 및 영국소설과 미국소설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가브리엘 마르케스(Gabriel Marquez) 등의 작품을 섭렵하고 이러한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던 중 오랜 결별기간 때문에 첫 번째 부인 레이 위트맨(Leigh Weetman)과 이혼한 후, 캐리는 1981년 뉴사우스웨일스의 벨링겐(Bellingen)으로 이주했고 그 곳에서 벨링겐을 배경으로 한 『오스카와 루신다』를 완성했다. 1990년에 광고업을 청산하고 캐리는 두 번째 부인 엘리슨 서머스(Alison Summers) 그리고 아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해서 뉴욕대학에서 창작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다. 두 번째 결혼은 2005년 파경을 맞이했다. 현재 캐리는 세 번째 부인 프랜시스 코디(Francis Coady)와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캐리가 머물렀던 벨링겐은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시드니에서 제작한 ‘유리 교회’(glass church)를 벨링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소로 소개된다. 또한 벨링겐은 『오스카와 루신다』를 집필하게 된 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이기도 하다. 캐리는 엘리노어 와철편(Eleanor Wachtel)과의 인터뷰에서 고향 바쿠스 마쉬에 있던 한 교회가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던 경험에서 “『오스카와 루신다』의 영감을 얻었다”(Brown 135)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영감은 벨링겐에서 목재로 지은 작은 교회를 어딘가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벨링겐 강을 따라 뗏목에 실린 교회가 도착한다”(Gillet 195)는 꿈만 같은 이야기로 구체화된다. 벨링겐 강을 따라 이동한 이 교회는 519쪽으로 구성된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인종·성·계급 차별, 제국주의, 포스트제국주의, 다문화주의, 종교 갈등의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특히 소설 제목 ‘오스카와 루신다’에 암시되어 있듯이, 『오스카와 루신다』의 유리 교회는 오스카와 루신다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면, 1856년 영국 데번(Devon)에서 15살의 오스카는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 소속의 아버지와의 종교적 갈등으로 집을 나와 영국 성공회 소속의

후 스트래튼(Stratton) 사제관에 들어간다. 옥스퍼드 오리엘(Oriel)에서 수학한 스트래튼 사제는 성직자로 육성하고자 오스카를 모교 대학에 보낸다. 가난한 외톨이였던 오스카는 우연히 워들리 피쉬(Wardley Fish)를 따라 경마장에 가면서 도박에 끌리게 되고, 졸업 후 사제로서 런던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경마장과 투견장을 전전한다. 오스카는 도박에 몰입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거둬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관할교구의 사제로 파견을 자원하기에 이른다.

1865년 탑승한 시드니행 배에서 루신다는 동년배의 오스카를 만난다. 호주로 이민 온 영국 부모를 둔 상속녀로서 유리 공장을 운영하는 루신다는 유리 건축물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잠시 런던을 방문하고 시드니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소일거리로 시작한 도박에 빠져 있던 루신다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오스카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워진다. 귀국하자마자 루신다는 평소 가깝게 지냈던 데니스 하셋(Dennis Hasset) 사제가 주교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호주의 북쪽지역에 위치한 원주민 주거지 벨링겐의 보트 하버(Boat Harbour)로 발령받은 것을 알게 된다. 시드니에 도착해서 랜드윅(Randwick) 사제관을 배정받은 오스카는 실망과 외로움에 빠진 루신다와 카드 게임을 하다가 교역자에게 들켜어 파면 당한다. 루신다는 오스카의 파면이 일부분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길거리로 내몰린 오스카를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그와 더 가까워진다.

한편, 루신다가 하셋 사제를 사랑한다고 오해한 오스카는 루신다의 유리 공장을 둘러보던 중 영국의 수정궁(Crystal Palace)을 모방하여 주문 제작한 유리 모형을 보고 오지에 있는 하셋 사제에게 유리 교회를 만들어 보내자고 제안한다. 오스카는 루신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루신다는 단순히 오스카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유리 교회 제작에 동의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뗏목을 이용해서 유리 교회를 하셋 사제에게 가져갔을 때 오스카는 하셋 사제가 이기적인 존재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서 오스카는 루신다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고 만다. 유리 교회에 들어가 사랑에 자만했던 자신의 오만을 뉘우치며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리다가 잠에 빠진 오스카는 강 둔덕에 올려놓았던 뗏목이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유리 교회 안에 갇혀 익사한다.

오스카와 루신다의 사랑의 결정체인 유리 교회가 물에 잠기고 이로 인해 오스카가 익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유리 교회’는 “무용지물이자, 치명적이고 위험한 꿈”(King 33)의 상징물이다. 루신다는 10살 생일선물로 받은 ‘프린스 루퍼트 드롭’(Prince Rupert’s Drop) 제품에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프린스 루퍼트 드롭’은 “빛나고 아름다우며 강하고 파괴할 수 없는 유리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루신다는 경험을 통해 “집계와 같은 플라이어(plier)로 간단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다”²⁰⁾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유리가 지닌 약한 속성에 비추어 보면, 유리 공장을 운영하는 루신다나 ‘유리 교회’를 매개로 연결된 오스카와 루신다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자 관계라는 의미를 이미 함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유리’ 또는 ‘유리 교회’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루신다가 당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에 맞서 고전 분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블루머 의상과 루신다

20) Peter Carey. *Oscar and Lucinda* (London: Faber & Faber, 1998), p. 129.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로만 표기함.

루신다는 17살 때 어머니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사망하면서 고아 신세가 되고 만다. 아버지 아벨(Abel)은 말에서 떨어져 사망한 지 꽤 오래된 상태였다. 하지만 런던 슬론(Sloan) 광장의 집을 팔아 호주 파라마타(Parramatta)에서 토지 매입으로 재산을 증식한 부모 덕분에 루신다는 1만 파운드(약 13억 7천만 원)를 상속받은 부유한 고아이다. 문제는 어린 루신다가 재산을 일찍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기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루신다가 18살이 되면 재산을 이임 받도록 제재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루신다는 후견인 채스 어헌(Chas Ahearn)의 결정에 따라 쿠쟁(Cousins) 부인의 보호 아래 1년을 보내게 된다. 쿠쟁 부인은 처음 루신다를 만났을 때 루신다가 입은 블루머(bloomer) 의상을 보고 마음에 동요를 느낀다.

블루머 의상은 <그림1>의 왼쪽 그림에서처럼 스커트 안에 발목에 주름을 잡은 낙낙한 바지를 입고 윗옷을 걸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차림새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1850-1860년대 스커트 버팀대를 사용한 크리놀린(crinoline) 양식과는 대비되는 의상이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는 과거 귀족의 영화로운 시대를 복귀시키고 모방하고자

<그림 1>²¹⁾



하는 심리를 반영해서 여성의 복장에서 크리놀린을 활용하여 스커트를 부풀려 화려함과 위풍당당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50년대는 크리놀린을 사용한 “종 모양 실루엣의 스커트”가 유행하다가, 1860년대는 “스커트의 앞모습은 납작하고 양옆과 뒷모습을 타원형으로 부풀린 스커트”(김문숙 20-23)가 등장하였다. 문제는 1850-60년대의 크리놀린 스커트는 모양 때문에 입고 벗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거대한 크리놀린으로 신체를 구속해서 “여성을 병약한 환자로 만들었고, 또한 여성을 순종이라는 굴레에 속박시켰다”(곽미영 27). 심지어 크리놀린 부피가 더 커지게 되면서 집안에서 문을 통과할 때, 마차를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외출 시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면 대처하기 힘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화려하고 과장된 동시에 불편한 크리놀

21)왼쪽그림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B%A3%A8%EB%A8%B8>>.

오른쪽그림 출처 <<https://www.instiz.net/pt/3423957>>.

린 의상에 반대하고 여성 의상의 기능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블루머 의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블루머 의상은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Miller)가 처음 고안하고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가 여성복장 개혁을 주장하며 기능성을 강조한 블루머 의상을 제안하면서 소개되었다. 블루머는 “1851년 영국으로 건너가 블루머 의상을 소개하면서 영국에서 대단한 반응을 끌어내었고”(곽미영 16), 이러한 영향으로 같은 해에 런던에서는 블루머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블루머 의상은 이전에 그리고 당시 여성 신체를 구속 하던 코르셋과 크리놀린을 벗어던지는 해방의 의미를 가져다주었으며, 더 넓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블루머 의상은 사회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것을 넘어 지배 체제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남성에게 순종해야 할 여성이 남성의 전유물인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에서 보면 완강한 저항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루신다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영향을 받아 블루머 의상을 고수한다. 엘리자베스는 1851년 블루머가 런던에 도착한 사실을 들었고 호주 멜버른에서도 블루머 의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다가 “1858년 파라마타에서 직접 목격한 것”(96)을 언급한 적이 있다. 루신다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엘리자베스는 원시림에 둘러싸인 파라마타 지역에서 활동하기 편한 블루머 의상을 루신다에게도 착용하도록 권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후, 루신다를 돌보게 된 쿠쟁 부인은 블루머 의상을 치워버리거나 감추며 단호하게 입지 말라고 강요한다. 후견인 어현 또한 결혼 적령기의 루신다가 크리놀린 의상 대신 블루머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격노하면서 반대한다. 당시 1850-60년대의 영국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은 남성에게 재산권을 넘기고 오로지 가정과 남편에게 헌신하는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쿠쟁 부인이나 어현은 엘리자베스뿐만 아니라 루신다가 자유롭게 블루머 의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블루머 의상을 입고 다니는 루신다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18살이 된 1859년에 루신다는 재산문서를 들고 파라마타에서 시드니로 건너갈 때 엉덩이 부분을 부풀려서 만든 버슬(bustle)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있었다. 시드니로 가는 목적은 결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혼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차려입은 드레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숙녀에게 어울리는 “세련된 복장”(125)이라고 여기지만 루신다에게 이 드레스는 단순히 낯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일 뿐 너무도 “비실용적인”(125) 의상이어서 오히려 그녀의 화를 돋우는 장식물이었다. 그래서 결혼하는 대신 어린시절 유리에 대해 품었던 환상을 유지시켜 줄 것 같은 유리 공장을 매입하고 운영하면서 루신다는 다시 블루머 의상을 착용하기 시작한다.

30세 초반의 노총각인 하셋 사제는 유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식을 지닌 탓에 루신다의 유리 공장 인수과정에 참여한다. 하셋은 공장 인수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 놀라고 그녀가 입은 블루머 의상에 다시 한 번 놀란다. 실크로 만든 다소 “특이한 의상”을 입은 루신다는 그의 심경을 동요시킨다. 블루머 의상 탓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셋은 그녀가 “부유하고” “똑똑한” 여성이지만 “아름답지는 않은 여성”(139)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시간이 흘러 항상 함께 하는 하셋과 루신다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셋에게 루신다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했을 때 그리고 루신다가 하셋에게 연정을 품게 되어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셋은 자신과 루신다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서로 보완할 수 없는 존재”(154)라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시드니를 떠나 벨링겐의 보트 하버로 가기 전 잠깐 동안 하셋은 루신다를 놓고 고민하다가 자신은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285)과 결혼하기를 소망하는데 루신다는 아름답지 않다고 재차

판단을 내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루신다가 유리 공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루신다와 결혼하면 사업가나 제조업자가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셋은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루신다의 경영과 재정 능력이 남성의 위치와 권한을 위협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을 수 있다.

시드니에 도착한 지 3주 만에 루신다는 블루머를 입은 여성, 밤에는 회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무리와 도박하고, 낮에는 하셋 사제와 차를 마시는 존재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실제로 루신다는 19세기 ‘집안의 천사’로서의 보통 여성의 삶을 포기하고, 공장을 자신의 “가정 이자 집”(290)으로 여기며 노동을 통해서만 생동감과 유용성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런데 루신다가 유리 공장 노동자의 땀 냄새와 일하면서 발생하는 시끌벅적한 소란과 시큼한 맥주 냄새를 좋아하고 또 공장 노동자들과 합류하기를 바라는 것과는 달리, 공장 현장감독 아서 펠스(Arthur Phelps)는 루신다가 공장 현장에 나와 돌아다니며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펠스는 중요한 유리 제품을 완성해야 하는 3주간 현장에 나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오스카를 대동하고 공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펠스와 공장 일꾼들은 루신다를 무시하고 오스카에게 맥주를 따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아주 친근하게 대한다. 루신다는 일꾼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정을 상실한 것만 같은”(331) 기분을 느낀다. 공장 일꾼들은 그저 루신다가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기다려주기만을 바란다. 그 이면에는 공장 주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거부감을 품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루신다는 좌절감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게임이나 도박을 하기 시작한다. 당시 호주 산적인 ‘부시레인저’(Bushrangers)가 돌아다니는 소문이 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신다는 여성 혼자서 중국인 거주구역에 들어가 “중국 마작 게임”(298)을 하기도 한다. 어느 날 밤 마작 게임에서 루신다와 우연히 마주친 오스카는 밤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루신다를 랜드워 사제관으로 초대한다.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사제관에 여성을 초대해서 도박을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스카는 파면 당한다. 이 시점에 이르면, 루신다는 마치 도박 중독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루신다는 시드니에서 사업운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계사와 카드 게임을 했고 또 “공장경영의 일환으로 일꾼들과 친해지기 위해 크리비지(cribbage) 게임을 시작한다”(227) 것이었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건다는 것의 위험성은 차치하고, 도박 또는 내기는 루신다와 오스카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작용한다. 왜냐면 오스카는 런던의 수정궁과 같이 “철골과 유리로 탑을 제작하고 싶다”(264)는 루신다의 꿈을 지지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루신다가 주문해서 플러드(Flood)가 제작한 유리 모형을 보았을 때, 오스카는 모형을 “거의 영적 존재와 같은 대상” 또는 “완벽한 대상”으로 바라본다.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고 덧붙이는 루신다의 언급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스카는 먼지에 싸인 모형을 “허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대상”(381)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눈물을 글썽이며 “신의 천사를 위한 집”(382)을 가진 루신다가 부러울 지경이라고 말하며 모형을 찬탄한다.

이 단계에서, 오스카는 이미 루신다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하지만 루신다가 벨링겐 보트 하버로 발령받은 하셋을 사랑한다고 오해한 오스카는 벨링겐 오지에 모형만큼이나 아름답고 신성한 “유리 교회를 제작해서 배송하자”(388)고 제안한다. 자신이 유리 교회 제작에 참여하다 보면 루신다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유리 교회를 안전하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스카를 사랑하고 있던 루신다는 내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건다. 수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오스카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를

계산해서 상속 재산을 걸고 내기에 동의한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루신다가 오스카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걸었을 때 오스카는 그녀의 내기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를 가늠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루신다가 도박이나 내기에 건 돈은 고작 1페니였다. 가끔 1파운드를 잃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약 14억에 해당하는 1만 파운드를 유리 교회에 거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처럼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는 동안, 루신다와 오스카는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유리를 다루면서도 유리 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속내를 가늠만 할 뿐이었다.

루신다와 오스카의 관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스카는 루신다의 블루머 복장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사실이다. 처음 중국인 거주구역에서 마주쳤을 때 루신다는 블루머 의상을 입고 있었다. 공장을 방문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안 살림을 돌볼 때에도 루신다는 항상 블루머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오스카는 그녀의 의상에 대해 어떠한 반감을 드러낸 적이 없다. 1860년대 시드니에서 블루머 의상을 이용한 루신다의 남장화는 가부장적 사회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에게 정면도전한 것이며 남녀평등의 확립을 위한 하나의 변혁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루신다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스카는 회계사 답스(d'Abbs)와 논쟁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루신다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거듭 확인한다(427). 이에 비추어 보면 『오스카와 루신다』에서 블루머 의상을 착용한 루신다는 주변의 억압적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여성 사업가이자 사랑을 위해 전 재산을 거는 강하고도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부각된다.

III. 캐리의 신여성: 루신다와 미리엄

총 111장으로 구성된 『오스카와 루신다』의 83장에서 미리엄 채드윅(Miriam Chadwick)이 등장한다. 미리엄은 루신다처럼 고아이다. 남편이 사망하자 딸을 가정교사로 취직시켜 벨링겐의 보트 하버로 보냈던 어머니는 예상했던 것보다 외진 구역에 있는 보트 하버를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난파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트레비스(Trevis) 부인의 가정교사로 근무하던 중 결혼했던 남편 조니 채드윅(Jonny Chadwick) 사제가 원시림에서 나온 뱀에 물려 사망하자 미리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검은 상복을 벗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105장에서 미리엄은 유리 교회와 오스카를 실은 뱃목이 벨링겐 강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선착장으로 달려간다. 하셋 사제를 다른 여성에게 남아 체인 탓에 이번에는 서둘러서 검정 사제복을 입은 오스카를 미래 남편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마침 결혼 후 첫 아이가 태어날 시기에 있는 하셋은 유리 교회를 전달받자마자 우여곡절이 많은 8주 여정에 지친 오스카를 치료하고 보살피 달라고 미리엄에게 요청하고 사라져 버린다.

하셋이 떠나고 거의 혼절한 오스카를 떠맡은 미리엄이 남은 상태에서 『오스카와 루신다』의 서술자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서술자는 증조할아버지 오스카를 만난 적은 없지만, 벨링겐 근처의 글레니퍼(Gleniffer)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직접 듣거나 옆에서 관찰한 일화에 기반을 두고 오스카 행적의 결말을 서술한다. 소설 제목의 ‘오스카와 루신다’라는 연계성에서 기대한 바대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수백 쪽에 걸쳐 묘사되고 중간 중간 행복한 결말이 암시되기도 하지만, 서술자는 증조할머니가 루신다가 아닌 미리엄이라고

밝힌다.

오스카가 보트 하버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유혹해서 “유언장과 약혼발표 증서”(509)를 받아낸 미리엄은 다음 날 네 번째 상복을 입는 불운을 맞지만, 유언장에 따라 루신다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다. 심지어 시드니에 있는 유리 공장을 매각 처분한 후 보트 하버에 유리 공장을 다시 세우고 그동안 고아로 천대받았던 설움을 보상받고자 한다. 하셋은 미리엄에게 “사랑하는 사람[오스카]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재산을 걸었다”(514)는 루신다의 편지 고백을 상기시키며 재산의 일부라도 루신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중재 역할을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1866년 시드니의 한 피클 공장에서 루신다가 썼던 편지가 50년 후 미리엄의 속옷에서 발견되었고 거기에 미리엄이 루신다에게 보냈던 10기니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다.

채드윅 부인, 당신이 도둑이란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도둑은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 또한 당신이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여성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할 때 마음속 깊이 느꼈을 공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515)

그렇다면 1866년에서 50년 후 루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독립적이고 강하고 자유분방했던 루신다는 호주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스카와 루신다』는 루신다의 험난한 인생역전을 담은 이야기이자 캐리가 창조한 당찬 신여성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다.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윤리: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조 비결
(강원대)

I. 서론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의하면 의사소통 행위라 함은 상호이해와 합의를 통한 목적론적 행위로 상호 이해를 통해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조율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행위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담론윤리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남아있는 나날』(*The Remains of the Day*)에서 1인칭 서술자인 주인공 집사의 관점으로 외연적으로는 35년간 대저택의 집사 직분에만 충실했던 스티븐스(Stevens)가 휴가의 단상을 담아내는 현재의 서사구조이면에 회상을 매개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정치적인 서사”(Ferguson 154)를 보여주는 과거 시점의 서사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1인칭 서술자이자 화자의 역할을 하는 집사 스티븐스의 서사 구조 속에 의사소통행위는 과거와 현재 시점의 공적인 담론과 사적인 담론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작품은 또한 스티븐스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관한 성찰이 담긴 문학 텍스트이자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텍스트”(Eagleton, 19)로서의 기능을 한다.

집사 스티븐스가 모시는 주인 달링턴 경(Lord Darlington)이 그의 대저택 달링턴 홀에서 많은 정치와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해 나누는 대담을 공적인 영역의 의사소통 행위의 담론으로, 스티븐스가 총무 캔튼(Miss Kenton)양과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를 사적인 영역의 담론으로 간주하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들어 “상호이해라는 의사소통 행위 조정의 매커니즘”(618)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의사소통행위와 담론 윤리의 텍스트로 읽힐 수 있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의사소통 행위와 공적 담론 윤리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주인공 스티븐스 집사의 1인칭 서술자적 시점으로 1956년 여행 중의 현재시점의 서사 속에 회상을 통한 1920년대와 30년대의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거의 서사를 교차시키며 소설의 서사구조를 다층적으로 구성한다. 1인칭 서술자적 시점으로 서술되는 스티븐스의 이야기에 주목할 부분은 의사소통행위이다. 스티븐스의 1인칭 시점의 서술은 독자들에게 “말하기의 과정”(Abbot 39)인 의사소통행위이다. 텍스트안의 서술자인 스티븐스는 텍스트 안의 다른 등장인물들과 온전한 의사소통 행위를 형성하지 못하고 텍스트 밖의 독자에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4)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호응과 공감을 유도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담론에 합리화와 윤리적 도덕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일상의 실천에 인지적 해석과 도덕적 기대”(506)가 표출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담론의 이상적 상황이란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태도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을 어떤 외부 구속 없이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상호이해는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425)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달링턴 경과 스티븐스는 상호 이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의사소통행위 주체들의 관계가 아닌 지시와 복종의 형태를 띤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다. 이러한

젊은 주인 달링턴경이 주최하는 공적인 영역의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에서 잘 나타난다. 달링턴경이 정의와 세계평화의 대의명분을 주장하며 1923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독일에 관한 제재를 완화시키고자 독일 대사와 영국총리와의 비밀 회담을 주선하며 독일 나치에 “꼭두각시”(222)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스는 “신사중의 신사”(61)이며 “진정으로 훌륭한 분”(61)이라며 “주인의 도덕적 진가”(114)를 강조한다. 도덕성이 결여된 주인을 옹호하며 스티븐스는 35년간 주인을 위해 집사직분을 수행했던 시절을 “특권”(126)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스티븐스는 “고용인의 요구를 위해”(148) 존재하는 집사에만 가치를 뒀으로써, 친 나치주의자인 주인이 유능한 유대인 하인들을 해고하라는 지시가 부당함에도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소통 행위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내 위치가 아니다”(222)라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주체가 아닌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객체로 국한한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에서 상부의 지시에 복종하여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악의 평범함”(“The banality of evil”)(252)에 대해 지적한다. 집사인 스티븐스가 친 나치주의로 반유대적 성향을 지닌 주인 달링턴경의 지시에 의해 유대인 하인을 해고하고 유대인을 대학살한 독일 나치전범 인사들을 수행하며 그 어느 이견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그저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함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스티븐스에게 “커다란 성취감”(110)을 주는 집사라는 직분이 갖는 “품위”(200)는 주인에 대해 “충성”(200)을 다하는 것이다. “주인님에 대한 충직함을 위해서는 그를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200)는 집사로서의 의식은 개인적인 옳고 그름의 윤리적 의사소통 행위를 배척시킨다. 집사라는 신분에서 스티븐스는 주인에게 “객체화와 예속화”(Foucault 192)된 인물로 묘사된다.

주인과의 의사소통 행위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항상 주인의 의견과 생각이 옳다고 지지하던 스티븐스는 달링턴경이 친 나치주의 반유대적 성향으로 영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자 그를 35년간 자긍심을 가지고 모셨음에도 여행 중 만난 사람들 앞에서 주인의 존재를 부인한다. 달링턴 경은 1923년 국제회담과 1936년 제2차 세계대전의 요인 중 하나가 된 영국수상과 독일 히틀러,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에 체결된 뮌헨조약과 밀접한 비밀회의를 주도한 의사소통 행위의 주체자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스티븐스 집사는 “시간이 흘러 달링턴경이 잘못을 하셨고 어리석음을 범했음이 드러났다 하여도 어찌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가”(201)라며 친 나치주의자인 주인을 모셨던 집사로서 “내 잘못이 아니다”(201)라며 부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정의라는 대의명분을 주장하는 달링턴경의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윤리가 “의도는 선하나 어리석은 공론”(102)으로 옳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작가는 스티븐스 집사의 시선으로 “세상의 중대한 결정들이 단지 공적 논의의 장에서 대중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저명한 저택의 은밀한 공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핵심적인 결정들이 내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115)라며 공적인 영역에서의 잘못된 의사소통행위를 표현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소통행위와 담론 윤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III. 의사소통 행위와 사적 담론 윤리

스티븐스의 과거 시점의 서사 속에 달링턴경과 많은 인사들의 공적인 영역의 의사소통행위와 담론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듯이 스티븐스가 여행하는 현재 시점의 서사 속에 캔턴 양과의 의사소통행위의 사적 담론윤리가 강조된다. 스티븐스는 35년 동안 모셨던 달링턴 경이 세상을 떠나고 새 주인인 미국인 페러데이씨의 제안으로 계획된 여행 일정에 달링턴 경을 위해 함께 일했던 캔턴 양과의 만남을 언급한다. 텍스트 안의 화자인 그는 “달링턴 홀에서 난관에 봉착한 업무상의 문제들로 인한 고민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5)며 집사의 공적인 업무라는 점을 텍스트 밖 독자에게 소설 말미까지 계속해서 의사소통 행위를 보인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로 만나러 가는 것임을 화자의 의사소통 행위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반어적 역할을 한다. 집사직분에 충실한 스티븐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연인관계가 되는 것은 “집안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일”(51)이라 생각하며 사적인 사랑의 감정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집사직분만을 수행하며 개인의 이성이 갖는 합리성 또한 배제된 인물로 묘사된다. 스티븐스는 캔턴 양을 만나러 가는 현재 서사 속에 그녀와의 과거시절을 회상하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잘못된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

윤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스티븐스는 “반유대주의가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한”(145) 과거 사건을 서술할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능한 하인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켄튼 양이 “단지 그 이유만으로 루스와 사라를 해고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가”(149)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한 사안”(149)으로 치부하며 “우리의 직업적 의무는 자만심이나 감정이 아닌 주인의 뜻에 맞추는 것”(149)이라 말한다. 합리적인 토대위에 형성되어야 할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윤리는 스티븐스에게 주인의 생각만을 합리화하는 비합리적인 행위가자 비윤리적인 담론임이 드러난다. 20년 만에 그에게 온 “내 남은 인생이 텅 빈 공허감으로 가득하다”(49)는 켄튼 양의 편지를 매개로 스티븐스는 그녀와의 “야릇한”(166) 연인의 감정을 가졌던 과거 시절을 반추하면서도, 현재 그녀와의 “이러한 만남은 업무적인 성격이 지배적임을 거듭 말해 두고 싶다”(147)며 자기방어적인 어조로 합리화시키며 독자들을 향한 의사소통행위를 지속한다. 그러나 마침내 20년 만에 만난 켄튼 양과의 대화에서 그는 “당신 말이 옳아요, 벤 부인.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지요”(239)하며 진심어린 의사소통행위를 보인다. 하버마스는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윤리적 담론이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자는 20년이 지난 뒤 비로소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졌다”(239)라고 표현하며 과거 그녀가 건넨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스티븐스는 켄튼 양과 헤어진 후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집사 직분을 퇴임한 한 노인과 진심어린 의사소통행위를 나눈다. 달링턴 경은 인생에 “잘못된 길”(243)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말할 수 있는 “특권”(243)이 있었으며 “용기 있는 분”(243)이라 말하며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지요”라며 과거 자신에 대해 집사직분만 수행했을 뿐 합리성의 토대위에 온전한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이성적인 개인으로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의사소통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과거 자신에서 벗어나 현재 낯선 타인과의 대화에서 스티븐스는 “저녁은 가장 좋은 때”(244)이기에 “즐기며 살아야 한다”(244)는 노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보이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온전한 의사소통 행위의 주체자로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하버마스는 합리성과 상호 주관적 이해 지향성을 기반으로 상호간에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지향하고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도출하여 도덕규범이 적용되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 행위라고 말한다. 1인칭 서술자인 화자 스티븐스는 독자에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4)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을 유도했던 의사소통행위를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서도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239)하며 텍스트 밖의 독자와의 지속적인 말 걸기로 의사소통 행위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텍스트안의 인물 켄튼 양과 더불어 우연히 만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주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며 스티븐스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작으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244)라며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담론윤리를 제시한다.

IV.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남아있는 나날』 작품을 1인칭 서술로 현재 시점의 여행서에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과거의 서사를 교직시키는 서사구조로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 윤리를 구현해 보인다.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윤리는 사람들 간의 서로 이해하는 행위에 의해 이성의 주체로서 각각의 사람들의 상이한 생각을 조율하며 조화롭게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상호이해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버마스는 말한다(425).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은 권력이나 부에 의한 왜곡이나 억압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소통 상황으로,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참되고, 옳으며, 이해 가능한 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상적인 의사소통 행위는 진실성과 정당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의 토대위에 형성된다.

『남아있는 나날』에서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1인칭 화자인 주인공 스티븐스를 텍스트 밖의 독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주체자로 제시하면서 텍스트 안에서도 과거시절 의사소통 행위를 온전히 형성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타인의 상이한 생각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주체자로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소설은 지나온 과거의 삶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사색의 철학 텍스트이자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와 담론윤리가 구현된 문학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 Works Cited

- Abbot, H. Porter. "Story, Plot, and Narra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Ed. David Herman. New York: Cambridge UP, 2007. 39-51.
- Arendt, Hanna.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Books. 2006. Print.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1996. Print.
- Ferguson, Rebecca. *History, Memory and Language in Toni Morrison's Beloved*. *Contemporary American Writers: Gender, Class, Ethnicity*. ed. Lois Parkinson Zambora. London: Longman Limited. 154-174. 1998. Print.
- Foucault, Michel. *Abnormal*. New York: Vintage Books. 1995. Print.
- Ishiguro, Kazuo. *The Remains of the Day*. New York: Vintage. 1988. Print.
-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ction - Lifeworld and Systems,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Volume 2. 1991. Print.

올라우다 에퀴아노(Olaudah Equiano)의 자전서사에서의 언어의 중요성

노종진
(한국해양대)

I. 서론

18세기에 이미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노예무역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제국주의자들로 통칭되는 그들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 노동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폭력과 침입에 삶이 바뀌고 노예로 전락하게 된 아프리카인들의 이야기 또한 등장하였는데, 18세기에 나오는 여러 아프리카인들의 노예의 삶과 관련된 서사 중에서 올라우다 에퀴아노(Olaudah Equiano)의 자서전(1789)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²²⁾ 헨리 루이스 게이츠(Henry L. Gates Jr.)가 지적하듯이 노예서사의 전본으로서 이후의 “19세기에 등장하는 노예서사들의 전형이 되는”(became the prototype of the nineteenth-century slave narrative)(153) 올라우다 에퀴아노의 자서전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자주 인용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학선집에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영어로 쓰인 초기의 대표적인 서사중의 하나로 대학에서도 자주 커리큘럼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작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에퀴아노의 자서전을 문학사적인 의의나 가치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도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노예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문학적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가족과의 이별, 처참한 노예의 삶, 폭력과 감금, 매매, 탈출의 대가 등 노예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들이다. 무엇보다도 노예서사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어를 읽고 쓰는 문해능력의 기회가 박탈된 노예가 자유의 신분을 얻은 후에 영어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전적인 서사를 쓰고 이를 통해 노예제도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폐지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에퀴아노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던 상황과 시기에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비교적 어린나이에 인식한 인물로 등장한다. 언어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을 갖고 그는 주인의 언어를 습득하여 그 언어를 통해 주인의 악행이나 모순과 제도적 폐단을 비판한다. 또한 그는 아프리카인의 인간성과 도덕성을 백인의 악행과 비인간적 만행을 대조적으로 드러내어 전복적 글쓰기를 시도한다. 자서전 서사를 쓴다는 것은 저자의 지적, 예술적, 문학적, 정치,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발표의 핵심은 에퀴아노에게 언어의 습득, 특히 그를 노예로 전락시킨 백인들의 언어인 영어에 대한 문해능력이 그의 자유획득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을 폐지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도구임을 밝히는 데 있다.

II

에퀴아노는 1745년에 현재 나이지리아의 에보에(Eboe)라는 지역에서 족장지위의 가문에서

22) *Thoughts and Sentiments on the Evil and Wicked Traffic of the Slavery*(1787)를 쓴 Ottobah Cugoano나 Phillis Wheatley(1753-1784) 등이 있지만 자서전이나 노예서사의 측면에서 보면 에퀴아노의 서사가 이들의 서사보다 문학적으로 더 뛰어나고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의 다른 부족에 포획되어 노예로 전락한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이미 노예를 포로로 삼고 매매하는 풍습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밝히고 있듯이 그들의 관습이나 노예를 취급하는 태도는 후에 에퀴아노가 경험하는 백인들에 의한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는 어느 족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두들 나에게 매우 잘해 주었다. 그들은 나를 달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그곳 사람들이 쓰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았다.(they all used me extremely well and did all they could to comfort me...these people spoke exactly the same language as us.”(21)라고 술회한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서 그 어떤 학대도 당해본 적이 없고 다른 노예들이 그런 짓을 당하는 것을 본적도 없다”(23) 에퀴아노는 또 다른 면의 아프리카 문화와 전통이 이미 유럽인의 그것들보다 더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각시킨다. 그는 에보(Eboes)문화의 고유성과 독특함을 유럽인들의 그것과 비교하고 대조하여 보다 앞서서 이미 이런 문화와 전통이 실천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그가 자서전 1장의 말미에서부터 밝히고 있듯이 “노예제가 인간의 정신을 암울하게 만들고, 인간 정신이 가진 불같은 열정과 모든 고상한 정서를 소멸시켜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Does not slavery itself depress the mind and extinguish all its fire and every noble sentiment?”라고 반문하면서 유럽인들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그가 이런 야만성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언어이다. 그는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동안 “두 세가지 언어를 배웠다. I acquired two or three different tongues.”(23)라고 밝힌다. 그는 노예로 팔려 가는 도중에도 이와 같이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습득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존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노예매매의 과정과 이동의 목적지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에퀴아노가 새로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 것은 바로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를 쓰는 백인들과의 만남이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내 눈을 황홀하게 해준 첫 대상은 바다, 그리고 화물이 실릴 때까지 대기하며 정박해있던 노예선이었다. when I arrived on the coast was the sea and a slave ship, which was then riding at anchor and waiting for its cargo. ”(27) 이 새로운 광경에 대한 놀라움은 곧바로 끔찍한 현실로 바뀌게 된다. “우리하고도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의 피부색, 기다란 머리카락, 그들이 쓰는 말. 그런 모든 것이 내가 그런 생각을 굳히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이 내게 안긴 공포와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Their complexions too, differing so much from ours, their long hair and the language they spoke,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any I had ever heard, united to confirm me in this belief. Indeed such were the horrors of my view and fears at the moment..”(27) 그는 서인도 제도 바베이도스로 가는 노예선에 타고 중앙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중앙항로의 끔찍한 항해과정을 에퀴아노는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백인들의 노예무역과 노예매매를 흑인들의 시각으로 기술함으로써 백인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야만을 저지르는 주체로 전복시킨다. 노예로 잡혀 서인도제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행해진 만행을 목도하는 에퀴아노의 공포는 죽음과 바꾸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한다.

[T]he white people looked and acted, as I thought, in so savage a manner; for I had never seen among any people such instances of brutal cruelty and this is not only shown towards us blacks, but also to some of the whites themselves. (29)

백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흉포해 보였고 하는 것이 너무 사나웠다. 그렇게까지 잔혹하고 악랄하게 구는 사람은 그 전까지 전혀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 흑인만이 아니라 자기를

백인 일부에게도 잔인하게 굴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백인 노예무역상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배에 싣고 중앙항로를 통해 서인도제도와 신세계(현재의 아메리카)로 실어 날랐다. 에퀴아노의 항해는 여행 모티프를 담고 있다. 한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여행의 모티프는 또한 그의 일생에서 수 없이 많이 등장한다. 그의 자서전에 등장하는 여정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서인도제도, 미국과 영국, 터키와 스페인, 심지어 북극까지 항해하는 항해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행의 모티프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의 모티프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에퀴아노의 언어에 대한 감각과 습득능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정신세계로 진입하는 여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경계에 서있는 에퀴아노는 그의 모국어와 문화권에서 이질적인 세계로 진입한다. 그가 취했던 다양한 여행의 항로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듯이,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그에게 펼쳐진 다양한 삶의 기회와 환경, 조건들은 그를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에퀴아노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자 처음 마주치는 것은 새로운 언어의 세계이다. 영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책을 처음 접하게 되는 때는 백인인 파스칼(Pascal) 주인에게 처음 팔려 서인도 제도로 가는 항해 중인데, 그는 선상에서 주인과 딕(Dick)이라는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미국소년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이다. 그에게 그들의 모습은 신기하고 황홀한 광경을 선사한다.

I had often seen my master and Dick employed in reading, and I had a great curiosity to talk to the books, as I thought they did, and so to learn how all things had a beginning. For that purpose I have often take up a book and talked to it and then put my ears to it, when alone, in hopes it would answer me and I have been very much concerned when I found it remaining silent. (41-2)

주인님과 딕이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나는 책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했다. 두 사람이 독서하는 모습이 내게는 그렇게 비쳤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신기했다. 나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자주 책에 대고 말을 한 다음 책에다 귀를 갖다 댔다. 책이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지만 책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했다.

그에게 구술언어세계에서만 경험하던 것과는 다른 문자체계의 형식을 지닌 책을 경험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는 책이 지닌 힘이 어떠한지 마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마법의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어의 기능을 재빠르게 파악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대한 감각과 감수성이 돋보였다. 그는 언어가 기본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적인 수단임을 매우 어린나이에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노예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로 붙잡혀 온 뒤 에퀴아노는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쓸 수밖에 없는 도전에 직면한다. 구두로 모든 의사소통과 사회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지던 아프리카에 반해 서인도제도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이다. 그는 이 점을 재빨리 파악하고 언어를 습득하려 하였다. 영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시도한 후 영국에 도착하여 그는 2,3년이 지나자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때쯤 영어를 어지간히 말할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동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꽤나 편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와 생활방식을 좋아하게 됐다. ...나는 그들을 닮아야겠다는, 그들의 정신을 흡수하고 생활방

식을 본떠야겠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I could now speak English tolerably well and perfectly understood everything that was said. I not only felt myself quite easy with these new countrymen, but relished their society and manners...I therefore embraced every occasion of improvement, and every new thing that I observed I treasured up in my memory.” (51). 새로 습득한 언어로 타문화와 “사회와 예의범절”을 즐기는 태도는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타문화중심주의로 비판받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새로운 문화집변의 과도기에 그가 목표에 다다르고자 한 과정에서 취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백인의 언어인 영어를 습득함으로써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적지 않다. 그는 우선 영어구사 능력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도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영어를 도구로 그는 노예신분에서 벗어나는 빠른 방법이 주인이 그를 노예로 삼기위해 지불한 대가를 갚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백인 주인에게 빚진 금액을 갚기 위해 조금씩 벌어들이는 돈마다 저축을 하여 결국에는 노예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비교적 양심적이고 에퀴아노를 잘 대해줬던 주인인 로버트 킹(Robert King)은 그에게 노동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약속하였는데 에퀴아노는 이를 저축하여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 파머(Farmer)선장과 항해를 다니면서 그는 장사를 바탕으로 이윤을 남겨 돈을 버는 시도를 한다. 텀블러 잔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다시 파는 방식으로 그는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하고 또 이윤을 남기고 파는 방식으로 일종의 장사꾼이 되어 돈을 번다. 상업주의 방식을 빠르게 채택하여 그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금전적 자산을 모아 노예신분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의 영어구사능력은 장사를 통해 물건을 사고팔아 돈을 모으는데 일조한다. 서인도 제도를 떠돌며 돈을 버는 와중에도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자신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는 사기행각도 경험 한다. 라임과 오렌지 같은 과일장사로 돈을 벌기위해 산타크루즈로 이동하는 중에 그와 한 사람은 백인 두 명에게 마지막 동전까지 이때까지 번 진 재산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을 겪는다. 그러나 끈질기게 다시 과일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요청하여 세 자루 중에 두 자루를 돌려받는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의사표현이 부족했다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퀴아노는 영어 구사능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에퀴아노는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무찌르거나 상대의 주장을 설득하여 자신의 논리로 상황을 이끌어 가는 인물이다. 그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언어의 싸움에서도 노련한 언어구사자가 된 것이다. 그는 책략가(trickster)의 모습을 보인다. 자유의 신분을 얻은 후에도 다른 흑인 자유인이 그 신분을 거의 박탈당할 뻔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에퀴아노는 노예신분이나 자유인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기도 한다. 그는 피부색과 인종적 차이가 가져다 주는 신분의 갑작스런 전략을 목도한다. 그는 백인의 권위와 파워가 노예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되는 사회에서 노예의 신분은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며 불리한 상황에 던져지기도 한다는 것을 체험한다. 이러한 자신의 존재상황에서 영어구사 능력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에퀴아노는 설득력 있게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바꾸어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보인다. 새로운 선장 필립스(William Philips)와 세인트 유스타시아로 항해하는 도중에 좌초되어 겪게 된 끔찍한 상황에 처한다. 그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작은 배가 해적일지 모른다면 주저하는 선장을 그는 설득하여 배에 승선함으로써 좋은 상황으로 사태가 전개되면서 살아남게 된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배에 올라야 한다고, 저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지 않는다면 온갖 힘을 다해 대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들이 죽든 우리가 죽든 둘 중 하나였으니까. 모두들 곧바로 내 의견에 동의했다. Be that as it might, we must board her, if we are to die by it and, if they should not receive us kindly, we

must oppose them, as well as we can; for there is no alternative between their perishing and ours.”(131-2) 그가 겁 많은 선장의 말에 묵묵히 따랐었다면 모든 선원들과 함께 물과 식량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죽음을 마주했을 가능성이 컸음에 틀림없다. 그의 용기와 설득력 있는 호소로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는 리더의 역할까지도 수행한 것이다. 이 조그만 배를 만나 알게 된 상황은 이 배도 조난을 당했는데 이 외딴배로 조난당한 선원을 태우러 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에퀴아노와 선원들은 뉴프로비던스 호로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그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백인의 종교를 받아들인다. 크리스천으로 변모에 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성경책과 주변의 크리스천들이다. 그는 성경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의 친구이자 교사였던 딕(Dick)이나 미스 게린(Miss. Guerin) 과 다니엘 퀸(Daniel Queen)같은 인물들을 통해 에퀴아노는 종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성경에 대해 듣고 읽음으로써 크리스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노예의 신분에서 억압자들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종교를 차용하여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에퀴아노의 자서전에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의 상황과 자신을 대비시켜 예표론(typology)적인 글쓰기를 시도한다. 아프리카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비시킨다. 이런 글쓰기는 그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의 종교적 관점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즉 모든 사람이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해능력을 가졌기에 그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화나 상징을 또한 적절하게 자신의 자서전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자서전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이름 야콥(Jacob)을 언급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신과 겨루어서 이스라엘(Israel)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로 자신의 예보우(Eboe) 출신성분을 바로 야콥의 자손으로 등치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몇몇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자신을 아프리카와 서구(유럽)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그린 것이다.²³⁾

그의 자서전은 종교적 신앙을 실천하는 그의 의지의 표상이며 노예무역의 폐지를 위한 호소는 수사적인 언어구사와 함께 강력한 호소력을 보인다. 그의 자서전 서사 12장에서 왕비께 노예폐지를 청원하는 그의 호소는 아프리카인을 노예에서 구원하는 차원과 백인들에게 인간적인 호소를 간청하는 것이다. 서사의 마지막에 그의 자서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탄원의 형식으로 당대의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제출하는 탄원서는 그의 언어사용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그는 자유의 신분을 획득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삶을 백인들의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폭력과 죄를 고발하고 이 끔찍한 관행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끝내기를 희망하였다.

에퀴아노는 자서전 출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이 미칠 파급적 효과와 반향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서전의 문체와 구성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의 자서전은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유형을 통해 수사적 목적을 더 한층 끌어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이자 여행기록, 모험이야기, 웅변 등의 여러 요소들은 그의 자서전속에 통합되어 반노예제도의 담론으로 거둬나게 되었던 것이다.

23) 윌러(Roxann Wheeler)나 토마스(Helen Thomas) 같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다.

III. 결론

그의 자서전을 통해 에퀴아노는 성실히 노력하여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도구가 영어습득이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에퀴아노의 탁월한 언어구사 능력이다. 그는 빠르게 백인의 언어를 습득하여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백인들의 무자비한 행위와 모순을 드러내고 반박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백인들의 언어를 습득하여 백인들의 만행과 비인간적인 불의를 폭로함으로써 노예제도의 폐지에 기여하였다.

에퀴아노의 서사는 아프리카인을 타자로 낙인찍고 그 야만성을 교화하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 삼았던 백인들의 위선과 무지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로서 기능한다. 무엇보다도 그의 서사의 궁극적 목표는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백인들보다 천하고 막 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능력과 지능을 갖고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에퀴아노의 자서전은 여러 면에서 노예서사의 전형이면서도 문학적 가치를 보여준 뛰어난 작품이다. 그의 자서전은 흑인문학의 주요 장르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 노예서사의 전형적인 구성과 전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참고문헌

Equiano, Olaudah. *The Interesting Narrative of the Life of Olaudah Equiano*.

London: The X Press, 1998.

Gates, Jr. Henry Louis. *The Signifying Monkey*. New York: Oxford UP, 1988.

Twain's Empirical Philosophy of Religion

- Focusing on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

Kim, Hyosil
(Kangwon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social functioning of literature has generally played a role in triggering new changes and reforms. For example, *Utopia* written by Thomas More served as an urge to seek ways to bring about economic equality and peace in England in the 16th century. Another example is *Common Sense* written by Thomas Paine which gave Americans a dream of independence for the first time. In the 19th century, there were many novels to make people reconsider religion. Nathaniel Hawthorne in *The Scarlet Letter*, Herman Melville in *Moby-Dick* tried to reveal the prejudice and deception that had been rooted in religion. Mark Twain (1835-1910) was also one of the most indispensable writers in this group.

As Louis J. Budd called him a social philosopher (xxiii), Twain looked with interest at all the phenomena occurring in society. Especially, he was concerned about the behaviors of Christians who distorted religious ethics and followed the wrong value resulting from it. This thoughts of Twain are well ingrained in his works. Critics did not miss out on the author's intention. As "many critics have emphasized the negative portrayals of his religious upbringing," (Bush, "Moralist," 57) with the oppressive tone, he talked about the Sunday school or church passages in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The Gilded Age*,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 etc.

However, while he discussed religious ethics or moral standards in his previous works, his posthumous works,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1969)²⁴⁾, features that Twain had readers think about the existence of the God itself. The hero, a mysterious boy called No. 44, makes an effort to get the other character to open his eyes to new changes markedly in a religious aspect. There are a few articles to illuminate this novel with a perspective of dream in Korea. However, papers, which have been analyzed in connection with religion, seem to be rare.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how Twain's thought about the religion comes to a conclusion, revealing various conflicts and problems which awakened people who are ready to accept a new idea have to face against the ideas of the old-fashioned thinkers who are still stick to the twisted values. Hereby, this paper will ensure that *No. MS* is another masterpiece that warns people, who take an absurdly and coercively institutionalized religion for grant, to be on their guard against accepting it with Twain's fanciful and somewhat cynical voice.

24)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will be marked as *No. MS* hereafter.

II. Thought Formed from Experience and Social Atmosphere

Twain had a special capacity to have derisive comments on various subjects related to American traditional cultural with his exquisite satire. One of them for which he employed his ability with seriousness was religion. Even though he was a Christian, he couldn't evidently accept conventional religion and the traditions and doctrine that grow thick within religion. So he often used to mention about his strong thoughts on religion and tried not to be swayed by blind faith.

So much blood has been shed by the Church because of an omission from the Gospel: "Ye shall be indifferent as to what your neighbor's religion is." Not merely tolerant of it, but indifferent to it. Divinity is claimed for many religions; but no religion is great enough or divine enough to add that new law to its code.

In religion and politics people's beliefs and convictions are in almost every case gotten at second-hand, and without examination, from authorities who have not themselves examined the questions at issue but have taken them at second-hand from other non-examiners, whose opinions about them were not worth a brass farthing.²⁵⁾

His comments clearly show how distrustful he is of religion. In fact, this thought might be sai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ocial atmosphere. During his time, there were philosophers, psychologists and scientists such as Friedrich Nietzsche, William James and Charles Darwin etc. who thought the "true mystery of religion lay not in its doctrines, but in its human construction and investment with belief" (Robinson 1). Joining this trend, Twain was also critical of organized religion and certain elements of Christianity through his later life (Huberman 303-4).

From 1902 through 1910, Twain had written *No. MS*²⁶⁾ but he couldn't publish it in his lifetime. Even though his manuscript was published after the author's death, the final chapter of this version was completed by Twain himself (Twain, Foreword). He seems to have tried to reflect his idea about religion to his final work with his best, to make his last work play a role as a catalyst for changing a corrupt religion to be purified. However, as soon as this novel was released, the anonymous reviewer criticized this novel in *New York Times* without reading Twain's appealing message, saying:

For here we have a last word from him we have always called the greatest American humorist, a word that comes to us after the grave has closed over the speaker, a final and conclusive word.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message carrying a grimmer credo of despair, disillusion, and contempt for human existence. It blows upon the spirit like a cold wind over a dark and desolate land, a land where there is never a light, near or far, promising shelter, home, and love. In such a land, shivering in such a wind, what better is there than to lie down and die? (*New York Times*)

25) <http://www.twainquotes.com/Religion.html>

26) This fantasy-rich last novel by Mark Twain was written during his late sixties and early seventies. It is his final version of a story that survives in three distinct drafts, all of which he left unpublished at the time of his death in 1910. By 1908 he had carried this version to novel length and had written the remarkable, indeed uncanny, final chapter, but he had not taken steps to publish his work. (Twain, *No. MS*, Foreword)

Given that Twain raised money to build a Presbyterian Church in Nevada in 1864 (*The New York Times*), it is important to know why the author had to deny the existence of God itself in this novel, going beyond the previous steps of merely criticizing the absurdity of religion. A crucial point is that this novel is based on his experience in the printing shop. While he had been working there, he must have felt the intention of churches which did not want people to be wise so that they could handle their followers at their disposal. The following statement reflects Twain's feeling at that time.

The priests said that knowledge was not good for the common people, and could make them discontented with the lot which God had appointed for them, and God would not endure discontentment with His plans. This was true, for the priests got it of the Bishop. (*No. MS*, 4)

The Church was opposed to the cheapening of books and the indiscriminate dissemination of knowledge. (*No. MS*, 12)

Above all, in this novel, there is a character called Father Adolf who was modeled after a real person. He is a corrupted priest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many people. This villain was a copy of Dr. Karl Lueger who "had been prominent in events leading to an outbreak of rioting on the floor of the Austrian parliament in fall of 1897, which Mark Twain witnessed." (*No. MS*, 190)²⁷⁾ The author first named the bad priest "Lueger," in the manuscript for this chapter, but later he changed the name to "Adolf." This character slanders Peter who is more appreciated by many believers than himself. While Peter is being falsely accused, his nephew, Gretchen who lives with Peter visits the bishop and tries to implore him, but the bishop rejects her entreaty.

. . . but Father Adolf had been poisoning the Bishop against the old man a long time privately, and he wouldn't listen. . . (*No. MS*, 10)

The bishop became "a slave to Father Adolf's influence," (*No. MS*, 10) because he believed Adolf "met the Devil face to face." (*No. MS*, 10) The bishop was not able to tell right from wrong. He was just deceived by human sly tricks with which Adolf lied in order to make people look up to himself.

Father Adolf had actually met Satan face to face, more than once, and defied him. This was known to be so. Father Adolf said it himself. He never made any secret of it, but spoke it right out. (*No. MS*, 9)

Twain's cynical explanation about the event Father Adolf made may be the biggest reason to write this novel. Twain pointed out that the behaviors the bishop and the priest showed were no different from that of vulgar people. As Harold K. Bush noted that Twain had questioned "that Christianity is the very invention of Hell itself," (*Spiritual*. 1) the author would consider Christians who wanted to distort the faith and created blind followers

27) This part is referenced in the "Description Note" attached in the back part in this novel.

as devils. It seems that Twain felt anxiety about those who blindly believed in what looked like a miracle in religion. His worried voice is well revealed in the following sentence.

Then most earnestly he warned us to be on our guard against accepting miracles, or what seemed to be miracles, upon our own judgment and . . . (*No. MS*, 55)

Adolf's evil deeds went on. When he was young, Adolf "had broken through the ice and was struggling (*No. MS*, 103), Johann Brinker, who was a rising young artist, "flew to the spot" (*No. MS*, 103) and saved the priest's life without hesitation. Adolf soon recovered, but Johann had to lie in bed, getting help from his four sisters and mother for the rest of his life. However, far from taking care of his family, Adolf perpetrated the heinous work on Johann's mother, calling her a witch. Eventually, the mother of Johann who did a good thing, was put to death. Traveling back to the past through No. 44's magic, August Feldner, the hero who has watched such an appalled situation says:

All this is costs to save a priest for a life-long career of vice and all forms of shameless rascality! (*No. MS*, 105)

In fact, 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 Twain early disputed a passage in the Bible, which is about King Solomon. The conversation between Huck and Jim which is not only the most humorous, but also a well known syllogism. Jim was apparently interested in the story of King Solomon who had a lot of wives and children. When Jim asked what the King did, Huck replied that he did not do anything useful. Subsequently, Jim talked about the Solomon's wisdom in the Old Testament Bible. He thought the story is ridiculous. If the King has only one or two children, he could not propose to chop the baby. Because, for the King, a baby would have no more value than a cat.

"Blame de pint! I reck'n I knows what I knows. En mine you, de *real* pint is down funder – it's down deeper. It lays in de way Sollermun was raised. You take a man dat's got on'y one or two chillen; is dat man gwyne to be waseful o' chillen? No, he ain't; he can't 'ford it. *He* know how to value 'em. But you take a man dat's got 'bout five million chillen runnin' roun' de house, en it's diffunt. *He* as soon chop a chile in two as a cat. Dey's plenty mo'. A chile er two, mo' er less, warn't no consekens to Sollermun, dad fetch him!" (Twain, *Huck*, 184)

This view corresponds to Twain's disdain for the corrupt power.²⁸⁾ Twain's discontent would naturally lead to doubts about what religion itself is. This time was the period when many intellectuals also tried to solve the question about religion and human relations. In particular, Twain respected James's study, so he participated in unique investigations to unravel his own long-standing belief. Through James's psychology, Twain and James weaved their way, arguing "the case for "double" or "alternate" personalities." (Horn 7) Based on this experience, Twain's argument found its way into *No. MS*.

28) <https://www.litchatte.com/2017/08/28/huck-jim-discuss-whether-king-solomon>

III. Religion in Privacy and Independence

In a similar way to the Socratic elenchus which Huck and Jim had already shown, August and No. 44 question and answer each other. While August experienced many things through the boy, No. 44's mysterious magic, they talked about what the essence of a human being existence is and what the religion that affects humans is. August tried to eliminate of stereotypes which stuck in his head and couldn't be easily shaken off. For example, August feels ashamed he could not rescue Johann's mother, but No. 44 sarcastically disagrees with what he said, commenting as follows;

"Oh, there spoke the human! He is always pretending that the eternal bliss of heaven is such a priceless boon! Yes, and always keeping out of heaven just as long as he can! At bottom, you see, he is far from being certain about heaven."

. . .

He was not affected by my warmth, neither did he trouble to answer my question; . . .

"The woman could have gained nothing worth considering—certainly nothing worth measuring by your curious methods. . . Her bodily pain at the stake lasted six minutes—to save her from *that* would not have been worthwhile, That poor creature is in hell; see for yourself!"(No. MS, 116)

No. 44 takes August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says "*Life itself is only a vision, a dream.*" (No. MS, 186) He feels pity that humans live in a fantasy world but they don't realize it, saying "Nothing exists; all is a dream. God—man . . ." (No. MS, 186) Successively, the author via No. 44's voice pours out the doubts which he has held about God so far.

. . . a God who could make good children as easily as bad, yet preferred to make bad ones; . . . ; who mouths justice, and invented hell—mouths mercy, and invented hell. . . ;who mouths morals to other people, and has none himself; who frowns upon crimes, yet commits them all. . . , then tries to shuffle the responsibility for man's acts upon man, instead of honorably placing it where it belongs, upon himself; and finally, with altogether divine obtuseness, invites this poor abused slave to worship him! . . . (No. MS, 187)

No. 44's negative opinions about Christianity eventually cause the denial of everything in the world, insisting that "there is no God, no universe, no human race. . ." (No. 44, 186)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is part contains a pretty ironical meaning. He would think the Bible itself is also unbelievable because it was written by man, and people interprets the Bible to suit their taste. Twain could not have put up with this phenomenon any longer. Jason Gray Horn seems to have a good grasp of his point.

What is even more important, in Twain's view, is that one must refuse to accept beliefs on "command" and should instead work to "manufacture" his own religion in the "privacy and independence" of his own thoughts. Religion, in other words, is to be shaped within individual "heads and hearts," and not to be forced upon the same by coercive institutional force. (15)

Like many intellectuals mentioned above, Many conflicts yielded from religion has led Twain to explore what man and God are really made of. Gradually, with these reasons, the enthusiasm for Christianity was greatly shaken in the last half of the (19th) century."²⁹⁾

IV. Conclusion

Even today, it is true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related to religion. Protesting against these wrong practices of some Christians,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many moves to revoke the wrong belief in extorting human rights and detaining human beings under the system of religion. As Twain wrote his experience he witnessed in this novel. as one of the people who tried to correct this misconception, Twain poured all his passion into his last work that would be embodied in his empirical philosophy.

On the subject of Twain's consciousness to recognize reality through dreams, this present writer will leave it a future research task.

Works Cited

- Budd, Louis J. *Mark Twain Social Philosopher*, Missouri: Missouri UP. 2001. Print.
- Bush, Jr. Harold K. "A Moralist in Disguise: Mark Twain and American Religion," New York: Oxford UP. 2002. Print.
- _____. *Mark Twain and the Spiritual Crisis of His Age*, Tuscaloosa, AL: Alabama UP. 2007. Print.
- Horn, Jason Gray, *Mark Twain and William James: Crafting a Free Self*, Columbia and London: Missouri UP. 1996.
- Huberman, Jack. *The Quotable Atheist*. United States: Nation Books. pp. 303 - 304. 2007.
- Twain, Mark.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Berkeley, Los Angeles, London: California UP. 1982. Print.
- _____.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Seoul; Shinasa. 2009. Print.
- Sedgwick, Peter R. *Nietzsche: the key concepts*. Routledge, Oxon, England: Routledge. 2009.
- New York Times*. "A Posthumous Novel by Mark Twain." 29 Oct, 1916.
- The New York Times*. "Church Aided by Twain Is in a Demolition Dispute." Retrieved October 5, 2008.

29) IIM Magazine Online, Volume 2, Number 9, February 28 to March 5, 2000
<https://thirdmill.org/magazine/article.asp/link/https:>

영어학분과 (인문대1호관 405호)

분과위원장 및 좌장: 박준석(세명대)

5월 14일	발표시간	발표자	소 속	발표논문제목	토론자	사회자	
	14:00~14:30	진연정 김소지	강원대	영어 전치사 자질과 그 교육적 함의 : 음성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박창범(서원대)	김경열 (강원대)	
	14:30~15:00	박창범	서원대	Phonological Productivity of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i>-wich</i> and <i>-wick</i>	박인규(충북대)		
	15:00~15:30	이두원	교통대	On Dative Experiencers	이해련(서원대)		
	15:30~15:40	휴식					
	15:40~16:10	신성균	강원대	A Diachronic Study of <i>The Story of Genesis and Exodus</i>	양용준(제주대)	이두원 (교통대)	
	16:10~16:40	양용준	제주대	영어 및 한국어 전제 유발체 분석 고찰	강남길(극동대)		
	16:40~17:10	강남길	극동대	On Middle Verb Constructions	박준석(세명대)		

영어 전치사 자질과 그 교육적 함의

: 음성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진연정, 김소지
(강원대)

1. 서론

기존의 영어 교육이나 교재에서는 전치사를 의미적 분류 중심으로 학습하는 때문에,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 시험과 회화에서 전치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 학습자들은 전치사에 대해 원어민과는 다른 음성적인 실현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치사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같은 형태의 전치사 일지라도 양분적인(binary) 자질로 통사적 역할이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1) a. A New York Times is on the desk.(COCA, 2001, FIC)
b. It depends on energy. (COCA, 2017,SPOK)
- (2) a. The cups are in the box there. (COCA, 2002, FIC)
b. We believe in you. (COCA,2017,MAG)

원어민 화자들은 이러한 전치사의 자질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음성학적 정보에 음높이의 차이를 두고 발화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다.

연구 과제

1) 전치사 자체가 가지는 술어적(PRD+) 또는 비술어적(PRD-) 자질에 따라 원어민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음성적 실현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전치사 자질을 기반으로 교육한 한국인 학습자들과 기존의 방법으로 교육받은 학습자들의 음성 실현 결과 값의 평균을 도출하고, 한국인도 원어민과 같이 자질에 따라 음높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두는지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치사의 특성

전치사는 하나의 자질(feature)로 국한되기 보다는 동일한 전치사라도 환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와 격 표시자(case marker)와 같은 문법기능자로서의 전치사로 양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술어적 자질을 가지며, 문법적 기능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는 비술어적 자질을 갖는다.

2.1 통사적 특성

술어적 전치사는 다른 의미를 가진 전치사로 대체 가능하다.

- (3) a. The book is **on** the chair.
- b. The book is **under** the chair.
- c. The book is **next to** the chair.

반면, 비술어적인 전치사는 대체할 수 없다.

- (4) a. John relied on his wife.
- b. *John relied with his wife.

‘~위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도 ‘upon’을 제외하고는 비문이 된다.

- (5) a. John relied on/upon his wife.
- b. *John relied over/with/on the top of/above his wife.

전치사의 전치 이동(Preposition fronting) 현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 (6) a. I wonder to whom they sent presents. (Ginsburg & Sag(2000))
- b. *I wonder about what this book is! (Ginsburg & Sag(2000))

마지막으로, 결속(binding)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채귀대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구 내에 있는 경우 전치사의 자질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인다. .

- (7) a. I gave a present to him.
- b. I gave him a present.

비술어적[PRD-] 자질을 가진 전치사 뒤에는 채귀대명사나 대명사가 명사구(NP)로 나타나면 전치사가 없는 것과 같이 결속 현상이 일어난다. 반면, 예문(8)에서 술어적 자질의 전치사에서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 (8) a. The house had a fence around it/*itself.
- b. To make a noose, you wind the rope around itself/*it.
- c. Susan wrapped the blanket around her/herself. (김중복(2009),p.126)

2.2 음성적 특성

- (9) a. We were attacked by the dog.
- b. You can rely on that.

- c. They don't approve of us.
- d. They placed the picnic table between the two trees.
- e. The car was found under th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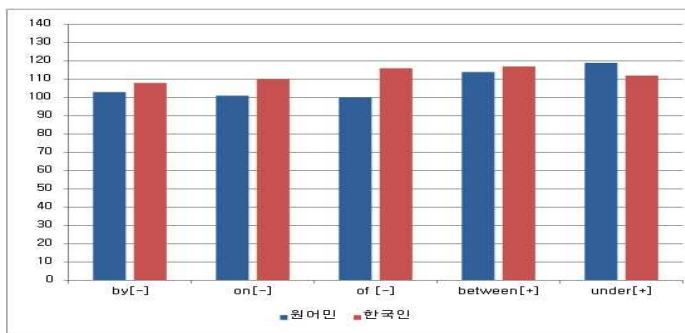
(Gazdar, Klein, Pullum, and Sag(1985))

<표 1> 원어민의 음높이(Pitch) 값

	by	on	of	between	under
원어민A	98 Hz	94 Hz	98 Hz	101 Hz	104 Hz
원어민B	98 Hz	98 Hz	96 Hz	107 Hz	107 Hz
원어민C	100 Hz	95 Hz	98 Hz	107 Hz	119 Hz
원어민D	116 Hz	116 Hz	109 Hz	142 Hz	144 Hz

<표 2>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음높이(Pitch) 값

	by	on	of	between	under
학습자A	113 Hz	109 Hz	115 Hz	118 Hz	119 Hz
학습자B	110 Hz	122 Hz	116 Hz	124 Hz	109 Hz
학습자C	97 Hz	104 Hz	104 Hz	102 Hz	103 Hz
학습자D	112 Hz	104 Hz	109 Hz	124 Hz	115 Hz



[그림 1] 원어민과 한국인의 음높이 평균값 비교

3. 선행 연구

3.1 전치사 자질

GPSG(1985)에서는 전치사의 사용 용도에 따 두 부류로 구분했다.

- (10) a. She handed it to me.
- b. *She handed it for me.
- c. *She handed it near me.

d. Sandy walked to the station.

Gazdar,G.,Klein,E.,Pullum,G.K.,& Sag,I.A.(1985)

격표시자(Case-marking) 기능을 하는 전치사와 의미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의 전치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휘부(lexicon)에서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종복(2009)도 두 가지 종류의 전치사를 제시하였다.

(11) a. John is in the box.

b. I placed John in the box.

(11a)에서 나타난 *in*은 주어 John이 상자 안에 있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11b)의 *in*은 동사 place가 요구하는 처소격(locative)논항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그러므로, (11a)의 *in*은 술어적(predicative) 전치사이며, (11b)는 논항표시자(argument-marking)의 전치사 이다.

3.2 전치사 교육

조경미(2005)와 서혜정(2006)의 연구는 모두 전치사의 의미적인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인 학습자에서 발화되는 오류나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오류들을 조사였지만, 이러한 학습자의 오류를 전치사의 통사적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의미적인 이해의 부족의 관점에서만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임신영의 연구가 같은 형태인 불변화사와 전치사에 나타나는 음성학적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전치사에서 나타나는 음성학적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전치사가 가지는 자질적 차이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학습하고, 실제 음성학적 정보가 원어민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해보고자 한다.

4. 실험 및 결과분석

4.1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A와 B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기존의 학습 방법과 같이 교재에서 나타나는 전치사들을 대상으로 의미 위주의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반면, B그룹에서는 전치사의 두 가지 자질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문들을 제시하여 자질 차이를 인

〈표 3〉 실험 대상

대상	한국인 대학생
참가 인원	그룹 당 20명 × 2 = 40명
성별	남
평균연령	22세
토익 점수	평균 500점
수업 기간	15주

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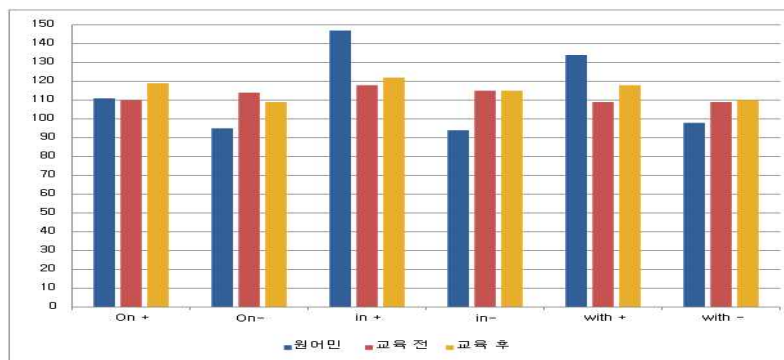
〈표 4〉 실험 예문들

비술어적(non-predicative)	술어적(predicative)
a. First, U.S. weapon systems heavily rely on software. (COCA, 2017, ACAD)	d. She placed it on the desk. (COCA, 2017, FIC)
b. But we have good players, we believe in ourselves. (COCA, 2017, NEWS)	e. What is in your pocket? (COCA, 2017, ACAD)
c. I feel like she doesn't always agree with her father.~. (COCA,2017, NEWS)	f. I just want to be with my family. (COCA, 2017, MAG)

4.2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5〉 전치사 자질 구분에 따른 한국인 음높이의 평균값

	on[+]	on[-]	in[+]	in[-]	with[+]	with[-]
A그룹	110Hz	114Hz	118Hz	115Hz	109Hz	109Hz
B그룹	119Hz	109Hz	122Hz	115Hz	118Hz	110Hz



〈그림 2〉 각 그룹의 음높이 평균값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의 술어적(PRD+)과 비술어적(-PRD) 자질에 따라 음높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그룹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6〉은 기존 방식의 전치사 교육으로, 〈표7〉은 자질 중심의 전치사 교육 후 각 그룹에서 나타난 평균, 평균 편차, t값 및 p값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기존의 학습법으로 수업한 그룹의 전치사 자질에 따른 음높이(pitch) 차이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PRD+	112.03	24.53	-.346	.731*
PRD-	112.50	26.08		

*.p<0.05

<표6>에서 나타나 결과를 살펴보면, t값이 -.346으로 -1.96보다 크고, p값은 .731로 0.05보다 크므로 교육 전 학생들은 통계학적으로 전치사 자질에 따른 음높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표7>에서 나타난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있다.

<표 7> 자질 학습을 실시한 그룹의 전치사 자질에 따른 음높이(pitch) 차이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PRD+	119.73	21.82	3.864	.000*
PRD-	111.45	26.05		

*.p<0.05

t값은 3.864로 +1.96보다 크고, p값은 .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이 집단은 전치사 자질에 따라 음성적 차이를 두고 발화하고 있음을 있다.

5. 결론

전치사는 독특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의미적 유무가 결정된다. 즉, 전치사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단순히 학습자의 의미 이해의 부족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자질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치사의 통사적 자질 차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성학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통사적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의미 위주의 수업을 실시한 한국인 학습자들은 전치사에 대해 별다른 구분 없이 발화하지만, 통사적 자질 차이를 기반으로 수업한 학습자들은 원어민처럼 직관적으로 같은 전치사라도 술어적 자질로 사용되는 경우 비술어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음높이로 발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습방법인 의미 위주의 학습이 아닌 전치사의 자질적 차이에 의한 분류를 중점으로 학습한다면 효과적인 전치사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귀순. 1998. *전치사구의 생성문법적 접근*. 출판지:한국 문화사.
- 김미자, 김종복. 2015. *학교 영문법*. 출판지: 한국 문화사.
- 김종복. 2009. *영어통사·의미 구조의 이해 : 제약기반 이론적 분석*. 출판지:한국 문화사.
- 서혜정. 2006. *성인 EFL 학습자의 전치사 사용에 관한 오류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신영미. 2000. *영어전치사 학습사의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임신영. 2016. 영어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음성학적 실현 양상. *영어영문학* 21(1), 319-338.
- 조경미. 2005. *한국 고등학생 영어전치사 사용에 관한 오류 분석*. 석사 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황정민. 2012. *한국 대학생 영어 전치사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Davis, Anthony R. *Linking by types in the hierarchical lexicon*. CSLI Publications, 2001.
- Gazdar, Gerald, et al.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nzburg, Jonathan, and Ivan Sag. 2000. *Interrogative investigations*. Stanford, CA:

- CSLI publications.
- Hornstein, Norbert, and Amy Weinberg. 1981. Case theory and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12(1), 55–91.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8.*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Lindstromberg, Seth. 2010.*English prepositions explained*. Amsterdam : John Benjamins Publishing.
- Sag, Ivan A., et al. 1999.*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Phonologic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h* and *-wick*

Chang-beom Park
(Seowon University)

1. Introduction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h* and *-wick* exhibit different phonological aspects from other normal English words. A suffix-initial /w/ is deleted depending on the stem-final segments. If they are sonorants like /r/, /l/, /n/, and /m/, /w/-deletion occurs (e.g. *Norwich* [nɔːrɪʃ], *Greenwich* [grɪnɪʃ], *Woolwich* [wʊlɪʃ], *Bromwich* [brɒmɪʃ], *Warwick* [wɔːrɪk], *Alnwick* [ænrɪk]), while they are obstruents, the suffix-initial /w/ is pronounced as in *Ipswich* [ɪpswɪʃ], *Northwich* [nɔːθwɪʃ], *Gatwick* [gætwrɪk]. *Pickwick* [pɪkwɪk], etc.

The both place-names ending in *-wich* and *-wick* have an identical etymology. They are originated from the Old English suffix *-wīc*, which means "a dwelling, dwelling-place; village, hamlet, town; street in a town; farm" (Smith 1956: 257, Ekwall 1960: 515, Watts 2004: xlvi). Since the both names have the same origin, we can simply assume that they share identical phonology. However, there are some place-names raising doubts about this assumption. For example, a stem-final /l/ before the suffix *-wich* sometimes do not trigger /w/-deletion as in *Middlewich* [mɪdlwɪʃ]. On the other hand, the suffix *-wick* sometimes undergoes /w/-deletion after stem-final obstruents like /z/: e.g. *Chiswick* [tʃɪzɪk].

We cannot investigate whether the two suffixes are similar or different phonologically due to the lack of actual data.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experiment to identify native speaker's intuition for the two suffixes.

2.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h* (EPNWh)

The place-names were collected from BNC:

Table 1. Top 18 word frequencies of EPNWh in BNC (Park 2017: 303)

Rank	Place-Names	Frequency	Rank	Place-Names	Frequency
1	NORWICH	1411	10	DROITWICH	47
2	IPSWICH	1206	11	NANTWICH	35
3	SANDWICH	1038	12	BLOXWICH	32
4	GREENWICH	371	13	DUNWICH	24
5	WOOLWICH	344	14	HORWICH	23
6	HARWICH	231	15	MIDDLEWICH	19
7	BROMWICH	149	16	PRESTWICH	19
8	DULWICH	101	17	LEFTWICH	11
9	NORTHWICH	96	18	COMBWICH	6

The pronunciation is mainly based on Ekwall(1960).

(1) Pronunciation of the frequent eighteen EPNWh (Park 2017: 305)

a. unenunciated /w/		b. enunciated /w/	
Norwich	[nɔɹɪʃ]	Ipswich	[ɪpswɪʃ]
Greenwich	[ɡrɪnɪʃ]	Sandwich	[sændwɪʃ]
Woolwich	[wɔɹɪʃ]	Northwich	[nɔəwɪʃ]
Harwich	[hɑɹɪʃ]	Droitwich	[drɔɪtwɪʃ]
Bromwich	[brɔɹɪʃ]	Nantwich	[næntwɪʃ]
Dulwich	[dʌɹɪʃ]	Bloxwich	[blɔkswɪʃ]
Dunwich	[dʌnɪʃ]	Middlewich	[mɪdlwɪʃ]
Horwich	[hɔɹɪʃ]	Prestwich	[prestwɪʃ]
Combwich	[kʌmɪʃ]	Leftwich	[leftwɪʃ]

The data can straightforwardly be captured by the rule like this: /w/ → Ø / {r, l, n, m} + __ɪʃ

However, some names like *Middlewich* [mɪdlwɪʃ] and *Combwich* [kʌmɪʃ] cannot be accounted for by this rule. They appear to be involved derivational process.

3.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k (EPNWk)

EPNWk data were also collected from BNC:

Table 2. Top 24 word frequencies of EPNWk in BNC

No.	Place-names	Freq.	No.	Place-names	Freq.
1	WARWICK	668	13	BEWICK*	81
2	BERWICK	334	14	HARDWICK	77
3	GATWICK	325	15	FISHWICK	57
4	CHISWICK	268	16	ALNWICK	62
5	CHADWICK*	192	17	GRUNWICK	57
6	MARWICK*	175	18	PAINSWICK	57
7	KESWICK	149	19	SEDGWICK	57
8	HAWICK	148	20	LERWICK	49
9	PRESTWICK	109	21	POWICK	39
10	BRUNSWICK	104	22	BORTHWICK	38
11	PICKWICK	104	23	SIDGWICK*	35
12	FENWICK	99	24	BAILIWICK	34

(*: Person's name)

Their pronunciation is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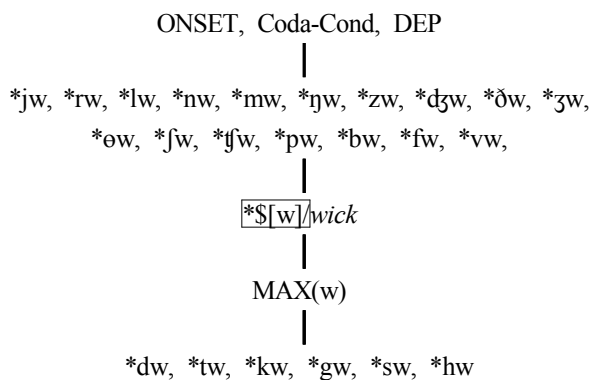
(2) Pronunciation of the frequent 24 EPNWk

a. unenunciated /w/		b. enunciated /w/	
Warwick	[wɔ.ɹɪk]	Gatwick	[gæ.twɪk]
Berwick	[bɛ.ɹɪk]	Prestwick	[pre.stwɪk]
Chiswick	[ʃɪ.zɪk]	Brunswick	[brʌnz.wɪk]

Keswick	[kɛ.zɪk]	Pickwick	[pɪ.kwɪk]
Hawick	[hɔːk]	Powick	[pɔː.wɪk]
Alnwick	[æ.nɪk]	Bewick	[bɛ.wɪk]
Grunwick	[grʌ.nɪk]	Fishwick	[fɪʃ.wɪk]
Fenwick	[fɛ.nɪk]	Painswick	[peɪnz.wɪk]
Hardwick	[hɑː.dɪk]	Sedgwick	[sɛdʒ.wɪk]
		Powick	[pɔː.wɪk]
		Borthwick	[bɔː.wɪk]
		Bailiwick	[beɪ.lɪ.wɪk]

According to Park(2019), the phonological distribution of EPNWk can be captured by the following constraints and ranking in OT:

(3) The overall ranking for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k* (Park 2019: 33)



(4) Warwick (Park 2019:32)

/wɔːr+wɪk/	ONS	CodaCon	*rw	* $\$$ w	MAX(w)
a. wɔː.rwɪk			*!		
b. wɔːr.wɪk		*!			
c. [☞] wɔː.rɪk					*
d. wɔː.wɪk				*!	

(5) Gatwick (Park 2019:32)

/gæt+wɪk/	ONS	CodaCon	*rw	* $\$$ w	MAX(w)	*tw
a. gæt.wɪk				*!		
b. gæt.tɪk					*!	
c. [☞] gæt.twɪk						*

3. Experiment

An online survey experiment using written forms is conducted. 43 native speakers of British-English, aged from 20 to 60 yea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y were carefully instructed to choose one option that is closest to their pronunciation. As an example, “How do you pronounce Norwich” in “She lives in Norwich?” is asked, and two or more possible options were given like (a) No-Wich, and (b) No-Rich. Total

number of testing words were 42, which consist of four groups: (i) actual words, (ii) actual stems + *wich/wick* = nonce words, (iii) actual stems + *wid* (nonce suffix) = nonce words, (iv) nonce stems + *wich/wick/wid* = nonce words.

4. Result

(6) Frequencies of each tested word

	-wich	% of w-del	-wick	% of w-del	-wid	% of w-del
1	Norwich	97.67	Norwick	74.42	Norwid	46.51
2	Greenwich	97.67	Greenwick	30.23	Greenwid	39.53
3	Woolwich	88.37	Woolwick	53.49	Woolwid	41.86
4	Bromwich	76.74	Bromwick	41.86	Bromwid	44.19
5	Warwich	72.09	Warwick	76.74	Warwid	46.51
6	Hardwich	30.23	Hardwick	6.98	Hardwid	16.28
7	Chiswich	60.47	Chiswick	72.09	Chiswid	37.21
8	Grunwich	53.49	Grunwick	44.19	Grunwid	30.23
9	Middlewich	6.98	Middlewick	4.65	Middlewid	6.98
10	Paddlewich	9.30	Paddlewick	2.33	Paddlewid	6.98
11	Geddlewich	4.65	Geddlewick	11.63	Geddlewid	4.65
12	Combwich	32.56	Combwick	20.93	Combwid	16.28
13	Hymnwich	30.23	Hymnwick	27.91	Hymnwid	32.56
14	Blignwich	44.19	Blignwick	37.21	Blignwid	25.58

(bolded words: actual words)

5. Conclusio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whether different suffixes that have the same etymology share the same morpheme-specific phonological grammar or not. For this, two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h* and *-wick* were employed in the experiment. The result implies that same origin does not guarantee same phonology.

Selected References

- Ekwall, E. 1960.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place-names*. 4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C. 2017. The Emergence of Intrusive-r in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h*.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0-2, 301-320. doi:10.18853/jjell.2017.59.4.015
- Park. C. 2019. The Frequency Effect and Phonological Productivity in English Place-names ending in *-wick*. *Studies in Linguistics* 50, 19-38. doi:10.17002/sil.50.201901.19.
- Prince, A. and P. Smolensky. 1993/2004.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Smith, A. H. 1956. English place-name elements, Part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 Dative Experiencers

이두원
(한국교통대)

I. Introduction

The objectives of this work are four-fold. First, the psych verbs will be divided into Class I, II, and III à la Landau (2010) and Class III-type psych verbs or adjectives in Korean will be examined. Second, the current work will introduce Kim's (2017) proposal that the dative experiencer in Korean is applicative rather than adpositional.¹⁾ Third, I will argue that this is because the experiencer cannot undergo alternation between the dative particle (i.e. *eykey*) and the locative particle (i.e. *e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animate entity or a group whose members are animate. Finally, the dative markers on the goal in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 on the causee in the morphological causative, or on the *by*-phrase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are all postpositions or adpositions because they can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 particles.

II. Dativity

2.1 Dative Particles in Korean

The particles *eykey*, *hanthey*, *tele*, or *poko* seem to express dativity in Korean, as shown in (1a).²⁾ *Eykey* and *hanthey* can be used with intransitive motion verbs, ditransitive verbs, and some transitive verbs, while *tele* and *poko* surface with a limited set of verbs like *malha* 'say' or verbs with a similar meaning (Son 1999). All of them are compatible with animate nominals. *Tele* and *poko* are only available to a human entity.

- (1) a. emma-ka cheli-eykey/hanthey/tele/poko ca-la-ko (mal)ha-yess-ta.
mother-NOM Cheli-DAT sleep-IM-QT tell-PST-DC
'Mother told Cheli to sleep.'
- b. cheli-ka yengi-eykey chayk-ul cwu-ess-ta.
Cheli-NOM Yengi-DAT book-ACC give-PST-DC
'Cheli gave Yengi a book.'

2.2 Preposition *to* in English

The goal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i.e., ditransitive construction) in (2a) must play a possessor role essentially restricting it to an animate entity (Bresnan 1982; Oehrle 1976, among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object of *to* in the *to*-dative construction in

1) The term 'adposition' embraces both a postposition and a preposition. It means a postposition in Korean.

2) We have opted for the functionally neutral term "particle"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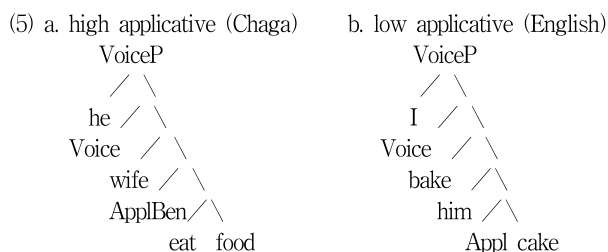
(2b) is thematically a location, not necessarily a possessor. Therefore, the animate or inanimate arguments can appear in that position. The preposition *to* in (2b) occurs as a dative marker. It bears directional and locational sense. The meaning of *to* is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as in (3) à *la* Tyler & Evans (2003: 246, 248). The point is that the particle *eykey* is only attached to the animate goal, whereas the preposition *to* is compatible with the animate or inanimate nominal, as shown in (3) (Jeong 2012: 137).

- (2) a. John gave Mary a book.
 b. John gave a book to Mary.’
- (3) a. In the picture, Diana is standing to my left. (location)
 b. Hand to hand. (contact)
 c. He added a fence to the garden. (attachment)
 d. The design of the sweater is inferior to that one. (comparison)
 e. We went to lunch. (event, direction)

2.3 Pylkkänen’s (2008) High and Low Applicatives

Pylkkänen’s (2008) split into high and low applicatives (i.e., ditransitives) is based on the semantic difference that the direct object (DO) has a straightforward relation to the verb, whereas the indirect object (IO) becomes the owner of the direct object. She gives examples of a high applicative structure in Chaga and a low applicative structure in English. The point is that only in the latter (i.e., in English) there is a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³⁾ Her high and low applicatives placed above and below the VP respectively are depicted as in (5).

- (4) a. Chaga
 N-ä-ï-lyì-í-à m-kà k-élyá. (no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 between IO and DO)
 FOC-1SG-PRS-eat-APPL-FV 1-wife(IO) 7-food(DO)
 ‘He is eating food for his wife.’
- b. English
 I baked him a cake.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 between IO and DO) (Pylkkänen 200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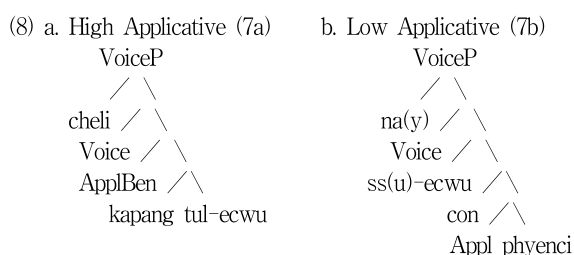
2.4 Jeong’s (2015) Applicative Approach to Benefactive Suffix

3) *Cwu*-suffixed verbs in Korean are classified into high and low applicatives, as will be shown. The abbreviations in (4) stand for the following. APPL=applicative, FOC=focus, FV=final vowel, PRS=present tense, SG=singular, IO=indirect object, DO=direct object

The verb *cwu* ‘give’ in Korean is a typical ditransitive verb. Interestingly, a lexical verb can be suffixed by the verb *cwu*, which induces a so-called serial verb construction. At this point, the verb *cwu* functions as a benefactive suffix, which still makes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appear as a ditransitive verb. Note that while in the *cwu*-suffixed verb construction there is a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 where the IO (i.e., dative goal) becomes the owner of the DO, in the transitive verb construction there is no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 to DO. This is shown by the following contrasts. Jeong (2015) tries to show that *cwu*-suffixed verbs are divided into high and low applicatives in the sense of Pytkänen (2008), as shown in examples in (7), which are depicted in (8a, b).

- (6) a. *nay-ka ne-eykey chwuchense ssu-cwu-l-key. kac-ko ka.*
 I-NOM you-DAT recommendation write-BEN-will-KEY take-KO go
 ‘I will write you a letter. Take it.’
 b. **nay-ka ne-eykey chwuchense ssu-l-key. kac-ko ka.*
 I-N you-D recommendation write-will-KEY take-KO go
 ‘I will write a letter. Take it.’
Jeong (2015: 363, (30a, b))

- (7) a. High Applicative
cheli-ka (yengi-lul wyhay) kapang-ul tul-ecwu-ess-ta. (no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 to DO)
 Cheli-NOM Y-A for bag-ACC pick up-BEN-PST-DC
 ‘Cheli picked up a bag for Yengi.’
 b. Low Applicative
nay-ka con-eykey phyenci-lul ss(u)-ecwu-ess-ta. (transfer-of-possession relation between IO and DO)
 I-DAT John-DAT letter-ACC write-BEN-PST-DC
 ‘I wrote John a letter.’
 =‘I wrote a letter and the letter was to the possession of John.’



III. *Eykey*-marked Experiencer in Psych-verb Constructions

3.1. Three Types of Psych-verb Constructions

Psych-verbs are classified as the *fear* class and the *frighten* class verbs in that *fear* and *frighten* have a reverse coding pattern, as shown in (10) and (11), respectively (Grimshaw 1990). There is another type of psych verbs, which is referred to as stative verbs or adjectives, as shown in (12).⁴⁾ In this vein, the psych-verb types are divided into Class I, II, and III à la Belletti & Rizzi (1988) and Landau (2010) though there is

4) Thus, the adverbs such as *kouylo* ‘on purpose’ or *ilpwule* ‘deliberately’ cannot be compatible with Class III-type verbs but with Class I- and II-type verbs.

no Class III-type psych-constructions in English since English experiencers cannot take dative case. Landau's (2010) Class II-type psych-constructions are referred to as object experiencer constructions. That is, in (11), the object is an experiencer argument. On the other hand, in (10) and (12), the experiencer occupies the subject position.⁵⁾

- (10) Class I (fear class)
- a. Mary fears the man.
 - b. Gianni teme questo.
Gianni fear this
'Gianni fears this.' (Italian, Belletti and Rizzi 1988)
 - c. meyeli-ka ku namca-lul mwuseweha-n-ta.
Mary-NOM the man-ACC fear-PRS-DC
'Mary fears the man.'
- (11) Class II (frighten class)
- a. The dog frightens John.
 - b. Questo preoccupa Gianni.
this worry Gianni
'This worries Gianni.' (Italian, Belletti and Rizzi 1988)
 - b. ku namca-ka meyeli-lul mwusep-key ha-n-ta.
the man-NOM Mary-ACC frighten-KEY do-PRS-DC
'The man frightens Mary.'
- (12) Class III (stative verb or adjective class)
- a. John is afraid of the dog.
 - b. deideb-s gela u-qvar-∅-t.
aunts-DAT Gela-NOM appl-love-PRS-PL
'The aunts love Gela.' (Georgian, McGinnis 1998)
 - c. con-eykey ku kay-ka mwusep-ta.
John-DAT the dog-NOM afraid-DC
'John is afraid of the dog.'

The Class I- and II-type verbs in English are further shown in (13) (cf. Postal 1971: 41). The Class I- and the Class II-type verbs are also called the *admire* class and the *amuse* class verbs, respectively (Levin 1993). The Class III-type psych-stative verbs or adjectives in Korean are shown in (14).

- (13) a. Class I
admire, concern, fear, love, miss, trust, worry
- b. Class II
surprise, amuse, excite, embarrass, interest, frighten, shock, bore, tire, exhaust, satisfy, please
- (14) twulyep/mwusep-ta, kekcengi-ta, koylop-ta, coh-ta, silh-ta, kwychanh-ta, sulphu-ta, kippu-ta, kulip-ta, taptapha-ta, cilwu-ha-ta

3.2. Previous Research: Kim (2017)

5) Belletti & Rizzi (1988) suggest that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the two psych verbs are identical. The surface order of the *frighten* class is derived by an NP-movement of the object (i.e., *the dog* in (11a)) to the subject position, whereas the arguments in the *fear* class are directly derived into syntax. This is in accordance with Baker's (1988) UTAH (Uniformity of Theta Assignment Hypothesis).

Park (1991) argued that experiencer raising at LF is possible through syntactic A-movement in stative psych-verb constructions, which is evidenced by anaphor binding. Kim (2017) also suggests that the dative experiencer raises to Spec-IP, which can be evidenced by the syntactic A-movement for anaphor binding, honorific agreement, and plural copying, as shown in (15).⁶ An experiencer in Georgian occupies the subject position (Spec-TP) (McGinnis 1998). In (16), the experiencer *deide-s* ‘aunts-DAT’ is plural and the theme *gela* ‘Gela’ is singular.

(15) *noini-tul-eykey cakii-tul-uy aphnal-i manhi-tul kekcengi-si-ta-tul.*
 old man-PL-DAT self-PL-GEN future-NOM much-PL worry-HON-DC-PL
 ‘Senior citizens worry about their future.’

(16) *deideb-s gela u-qvar-∅-t. (=12b)*
 aunts-DAT Gela-NOM appl-love-PRS-PL
 ‘The aunts love Gela.’ (McGinnis 1998)

In (16), the presence of the plural agreement marker *-t* on the verb shows that the applied experiencer *deideb-s* ‘aunts-DAT’ triggers number agreement on the verb. This further shows that the Georgian experiencer provides morphological evidence that a dative-marked experiencer can be introduced by Appl (i.e., Pytkänen’s (2008) high Appl). In this vein, Korean dative experiencers pattern with Georgian applied experiencers (cf. Kim 2017). A dative experiencer in Korean merges in the specifier of an applicative (Appl) head that merges externally to VP (Kim, 2017).⁷ A similar approach has been suggested in McGinnis (1998), Cuervo (2003, 2010), Adger and Ramchand (2005), Kim (2015), among others. The dative experiencer in Georgian provides for an applicative explanation. Here, the applicative (Appl) head is parallel to Pytkänen’s (2008) high Appl. The dative case on the experiencer is inherently assigned by Appl, a head external to VP as in (19b) (Cuervo 2003; McFadden 2004). Accordingly, a dative experiencer introduced by Appl may be an external argument. Crucially, Adger and Ramchand (2005) suggest that, despite its locative semantics, the dative experiencer is not introduced by P but by Appl.⁸ Cuervo (2003, 2010) proposes that a dative experiencer merges in the specifier of Appl, as shown in (18).

(18) a. *A Vera le gustan los gatos* b. [_{ApplP} Vera.DAT Appl [_{VP}BE...]]
 Vera.DAT cl.DAT like.PL the cats
 ‘Vera likes cats.’ (Spanish, Cuervo 2010)

In this vein, Kim (2017) proposes that the dative experiencer in Korean are applicatives rather than adpositionals. The experiencer can undergo case stacking and

6) The presence of copied plural markers on non-subject constituents in Korean implies the plurality of the subject (Kim 2017; Lee 2013). See Lee (2019a) for the details of anaphor binding, *si*-honorification, and scope reading of the dative experiencer in the Korean psych-verb constructions.

7) See Jung (2014) for the view that a dative experiencer is adjoined to VP.

8) In this vein, we will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nominative experiencer cannot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 experiencer but to the dative experiencer in Korean.

case alternation between dative case and nominative case, as shown in (19a). The dative-marked DP in (19b) raises from the specifier of ApplP to the specifier of TP satisfying EPP-feature on T as in (19c), and it can be assigned nominative case in this position (Kim 2017). Kim’s (2017) point is that *eykey* on the experiencer in Korean cannot be considered as a postposition or an adposition.

- (19) a. pil-i/eykey(-ka) chwycik-i kekcengi-ta.
 Bill-NOM/DAT(-NOM) employment-N worry-HON-DC
 ‘Bill worries about getting a job.’
 b. [ApplP Exp-eykey [Appl’ [VP theme V] Appl[DAT]]]
 c.
- ```

 TP
 / \
 pil-eykey(-ka) T'
 / \
 ApplP T
 / \
 Appl'
 / \
 VP Appl
 / \
 chwycik kekcengi

```

#### IV. Empirical Data for Elaboration

As mentioned above, the particle *eykey* is semantically polysemous or homophonous because it can mark a recipient, a source, a passive agent, a causee, an experiencer, etc.<sup>9)</sup> Let’s first examine the peculiarities of the dative marker on the experiencer. The experiencer in the psych-verb constructions cannot undergo alternation between the dative particle and the locative particl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animate entity or a group whose members are animate.<sup>10)</sup> We argue that this is because the dative experiencer is applicative rather than adpositional (Kim 2017). This is what the examples in (20)–(22) show. That is, the dative marker on the experiencer in the psych-verb constructions is not a postposition or an adposition but an applicative. The dative experiencer can be case-stacked by nominative case, as shown in (19a).

- (20) a. noin<sub>i</sub>-tul-eykey/\*ey caki<sub>i</sub>-tul-uy aphnal-i manhi-tul kekcengi-si-ta-tul.  
           old man-PL-DAT self-PL-GEN future-NOM much-PL worry-HON-DC-PL  
           ‘Senior citizens worry about their future.’  
 b. noin        thim-eykey(nun)/\*ey(nun) chimay-ka        twulyew-si-ta.  
           old man team-DAT(TOP)                    dementia-NOM afraid-HON-DC  
           ‘A senior team is afraid of dementia.’

- (21) a. pil-eykey/\*ey chwycik-i                    kekcengi-ta.<sup>11)</sup>

9) See Jeong (2012) for more diverse sources of information.

10) However, the animate group-denoting expression can co-occur with *eykey* or *ey* in ditransitive constructions and in the morphological causatives or passives, as will be shown.

11) If the NP in the *eykey*-marked NP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is monosyllabic, the particle *ey* can appear instead of *eykey* though it is animate, as will be shown in (25) (cf. Lee 2019b). The point is that the *by*-phrase in the Korean morphological passive can undergo alternation

- Bill-DAT employment-NOM worry-HON-DC  
 'Bill worries about getting a job.'
- b. ilpon thim-eykey/??ey hankwuk thim-i twulyep-ta.  
 Japan team-DAT Korea team-NOM afraid-DC  
 'A Japanese team is afraid of a Korean team.'

- (22) a. holangi-eykey/\*ey sayngkoki-ka coh-ta.  
 tiger-DAT raw meat-NOM like-DC  
 'Tigers like raw meat.'
- b. kil ilhun songaci-eykey/\*ey emiso-ka kulip-ta.  
 way get lost calf-DAT cow-NOM miss-DC  
 'The stray calf missed the cow.'
- c. kil ilhun kay-eykey/\*ey cwuin-i kulip-ta.  
 way get lost dog-DAT owner-NOM miss-DC  
 'The stray dog missed the owner.'
- d. so-eykey/\*ey phali-ka kwychanh-ta.  
 cow-DAT fly-NOM bothersome-DC  
 'Flies bother the cow.'

On the other hand, the dative markers on the goal in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 on the causee in the morphological causative, or on the *by*-phrase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are all postpositions or adpositions (Choi 2018; Park and Lee 2019). They are adjoined to VP (cf. Kim and Pires 2003). Unlike in (20)–(22), the dative markers can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 particles, which is what (23b), (24b) and (25) show. The particle *eykey* is attached to the animate goal or causee as in (23a) and (24a), while the particle *ey* is attached to the inanimate goal or causee. What is crucial here is that the animate group-denoting expressions are animate can co-occur with *eykey* or *ey*, as in (23b) and (24b).<sup>12)</sup>

(23) ditransitive constructions

- a. Yengi-ka thom-eykey/\*ey chayk-ul cwu-ess-ta.  
 Y-NOM Tom-DAT book-ACC give-PST-DC  
 'Yengi gave Tom a book.'
- b. wywenhoy-ka kwuho tanchey-ey/eykey kipwukum-ul cwu-ess-ta.  
 committee-N relief organization-DAT donation-ACC give-PST-DC  
 'A committee made a donation to a relief organization.'

(24) morphological causatives

---

between *eykey-* and *ey-*phrases. On the other hand, note that *eykey* on the experiencer is not interchangeable with *ey*, as shown in (20)–(22).

- 12) The dative (or directional) goal can be stacked by the directional particle *lo* as in (i) and (ii). Further note that the dative animate group can undergo alternation to *ey* or *lo* as in (ii).

- (i) a. cheli-ka yengi-eykey(-lo) taka-ka-ss-ta.  
 Cheli-NOM Yengi-DAT(-toward) near-go-PST-DC  
 'Cheli went near Yengi.'
- b. cheli-ka yengi-eykey(-lo) chayk-ul ponay-cwu-ess-ta.  
 Cheli-N Yengi-DAT(-to) book-A send-BEN-PST-DC  
 'Cheli sent a book to Yengi.'
- (ii) cheli-ka noin thim-ey/eykey(-lo)/ulo umlyoswu-lul ponay✓-tuli-ess-ta.  
 Cheli-N old man team-LOC/DAT(-LO)/LO drinks-ACC send-give.HON-PST-DC  
 'Cheli gave drinks to the senior team.'

- a. yengi-ka cheli-eykey/\*ey sanche-lul ip-hi-ess-ta.  
 Yengi-NOM Cheli-D injury-ACC hurt-CAUSE-PST-DC  
 ‘Yengi caused Cheli to be hurt.’ (morphological causative)
- b. simphan-i chengsonyen-thim-ey/eykey pelcem-ul mek-i-ess-ta.  
 judge-NOM youth team-DAT penalty point-ACC get-CAUSE-PST-DC  
 ‘A judge imposed a penalty on the youth team.’

As mentioned above, when the NP in the *ey*-marked NP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is monosyllabic, the particle *eykey* can undergo alternation to the particle *ey* though the NP is animate, as shown in (25) (cf. Lee 2019b). Note that the idiomatic reading is available only when the *ey*- or *eykey*-marked NP appears as a *by* phrase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What is at stake here is that the dative-marked NP can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marked NP, which indicates that the particle *eykey* is a postposition or an adposition. The particle *eykey* in (26) is an ablative case marker. Unlike the dative experiencer, the *eykey*-marked expression in (26) can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 particle *ulopwuthe* ‘from’ or can be stacked by the locative particle *se* or *lopwuthe*. Thus, it is an adposition.

(25) Morphological Passives

- a. meyeli-ka con-ey/ey uyhay/eykey cha-i-ess-ta.  
 Mary-NOM John-by kick-PASS-PST-DC  
 ‘Mary got the elbow by John.’ (idiomatic)
- b. (tham-i) palmok-i pil-ey /ey uyhay/eykey cap-hi-ess-ta.  
 (Tom-N) ankle-N Bill-by catch-PASS-PST-DC  
 ‘Tom’s ambition was put on a strain by Bill.’ (idiomatic) (cf. Lee and Lee 2017: 246, (5b))

- (26) cheli-ka hyeng-eykey(-se/lopwuthe)/-ulopwuthe chayk-ul pat-ass-ta.  
 Cheli-N brother-DAT(from)/-from book-ACC take-PST-DC  
 ‘Cheli received a book from his brother.’ (*eykey*<sub>from</sub>)

## V. Conclusion

We have argued that the dative particle on the experiencer in the psych-verb constructions is not a postposition or an adposition but an applicative because the dative-marked NP cannot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marked NP. This is in accordance with Kim’s (2017) proposal that the dative experiencer is applicative rather than adpositional. In addition, we have verified that the dative markers on the goal in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 on the causee in the morphological causative, or on the *by*-phrase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are all postpositions or adpositions because the dative-marked NP can undergo alternation to the locative-marked NP.

## □ Works Cited

- Adger, David and Gillian Ramchand. 2005. Psych nouns and predication. In Christopher Davis, Amy Rose Deal, and Youri Zabbal (eds.), *Proceedings of the 36<sup>th</sup>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GLSA*: Amherst, pp. 89–102.

- Bower, John.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1–656.
- Bresnan, Joan.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Choi, Kiyong. 2018. VP Periphery in Passive Constructions: *-eykey* Passives vs. *-ey uyhay* Passive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8.2, 295–46.
- Cuervo, Maria Cristina. 2003. *Datives at Large*.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Cuervo, Maria Cristina. 2010. Some datives are born, some are made. In Claudia Borgonovo, Manuel Espanol-Echevarria, and Philippe Prevost (eds.), *Selected Proceedings of the Hispanic Linguistics Symposium*.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pp. 26–37.
- Grimshaw, Jane.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rley, Heidi. 2002. Possession and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 29–68.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
- Jelinek Eloise and Andrew Carnie. 2003. Arguments hierarchies and the mapping principle. In A. Carnie (ed.), *Formal Approaches to Function in Grammar in Honor of Eloise Jelinek*, 265–96.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Jeong, Hae-Gwon. 2012. Hankwuke cosa ‘eykey’uy inciuymiloncek cepkun [A cognitive semantic approach to Korean particle eygey]. *Discourse and Cognition* 19.2, 133–152.
- Jeong, Won-Don. 2015. Argument structure in minimalist program (in Korean). *Studies in Linguistics* 34, 349–366.
- Jung, Hyun-Kyoung. 2014.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Psych Verbs in Korean. *Linguistics* 68, 119–148.
- Landau, Idan. 2010. *The locality syntax of experiencer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Lebeaux, David. 1991. Relative Clause, Licensing, and the Nature of the Derivation. In S. D. Rothstein (eds.), *Syntax and Semantics* 25. New York: Academic Press, pp. 113–155.
- Lee, Doo-Won. 2019a. Syntactic Patterns of Dative or Locative Experiencers and Goal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1, 291–314.
- Lee, Doo-Won. 2019b. On *Ey* and *Eykey* in Korean Morphological Passive, Causative, and Ditransitive Constructions: With Reference to Animacy. Ms. KNUT.
-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Hee-Soo and Acrisio Pires. 2003. Ambiguity in the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Passive.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12, 255–266.
- Kim, Kyumin. 2012. External argument-introducing heads: Voice and Appl. In Maria Cristina Cuervo and Yves Roberge (eds.), *The End of Argument Structure?*, *Syntax and Semantics* 38. UK: Emerald, pp. 132–154.
- Kim, Kyumin. 2017. Non-oblique syntax for a dative experiencer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34.1, 77–106.
- McFadden, Thomas. 2004. *The Position of Morphological Case in the Derivation: A Study of Syntax-Morphology Interfa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Ginnis, Martha. 1998. *Locality in A-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Oehrle, Richard. 1976. *The Grammatical Status of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Park, Myung-Kwan and Jun-Hee Lee. 2019. Some Remarks on the Grammalization of the Adposition ‘-eykey’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9.2, 303-322.
- Postal, Martin. Paul. 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Pylkkänen, Lina. 2008. *Argument Introducer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chafer, Floretin. 2012. Two types of external argument licensing—the case of causers. *Studia Linguistica* 66, 1-53.
- Stepanov, Arthur. 2001. Late Adjunction and Minimalist Phrase Structure. *Syntax* 4.2, 94-125.
- Tyler, Andrea and Vyvyan Evans.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 Diachronic Study of *The Story of Genesis and Exodus*

Shin, Sungky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I. Introduction

Middle English (ME) *The Story of Genesis and Exodus* (*Genesis and Exodus*), an anonymous early English song, edited by Richard Morris (1865), is said to have been written in A.D. 1250. The story — or the very long narrative poem, contains many examples of the simple present tense (SP) and historical present (HP). As observed by Steadman (1917: 16), there are twenty-three examples each in *Genesis* and in *Exodus*. *Genesis and Exodus* is very significant with regard to HP. Steadman's (1917: 3) claims that no examples of HP seemed to appear in Old English (OE), whereas so many examples appeared in Middle English (ME) *Genesis and Exodus*, only less than two hundred years after O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ll the examples of SP and HP in ME *Genesis and Exodus*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ts SP and HP. Furthermore, I will argue that the HP is a continuation from OE, not an abrupt appearance in ME. The paper consists of an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an actual analysis of the HP examples in *Genesis and Exodus*, and finally, the conclusion.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The Psychological Aspect of the Simple Present Tense in English

The above usages of SP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in types:<sup>13)</sup>

- (1) a. Present continuous (Stative) and Characteristic
- b. Habitual
- c. Instantaneous
- d. Generic (timeless statements, general truths)

Thus, the four usages of SP mentioned above can be coalesced into one typical and representative usage of SP as follows:

- (2) SP is the psychological present tense describing the unfinished present process of the speaker's/writer's mind and psychology.

### 2. The Historical Present Tense in English

---

13) See Shin (2019a; 2019b), and I adopt this idea from English Cafe <https://www.englishcafe.jp/englishcollege/etense2/e1-2-1.html>. (Retrieved 22/04/2019).

Quirk et al. (1985: 181-182) explain that HP is to use SP to describe an event that has taken place in the past, like *Moses with the Israelites cross the Red Sea on foot*. According to our psychological definition of SP, English HP is just one usage of SP. English HP, signifying the psychological present tense, is used when the past event is conceived to be currently happening to the speaker or writer, even if the actual events happened in the past. Therefore, HP is sometimes used — to emphasize a memorable past event and make it more lively and vivid. For example, John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wrote that the disciples *see* (instead of *saw*) Jesus walking on water:

(3) a. “John 6:16 Ὡς δὲ ὄψια ἐγένετο κατέβ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ἐπὶ τὴν Θάλασσαν, 17καὶ ἐμβάντες εἰς πλοῖον ἤρχοντο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ἰς Καφαρναούμ. καὶ σκοτία ἦδη ἐγεγόνει καὶ οὐπω ἐληλύθει πρὸς αὐτοῦς ὁ Ἰησοῦς, 18 ἢ τε θάλασσα ἀνεμούμεγáλου πνέοντος διεχίρειτο. 19 ἑλληλακότες οὖν ὡς σταδίους ἑκοσι πέντε ἢ τριάκοντα θεωροῦσιν ὃν Ἰησοῦν περιπατοῦντα ἐπὶ τῆς θαλάσσης καὶ ἐγγὺς τοῦ πλοίου γινόμενον, καὶ ἐφοβήθησαν. 20 ὁ δὲ λέγει αὐτοῖς, Ἐγώ εἰμι, μὴ φοβεῖσθε. 21 ἤθελον οὖν λαβεῖν αὐτὸν εἰς τὸ πλοῖον, καὶ εὐθέως ἐγένετο τὸ πλοῖον ἐπὶ τῆς εἰς ἣν ὑπῆρχον.”

b. “John 6: 16-21 16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17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By now it was dark,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them. 18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19 When they had rowed about three or four miles,[a] they see Jesus approaching the boat, walking on the water; and they were frightened. 20 But he says to them, “It is I; don’t be afraid.” 21 Then they were willing to take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reached the shore where they were heading.”

According to Enos (1981: 284-287), a number of hypotheses have been brought forward in explanation of the use of the Biblical HP, especially Mark’s as follows:

- (4) a. Vividness: it is stated that the use of the HP lends ‘vividness’ to a narrative.
- b. Immediacy: in employing HP, the ‘presentness’, or the present significance, of the events narrated is emphasized.
- c. Lack of literary sophistication: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use of HP is simply a mark of lack of education and literary sophistication.
- d. Aramaism or Semitism: it has been argued that the wide usage of HP in Mark is the result of a more or less mechanical translation from an Aramaic original.
- e. Zero Tense: Kiparsky (1968: 33f) explains certain HPs in Greek and other Indo-European languages as being past tenses which have gone a conjunction–reduction transformation, ‘which optionally reduces repeated occurrences of the same tense to the present.’

### III. The Analysis of the SP and HP in ME *The Story of Genesis and Exodus*

According to Steadman (1917: 16), in ME *The Story of Genesis and Exodus* (c. 1250), there are twenty-three examples in 2536 lines (Genesis) and twenty-three in 1626 lines (Exodus) with the following line references: Genesis 379, 381, 391-3, 408, 412, 465,

1172, 1487, 1717, 1719, 1736, 1738, 2028-2031, 2037, 2148, 2226, 23134, 2447-9; Exodus 2544, 27034, 2705, 2857, 3022, 3061-2, 3243-4, 3373, 3625, 3640, 3704-5, 3742-3, 3808-9, 3953, 3964, and 3970

Let us first examine an example of SP and HP in *Genesis* as follows:

- (5) two pilches weren *ðurg* engeles wrogt  
 two pilches were through angels wrought  
 And to adam and to eue brogt,  
 and to Adam and to Eve brought  
*ðor-wið* he ben nu boðen srid,  
 therewith they are now both clothed  
 And here same sumdel is hid  
 and their shame somewhat is hid  
 He ben don ut of paradī ,  
 they are put out of paradise  
 Genesis 377-381

‘Two pilches (outer garments) the angels wrought for Adam and Eve, therewith they are now both clothed and their shame somewhat is hid. They are turned out of Paradise.’

Here, the SP like *ben* ‘are’ and *is* ‘is’ may indicate general timeless statements (generics) — or so-called ‘eternal truths’. Thus, *ðor-wið he ben nu boðen srid*, ‘they are now both clothed’, *And here same sumdel is hid* ‘and their shame somewhat is hidden’ and *He ben don ut of paradīs*, ‘they are put out of paradise’. These SPs are used to express the general timeless statements, generic, or “eternal truth” in that Adam and Eve, an everyman figure, representing man and woman, are clothed, and their shame is also hidden by God’s clothes of sheepskin (spiritually, with God’s clothes of righteousness, later betokening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God’s son as in “Romans 3: 21. But now a righteousness from God, apart from law,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s testify. 22.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However, after they are clothed, they are turned out of paradise forever until they enter paradise or heaven through the redemption in Jesus Christ. *He ben don ut of paradīs* they are put out of paradise.’

Aside from these examples of generic, timeless, general truths of SP, there are the so-called HP, one of the usages of SP, to emphasize a memorable past event and make it more vivid and lively, putting the scenes, actions, and events before the readers and listeners. Let us consider the following:

- (6) Iosep haued hem after sent.  
 Joseph has them after sent  
 ðis onde hem ouertakeð raðe,  
 this messenger them overtakes quickly  
 And bi-calleð of harme and caðe;  
 and accuses of harm and loss 2312-2314  
 ‘Joseph has them (his brothers) sent after, Joseph’s messenger overtakes them, and accuses them of theft.’

These verses describe the situation following the events of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Genesis 44:1-13 with reference to ME Wycliffe and Present-day English (PE) versions.

All the above events of ME and PE Old Testament Genesis are written in the preterit tense verbs like *gave, did, were sent, had not gone, caught up, proceeded, and returned*. However, all the concerned verses of the poem are written in SP as HP, like *haueð has, ouertakeð 'overtakes, bi-called 'accuses,* describing the event as if they were present, giving vividness, urgency, and immediacy, putting the readers in the scene where they may visualize and feel what the author has described. The author's usage of HP shows his/her "true degree of literary elegance and expertise or evidence of a highly sophisticated mastery of effective communication and style" as praised by Enos (1981: 282) concerning St. Mark's use of HP in his Gospel.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SP of Genesis, we may categorize the SP into two types as follows:

Table 1 Types of the usage of SP in Genesis

General Truth:

379, 381, 391-3, 408,

HP:

412, 465, 1172, 1487, 1717, 1719, 1736, 1738, 2028-2031, 2037, 2148, 2226, 23134, 2447-9

#### IV. The Origin of the Historical Present in English

We have examined forty-six data of SP and HP in *Genesis and Exodus* (c.1250). Steadman (1917: 21) and other scholars claim that no HP occurred in OE; whereas numerous cases suddenly appeared in ME, less than two hundred years after OE, as discussed above and in Shin (2019b: 5-6). After the Norman Conquest (1066), the official language of England became French. As a result of various events since the Conquest, it took much time for English to replace French, with French influencing English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Until John Wycliffe's death, with the first complet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English language (the Wycliffite Bible) (1389) as well as the death of Geoffrey Chaucer, who produced a highly influential body of English poetry (1400), French was not replaced completely by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It is thus m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se cases of HP in ME, especially in *Genesis and Exodus*, are a continuation of usage of the HP in OE. Steadman (1917: 21) asserts that it started in ME after the appearance of the periphrastic future with *shall* and *will*. As discussed in Shin (2019b: 5-6), Steadman (1917: 21) claims that since OE had no characteristic future form, the present had to serve a triple function — present actions, general truths, and future actions. The use of SP as HP to indicate past acts would have caused confusion and ambiguity by packing too many meanings (four) into a single form of the verb, SP. It is claimed that HP appeare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periphrastic future in English.

However, there is enough evidence to the contrary to reject this theory as discussed in Shin (2019b: 14–15).

One piece of evidence is that there are many OE HP, as follows:

(7) God ana wat

God alone knows

hu he þaet scyldi werud forscifen haefde.

how he that shameful host doomed had!

Cleopað þonne se alda ut of helle,

Speaks then the eldest out of hell,

wriceð wordcwedas weregan reorde,

curses uttering statements with his voice

eisegan stefne: "Hwaer com engla þrym,

in a voice of terror: Whence has come of angels majesty,

þa þe we on heofonum habban sceoldan?

which we in heaven possess should ?

Christ and Satan 32–37. Steadman (1917: 6) and Shin (2019b: 14)

'God alone knows how he had doomed that shameful host! Then speaks the eldest out of hell, uttering statements, and curses with his voice, in a voice of terror: "Whence has come the majesty of angels, which we in heaven were used to possess?'

Steadman (1917: 6–7) states that *Cleopað* and *wriceð* are the only clear cases of HP that he has found in OE and further claims that these two examples are exceptional. However, these are not exceptions but general cases, as discussed in Shin (2019b: 14–15), for HP occurred in OE along with the other presents. According to our hypothesis, these are just examples of the psychological SP. Steadman's (1917) theory cannot explain these examples, falsifying his claim.

## V. Conclus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P and HP examples, the twenty-three in *Genesis* and twenty-three in *Exodus*, we have observed that SP in *Genesis and Exodu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First, it indicates general timeless statements (generics) or 'eternal truths.' Thus, *ðor-wið he ben nu boðen srid*, 'they are now both clothed', *And here same sundel is hid* 'and their shame somewhat is hidden' and *He ben don ut of paradis*, they are put out of paradise' These SPs are used to express the general timeless statement, generics, or 'eternal truths' in that Adam and Eve, an everyman figure, representing man and woman, are clothed, and their shame is also hidden by God's clothes of sheepskin, later of righteousness, (with God's clothes of righteousness, later betokening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God's son as in Romans 3: 21). After the mercy of God for the life out of the paradise, Adam and Eve are "*He ben don ut of paradis they are put out of paradise,*' eternal destiny of humankind before entering the eternal heaven.

Another example is "Thus Adam and Eve become acquainted with sorrow and care. Evil and death trouble them. They think that they must never look upon one another until an angel brought good news Genesis 389–395." In this passage, SP is also used to

express the eternal state of sorrow and care on the part of Adam and Eve, representing the sentiments of humankind due to their fall. In Genesis 403-408, the SP is used to express the eternal truth in that Adam and Eve (man and woman, humankind) hope to be brought back into Paradise by the sacrifice and redemption of God's Son, and such good news (the Gospel) *cheers* his (Adam's, everyman's) somber mood. This eternal good news (the Gospel) *cheers* every human being's troubled soul forever. Like the usage of HP by St. Mark as discussed above, the author of *Genesis and Exodus* makes the event of Adam and Eve as eternal truth applicable to human beings past, now, and forever, by employing SP.

We have also observed a usage of SP as HP to give vividness in *Genesis* 2312-2314, which describe the situation of the event of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Genesis 44:1-13, in which Joseph tests the brotherhood of his brothers by falsely accusing his youngest brother of thievery. All the events of the ME and PE Old Testament *Genesis* are written in the preterit tense verbs like *gave*, *did*, *were sent*, *had not gone*, *caught up*, *proceeded*, and *returned*. However, all the concerned verses of the poem are written in SP verbs like *haueð* 'has,' *overtakeð* 'overtakes,' *bi-called* 'accuses,' describing the events as if they were present, giving vividness, urgency, and immediacy, putting the readers \at the scene where they may visualize and feel what the author has described. The author's usage of HP in *Genesis and Exodus*, as discussed above, shows his/her "true degree of literary elegance and expertise or evidence of a highly sophisticated mastery of effective communication and style" as praised by Enos (1981: 282) concerning St. Mark's use of HP. It is the same case with *Exodus*.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HP, Steadman (1917: 21) asserted that it started in ME after the appearance of the periphrastic future with *shall* and *will*. However, there is enough evidence against this claim. One of them is that OE has many examples of HP. Steadman (1917: 6-7) states that *Cleopað* and *wriceð* in *Christ and Satan* 32-37 are the only clear cases of HP he has found in OE. However, these are not exceptions but general cases, for HP continued to occur in OE along with the other presents. As discussed in Shin (2019a; 2019b) and above, we suggest a psychological definition of SP, according to which, we observe many examples of HP in OE that are examples of the psychological SP. Steadman's (1917) theory cannot explain these examples, falsifying his claim. Mitchell's (1985: 426-427) examples clearly show that *\*sculan* and *willan* at times come "pretty close to expressing futurity with no undertone of compulsion or volition." We also observe many OE examples expressing futurity with no implication of volition or compulsion as discussed above and in Shin (2019b: 4-6). Therefore, the claim is proven false that in English, the origin of the periphrastic future antedated the use of the historical present as a linguistic phenomenon. This theory is in conflict with the OE data discussed.

# 영어 & 한국어 전제 유발체 분석 고찰\*

양 용 준  
(제주대학교)

## I. 서론

전제는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뜻하는 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 관계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욱 그런 현상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문장이나 발화의 기저에 있는 전제를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적, 통사적, 화용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지시와 지시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전제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인 것이다. 전제에 대한 논쟁을 언어학에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학자는 Frege(1892)이며 그는 다음과 같이 전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mp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If one therefore asserts 'Kepler died in misery', there is a presupposition that the name 'Kepler' designates something.

(Frege, 1892: 69)

Russell(1905)은 다음 (1)과 같은 문장을 예로 제시하면서 Frege의 전제에 대한 정의는 틀렸다고 주장을 하였다.

(1) The King of France is bald.

위 (1)의 문장은 통사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적이나 화용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위 (1)의 문장을 발화한 화자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문장이다. Frege에 의하면 지시와 지시표현이 일치해야 전제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 대화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1)의 예문은 고대 왕정시대에 화자가 말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오늘날 프랑스는 왕정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시와 지시표현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전제에 대해서 Russell은 중의성(ambiguity)의 개념을 언어학에 확고히 정착하게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2)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

\* 본 발표문은 타학회(21세기영어영문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위 (2)의 문장을 파악해 볼 때 중의성의 의미로 파악이 된다. 첫째, 프랑스에 왕이 있고, 그는 대머리가 아니라는 것과 둘째, 프랑스에 왕도 없고 대머리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또한 전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Strawson(1950)은 Russell의 전제에 대한 접근법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다음 예문 (3)을 보도록 하자.

- (3) a. The King of France is bald.
- b. There is a present King of France.

위 (3a)의 문장의 발화가 진위를 구분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청자가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게 하려면 먼저 (3b)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인 (4)의 예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4) a. 갑돌이는 갑순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 b. 갑돌이는 갑순이와 결혼했다.

위 (4a)의 진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4b)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Strawson의 전제에 대한 접근법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리조건으로 전제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전제
  - a. 문장 p가 참이면, 문장 q도 참이다.
  - b. 문장 p가 거짓이어도 문장 q가 참이다.
  - c.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문장 p는 문장 q를 전제한다.

이처럼 전제라는 것은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간의 약속과도 같은 개념인 것이다.

### III. 영어 속에 나타나는 전제 유발체 분석 고찰

Levinson(1983: 179)에 의하면, 영어에서 전제는 특정한 단어나 문장 구조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전제를 생성하는 단어나 문장 구조를 전제 유발체라고 한다.

#### 3.1 어휘적 전제 유발체

사실동사, 함축동사, 상태변화동사, 반복어, 판단동사 등이 대표적인 전제 유발체 어휘들이다.

첫째, 사실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6) a. Martha *regrets/doesn't regret* drinking Jone's home brew.  
      → Martha drank Jone's home brew.
- b. Frankenstein *was/wasn't aware* that Dracula was there.  
      → Dracula was there.



c. John *realized/didn't realize* that he was in debt.

→ John was in debt.

d. It *was odd/wasn't odd* how proud he was.

→ He was proud.

(Kiparsky & Kiparsky, 1971)

둘째, 함축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7) a. John *managed/didn't manage* to open the door.

→ John tried to open the door.

b. John *forgot/didn't forget* to lock the door.

→ John ought to have locked, or intended to lock the door.

(Karttunen, 1971)

셋째, 상태변화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8) a. Jihye *began/didn't begin* to play the violin.

→ Jihye hadn't been playing the violin.

b. Jieun *continued/didn't continue* to control the team.

→ Jieun had been controlling the team.

넷째, 반복어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9) a. Hyori *went/didn't go* to the school again.

→ Hyori went to the school before.

b. Sangsun *returned/didn't return* a service.

→ Sangsun received a service before.

다섯째, 판단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10) a. Jane *criticized/didn't criticize* Judy for stealing goods.

→ (Jane thinks) Judy stole goods.

b. Tom *accused/didn't accuse* Jane of stealing goods.

→ (Tom thinks) stealing goods is not good.

### 3.2 통사적 전제 유발체

통사적 전제 유발체는 문장구조에 의한 것을 말하며, 시제절, 분열문, 비교 및 대조 구문, 관계절, 조건문을 들 수 있다.

첫째, 시제절이 전제 유발체로 쓰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11) a. *Before Strawson was even born*, Frege noticed/didn't notice presuppositions.

- Strawson was born.
- b. *While Chomsky was revolutionizing linguistics*, the rest of social science was/wasn't asleep.  
→ Chomsky was revolutionizing linguistics.
- c. *Since Churchill died*, we've lacked/we haven't lacked a leader.  
→ Churchill died.

(Heinamaki, 1972)

둘째, 분열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2) a. *It was/wasn't Bill that* gave Susan a book.  
→ Someone gave Susan a book.
- b. *What Bill lost/didn't lose* was his money.  
→ Bill lost something.
- c. The Crane was/wasn't invented by *Jung Yak-Yong*.  
→ Someone invented the Crane.
- d. Jihyun did/didn't go to the *Africa Museum*.  
→ Jihyun did go somewhere.

셋째, 비교 및 대조 구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3) a. Carol is/isn't a *better linguist than Barbara*.  
→ Barbara is a linguist.
- b. Jimmy is/isn't as *unpredictably gauche as Billy*.  
→ Billy is unpredictably gauche.
- c. Marianne called Adolph a male chauvinist, and then *HE* insulted *HER*.  
→ For Marianne to call Adolph a male chauvinist would be to insult him.

(G. Lakoff, 1971)

넷째, 관계절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4) a. *Ron, the rookie of the year 2001*, will start tonight.  
→ Ron was the rookie of the year 2001.
- b.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he lost her husband a week ago.  
→ She lost her husband a week ago.

(이성범, 2002)

다섯째, 조건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5) a. *If Hannibal had only had twelve more elephants*, the Romance languages would/would not this day exist.  
→ Hannibal didn't have twelve more elephants.

b. *If the notice had only said 'mine-field' in English as well as Welsh, we would/would never have lost poor Llewellyn.*

→ The notice didn't say 'mine-field' in English.

(Levinson, 2013)

### 3.3 화용적 전제 유발체

화용적 전제 유발체는 그 발화의 진위 여부를 진리조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 발화가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의문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16) a. Is there a teacher of English at his school?

→ Either there is a teacher of English at his school or there isn't.

b. Is Aewol in Jeju or is it in Seoul?

→ Aewol is in Jeju or Aewol is in Seoul.

c. Who is the teacher of English at his school?

→ Someone is the teacher of English at his school.

다음은 명령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17) a. Have some sandwich.

→ There is some sandwich you can eat.

b. Please open the door.

→ There is a door and the door is close.

## IV. 한국어 속에 나타나는 전제 유발체 분석 고찰

화자와 청자가 서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전제가 생성되는 것은 어떤 언어에서든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인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4.1 어휘적 전제 유발체

한국어에 있어서 어휘적 전제 유발체는 고유명사, 사실동사, 판단동사, 상태변화동사, 반복표현, 수량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유명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18) a.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하얀 눈이 덮혀 있다.

→ 한라산이 존재한다.

b. 영애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다.

→ 영애가 존재한다.

둘째, 사실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9) a. 철수는 봉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다.  
 → 봉주가 거짓말을 한다.  
 b. 담임선생님이 결석한 학생들을 파악했다.  
 → 결석한 학생들이 있다.

셋째, 판단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0) a. 아버지는 만기가 아무 상의도 없이 은퇴한 것을 꾸짖었다.  
 → 만기는 아무 상의도 없이 은퇴했다.  
 b. 지만이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 지만이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

넷째, 상태변화동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1) a. 철수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 철수가 이전에는 골프를 배우지 않았다.  
 b. 영수는 영희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  
 → 영수가 지금까지 영희의 뒤를 쫓아다녔다.

다섯째, 반복어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2) a. 학생들이 또 체험학습을 간다.  
 →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다.  
 b. 나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되풀이해서 읽었다.  
 → 나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은 적이 있고 또 읽고 있다.

#### 4.2 통사적 전제 유발체

한국어에서 통사적 전제 유발체로는 ‘한정적인 표현, 수량사의 사용, 분열문, 부사절, 그리고 비교 구문’에 의해서 나타난다.

첫째, 한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제 유발체를 보도록 하자.

- (23) a. 철수는 손가락이 여섯 개인 그 사람을 보았다.  
 (Chulsu saw the man with six fingers.)  
 b. 손가락이 여섯 개인 사람이 존재한다.  
 (There is a man with six fingers.)

한국어에서는 ‘한정사 + 명사’로 이루어진 ‘한정 명사구(definite NP)’가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24) a. 우리가 먹은 저녁은 감자탕이었다.  
 →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 b. 나는 어제 길을 잃은 노인을 집에 모셔다 드렸다.  
→ 길을 잃은 노인이 있었다.

둘째, 수량사의 사용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5) a.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 생명체가 존재한다.  
b. 나는 커피 석 잔을 마셨다.  
→ 적어도 석 잔 이상의 커피가 있었다.

셋째, 분열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6) a. 제주에 3일 동안 내린 것은 폭설이었다.  
→ 제주에 무엇인가가 3일 동안 내렸다.  
b. 우리가 마신 것은 곶감주와 아오모리 술이다.  
→ 우리는 무엇을 마셨다.

넷째, 부사절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7) a. 고 학장님은 정년퇴임을 하고 농사일을 시작했다.  
b. 고 학장님은 정년퇴임을 했다.

부사절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예문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8) a.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  
→ 나는 너를 사랑한다.  
b. 나는 아내랑 일출봉에 갔는데 거기서 은사님을 만났다.  
→ 나는 아내랑 일출봉에 갔다.

다섯째, 비교 구문이 전제 유발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9) a. 창수는 경수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  
b. 경수는 공부를 잘한다.

#### 4.3 화용적 전제 유발체

화용적 전제 유발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예문 (30)을 보도록 하자.

- (30) a. 창문을 열어주세요.  
(Open the window, please.)  
b. 집에 창문이 있다.

- c. 창문이 닫혀 있다.
- d.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예문 (31)을 보도록 하자.

- (31) a. 순호야, 너 오늘은 휴대폰을 사용 안 하더구나.  
 b. 순호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c. 순호는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d. 순호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 V. 결 론

Karttunen(1974)이나 Levinson(2013)은 전제 유발체를 통합적으로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전제 유발체를 어휘적 전제 유발체 5개, 통사적 전제 유발체 5개, 화용적 전제 유발체 2개로 한정해서 다루었다. 그것은 가독성을 높이고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전제 유발체를 원어민이 아닌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어휘적 전제 유발체를 6개, 통사적 전제 유발체 5개, 화용적 전제 유발체 1개로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전제 유발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휘적 전제 유발체에서 영어인 경우는 동사 중심이지만 한국어인 경우는 동사와 명사 중심이라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고유명사가 전제 유발체로 쓰인다는 것이 영어와 절대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제에 대한 연구나 전제 유발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특히, SNS가 발달하고 이를 생활화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축약어나 인터넷 용어, 심지어 Body language 등도 전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전제 유발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 ON MIDDLE CONSTRUCTIONS

Kang, Namkil  
(Far East University)

## ABSTRACT: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There are two main hypotheses on how the well-formedness of middle constructions is accounted for. One was proposed by Fellbaum & Zribi-Hertz (1989) and the other by Chung (1995). Fellbaum & Zribi-Hertz (1989) claim that an argument A of a verb or predicate is affected by the action or process P referred to by the verb. Chung (1995) contends that unless there is a cause for an event, the caused event cannot take place. However, Fellbaum & Zribi-Hertz's (1989) hypothesis work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or proper noun and Chung's (1995) hypothesis is effective only when there is a cause-effect relationship in the middle construc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be used as a middle verb only when a definite subject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subject. There are tangible reasons to argue for this claim.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details of how middle constructions are syntactically constrained.

## KEYWORDS:

middle verb, middle construction, internal argument, definite NP

## I. INTRODUCTION

Middle constructions (Palmer (1987)) can be used in a passive sense in an active voice, as alluded to in (1):

- (1) a. These shirts wash well.
- b. The meat cuts well.

As pointed out by Palmer (1987), in (1a) and (1b) these uses of the active in the passive sense are adverbial in that they normally occur with adverbs. That is to say, the intransitive form usually requires some kind of adverbial expression. Palmer (1987) points out that in (1a), *the shirts wash well* means that they can be or are washed successfully. Thus, what is indicated in (1) is not only an activity but also a quality or characteristic.

A point to note is that most of middle constructions involve a generic interpretation.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2) This car handles smoothly.

What (2) suggests is that it involves a generic person. A further point to note is that (2) involves a generic person, but (3a) and (3b) involve a specific speaker.

(3) a. This car is handling smoothly.

b. This car handled smoothly.

As pointed out by Park (2009), (3a) and (3b) are ruled out if the event is independent of the speaker:

(4) a. \*This car was handling smoothly while I was sleeping in the backseat.

b. \*This car handled smoothly while I was sleeping in the backseat.

The so-called middle constructions involve a generic interpretation, as illustrated in (2) or non-generic interpretation, as indicated in (3). When it comes to middle constructions, the subject is an undergoer of a change and something is asserted about the subject (e.g. Condovardi (1989), Kemmer (1993), Alexiadou (2010), Alexiadou and Doron (2012)).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The organiza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n section 2, we examine two main hypotheses of middle constructions. Fellbaum & Zribi-Hertz (1989) claim that "an argument A of a verb or predicate is affected by the action or process P referred to by the verb" (Fellbaum & Zribi-Hertz (1989: 28)). However, Fellbaum & Zribi-Hertz's hypothesis work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or proper noun. Chung (1995) proposes the Causative Constraint Hypothesis that "unless there is a cause for an event, the caused event cannot take place" (Chung 1995: 276). However, all middle constructions do not show that there is a cause-effect relationship. In section 3.1, we contend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In section 3.2, we propose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In section 3.3, we maintain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In section 3.4, we provide some evidence that middle constructions are syntactically constrained.

## II. Two Hypotheses of Middle Constructions

### 2.1. The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Fellbaum & Zribi-Hertz (1989) claim that "an argument A of a verb or predicate is affected by the action or process P referred to by the verb" (Fellbaum & Zribi-Hertz (1989: 28)). In what follows, we illustrate whether or not their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works for middle constructions:



- (5) a. The bottle breaks easily.  
b. \*The Eiffel Tower sees from my window.

(5a) is grammatical since the patient *the bottle* is affected by the action of being broken easily. On the other hand, (5b) is ungrammatical since the internal argument *Eiffel Tower* cannot be affected by the action of seeing from my window. Thus, Fellbaum & Zribi-Hertz's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can capture the grammaticality of (5a) and the ungrammaticality of (5b). Their hypothesis is further supported by the fact that in (6), the internal arguments are affected by the action of the relevant verbs, respectively:

- (6) a. Korean cars handle easily.  
b. The dog biscuit cuts and chews like meat.

More specifically, (6a) is grammatical due to the fact that the internal argument *Korean cars* are affected by the action of handling easily. Likewise, (6b) is grammatical since the argument *the dog biscuit* is affected by the action of cutting and chewing like meat. Thus, Fellbaum & Zribi-Hertz's (1989) hypothesis can account for the grammaticality of (6a) and (6b).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Fellbaum & Zribi-Hertz's (1989) hypothesis work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or proper noun.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 (7) The ice cream scoops well.

(7) is well-formed since *the ice cream* is a material noun and affected by the action of scooping well. Thu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Fellbaum & Zribi-Hertz's (1989) hypothesis works in middle constructions. Likewise,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proper noun, middle constructions can be accounted for by the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 (8) Mary photographs well.

As illustrated in (8),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proper noun, the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works. In (8), the proper noun *Mary* is affected by the action of photographing well. As observed above, the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work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or proper noun. However, the affectedness constraint hypothesis poses a problem in providing accounts of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s:

- (9) The piano plays easily.

(9) is well-formed even though in (9), the internal argument *the piano* is not affected by the action of playing easily. Furthermore, the affected constraint hypothesis does not work for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

- (10) His novel is selling like hot cakes.

As expected, the internal argument *his novel* is not affected by the action of selling like hot cakes. We thus conclude that Fellbaum & Zribi-Hertz's (1989) hypothesis work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or proper noun.

## 2.2. The Causative Constraint Hypothesis

Chung (1995) proposes the causative constraint hypothesis that a transitive verb can occur in middle constructions only when the subject carries the feature of causer:

### (11) Causative Condition

Unless there is a cause for an event, the caused event cannot take place. (Chung 1995: 276)

Chung (1995) assumes that the subject in middle constructions carries the feature of causer. As indicated in (12), all the subjects can occur as the internal argument of middle constructions since the subjects are the cause of the event:

- (12) a. The glasses breaks easily. (Patient)
- b. The books read easily. (Theme)
- c. The marks hits easily. (Goal)
- d. The piano plays easily. (Instrument)
- e. The dogs frighten easily. (Experiencer)

In the case of (12a), a property of *the glasses* is the cause of the event of being broken. In the case of the other examples, the properties of the internal arguments are the cause of the event in each case. However,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 (13) a. Mary photographs well.
- b. Greek translates easily.

What (13a) suggests is that a property of the internal argument *Mary* is not the cause of the event of photographing well. Likewise, (13b) indicates that a property of the subject *Greek* is not the cause of the event of translating. All these in turn suggest that all middle constructions do not show that there is a cause-effect relationship.

## 3. Middle Constructions

### 3.1. The Internal Argument of Middle Constructions

Park (2009) points out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has the definiteness. We assume, along with Park (2009), that the internal argument of middle constructions shows the definiteness, as indicated in (14):

- (14) a. Korean cars handle easily.
- b. The dog biscuit cuts and chews like meat.

- c. His novel is selling like hot cakes.
- d. The steak we ate yesterday cuts like butter.

As alluded to above, the internal arguments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Hence, we propose the definite NP condition in which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15) Definite NP Condition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Definite NP: the NP, that NP, this NP, these NP, adjective NP, 's NP, no NP, proper noun, NP with semantic definiteness

As exemplified below, (16a), (16b), (16c), and (16d) lend their support to the claim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 (16) a. The piano plays easily.
- b. The glasses break easily.
- c. This bottle breaks easily.
- d. This piano plays easily.

We wish to argue that one of the reasons why (16a), (16b), (16c), and (16d) are grammatical is that the subjects of the middle constructions are definite NPs, as indicated in (15). However,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

(17) Love letters write easily.

At a glance, *love letters* are assumed to be an indefinite NP, but we try to argue that letters include love letters and the latter are the subcategory of the former, which indicates that compared to the former, the latter carries the semantic definiteness. Park (2009) points out that (18a) and (18b) are ungrammatical and we attribute the ungrammaticality of (18a) and (18b) to the definite NP condition:

- (18) a.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 b. \*Chickens are killing easily.
- (Park 2009: 137)

- (19) a. These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 b. These chickens are killing easily.
- (Park 2009: 137)

Clearly, (18a) and (18b) violate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e internal arguments *bureaucrats* and *chickens* are indefinite NPs, which leads to the ungrammaticality of (18a) and (18b). On the other hand, (19a) and (19b)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e internal arguments in question are definite NPs, hence the grammaticality of (19a) and (19b). We thus conclude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 3.2.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In this section, we propose the following condition on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20)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Let us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in order to verify whether or not (20) works for middle constructions:

(21) This bottle breaks easily.

This sentence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e internal argument *this bottle* is a definite NP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e NP condition and the definite NP *this bottle* has the event of being broken easily,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this bottle*. Clearly, (21) observes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which leads to the grammaticality of (21).

Now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22) The dog biscuit cuts and chews like meat.

The reason why this sentence is grammatical is that the internal argument *the dog biscuit* is a definite NP and it has the event of cutting and chewing like mea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the dog biscuit*. Thus,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predicts that (22) as the middle construction is well-formed.

Now let us examine the following sentence:

(23) The dogs frighten easily.

Again,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predicts that the intransitive verb *frighten*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since *the dogs*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and it has the event of frightening easily,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ogs*. Exactly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

(24) The steak we ate yesterday cut like butter.

The internal argument *the steak*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in (24), *the steak* is a definite NP, and the subject *the steak we ate yesterday* has the event of cutting like butter,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steak*. We thus conclude that for this reason, the intransitive verb *cut*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Now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 which is grammatical:

(25) The piano plays easily.

In (25), the definite NP condition is met since *the piano* is a definite NP, and it has the event of playing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Clearly, this sentence observes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which leads to the grammaticality of (25).

Now let us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 which is ungrammatical:

(26) \*The Eiffel Tower sees from my window.

This sentence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e internal argument of *see* is the definite NP *the Eiffel Tower*. However, *the Eiffel Tower* has the event which is not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That is to say, the event of seeing from my window is not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the Eiffel Tower*, which leads to the ungrammaticality of (26).

Now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which is ungrammatical:

(27) \*This poem writes easily.

This sentence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since the subject of *write* is the definite NP *this poem*. However, the event of being written easily is not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this poem*. Thus, this sentence is ungrammatical by violating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that a definite NP must have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Now let us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 which is ungrammatical:

(28) \*This bridge builds easily.

To begin with, this sentence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is bridge* is a definite NP. However, the event of being built easily is not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is bridge*, which leads to the ungrammaticality of (28) in accordance with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Now let us turn our attention to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s:

- (29) a. Mary photographs well.  
b. Greek translates easily.

In (29a), the internal argument *Mary* is unique and definite since she is a proper noun, which refers to the semantic definiteness. Thus, the subject *Mary*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In addition, the proper noun *Mary* has the event of photographing well, which is her intrinsic characteristic and thus observes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When it comes to (29b), the internal argument *Greek* is one of languages and unique and thus meets the definite NP condition which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In addition, the definite NP *Greek* has the event of

translating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Thus, the intransitive verb *translate*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by observing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Now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s:

- (30) a. The seat folds.  
b. The car drives.

Note that in these sentences, middle constructions are well-formed without adverbs. The reason why (30a) is grammatical is that there are seats which fold or there are seats which do not fold. When it comes to (30a),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e internal argument *the seat* is a definite NP. In addition, the definite subject *the seat* has the event of folding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which leads to the grammaticality of (25a). On the other hand, (30b) is also well-formed without an adverb. (30b) as information is useful only when we ask the following question: Does the car drive? In this sentence, the definite NP condition is met since the subject of *drive* is a definite NP. In addition, the definite NP *the car* has the event of driving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which meets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The advantage of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is that it can explain why middle constructions allow the alternation of some adverbs. Let us examine the following middle constructions:

- (31) a. The car drives well (easily).  
b. The salt pours well (evenly).

In (31a), the adverb *well* can be changed to the adverb *easily*. This in turn suggests that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is on the right track since adverbs are used in order to indicate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subject. In (31a), *the car* can have the event of driving well or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In (31b),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ndicate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subject *the salt*, the adverbs *well* and *evenly* can be used. In (31b), the definite NP *the salt* has the event of pouring well or evenly,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salt*. Thus, by assuming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we can capture the alternation of adverbs in the middle construction. If an adverb is changed to another one in the middle construction,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is changed.

Another advantage of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is that it can explain why there are limits and restrictions on adverbs. Adverbs related to the agent cannot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 (32) a. \*This little flashlight plugs in expertly.  
b. \*Red wine spots wash out carefully.  
c. \*Cotton irons cautiously.

As alluded to in (32), adverbs which must be used together with the agent cannot be used in

the middle construction since they cannot indicate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subject. We thus conclude that intransitive verbs and adverbs which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are used together to indicate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internal argument.

### 3.3. A Definite NP and Abstract Nouns

The main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show that the definite NP must not be an abstract noun. We wish to argue that it is difficult for an abstract noun to have the event which i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and property since it is abstract. Hence, we propose the abstract noun constraint as follows:

(33) Abstract Noun Constrain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bstract noun constraint is a necessary part of the definite NP condition since the former can be derived from the latter. In order to verify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sentences:

- (34) a. The piano plays easily.  
b. \*The sonata plays easily.

When it comes to (34a), the definite NP condition is met since the subject of the middle verb *play* is the definite NP *the piano*. In addition, the definite subject *the piano* has the event of playing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and property, which leads to the grammaticality of (34a). However, *the sonata* cannot have the event of playing easily since it is an abstract noun in accordance with the abstract noun constraint. We wish to argue that the reason why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i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abstract noun to have the event which i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since it is abstract. Our claim is further supported by the fact that (34b) and the following sentences show the same pattern in their grammatical status:

- (35) a. \*This poem understands easily.  
b. \*The answer knows easily.

In (35a), the definite NP condition is met since the subject of *understand* is the definite NP *this poem*. However, *this poem* cannot have the event of understanding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since it is an abstract noun, which is in concordance with the abstract noun constraint, hence the ungrammaticality of (35a). Exactly the same can be said of (35b). In (35b), the sentence meets the definite condition since the subject of *know* is the definite NP *the answer*. However, (35b) is ungrammatical due to the abstract NP constraint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Thus, *the answer* cannot have the event of knowing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Also, the following sentence lends its support to the claim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36) \*That issue discusses easily.

Even though the definite NP condition is met in (36), the definite NP *that issue* cannot have the event of discussing easily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since *that issue* is an abstract noun, which clearly indicates that for sure,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Now let u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37) \*That idea communicates.

In (37), the definite NP condition is met since the subject of *communicate* is the definite NP *that idea*, but *that idea* cannot have the event of communicating as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since the subject of *communicate* is the abstract noun *that idea*. Another reason why (37) is ungrammatical is that there is no adverb which i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for middle constructions. It is thus reasonable to hypothesize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and that only material nouns, proper nouns, and common nouns can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 3.4. Further Syntactic Constraints on Middle Constructions

In this section, we briefly illustrate the syntactic constraints on middle constructions. First, as pointed out by Bassac and Bouillon (2002), one constraint is that the agent theta role is not projected in the middle construction:

(38) \*This book reads easily by John.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as argued in Stroik (1992), in some cases the agent can be syntactically projected:

(39) a. That book reads quickly for Mary.  
b. No Latin text translate easily for Bill.

(39a) and (39b) seem to lend their support to Stroik's (1992) claim, but as Fagen (1988), Ackema and Schoorlemmer (1995) and Bassac and Bouillon (2002) show, the middle construction with the *for* phrase is not productive:

(40) These books don't sell (??for the average shopkeeper).

Second, as the status of (41) suggests, middle constructions cannot describe particular events fixed in time:

(41) \*This book read easily at 2 PM.



In our terms, it seems difficult for *this book* to have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at a particular time.

Third, as argued by Bassac and Bouillon (2002), an adverb is necessary for the well-formedness of middle constructions. As Bassac and Bouillon (2002) points out, however, this adverbial paradigm is strongly constrained, as indicated in (42):

- (42) a. Neutrogena rinses away completely/easily/well.  
b. \*Neutrogena rinses away carefully/professionally/patiently.

We thus conclude that this kind of evidence indicates that middle constructions are syntactically constrained.

#### IV. Conclusions

To sum up, we have maintained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In section 2, we have examined two main hypotheses of middle constructions. Fellbaum & Zribi-Hertz (1989) claim that an argument A of a verb or predicate is affected by the action or process P referred to by the verb. However, Fellbaum & Zribi-Hertz's hypothesis works when the internal argument is a material noun or proper noun. On the other hand, Chung (1995) proposes the causative constraint hypothesis that unless there is a cause for an event, the caused event cannot take place. However, all middle constructions do not show that there is a cause-effect relationship. In section 3.1, we have contended that the subject of middle constructions must be a definite NP. In section 3.2, we have proposed the middle construction formation condition that an intransitive verb can occur in the middle construction only when a definite NP has an event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r property of the definite NP. In section 3.3, we have contended that an abstract noun cannot be the subject of a middle verb. In section 3.4, we have provided some evidence that middle constructions are syntactically constrained.

#### References

- Ackema, Peter and Maaike Schoorlemmer. (1995). Middles and Nonmovement. *Linguistic Inquiry* 26 (2): 173-197.
- Alexiadou, Artemis, and Edit Doron. (2012). The Syntactic Construction of Two Non-Active Voices: Passive and Middle. *Journal of Linguistics* 48: 1-34.
- Alexiadou, Artemis. (2010). On the Morpho-Syntax of (Anti) Causative Verbs. In *Lexical Semantics, Syntax, and Event Structure*, edited by Malka Rappaport Hovav, Edit Doron, and Ivy Sichel, 177-2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ristian Bassac and Pierrette Bouillon. (2002). Middle Transitive Alternations in English: A Generative Lexicon Approach. *Many Morphologies*, ed. Paul Boucher and Marc Plenat, 29-47,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Chung, T. (1995). A Semantic Condition on English Middles: A Causative Approach.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4): 271-288.
- Condoravdi, Cleo. (1989). The Middle: Where Semantics and Morphology Meet.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1: 18-30.
- Fagan, Sarah. (1988). The English Middle. *Linguistic Inquiry* 19(2): 181-203.
- Fellbaum, C & Zribi-Hertz, A. (1989). *The Middle Construction in French and English*.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Kemmer, Suzanne. (1993). *The Middle Voice.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23. Amsterdam: John Benjamins.
- Park, K-B. (2009) Explaining English Middle Sentences.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13(2): 125-140.
- Stroik, Thomas. (1992). Middles an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3 (1): 127-137.

## 영어교육분과 (인문대1호관 406호)

분과위원장 및 좌장: 이해련(서원대)

|      | 발표시간        | 발표자        | 소 속               | 발표논문제목                                                                                                                   | 토론자                    | 사회자               |  |
|------|-------------|------------|-------------------|--------------------------------------------------------------------------------------------------------------------------|------------------------|-------------------|--|
| 영어교육 | 14:00~14:30 | 이지연        | 한림대               | Teaching English or Englishes?<br>Reconceptualisation of English Language<br>Teaching Practice: ELF in ELT in<br>S.Korea | 윤택남(춘천교대)<br>조형숙(서원대)  |                   |  |
|      | 14:30~15:00 | 구진선        | 이화여대              | The Effects of Different Lengths of<br>Pretask Planning Time on L2 Learners'<br>Performance in Speaking Tests            | 박미애(춘천교대)<br>이해련(서원대)  |                   |  |
|      | 15:00~15:30 | 박채희        | 선문대               |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and Its<br>Effectiveness on L2 Vocabulary Learning                                         | 조혜원(극동대)<br>이지연(한림대)   |                   |  |
|      | 15:30~15:50 | 휴식         |                   |                                                                                                                          |                        |                   |  |
|      | 15:50~16:20 | 김병선<br>박옥희 | 가톨릭<br>관동대<br>배재대 |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학습 감정에 대한<br>인식 연구: B대학과 C대학을 중심으로                                                                            | 정은숙(춘천교대)<br>이제원(연세대대) | 이승복<br>(춘천교<br>대) |  |
|      | 16:20~16:50 | 김인옥        | 춘천교대              | 초·중등 영어 수업의 교사 발화 비교<br>분석                                                                                               | 이유진(강원대)<br>방상욱(장안대)   |                   |  |

# Teaching English or Englishes? Reconceptualisation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Practice: ELF in ELT in S.Korea

Jiyeon Lee  
(Hallym University)

## Introduction

In the last few decades, the world has become closer in the name of internationalisation and, as a result, the popularity of the English language has been witnessed more than ever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There has been growing awareness in both the public and academic sectors towards the existence of diversity of English, nevertheless Korean English language teachers' awareness and the implication of it in the classroom seems to be still in its infancy. In this paper, the nature of attitudes and standard English language ideology, which are two underpinning notions, will be briefly discussed to better explore the challenges teachers face in reconceptualis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practice in South Korea (henceforth Korea).

## Nature of attitudes

Human attitude is a psychological construct that is often unable to be tested or observed directly. Due to its abstract nature, it is difficult to be defined, however it is 'real enough' (Garrett 2010: 175) as 'mental and emotional phenomena' that 'are no less real than physical behaviours' (Perloff 1993). Therefore, studies of attitudes have long been an essential element to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ur (Allport 1935, Baker 1992, Garrett 2010). In spite of the complex nature of it, most researchers and scholars studying attitude agree that attitude is an evaluative orientation to respond favourably or unfavourably, in other words, to think, feel and behave toward an object or person in certain ways (Ajzen 2005, Allport 1954, Garrett 2010, Lee 2015). It consists of three elements; 'beliefs' that are cognitive elements, and often attract 'strong feelings' that are emotional components, which then can lead to particular 'behavioural intent', the action tendency elements. Beliefs, to which there are other interchangeably used terms such as values, habits, opinions and ideology, usually lack affective components (Allport 1954, Garrett 2010, Rosenberg and Hovland 1960). However, what makes beliefs essential is that they 'may trigger and be triggered by strong affective reactions' (Garrett 2010:31) and that in turn may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shaping attitudes (Lee 2015).

## Standard English Language Ideology

The other underpinning element that is relevant when understanding language attitudes is language ideology. Language ideology has been widely used to describe a set of common beliefs about the nature of language itself. One of the deep-rooted beliefs about language ideology involves the power and authority of certain language varieties. A

view of standard language ideology is about correctness, authority, prestige and legitimacy. In other words, some groups may have more authority than oth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groups may have an influential role in shaping standard language ideology (Lee 2015, Milroy 2001, Rumsey 1990, Seargeant 2009, Woolard 1998). Standard English language ideology is an ideology that focuses on native English being better than other types of English. It is a deeply rooted belief about English that is oriented by concepts such as correctness and prestige. However, what often seems to be neglected is that native speakers of English in the world could also be using some kind of nonstandard variety of the language, hence it is controversial to say who speaks correctly and who does not (Trudgill 2002:160).

### Which English? The biggest challenges for teachers

What makes the above discussion of attitudes and standard English language ideology significant is because it provides a potential initial stage to help understand teachers' attitudes to the language, then explore and address the needs of reconceptualisation of ELT practice in Korean classrooms. Thus, as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challenges in classrooms, it is almost natural to question whether; a) to what extent it is inevitable one's own English language learning/using experiences, and how the teachers are oriented to the language and the use of it, give impact on shaping their language attitudes, hence their classroom teaching practice, b) how the teachers find a balance between what they think are traditionally correct (and right) and what might better reflect the real world use of the language when teaching, but more importantly c) to what extent the teachers have an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varieties of Englishes - which is likely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ir teaching practice. As language teaching professionals,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changing role of English in ever grow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texts that the young Korean learners are likely to encounter. Therefore, what becomes fundamental issues, among many, are not just the quality of the teachers' professional preparation but also their degree of language awareness which will help in reconceptualising their English language teaching practice.

### References

- Ajzen, I. (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ur* (2nd ed.).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Allport, G. (1935). Attitudes. In C. Murchinson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798-884). Worcester, MA: Clart University Press.
-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Oxford: Addison-Wesley.
- Baker, C. (1992). *Attitudes and Language*. Multilingual Matters Ltd.

- Garrett, P. (2010). *Attitudes to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J. (2015). *Exploring Korean students orientations to English during their study at a 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Southampton.
- Milroy, J. (2001). Language ideologies and the consequences of standardization. *Journal of Sociolinguistics*, 5(4), 530-555.
- Perloff, R. (1993). *The Dynamics of Persua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senberg, M. J. and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ural components of attitude. In C. I. Hovland and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s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pp.1-14). New Haven: Hale University Press.
- Rumsey, A. (1990). Wording, meaning, and linguistic ide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92(2), 346-361.
- Seargeant, P. (2009). Language ideology, language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linguistic behaviour. *Language Sciences*, 31(4), 345-359.
- Trudgill, P. (2002). *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oolard, K. A. (1998). Introduction: Language ideology as a field of inquiry. In B. B. Schieffelin, K. A. Woolard, and P.V. Kroskrity (Eds.),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he Effects of Different Lengths of Pretask Planning Time  
on L2 Learners' Performance in Speaking Tests  
:The Mediating Roles of Test Wiseness, Task Types, and the  
Rhetorical Structure of Reading Passages

Jinseon Koo  
(Ewha Womans University)

I. Introduction & The Need of this Study

Speaking performance evaluations should solely reflect test-takers' speaking abilities. Huges (2007) once noted that "A test is said to be valid if it measures accurately what it is intended to measure (p. 26)." If a test-taker' speaking performance is shown to fluctuate because of factors other than an examinee's own speaking abilities, the examination would not be truly valid, and the resulting scores would not be an accurate measure of their speaking skills. Therefore, outside factors and influences should be controlled thoroughly in order to enhance any speaking tests' validity. The following factors have been chosen to be examined, to find out whether and how they affect test-takers' speaking performances: differing amounts of given planning time, the rhetorical structure of reading passages, test wiseness and task types.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a certain amount of planning time is required for a test-taker to formulate an answer when presented with a question in a foreign language test. In real life situations, people often don't plan what they will say before they speak. They do, however, often draw from shared information and the circumstances and context that they find themselves involved in. In a test context, a test-taker must answer questions instantly on a random topic, often without any background or situational context. This can cause confusion and difficulty with the production of accurate or intelligible speech for many reasons other than language knowledge or skills.

To help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suggested that some amount of planning time should be allowed in speaking tests. It is worthwhile to discover how different amounts of pre-task planning affect performance in a test setting, and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investigate this.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exploring the impact of planning on language production in the area of second an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where differences in three aspects of fluency, accuracy and complexity of learner performance under different planning settings have been investigated (Foster, 1996; Foster & Skehan, 1996; Mehrang & Rahimpour, 2010; Mochizuki & Ortega, 2008). However, in a classroom context, those research studies haven't provided consistent or conclusive results regarding the effects of additional planning time on performance.

Furthermore, it should be noted that much mor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SLA field than in the area of testing. Within the testing field, there has been some research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lanning time (Elder & Iwashita, 2005; Frost, Elder & Wigglesworth, 2011; Li, Chen, & Sun, 2015; Wigglesworth, 1995, 1997, 2000, 2001; Wigglesworth & Elder, 2010; Tavokoli & Skehan, 2005; Lee, 2018). However, they also have failed to show consistent results. In a testing context, as compared to a regular classroom situation, test-takers might also reac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given planning time. A very limited range of studies has focused specifically on the effects of different length of preparation time for speaking tests. The effects of planning time on performance are still open to question, and the need for more research in this area of speaking test procedures is especially critical.

Integrated speaking tests are more recently developed task type tests, as compared to long-established independent task type tests. An integrative test is one that requires a test-taker to use several language skills at the same time (Richards & Schmidt, 2013). An example of this is the TOEFL iBT speaking test, which requires a test-taker to use skills of reading, listening, and speaking simultaneously. Integrated speaking tests require a test-taker to answer an assigned question right after reading a passage and listening to a lecture. It can be hypothesized that additional planning time might benefit students by helping reduce cognitive load while they process an answer, resulting in better performance.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 is another critical component of integrated speaking tests, as performance also can be influenced by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 presented. Kintsch and Yarbrough (1982) defined rhetorical form as how a particular paragraph or text being read is organized. Prior studies have shown that the rhetorical structure of reading passages influences the comprehension of second language readers (Kintsch & Yarbrough, 1982; Carrell, 1984).

Reading passages in integrated speaking task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basic types of rhetorical organizations: with the topic sentence located at the beginning, versus in the middle or at the end.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se different rhetorical structures influence test-takers' performance in integrated speaking tasks, and if different pre-task planning time lengths have any measurable effect.

This paper also aims to fill another gap in the literature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effects of planning time are related to test-takers' test wiseness levels.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est wiseness is a factor creating differential effects (Allan, 1992; Huston 2005; Millnam et al, 1965).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effects of planning time remain the same regardless of test-takers' familiarity with the speaking tasks, and more research may help shed some light on this.

Finally, to further help enhance overall test validity, it would be worthwhile to explore if different types of task provided made a difference on test-takers' performance.

## II.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ying amounts of planning



time, the rhetorical structure of reading passages, test wiseness, and task types on speaking tests performanc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Does the amount of planning time provided make a difference to test-takers' performance in both independent and integrated speaking tests?
2. Do the effects of the amount of planning time on test performance differ by the rhetorical structure of reading passages?
3. Do the effects of the amount of planning time on test performance differ between novice and experienced test-takers?
4. Does the amount of planning time make a difference to the planning behaviors of test-takers?

### III. Methodology

#### 1. Participant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thirteen Korean test-takers, who have all previously taken official speaking tests, such as TOEFL, TOEIC speaking tests or the OPIc. The thirteen participants were an average of 23 years old. They were all female in an EFL setting living in Korea. Using the speaking test scores that the participants submitted, the participants were grouped into two levels: advanced and intermediate. Based on the test-takers' TOEFL and TOEFL speaking test scores, they were divided into these two groups, using the score-band cut-off range.

Additionally, to look into whether the effects of planning time are related to test-takers' test wiseness level, test tak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or testing test-wisness evaluation only; integrated novice test-takers and experienced test-takers.

One native rater and one Korean rater were recruited, both with extensive teaching and rating experiences with adult English learners in an EFL context. A computer programmer was hired to develop a new on-line speaking test for this research, and a speaking test computer program was developed specifical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is research.

#### 2. Instruments

##### 1) Integrated Speaking Tests

A speaking test computer program was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is study. The test format for this research was identical to existing iBT TOEFL Speaking tests, with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this current pilot test varied the length of given planning time - the variable being examined.

##### 2) Rating Scales

ETS TOEFL speaking test rubrics and sample recording files provided by ETS were provided to two raters to further clarify how the responses of an official TOEFL iBT test were to be scored.

### 3) Questionnaire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investigate test-takers preferences on the length of planning time. This was given in order to examine what kind of planning activities the participants did during their preparation time, which also might be shown to vary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planning time given. The questions asked were adapted from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Wigglesworth and Elder (2010).

## IV. Result and Conclusions

The differences in planning restrictions for both advanced and intermediate participants did not prove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pilot study. The null findings echo those of Iwashita et al (2001), Wigglesworth (2000), and Wigglesworth et al (2010). The amount of planning time provided made no statistical difference to test-takers' performance in the independent and integrated speaking tasks. However, when the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more planning time, the speaking scores of both levels - the advanced and the intermediate participants - didn't show an increase statistically. We can surmise from this that if the sample size was larger, the results might change and may be more useful in helping to understand if differing lengths of preparation time would result in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results of the pilot study also showed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 on speaking test results had no impact on test-takers' performance. This result wa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Carrell, 1985). Some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s didn't affect their understanding, but that they spent more time focusing on listening and processing what was being said. Some students didn't notice that the passages had different structures. Anecdotally, one student mentioned that the reading passage of item number 4 was at first seemed to be the most difficult question for her, since the main idea was found at the end; however, as the professor from the lecture explained the question very well with specific examples, she could then understand the whole concept more easily, and thus question number four turned out to be the easiest for her. In summary, it was indicated that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s that were given did not affect the test scores very much, and also that the test-takers didn't notice any increased or decreased difficulty in the questions,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s given to them. Why they did not notice a difference remains is undetermined, but the simple fact is that the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in scor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reading passage given. The current study also found that the more experienced group didn't outperform the intermediate group when they took the integrated speaking tests - in all areas.

Additional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also be mentioned. Firstly, the main issue

is that the sample size was not large enough so as to represent all test-takers sufficiently, and because of that, som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samples might also be truncated. All of the students involved in the testing attend the same college, which means that their English performance might not vary greatly, because their college entrance scores would most likely be similar. Also, the participants were all female. This is not thought to be an issue, but in the interest of eliminating this as a possible problem, both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will be used in the proposed future study. More studies with more participants, as well as a greater variety of participants from a wider pool of applicants will offer more validity to this research. More study and exploration is needed to help continue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test performance.

For a future study, it might be interesting to analyze the quality or effectiveness of the test takers' note taking, and possibly have their answers transcribed and studied, to see if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different time length groups, and to see what impact that note-taking has on performance. Those are questions for a future study, but it seems worthwhile to mention them here.

More research is needed to continue to find testing methods which are the most valid and reliable test measurements possible, which most accurately reflect students' English speaking skills. This is a goal which is shared by all educators, and similarly by all students who wish to have their fluency in a language graded appropriately. This topic is worth further investigation, and a study such as this may help further the knowledge base and contribute to better testing methods.

## V. References

- Allan, A.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test-wisness in EFL/ESL reading test takers. *Language Testing*, 9(2), 101-119.
- Carrell, P. L. (1985). Facilitating ESL reading by teaching text structure. *TESOL quarterly*, 19(4), 727-752.
- Elder, C., & Iwashita, N. (2005). Planning for test performance: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R. Ellis (Ed.), *Planning and task performance in a second language* (pp. 219-238). Amsterdam: John Benjamins.
- Ellis, R. (1987). Interlanguage variability in narrative discourse: Style shifting in the use of the past tens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9, 1 - 20.
- Ellis, R. (Ed.). (2005). *Planning and task performance in a second language* (Vol. 11). John Benjamins Publishing.
- Ellis, R. (200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ree types of task planning on the fluency, complexity, and accuracy in L2 oral production. *Applied linguistics*, 30(4), 474-509.
- Foster, P. (1996). Doing the task better: How planning time influences students' performance. In J. Willis and D. Willis (Eds.), *Challenge and change in language teaching* (pp. 126 - 135). London: Heinemann.
- Foster, P. & Skehan, P. (1996). The influence of planning on performance in task-based learn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3), 299 - 324.

- Frost, K., Elder, C., & Wigglesworth, G. (2011). Investigating the validity of an integrated listening-speaking task: A discourse-based analysis of test takers' oral performances. *Language Testing*, 29(3), 345-369.
- Houston, S. E. (2005). Test-wiseness training: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test-wiseness in an employment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 Hughes, A. (2007).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Ernst Klett Sprachen.
- Iwashita, N., McNamara, T., & Elder, C. (2001). Can we predict task difficulty in an oral proficiency test? Exploring the potential of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task design. *Language Learning*, 21, 401 - 436.
- Kobayashi, M. (2002). Method effects on reading comprehension test performance: Text organization and response format. *Language testing*, 19(2), 193-220.
- Kintsch, W., & Yarbrough, J. C. (1982). Role of rhetorical structure in text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6), 828.
- Li, L., Chen, J., & Sun, L. (2015). The effects of different lengths of pretask planning time on L2 learners' oral test performance. *TESOL Quarterly*, 49(1), 38-66.
- Mehrang, F., & Rahimpour, M. (2010). The impact of task structure and planning conditions on oral performance of EFL learner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3678-3686.
- Mehnert, U. (1998). The effects of different lengths of time for planning on second language performanc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0, 83 - 108.
- Millman, J., Bishop, H.I., & Ebel, R. (1965). An analysis of test wisenes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5(1), 707-726.
- Mochizuki, N., & Ortega, L. (2008). Balancing communication and grammar in beginning-level foreign language classrooms; A study of guided planning and relativization. *Language Teaching Research*, 12(1), 11-37.
- Richards, J. C., & Schmidt, R. W. (2013).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Routledge.
- Tavakoli, P., & Skehan, P. (2005). Strategic planning, task structure, and performance testing. In R. Ellis (Eds.), *Planning and Task Performance in a Second Language* (pp. 239-273). Amsterdam: John Benjamins.
- Wigglesworth, G. (1997). An investigation of planning time and proficiency level on oral test discourse. *Language Testing*, 14, 21-44.
- Wigglesworth, G. (2000).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oral tasks for competency-based assessments of second language performance. *Studies in immigrant English language assessment*, 1, 81-124.
- Wigglesworth, G., & Elder, C. (2010).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planning time in speaking test tasks,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7(1), 1-24.

#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and Its Effectiveness on L2 Vocabulary Learning

Park, Chae Hee  
(Sunmoon University)

## 1. Introduction

The Involvement Load Hypothesis (Laufer & Hulstijn, 2001) suggests that "the more effective task required a deeper level of processing of the new words"(p. 542), and the amount of task load is related to learners' levels of processing of the unknown words; basically, much amount of load contributes to a deeper level of processing than the less amount of load, which leads to more effective vocabulary learning. The involvement load is composed of two dimensions: motivational and cognitive. Motivational dimension has one component of need, and cognitive dimension has two components such as search and evaluation. Each component can be either present or absent as involvement when learners process unknown words during the tasks.

The components of involvement in a task can be loaded as absent (0), moderate (1), and strong (2)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volvement in a task. The degree of the need component can be moderate or strong depending on whether it is imposed externally (moderate) or intrinsically (strong). The search and evaluation components involve learners' attention to the word form and meaning. The search component is loaded as present (1) when learners attempt to find the meaning of unknown L2 words by consulting a dictionary or teachers, or absent (0) when there is no need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unknown words (e.g., the meanings of unknown words can be glossed). The evaluation component requires a "comparison of a given word with other words, the specific meaning of a word with its other meanings, or combining the word with other words in order to assess whether a word does or does not fit its context" (Laufer & Hulstijn, 2001, p.14). The degree of evaluation can be moderate (1) when requiring evaluation of the meaning differences between words, and strong (2) if learners have to make a decision as to how additional words can be combined with the new words to accomplish the given task.

The effectiveness of the task is determined by these involvement loads of the task (Laufer and Hulstijn, 2001) and in general, higher involvement loads contribute to more vocabulary learning. This assumption has been partially or fully confirmed by some empirical research directly testing the involvement load hypothesis (Hulstijn & Laufer, 2001; Keating, 2008; Kim, 2011). However, littl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learners'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and vocabulary learning in the frame of involvement loads. In this preliminary experiment, it was hypothesized that phonological decoding would contribute to vocabulary learning, then c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ask involvement load. To test this hypothesis,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as posed;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phonological decoding contribute to task involvement load?

- Can the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be regarded as one of the dimensional components of involvement load affecting vocabulary learning?

## 2. Experiment

### 2.1. Participant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on vocabulary learning, three groups with different task loads were tested in the frame of ILH. The total participants were 27 Korean EFL students who are currently majoring in English in a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 Three groups of participants were given mock TOEIC test (50 questions of part 7) in order to verify the three groups are similar in their English proficiency. The mean scores of each group was 20.87 (SD=3.18), 19.66 (SD=2.95), and 19.75 (SD=4.43) respectively. Three groups are similar in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

### 2.2. Task Materials

Three groups were assigned to tasks with different involvement load. For the first group (task 1), the reading text was provided with marginal glosses. Students in this group were required to read the text and answer the accompanying questions (reading: involvement load 1). For the second group (task 2), the same task with the reading comprehension group was provided with one more activity in addition to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They were required to count the number of syllable of each target word and write it next to them (reading plus decoding process: involvement load 1+&). This activity was intended for students' decoding process of target words. For the third group (task 3), they were required to read the text and answer the accompanying questions. Target words were deleted from the texts and the students were asked to select the appropriate one from a list of glosses as they read the text (reading plus gap filling:-involvement load 2).

### 2.3. Vocabulary Test and Procedure

Target vocabulary were protrude, diviner, resurgence, decay, perennial, insurmountable, descendant, halt, hindrance, and envisage. Paribakht and Wesche's (1993) Vocabulary Knowledge Scale (VKS) was adapted to measure participants' pre, initial vocabulary knowledge and retention of new vocabulary knowledg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wo separate days over a week period. First, each group had 10 minutes for pre-test, then 30 minutes for treatment, and 10 minutes for an immediate test. One week later, each group had another 10 minutes for the delayed vocabulary test.

###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ean scores of TOEIC in three groups were 20.87 (SD=3.18) for task 1 group, 19.66 (SD=2.95) for task2 group, and 19.75 (SD=4.43) for task3 group respectively. The mean scores of pre-test in three groups were 0.25 (SD=0.46) for task 1 group, 0.33 (SD=0.50) for task2 group, and 0.37 (SD=0.73) for task3 group respectively.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group differences in TOEIC and pre-te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both in TOEIC [ $F(2,2)=.295$ ,  $p=.747$ ] and in pre-test [ $F(2,22)=.097$ ,  $p=.908$ ]. The English proficiency level of each group as well as the knowledge on the target vocabulary of each group can be considered as the same.

Table1. Mean scores of TOEIC and Pretest of each group

| Group (N) | N | TOEIC |      | Pre-test (3+) |      |
|-----------|---|-------|------|---------------|------|
|           |   | M(50) | SD   | M(10)         | SD   |
| Task1     | 8 | 20.87 | 3.18 | 0.25          | 0.46 |
| Task2     | 9 | 19.66 | 2.95 | 0.33          | 0.50 |
| Task3     | 9 | 19.75 | 4.43 | 0.37          | 0.73 |

Table2. Mean scores of immediate and delayed test of each group

| Group (N) | N | Immediate |      | Delayed |      |
|-----------|---|-----------|------|---------|------|
|           |   | M(10)     | SD   | M(10)   | SD   |
| Task1     | 8 | 2.38      | 1.40 | 0.62    | 0.91 |
| Task2     | 9 | 3.33      | 1.65 | 2.77    | 1.92 |
| Task3     | 9 | 3.38      | 1.50 | 0.62    | 1.06 |

The mean scores of immediate test in three groups were 2.38 (SD=1.40) for task 1 group, 3.33 (SD=1.65) for task 2 group, and 3.38 (SD=1.50) for task 3 group respectively. The mean scores of delayed test in three groups were 0.62 (SD=0.91) for task 1 group, 2.77 (SD=1.92) for task 2 group, and 0.62 (SD=1.06) for task 3 group respectively.

Table 3. Effects of group on the immediate and delayed test score

|           | df | Mean Square | F     | Sig. |
|-----------|----|-------------|-------|------|
| Immediate | 2  | 2.605       | 1.107 | .348 |
| Delayed   | 2  | 13.347      | 6.781 | .005 |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one way ANOVA was conducted for immediate and delayed tests. The effects of group on the scores of immediate and delayed are shown in Table 3. It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mediate

test [ $F(2.22)=1.107$ ,  $p=.348$ ] among the three groups. This result does not support for ILH since the students in the task 3 which induces involvement load 2 did not perform better than the students in the task 1 which induces involvement load 1.

Similar results were also found in some studies (Kim, 2011; Lee and Kim, 2015; Park, 2017) where word gains from involvement load 1 and involvement load 2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instance, Park (2017) compared vocabulary learning of Korean EFL adults who had two types of tasks: reading comprehension task which is composed of moderate need (1) only, and the task of reading comprehension plus fill-in the gap which is composed of moderate need (1) and moderate evaluation (1). It did not show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asks. It seems that the task of reading plus gap-filling does not require learners cognitive process enough to override the motivational need.

Table 4. Post-hoc test results on the delayed test

| Tests   | Inter-dependent variable | Mean difference | SD  | Sig. |
|---------|--------------------------|-----------------|-----|------|
| Delayed | Task1 vs. Task2          | -2.15           | .68 | .005 |
|         | Task1 vs.Task3           | .0              | .70 | 1.0  |
|         | Task2 vs.Task3           | 2.15            | .68 | .005 |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layed tests [ $F(2.22)=6.781$ ,  $p<.01$ ], partially supporting for ILH. In order to examine th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among the three tasks, a post hoc comparison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of task 2 retained the target words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students of task 1 [ $d=-2.15$ ,  $p=.005$ ] and the students of task 3 [ $d=2.15$ ,  $p=.005$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sk 1 and task 3 [ $d=.0$ ,  $p=1.0$ ].

This result is in line with the result in Hulstijn and Laufer' (2001) experimentation of Dutch-English group, where no statistical mean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layed test between the reading group and the reading plus fill-in group. Similar results were also found in the task with Korean EFL Students (Lee and Kim, 2015; Park, 2017). Park (2017) compared three task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ach task type: reading comprehension (moderate need), gap-filling (moderate need and moderate evaluation), unscrambling sentences (moderate need and strong evaluation). The gap-filling task group retained the vocabulary the best and followed by unscrambling and reading group respectively.

Overall, it seems that the task of reading plus gap-filling, which induces moderate cognitive evaluation in addition to moderate motivational need, might not require learners cognitive process enough to override the motivational need. Park (2017) mentioned that learners' might feel that the task requiring more than two activities such as reading comprehension and matching the words with blanks (fill-in the blank) would be more difficult than the task requiring either reading or writing only. It can be assumed that, in fill-in the gap task, learners might focus o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rather than the meaning of the target words.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learners' proficiency level might affect cognitive process on the target words. Studies such as (Hulstijn and Laufer, 2001; Lee and Kim, 2015; Park, 2017) did not include learners' proficiency level for comparison purpose. Further experiments including learners' proficiency level as one variable would be necessary to verify the degree of tasks affecting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Regarding the research question,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ers' decoding process of target words benefitted at least in the long-term vocabulary learn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mediate tests among the three group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the delayed tests, partially supporting for ILH. Particular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ask 2 group retained the target words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students of task 1 and the students of task 3. It indicates that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of target words facilitates retention of vocabulary knowledge, a lot better than the reading comprehension task and the gap-filling group.

The effectiveness of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was not tested yet in the frame of task load involvement, but its efficiency was found in studies such as Bowey (2001) and Metsala (1999) for vocabulary learning, and Hamada and Koda (2010) and Hamada and Park (2011) for word meaning inferences. Bowey (2001) reported that phonological sensitivity predicted vocabulary development in young learners. Hamada and Koda (2010) reported a cor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phonological-decoding of real words and word meaning inference, and a marginal cor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phonological-decoding of pseudowords and word meaning inference among the Korean L1 students.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or its awareness was never considered for the component of task involvement load. However, as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suggest that it improves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it is certain that phonological decoding needs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dimensional components of involvement load affecting vocabulary learning.

#### 4. Conclusion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was to test whether learners'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would contribute to vocabulary learning in the task. Three tasks with different involvement load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honological decoding activity for vocabulary learning task could entail more than one load. It seems that phonological decoding proces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dimensions for IL. Further studies including various phonological decoding activities and taking learners' proficiency levels into consideration are required to verify the results. In this experiment, students were just asked to count the number of syllable of each target word. Some students might not take this activity seriously since it was not related to the questions for task comprehension. However, it is necessary for the researcher to create some phonological decoding activities which are required for the task completion in order to induce learners' deeper process on the target words. It did not test with various proficiency levels. It is necessary to add more participants with various proficiency

levels to obtain more conclusive results since lots of studies (Kim, 2011; Kim and Na, 2010) discussed students' proficiency a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vocabulary learning.

#### □ Works Cited

- Bowey, Judith. 2001. Nonword repetition and young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A longitudinal study. *Applied Psycholinguistics* 22.3: 441-469.
- Hamada, Megumi and Chaehee Park. 2011. Word-meaning Inferenc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Inference Accuracy and Strategy Use. *Asian EFL Journal* 13.4: 10-32.
- Hamada, Megumi and Keiko Koda. 2010. The Role of Phonological Decoding in Second Language Word-Meaning Inference. *Applied Linguistics* 31. 513-531.
- Hulstijn, Jan and Batia Laufer. 2001. Some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volvement Load Hypothesis in Vocabulary Learning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51.3: 539-558.
- Keating, Gregory. 2008. Task Effectiveness and Word Learning in a Second Language: the Involvement Load Hypothesis on Trial. *Language Teaching Research* 12.3: 365-386.
- Kim, YouJin. 2011. The Role of Task-Induced Involvement and Learner Proficiency in L2 Vocabulary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61.1: 100-140.
- Laufer, Batia and Jan Hulstijn. 2001.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in a Second Language: the Construct of Task-Induced Involvement. *Applied Linguistics* 22.1: 1-26.
- Lee, Y-K. and J-Y. Kim.. 2015. Effects of Task-Induced Involvement on EF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72, 297-318.
- Metsala, Jamie. 1999. Young Children's Phonological Awareness and Nonword Repetition as a Function of Vocabulary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1:3-19
- Paribakht, Sima and Marjorie B. Wesche. 1993. Reading Comprehension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in a Comprehension-based ESL Program. *TESL Canada Journal* 11.1:9-29.
- Park, Hyun-Kyu. 2017. Effects of Task-Induced Involvement on EFL Adult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English* 21 30.2: 203-226.

#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학습 감정에 대한 인식

## 연구: B대학과 C대학을 중심으로

김 병 선 · 박 옥 희  
(가톨릭관동대 · 배재대)

### I. 서론

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찍부터 인적 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국제어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확보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 아래(전지현, 이완기, 김정렬, 2011), 급기야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여 영어를 공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병민, 2002).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해서도 영어를 필수 교과목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영어권 화자를 만나 자신 있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학습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연구자의 학교의 예를 들자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모의 토익 시험을 보면 많은 학생들의 점수가 신발 사이즈라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다. 그 많은 시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좌절을 넘어 포기 수준이라고 말하는 영어 학습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이길례, 황종배, 2017). 오랫동안 대학 영어를 책임지는 교수자로서 신입생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영어 학습 활동에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참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즉, 그들의 학습 동기는 대학을 입학하기 전부터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그토록 결여되어 있을까? 이에 대해 최덕인, 김태영(2013)은 중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 상실 혹은 탈동기(demotivation)의 원인을 상위권과 하위권 학습자의 차이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상위권 학습자들과 달리 하위권 학습자들은 영어학습의 강제성과 자신감의 부족으로부터 학습 동기를 상실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여숙림, 이종복(2010)에 따르면 학습 동기가 결여된 가장 큰 원인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기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영어학습의 어려움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영어교육 교과 운영이라고 하였다. 연구들마다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영어를 지도하는 교수자의 능력 및 교수 방법에 대한 불만족 또한 영어학습 동기의 중요한 저하요인으로 본다(Dörnyei, 1998). 따라서 영어학습 성공의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강은영(2019)은 수준별 학습, 학습자의 요구 반영, 참여자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길례, 황종배(2017)는 흥미와 자신감 향상, 성적 향상, 적절한 교재 그리고 학부모의 의식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기 혹은 탈동기에 대한 연구에 앞서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행동을 추동하고 동기를 형성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능인 감정이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김민성, 2009). 왜냐하면 감정은 학습 주의력(attention)과 동기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에 필수적인 학습 전략과 자기 조절 학습에도 깊이 관여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Pekrun, 2014). 영어 교과목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학습자들은 희망, 즐거움, 좋아함, 자부심, 안도감, 희망 등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슬픔, 좌절, 분

노, 후회, 걱정, 지루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경우 수업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김민성, 2009; Uysal, Guven, 2018). 앞에서 언급한 감정들은 영어라는 과목을 접하기 전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영어학습을 경험하고 난 후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영어가 어려워서나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의 영향 혹은 부모의 강요 등으로 학습자들에게 미친 긍정/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학습 효과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과거에 경험한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즘 같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패러다임 환경 속에서 교수자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Uysal, Guven, 2018).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두 개의 대학에서 대학 영어를 수강하는 1학년 대학생들의 영어 교과목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설문으로 분석하였다. 또 설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탐색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학습자들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학습자들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감정을 살펴볼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학습자들을 인터뷰하는 이유는 이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한 추적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반한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대학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감정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EFL 학습 상황과 감정

감정이 학습과 성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해외에서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Pekrun, 2014; Pishghadom, Zabetipour, Aminzadeh, 2016) 국내에서는 감정 중에서도 불안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경자, 2014).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의 감정만을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감정이 가변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민성, 2009). 사실 학습자들의 감정을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의 감정은 수시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을 학습 상황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기 존중감과 결부 지어 방어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이것이 학습과 성취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학업 정서 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한 Pekrun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학습 상황을 수업 참여, 공부, 시험으로 나누었다. 검사지 도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감정 상태

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하위요인을 9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즐거움과 희망, 자부심, 여유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분노와 근심, 부끄러움, 슬픔, 절망, 지루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한편, Pekrun et al. (2007)은 이러한 감정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 즉, 활동/ 결과에 따른 초점(focus) 분류와 긍정/ 부정에 따른 유의성(valence) 분류 그리고 활성화/비활성화에 따른 활성화(activation)에 따른 <표 1>과 같은 분류이다. 예를 들면, 지루함은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으로 학습자들이 과업 수행을 포기하게 만든다. 반면에 자부심은 결과와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으로 학습자들이 과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

<표 1> A three-dimensional taxonomy of achievement emotions (Pekrun et al., 2007, p. 16)

| Focus    | Positive   |              | Negative             |                |
|----------|------------|--------------|----------------------|----------------|
|          | Activating | Deactivating | Activating           | Deactivating   |
| Activity | enjoyment  | relaxation   | anger<br>frustration | boredom        |
| Outcome  | joy        | contentment  | anxiety              | sadness        |
|          | hope       | relief       | shame                | disappointment |
|          | pride      |              | anger                | hopelessness   |
|          | gratitude  |              |                      |                |

Pekrun(2014)은 또 학습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4가지 분류하였다. 첫째는 성취 감정(achievement emotions)으로 학습과 성공과 실패에서 생겨나는 감정으로 성공 감정들(즐거움, 희망, 자부심)과 실패 감정들(불안과 부끄러움)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새로운 과업이 주어졌을 때 생겨나는 경이로움과 호기심, 혼란, 좌절을 가져오는 지식에 대한 감정(epistemic emotions)이다. 셋째, 주제 감정(topic emotions)으로 텍스트 주인공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감정이나 암과 같은 병을 접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혐오 감정들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은 사회적 감정(social emotions)으로 교수자-학습자 그리고 학습자-학습자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 연민, 열정, 존경, 미움, 화, 부끄러움 등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데,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그룹학습에서 특별히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영어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발생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경험한 감정들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학습 의욕 내지는 동기를 꺾어 후속 학습을 방해해 버린다(정재준, 김정렬, 2013). 물론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학습에 악영향만 끼치는 것만은 아니지만(Sellers, 2000) 부정적인 감정선을 넘어 트라우마에 이르는 감정 경험일 때는 학습을 포기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Uysal & Guven(2018)은 EFL 학습에서 일어나는 터키 학생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연구하였는데,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성되는 원인을 학습자 31명과 교수자 20명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로 4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수자 원인으로 교수 방식(문법 중심 교육,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 등)과 부적절한 교수 행동(나태하고 열정이 없는 등) 그리고 부정적인 교수자-학습자 간 관계(학생들을 모욕하거나 위협하고 진정성 없는 상호작용 혹은 과도한 친밀감 등)로 인해 학습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답하였다. 둘째, 교실이 원인으로 그룹 활동(산만한 학습자들과 학습자들 간의 대립 등)과 물리적 환경(벽면에 어떠한 학습자료도 없거나 전통적인 자리 배치 등) 그리고 교실 통제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너무 자유롭거나)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셋째, 체계의 문제로 학습자들의 과거 학습경험(교원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 교수자,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대학교 영어 수업), 영어학습 커리큘럼(수업 활동이 본인의 수준보다 난해하거나 배운 내용과 시험 내용 간의 불일치), 행정적인 문제(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강제적인 영어학습 참여)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측면으로 EFL 학습에 대한 편견(영어가 본인의 미래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무관심, 지루함)과 성격적인 특성(내향성), 학습 전략(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무능력),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의 문제(높은 불안감, 자신감 결여)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 2. 선행연구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영어학습이 어렵다고 느낄 때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 학업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학습자들을 학습 부진아라고 하는데(이완기, 2014), 그들이 과거 경험한 영어학습 과정은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영어학습 부진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분명 영어학습 과정 중 여러 가지 원인(누적된 선수학습 결손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을 것이다(민지야, 조윤경, 2014).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영어학습 부진아들이 경험하는 영어 학습을 선행연구로 살펴보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밝혀 볼 것이다. 이경임, 이완기, 배한숙(2016)은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를 통해 영어학습 부진아(underachiever),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영어 교과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와 흥미를 잃은 원인을 규명하여 전문가 집단 관점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영어 학습 부진아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습자들은 영어학습을 수동적이고 의무감으로 참여하는 것에 따른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그들은 어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단어를 알고 모름에 영어학습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중압감을 가진다. 셋째, 영어학습을 암기 과목으로 인식하여 암기력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넷째, 영어학습의 목표가 평가라는 인식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임한다.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비교로 인해 수준차를 인식하고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타 교과목에 비해 영어 교과 부진 학습자가 많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안세린, 임현우(2013)의 연구에서는 비록 연구대상이 10명으로 크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어학습 부진아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영어 수업 시간에 실수나 낮은 시험 점수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현재 본인의 능력보다 어려운 영어학습으로 인해 잦은 학습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었다.

정재준, 김정렬(2013)은 영어학습 부진아 지도 사례연구를 통해 학습 부진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4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교사요인으로는 교사의 강압적 학습시간 준수 요구를 들었고, 따라하기 어려운 활동과 너무 많은 학습 내용과 같은 학습자료 요인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환경요인으로는 영어학습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과 장기간 수업 기간에 따른 흥미 저하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실패 누적으로 인한 무기력과 학습자의 집중력 결여도 부정 감정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도에 소재한 B 대학교와 강원도에 위치한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대학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편성된 대학 영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로서 실험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B 대학교 127명,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27명, 자연·이공 계열이 78명, 예체능 계열이 22명이고, 성별은 여학생이 59명, 남학생이 78명이다. C 대학교의 실험 참여 대상은 97명으로 인문·사회 계열이 28명, 자연·이공 계열이 32명, 예체능 계열이 37명이며, 성별은 여학생이 47명, 남학생이 50명이다.

##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게 Pekrun et al. (2002)이 개발한 학업 정서 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우리 정서와 부합되게 1차로 번역 작업을 한 다음, 연구자의 학교에서 교양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 3인에게 번역된 설문 내용을 읽어보게 한 후 검수를 받고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 관한 감정으로 설문 문항이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문항은 크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5항목, 15문항이며 설문 주제와 문항 수는 즐거움(3문항), 자부심(3문항), 만족(3문항), 희망(3문항), 안도(3문항)이고, 부정적인 감정 또한 5항목, 15문항으로 설문 주제와 문항 수는 따분(3문항), 절망(3문항), 분노(3문항), 불안(3문항), 부끄러움(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 작업은 2019년 2학기 3주차인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행되었는데, 설문에 앞서 학습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약속하여 설문에 응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연구자들이 설문을 수거하여 코딩 분석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들 중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현저히 드러난 B대학교와 C대학교 각 3명의 학생들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학생들을 일부 선별하여 반 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를 사용하여 두 대학 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영어 수업에 관한 감정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알아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을 하면서 나오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서 두 집단이 동질집단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과나 계열 간에 영어 수업에 관한 감정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는 one-way ANOVA로 전반적인 분석을 알아본 뒤, 사후검정은 Tukey 기법을 이용하여 집단의 다중 비교로 세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10개의 감정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선형(general linear model) 모형의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s)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감정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쌍별 비교 분석(pairwise comparisons)을 하였다. 순위는 기술 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의 평균으로 매겼다. 마지막으로 감정 간 그리고 학생의 실력과 감정 간, 학습 방법과 감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bivariate correlations)를 사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 IV.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두 대학의 영어학습에 대한 감정
3. 성별, 계열에 따른 영어학습에 대한 감정
4. 영어학습에 대한 감정 순위
5. 대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 원인

## V. 결론 및 제언

### □ Works Cited

- 강은영. (2019). 영어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 연구: S대학의 영어회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5(2), 209-235.
- 김경자. (2014). 영어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인지적 · 정의적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20(1), 261-285.
- 김민성. (2009). 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존재: 학습정서의 원천과 역할. *아시아교육연구*, 10(1), 73-98.
- 여숙림, 이종복. (2015).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척도 개발. *현대영어영문학*, 59(1), 211-231.
- 이경임, 이완기, 배한숙. (2016).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초등 4학년 학습자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초등교육*, 27(2), 243-258.
- 이길례, 황종배. (2017).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상실 요인 연구.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0(2), 43-73.
- 이병민. (2003).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외국어 교육*, 10(2), 107-129.
- 전지현, 이완기, 김정렬. (2011). 한국인의 영어 말하기능력 기대수준에 관한 연구. *English Teaching*, 66(2), 273-305.
- 정재준, 김정렬. (2013).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사례연구. *영어교육*, 68(2), 179-199.
- 최덕인, 김태영. (2013). 한국 중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비교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9(2), 245-274.



# 초·중등 영어 수업의 교사 발화 비교 분석

김 인 옥  
(춘천교육대)

## I. 서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교급의 전환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환경, 수업 방식, 정서적 성숙 등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있게 교사, 학부모, 교육 행정가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도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서 문자언어 비중이 높아지는 중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에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가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생이 되면서 학습량의 증가와 평가에 대한 부담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동기가 낮아지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 진학하여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수업 방식이다. 이에 초, 중등 영어 학습 연계성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는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주로 교육 자료나 설문조사, 수업 관찰에 의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김정렬, 2014; 안태연, 김태은, 노원경, 2015; 부경순, 이완기, 이정원, 최연희, 2003). 본 연구에서는 초등 6학년 영어수업과 중학교 1학년 실제 영어 수업을 관찰하고 두 교사의 수업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각 학교급에서 사용되는 교사언어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를 통해 교사의 수업 언어 측면에서 초, 중등 영어 학습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 분석한 수업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과 공립중학교 1학년 1개 학급의 영어 수업이었다(<표 1>). 학기중에 이루어지는 정규 영어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음성녹음을 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수업

| 학교급/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1학년                            |
|-----------|------------------------------------------|-------------------------------------|
| 학급수/학생수   | 1학급, 24명                                 | 1학급, 27명                            |
| 학습단원 (차시) | 8. How can I get to the museum? (4/6 차시) | 4. Share your travel story. (4/8차시) |
| 중점기능/수업시간 | 읽기, 40분                                  | 읽기·쓰기, 45분                          |

## III. 초·중등 영어 수업의 교사 발화 분석

초·중등 영어 수업에 나타난 교사의 발화 분석은 수업의 절차에 따라 크게 도입, 전개, 마

무리로 나누었는데, 먼저 도입에는 수업시작, 복습, 숙제 확인, 학습목표 소개 등이 포함된다. 전개 과정에는 문법 및 어휘 설명부터 다양한 학습 활동이 포함되고 마무리 단계에는 배운 내용 확인하기와 숙제주기, 끝인사 등이 속한다.

## 1. 도입

### 1) 수업 시작

초·중등 두 학급 모두에서 영어 노래(팝송)를 들려주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초등교사의 발화에서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날씨나 점심 식사 등 그날의 루틴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중등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주로 수업 준비물 점검을 하고 노래를 다시 들으며 가사에 집중하라는 학습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해주었다.

초등교사의 발화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발화 턴에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점과 영어로 말한 것을 한국말로 바로 번역해서 다시 말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초등 교사의 발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특징이었다.

<표 2> 수업 시작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아무 말없이 먼저 영어 노래를 들려줌)<br>• 나머지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How's the weather today?<br>• I think it's sunny today.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br>• Did you have good lunch? 점심 잘 먹었어요? | • 자, 준비 됐어요? 교과서랑 가사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다 준비 됐어요? 시작할게요. (영어 노래를 화면과 함께 들려줌)<br>•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가사에 좀 더 집중해서 해볼게요. |

### 2) 복습하기

초등영어 교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한 문장에서 혼용하여 쓰기도 했는데 한국어로 하는 문장에 영어 구(예, make a sentence)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중등영어 교사의 발화에서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발화는 없었다.

<표 3> 복습하기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
| • Let's review first.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를 보고 unscramble.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make a sentence. 단어를 구성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

### 3) 숙제 확인, 학습목표 소개

초등영어 교사의 발화에서는 한국어 표현에 영어 구문을 삽입하여 혼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영어 표현에서 한국어 구문을 삽입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반면 중등영어 교사는

수업을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하였으며 활동 제목(sleeping elephant)이나 reading 같은 간단한 말을 영어로 사용했다.

<표 4> 숙제 확인, 학습목표 소개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think you're ready to start this lesson.</li> <li>• We'll read page 120. 오늘 우리 120쪽 읽기를 할 건데, before you read watch this. What's this?</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reading 하기로 했죠. 그쵸?</li> <li>• Sleeping elephant 할건데 본문 한번 보고 왔어? 한번 읽어 왔어요?</li> </ul> |

## 2. 수업 전개

수업 전개 단계에는 목표 어휘나 관련 문법 설명하기, 읽기 연습, 읽기 및 쓰기 학습 활동, 읽기 및 쓰기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두 교사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 1) 어휘 및 문법 설명

초등영어 교사는 개념 설명을 위해 동영상을 보여주어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어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 '장보고 과학 기지'라는 번역만 해주었다. 중등영어 교사는 어휘 지도 시 먼저 따라 말해 보게 한 후 뜻을 알려주었다. 또한 명령문에 대한 문법 설명을 한국말로 했는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여 응답을 이끌었다. 중등영어 교사는 발화 전반에 걸쳐 존대어와 비존대어를 혼용하였다.

<표 5> 어휘 및 문법 설명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s the South Pole. 남극기지. 여러분이 낫설 것 같아서 장보고 과학기지가 뭔지에 대해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시청)</li> <li>•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장보고 과학기지"라고 하면 되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이 단어 뜻 알려줄게요. 다 같이 크게 grab. grab이 뭐냐면 잡는거예요. 잡는걸 grab 이라고 해요.</li> <li>• 여러분이 한 활동에 "- 해라, - 하지 말아라"라는 문장이 많았어. 이런 문장을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무슨 문이라고 하지?</li> <li>• 명령문에는 긍정명령문과 부정명령문이 있어요. 긍정명령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동사원형으로 시작하고, 부정명령문은 동사원형 앞에 Don't를 붙인다고 했어.</li> </ul> |

### 2) 읽기 연습

초등영어 교사는 교과서의 본문을 읽을 때 먼저 한줄 씩 따라 읽게 하였는데 이때도 영어

를 말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읽기 중 말하기 질문을 던져 언어 기능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중등영어 교사는 학습자들이 완성한 쓰기 활동지를 읽게 할 때 학생들이 함께 소리내어 읽게 하였으며 해석도 함께 읽도록 하였다. 중등영어 교사 발화에서도 영어로 먼저 말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표 6> 읽기 연습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그러면 Let's read about it.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 by line first.</li> <li>•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Let's think about it. If you want to go to 장보고 station How can you get there? 어떻게 가면 되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1번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li> <li>• 해석 읽어볼게요, 시작.</li> <li>• Fill in the blank. 정답 넣어서 읽어볼게요.</li> </ul> |

### 3) 읽기 및 쓰기 활동

초등영어 교사는 읽기 활동에서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질문을 통해 답을 이끌기, 학생이 읽지 못할 때 교사가 읽어주기 (예, "plane to New Zeland")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읽기 도중에 영어 규칙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중등영어 교사의 경우에도 쓰기 규칙을 알려주고 보기를 참고하도록 상기시켜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표 7> 읽기 및 쓰기 활동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 we're gonna practice level reading ok? 우리 level reading 할건데 자신있는 사람은 책을 덮고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책을 보고해도 괜찮습니다.</li> <li>• "쓰다" 쓰다가 뭐였지?</li> <li>• Ok, "plane to New Zeland"</li> <li>• 우리가 영어로 할때는 ship을 먼저 말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Araon Ship 보다는 Ship Araon 이라고 했어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에 나오는 엄마가 한 말을 떠올리면서 10개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li> <li>• 자 한가지 tip, 문장을 시작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쵸? 자 보기에 단어가 다 있어요. 보기를 보고하세요.</li> </ul> |

### 4) 읽기· 쓰기 게임

읽기· 쓰기 게임은 중등 수업에만 있었는데 Sleeping Elephant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활동

이였기 때문에 금지 규칙만 상기시키고 바로 시작하였다. 게임 진행시에는 간단한 표현들은 영어로 진행하였다. 또한 보상에 대한 언급을 하여 학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물리적 보상은 오히려 초등영어 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읽기·쓰기 게임의 교사 발화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leeping elephant game) 오늘은 메모하기 금지, 괜찮겠어요?</li> <li>• 자, number 1 됐어요? number 2 wake up, 됐어요? ... 자 everybody wake up. 자 문장 완성하세요.</li> <li>• 자, 해석하기는 자연스런 해석하기</li> <li>• 애들아, 첫 번째 표현 뭐였어? 두 번째 표현은? (정답확인)</li> <li>• Round 2는 문장이 좀 길었지? (공감)</li> <li>• 애들아 다른 조에서 다 들려. 작게 얘기해 (주의주기)</li> <li>• 오늘은 가장 잘한 세팀에게 사탕주기로 했어 그치? (보상)</li> </ul> |

### 5) 이해 및 학습 속도 점검

수업 진행 중 학습자들의 이해를 확인하거나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발화가 나타났다. 이때도 초등교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중등교사는 한국어만으로 진행하였다.

<표 9> 이해 및 학습 속도 점검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 until here, do you have question? 질문있는 사람. 이해가 안된다든지.</li> <li>• 주의할 점은, It's very cold. OK, how's the weather there?</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여기까지 정리 됐나요?</li> </ul> |

### 3. 수업 마무리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과 숙제내주기, 끝마침 인사하기 등이 포함된다.

#### 1) 학습 내용 확인

초등교사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미니보드에 단어를 쓰는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데 이때 한국어로 뜻을 말하면 학생들이 영어로 쓰게 하였고 한 단어를 쓴 후 스펠링을 불러주어 답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때 학생이 “모르는 건 안 써도 되요?”라고 묻자 “모르는 건 놔두고 아는 건 써보세요.”라고 하여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였다. 중등교사는 학습지에 해당 단어를 쓰게 한 후 다함께 읽어보고 스펠링을 말해보게 하였다.

<표 10> 학습 내용 확인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re are mini board here, so you'll use this for this words.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단어를 몇가지 써보고 마치고 기록 할게요.</li> <li>• First one, please write “기자” in English.</li> <li>• 어떻게 쓰냐면 r, e, p, o, r, 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린트 한 장씩 받으시고 내용에 맞는 단어를 시작하는 스펠링으로 정리하기</li> <li>• Check the answers together. 탐험가란 단어 읽어봅시다, 시작. 스펠링 시작. 목록을 하다, 시작, 스펠링 시작.</li> </ul> |

2) 마무리 미션, 숙제, 끝마침

초등교사는 마무리 미션을 주어 마지막 연습이 되도록 하였고 교실정리를 하게 했으며, 줄을 서서 선생님에게 한문장 씩 말하고 교실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쳤다. 숙제는 따로 주지 않았다. 중등교사는 숙제를 주었으며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게임 활동 예고를 해주는 것으로 마쳤다.

<표 11> 수업 마무리의 교사 발화

| 초 6 영어 교사                                                                                                                                                                                              | 중 1 영어 교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미션은 여러분이 읽은 글에서 한 문장 씩만 선생님한테 외워서 얘기해주고 교실로 가면 됩니다.</li> <li>• 교실 정리, clean up</li> <li>• Ok, if you are ready you can go back. Line up please.</li> </ul> | <p>그럼 오늘 선생님이 수마트라 본문 보고오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세 번만 읽고 오세요. 다음시간에는 Baskin Robins 31 이라고 해서 게임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p> |

4. 기타 교사 발화의 특징

초, 중등 두 영어 교사의 발화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이나 결과물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의 표현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초등 교사의 발화에서는 “Ok, good job!”, “Great job!”, “Ok, you wrote it. 선생님이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이 썼어요.” 등과 같은 칭찬의 표현이 가끔 나타났으나 중등 교사의 발화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초등교사의 발화에서는 “If you are in,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what can you take?”과 같이 자신의 발화에 나타난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김정렬. (2014). 초중등 영어교육연계성 문제: 영어교과서의 계열성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50(1), 161-184.
- 부경순, 이완기, 이정원, 최연희. (2003). 수업 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본 초중 영어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58(2), 3-35.
- 안태연, 김태은, 노원경. (2015). 초중학교 전환기 교수학습 차이 분석: 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159-186.

**영어국제분과 (인문대1호관 407호)**

분과위원장 및 좌장: 박준석(세명대)

|      | 발표시간        | 발표자                       | 소 속 | 발표논문제목                                                                                                                                      | 토론자                                         | 사회자          |  |
|------|-------------|---------------------------|-----|---------------------------------------------------------------------------------------------------------------------------------------------|---------------------------------------------|--------------|--|
| 국제분과 | 14:00~14:30 | Xiaoyu Zhang              | 청주대 | The Impact of Information Structures o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Dative Alternation                                                     | 이두원(교통대)<br>Elyor Eshimov (강원대)             | 신성균<br>(강원대) |  |
|      | 14:30~15:00 | James Kimball             | 세명대 | Explor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WTC) in the Classroom                                                                                 | 이용철(청주대)<br>Yuping Fu & Yuanzhu Liang (청주대) |              |  |
|      | 15:00~15:30 | Yuping Fu & Yuanzhu Liang | 청주대 | Research trends of L2 motivation: A bibliometric analysis                                                                                   | James Kimball (세명대)                         |              |  |
|      | 15:30~15:50 | 휴식                        |     |                                                                                                                                             |                                             |              |  |
|      | 15:50~16:20 | Elyor Eshimov             | 강원대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DIRECT SPEECH ACTS BY UZBEK AND AMERICAN ENGLISH SPEAKERS IN PRAGMATIC COMPETENCE POINT OF VIEW | 박준석(세명대)<br>Jun Liu(청주대)                    | 박창범<br>(서원대) |  |
|      | 16:20~16:50 | Jun Liu & Yong Cheol Lee  | 청주대 | Prosodic marking of focus in Korean learners of English                                                                                     | 박인규(충북대)<br>Xiaoyu Zhang (청주대)              |              |  |



# The Impact of Information Structures o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Dative Alternation

Xiaoyu Zhang

(Qufu Normal University; Cheongju University)

## 1. Introduction

The notion of ditransitive construction alternations is from English with the two major alternative constructions--double object datives (hereafter DOD) and prepositional datives (hereafter, PD) (Andrej Malchukov, Martin Haspelmath & Bernard Comrie 2007). This paper has chosen DA as the topic of research because the probability of using either of the two alternatives (DOD or PD) is subject to semantic constraints and also influenced by the principles of information structures.

Pinker (1989) provides the semantic explanation of DA in terms of Broad Range Rules (BRR) and Narrow Range Rules (NRR). According to BRR, DOD has been associated with 'possessive' semantics with an animate recipient, while PD with 'allative' semantics, shown as in (i) and (ii):

- (i) 'x causes y to have z' (possessive) NP V NP NP (DOD)
- (ii) 'x causes z to go to/be at y' (allative) NP V NP [to NP]

(PD)

NRR defines which verb classes are/are notable to alternate(eg. instantaneous verbs vs.continuous verbs; verbs of instrument of communication vs. verbs of manner of speaking). In other words, there are alternating dative verbs which allow both structural variants, and two types of non-alternating dative verbs with the first type allowing the prepositional variant only and the second types allowing the double-object variant only (Levin 1993).

Therefore, there are some problems for L2 leaners in the acquisition of English dative alternations. They may generalize the rules to dative verbs that allow both structural variants and produce correct sentences in (1a) and (1b):

- (1) a. Tim gave a book to Mary.
- b. Tim gave Mary a book.

Or they may overgeneralize the rules to non-alternating verbs that only allow PD or DOD and mistakenly produce:

- (2) a. Mary whispered the answer to Ryan.
- b. \*Mary whispered Ryan the answer.

- (3) a. It cost her \$100.  
b. \*It cost \$100 to her.

However, even for alternating dative verbs, the occurrences of the two alternations are not equally felicitous under different discourse contexts. That is to say, the choice of potential variants largely depends on the principles of discourse constraints. Among them, information structure is the focus of this paper.

Here, the term “information structure” can be understood as *Give-before-New principle or GN ordering*. Much previous empirical research suggests that in native adult speech, the position of given information is more likely to precede that of new information in a sentence (Arnold et al., 2000; Bock & Irwin, 1980; Bock & Warren, 1985; Bresnan et al., 2007; Clark & Haviland, 1977).

## 2. Previous studies

Although the DA has long been known for its sensitivity to the information status of verbal complements (given vs. new information) (Collins 1995), there are very few studies about L2 learners’ knowledge of GN ordering in d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 Among the previous studies, Chang (2004) found that Chinese EFL learners of different language proficiency levels have no sensitivity to GN ordering in their production task. Marefat (2005) claimed that advanced and high-intermediate Persian EFL learners are aware of the information status in recognition task. However, in production task, both native speakers and L2 learners are not sensitive to GN ordering. Callies and Szczesniak (2008), through the corpus-based study of German and Polish EFL learners’ compositions, the author found that heaviness principle in association with information structure plays a role in the choice of dative structural variant. In a word, the previous research mentioned above has yielded mixed results and has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This paper provides a pilot study exploring the way information structures influence constitute ordering in DA constructions and trying to solve the discrepancies among the existing literature.

## 3. Methodology of the current study

### 3.1. Research questions of this paper

1. Do Chinese L2ers of English at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show sensitivity to the *given-before-new* ordering in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dative constructions?
2. Given the situation that non-alternating verbs are under appropriate contexts (eg. contexts following GN order), could L2 learners accept the reportedly ungrammatical usage as grammatical?

### 3.2 Materials

In order to solve the methodological problems existing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provides *givenness* contexts in production task and comprehension task. The aim of production task is to elicit participants to produce a proper ditransitive construction under certain context with *given-before-new* principles and test the their sensitivity to GN ordering.

For the comprehension task, four non-alternating dative verbs have been chosen and occur under context with given-recipient or given-theme to test both native speakers' and L2 learners' acceptance rate of the illicit usage under appropriate contexts. Bresnan & Nikitina (2003) and Bresnan et al. (2005) present probabilistic and gradient accounts of the DA, and they argue that violations of established semantic restrictions of the DA are not ungrammatical, but improbable. Within their stochastic Optimality Theory, constraints may be violated with certain probabilities, but not completely ungrammatical.

In the two tasks, each verb in both the given-theme condition and the given-recipient condition, totaling 6 test items and 8 test items in production task and comprehension task respectively. The same number of fillers is provided in each task. Illustrated as:

Samples of production task:

(4) given theme and new recipient

Cathy likes travelling all over the world. She has made many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Last weekend, she met a couple from Britain and they had dinner together. They exchanged with each other their life experiences and some very interesting stories. Afterwards, Cathy was eager to share the couple's story with her family.

What did **Cathy** want to do with **the story**? (tell)

(5) given recipient and new theme

Jane wants to study at Oxford University, so she applied and is anxiously awaiting an offer. One day, while she was out meeting her friends, Jane received a call from Oxford saying that she had been admitted. Jane was so excited that she called her parents about the good news.

Why did **Jane** call **her parents**? (tell)

Samples of comprehension task:

(6) given theme and new recipient

David and Jinny had been dating for about a month. David loved Jinny so much that he was planning a big surprise for her birthday. In order to find a chance to carry out his secret plan, David told Jinny he would miss her birthday because he had to be away on a business trip. Later that evening,

- a. he explained this plan to his best friends.
- b. he explained his best friends this plan.

(7) given recipient and new theme

Bill was a Korean boy who had had a one-year study experience in America as a homestay student. While in America, He got along very well with his homestay parents. Two years after he arrived back in Korea, his homestay parents paid a visit to Korea. Bill arranged everything for them. He picked them up at airport, booked a hotel and had dinner with them. After that,

- a. he explained a travel schedule to them.
- b. he explained them a travel schedule.

### 3.3 Participants and procedure

There are four native speakers, three advanced L2 learners and 50 intermediate L2 learners taking part in this pilot study. For the final study in future, more native speakers and advanced L2 learners should be hired and more accurate measurement methods are required.

All the three advanced Chinese EFL learners and the four native speakers take part in both production task and comprehension task. However, the intermediate L2 learners as a whole have been divided into two groups, half for the production task and the other half for the comprehension task. Both of the two tasks are in the form of questionnaire and are supposed to be finished within half an hour. In the production task, after reading the context, th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answer what-type questions and why-type questions with cue verbs inside the parentheses. In the comprehension task, under each context there are two alternative constructions of a non-alternating dative verb. Th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choose a or b, or both according to their grammar or intuition, so as to test their acceptance of illicit usage of the verb.

## 4. Results and Conclusion

In the production task, as expected, all the four native speakers produce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s and demonstrate strong sensitivities to *given-before-new* order. However, in the comprehension task, three out of the four participants, who are all teachers with the average age at 55, prefer to make a choice in accordance with grammar, regardless of GN order. As a result, their mean acceptance rate of illicit usage of non-alternating verbs is very low and they show little sensitivity to GN order. The fourth native speaker is a 28-year-old car sales manager. His performance in both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task is consistent by following GN order well. His acceptance rate of illicit usage of non-alternating dative verb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three participants who are much older than him. Therefore, the acceptance rate of reported

ungrammatical usage under proper contexts by native speakers varies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background. For future study, in order to find a proper control group, comparative studies should be made among native speakers of different ages and education backgrounds.

For learners groups, there are also some interesting findings. In the production task, the fact that the three learners groups produce many other sentence patterns instead of ditransitive constructions may show that ditransitive constructions have not been given enough attention in English teaching in China. Among the four groups, the mean rate of GN order answer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is native speakers (4.75), level 3 non-English majors (2.2), level 2 non-English majors (1.53) and English majors (1). Level 3 and level 2 non-English majors perform better than English majors,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my prediction that the higher the language proficiency is, the more sensitivities the learners have to the GN ordering. However, in the comprehension task, among the four groups, the group of English majors has the highest acceptance rate of non-alternating verbs *whisper* and *carry* when they are used under the contexts following the GN ordering. Nevertheless, English major group has a lower acceptance rate of *explain* usage compared with non-English major groups. In the case of *cost*, following GN order, the illicit usage of *cost*, or the usage of *cost* in PD cannot be accepted by native speakers and English majors at all.

This paper is a pilot study, and there are some limits in the choice of participants, esp. for native speakers and advanced L2 learners. For the final study, more participants of these two groups should be hired and more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he age range and education background of all the participants. What's more, more accurate measurement methods are required for defining language proficiency levels. Deep reasons behind all the mixed results should be further explored in future study.

## Explor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WTC) in the Classroom

**James Kimball**  
(Semyung University)

Using language productively (and authentically) is noted as an essential ingredient in fostering the acquisition process.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e, we expect learners to participate in classroom activities and even cooperate in the learning process. Meaningful interaction, then, demands a teacher–student–content partnership. This can take place in L1 or L2. However, getting learners to participate in classroom activities is no easy feat.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and often these reasons are not simple to identify. The literature 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is comparatively scant, and much of it concerns quantitative studies on motivation and anxiety, while little is dedicated to solutions. In this brief session, we will first unpack some issues surrounding WTC. Then we will explore the impact of classroom management techniques on WTC.

### Bio

James Kimball holds an MSc in Educational Management in TESOL from Aston University, an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rogram evaluation and classroom dynamics.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English i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of Semyung University in Jecheon. Being an IELTS examiner takes up much of his weekends, with the rest of his free time devoted to work with Korea TESOL as Publications Committee Chair and First Vice-President. He is also the co-author of *TOPS*, from Pearson Longman.

# Research trends of L2 motivation: A bibliometric analysis

Fu, Yuping<sup>1,2</sup> and Liang, Yuanzhu<sup>1</sup>

(<sup>1</sup>Hainan Tropical Ocean University; <sup>2</sup>Cheongju University)

## 1. Introduction

Motivation is an ever changing factor amo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verall developmental trajectories, topical trends, the leading authors and institutions in L2 motivation research by contrasting studies published in both international and mainland Chinese journals. Two datasets with 752 articles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s and 365 articles in mainland Chinese journals from 2004 to 2018 are retrieved for the bibliometric analysis with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overall developmental trend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publication years and top journals? 2) What are the most frequent topical issues? 3) Who and what are the most productive authors and institutions?

## 2. Methodology

The data are from two databases: the Web of Science (WoS) and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with no inclusion of Taiwan, Hong Kong and Macau for space limitation. We only included English journals listed in SSCI and A&HCI and Chinese journals indexed in CSSCI. We chose the topics “language NEAR motivation OR motivation NEAR language” for international English journal articles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R English learning motivation OR L2 learning motivation” for mainland Chinese journal articles, respectively. After intensive evaluation and screening, we identified 752 English and 365 Chinese journal articles as relevant and saved as two datasets. Microsoft Excel 2016, CiteSpace and Vosviewer were employed to analyze and visualize the results.

## 3. Results and discussion

### 3.1. Overall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ternational English journals produced a total of 752 articles in the past one and a half decades with a mean of 50 every year. There is a comparatively steady increase trajectory, with the final year covering over five times as many studies as the first. The significant increase of research output in L2 motivation over the past 1.5 decades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e.g., Boo et al., 2015). In contrast, mainland Chinese journals generated 365 articles, with the number only a half of that of its counterparts

and seemingly having hit the peak in 2009. Henceforth, the number starts to decrease. That is to say, international publications continue to exert a great influence in the field of L2 motivation, and mainland Chinese publications also strive to react to the substantially increasing need for the non-language factor in individual language learning.

Over 40% of the articles related to L2 motivation are centered in the top 10 international and mainland Chinese journals,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a matured research field (Kosmützky & Putty, 2016:11). What's more, these journals mostly belong to applied linguistics and educational technology, which furnish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searchers with a forum to discuss and exchange their studies on how to promote L2 teaching and learning motivation.

### 3.2. Topical trends

Both English and Chinese researches are mainly focused on theories and notions such as “L2MSS”, “self-efficacy” and “identity”, which echoes Dörnyei and Ushioda's claim (2009:1) that the context of self and identity concepts is currently re-theorizing the L2 motivation. Another shared issue attracting scholars in and outside mainland China is “language achievement” that is revealed to be positively influenced by motivation and self-efficacy beliefs.

Except for similarities, there are also differences. For example, “L2MSS” topped in articles of English language studies, which are highly concerned with theoretical and structural models concerning the variabl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its impact on motivated activities. Further, they pay special attention to research issues relating to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 and “technology”. However, in Chinese research studies, “English learning”, “college English”, “English teaching” and “English achievement” occupy an important role, which is a response to the growing dominance of Global English in language education (Boo et al., 2015). Moreover, Chinese language articles put more emphasis on “strategy”, “learner autonomy” and “language teaching”. For the network visualization of keywords in English articles, VOSviewer identified five closely correlated thematic clusters: a variable and anxiety cluster, a self-efficacy cluster, a model and technology cluster, a L2MSS cluster and a demotivation cluster. The variable and anxiety cluster is the largest of the five and locates at the upper center of the whole network. For the network visualization of keywords in Chinese articles, VOSviewer also identified five close-linked thematic clusters: a self-efficacy cluster, a L2MSS cluster, a learner autonomy cluster, a demotivation cluster and a learning strategy cluster. Specifically, the self-efficacy cluster is the largest among the five, but not in the center of the whole network.

### 3.3. Leading authors and institutions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by the leading international scholars (95) is approximately 2.5 times that by their peers in mainland China (35). Most international scholars are from UK, Hungary, Sweden and Korea. CiteSpace detect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mong scholars from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However, little teamwork is observed



between the leading researchers in mainland China and other countries/regions.

The top 10 Chinese universities published nearly 23% of all the publications in mainland Chinese journals. Four universities in Shanghai and three in Beijing play a crucial part in L2 motivation research. Of the relevant articles in all international journals, 18% is from the top 10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different countries/regions. Three universities in UK, two in Hong Kong and one in Taiwan exert a great influence in this field. CiteSpace also detec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institutions, which are affiliations of scholars mentioned in the above scholarly collabo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sign of international joint work between the leading institutions within and outside mainland China.

#### **4. Conclusion**

Through a bibliometric comparison of studies on L2 motivation in the international English and mainland Chinese journals published from 2004 to 2018, this paper has provided a whole view of the developmental trends with various sorts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publication years and top journals,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topical issues, and the leading authors and institutions with the number of contributions. It will be more beneficial for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those in mainland China if they jointly look into the complexity of foreign/second language motivation in diverse contexts worldwide via cross-border collaboration in future studies.

Funding: Provincial Education Department of Hainan, China (grant number Hnky2017-44); Provincial Social Science Fund of Hainan, China (grant number HNSK(YB)17-29).

#### **References**

- Boo, Z., Dörnyei, Z., & Ryan, S. (2015). L2 motivation research 2005-2014: Understanding a publication surge and a changing landscape. *System*, 55, 145 - 157.
- Kosmützky, A., & Putty, R. (2016). Transcending borders and traversing boundar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0 (1), 8 - 33.
- Dörnyei, Z., & Ushioda, E. (2009).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Vol. 36). Multilingual Matter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DIRECT SPEECH ACTS BY UZBEK AND AMERICAN ENGLISH SPEAKERS IN PRAGMATIC COMPETENCE POINT OF VIEW

Eshimov Ely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e pragmatic competence, speech acts are thought as one of the major components. The two essential speech acts *request* and *apology* are learned by language learners a lot because both of them have face-threatening features (Brown and Levinson, 1987), and miscommunication can appear while producing them when the target language is inadequate. In this sen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and compare the productions of *request* and *apology* used by Uzbek and American English speakers.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randomly selected 20 native Americans and 20 undergraduate Uzbek speakers of English who are studying English at the University in Uzbekistan by using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s (DCTs). It was analyzed based on the Coding Manual of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CCSARP).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native and non-native speech act productions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both groups use almost all of the speech act strategies proposed by Blum-Kulka et al. (1989) in the Coding Manual of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the distribution of these strategies differ across the two groups.

Keywords: pragmatic competence, speech acts, requests, apologies

## INTRODUCTION

"In order to communicate successfully in a target language, *pragmatic competence* in L2 (second language) must be reasonably well developed" as defined by Kasper (1997: 2).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develop *pragmatic competence*: Most of the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tudents always have hardship in improving *pragmatic competence* in the specific language. For that reason, in the EFL teaching and learning areas *pragmatic competence* – which contained roles of speech act and sociolinguistic

competence awareness – must be taken into account.

###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Research Ques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investigations conducted in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Pragmatics* area, the majority of these stud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 language learners. Although many studies have compared native and non-native *request* and *apology* productions, so far no comparative study that implemented *request* and *apology* production of Uzbek learners of English are presented in the literature of the area. Besides, on *requesting* and *apologizing* strategies, no study has intended to identify the Uzbek learners of English and to compare these expressions with native speaker indirect speech act produc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ing and comparing *request* and *apology* strategies expressed by randomly selected American and Uzbek speakers who are majoring in English at the University. Consequently, this study also intends to determine the distinctions among the types of request and apology productions frequencies of American and Uzbek English speakers.

## **LITERATURE REVIEW**

### **What is Pragmatics?**

As defined by Kasper (1997, 1) *Pragmatics* is a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ion in its sociocultural context." Alternatively, instead of the structure or sounds of the language, *Pragmatics* handle the use of language in context. In 1983 Leech indicated that pragmatics field did not become the focus of some philosophical and linguistical study till the 60s and 70s (Lakoff, 1971; Austin, 1962; Grice, 1975; Searle, 1969; Hymes, 1966, 71, 72). As Lakoff (1971) argued, syntax could not be divided from the study of language use; according to this idea, *Pragmatics*, which is clearly "the study of language in use," was expanded.

### **Cross-cultural Pragmatics**

*Cross-cultural Pragmatics* (herein CCP) is one of the main research subjects of pragmatics. This method involves speech act comparisons utilized by native speakers of one language with those used by native speakers of another language. As reported by Wierzbicka (1991), CCP developed as a reaction opposite the universalism in language, which puts to the center the Anglo-Saxon culture and language. Wierzbicka (1991, 69) suggests that the CCP area emerged according to the ideas below:

- 1) In different societies, and the various communities people speak differently. These differences in ways of speaking are profound and systematic.
- 2) These differences reflect various cultural values or at least different hierarchies of

values.

3) Different ways of speaking, various communicative styles can be explained and made sense of, regarding independently established diverse cultural values and cultural priorities.

### **The Coding Manual of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CCSARP)**

Some of the most relevant studies implemented in the CCP area are gathered in Blum-Kulka et al.'s (1989)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CCSARP). In this project, Blum-Kulka et al. investigate realization of speech act in various languages using both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data. Hebrew, Canadian French, German, Danish, and British, American and Australian English languages involved in the study. As the investigators state in their book,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1989), there were three main purposes of their project:

- 1-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patterns of specific speech act across various languages, relative to the similar social constraints (cross-cultural variation).
- 2-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variables on the realization patterns of given speech acts within specific speech communities (sociopragmatic variation).
- 3-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patterns of given speech act among a certai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the language, relative to the similar social constraints (interlanguage variation). (13).

As discussed above Blum-Kulka et al.'s second focus project was *apology* speech act. Under data they gathered from different languages, they organized a nearly generalized *apologizing* pattern. Firstly, they provided the possible form of an *apology* and based on their findings the production of *apology* may compose of three parts. *Alerter* is the first of these part which is similar to the *request* categories. The second one is the *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s* (IFIDs). The third part is *intensifiers* (these might be increasing adverbials, emotional explanations/expressions, etc.) and other potential apologizing strategies utilized with IFID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ccasion. *Apologies* can be acted by any of the ensuing strategies, or any combination or sequence as reported by Blum Kulka et al. (1989) thereof:

- 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 (IFID)
- Taking on Responsibility
- Explanation or Account
- Offer of Repair
- Promise of Forbearance (289).

## METHOD

### Participants

This study included two groups of participants. Our first group participants are twenty Uzbek undergraduate speakers of English students in their 20s to 30s, who are attending Uzbekistan State University of World Languages in Uzbekistan. These students were studying their third and fourth years of their bachelor degree, and they were coming from the similar lower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the factor of gender was not controlled. The data was gathered from this group appropriately to educational process in the context of school, and there were ten male and ten female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were chosen with the help of convenience sampling as a group. Since they are learning for two and three years at the same school from the same teachers of English, they had resembling language learning backgrounds.

### Data Collection

In this study the data is gathered by using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s (DCT). It contains the *request* and *apology* productions from 40 participants. For gathering the data from the Uzbek participants, we received authorization from the dean of Uzbekistan State University of World Language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where researcher' friend is studying for his Ph.D. So data gathering setting was real. There was no nonmember in the classroom. It took 40 minutes, and the DCTs given to Uzbek participants were in English; however, every item was elucidated in Uzbek by the researcher before the data gathering process.

## FINDINGS AND DISCUSSION

### Comparison of Requesting Head Act Strategies produced by American and Uzbek participants

A close analysis of both the native and the non-native *requesting* data shows that in addition to some similarities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ve and non-native *request* productions in our study. The *request* productions of the American and Uzbek participants will be compared to two categories: *head act strategies* and *mitigating supportive moves*.

The distribution of the requesting *head act strategies* among the native and non-native data is given in Table 1. below:

**Table 1. Distribution of Native and Non-native Requesting Head Act Strategies**

| Head Act Types identified in the data | Native participants |                | Non-native participants |                |
|---------------------------------------|---------------------|----------------|-------------------------|----------------|
|                                       | Tokens              | Percentages(%) | Token s                 | Percentages(%) |
| Preparatory                           | 139                 | 89.7           | 122                     | 79.7           |
| Want statement                        | 7                   | 4.5            | 7                       | 4.6            |
| Hedged performative                   | 3                   | 2              | 3                       | 1.9            |
| Mood derivable                        | 1                   | 0.6            | 19                      | 12.5           |
| Strong hint                           | 5                   | 3.2            | 2                       | 1.3            |
| TOTAL                                 | 155                 | 100            | 153                     | 100            |

**Comparison of Requesting Mitigating Supportive Moves produced by American and Uzbek Participants**

As mentioned in the data analysis section, the *request* productions of the American and Uzbek participants in our study are analyzed in two parts. The previous section dealt with the comparison of the requesting head act strategies used by the native and non-native participants. This section presents the comparison of the native and non-native *mitigating supportive move strategies*. The comparison of the analysis of the native and non-native data shows that the native and non-native data differ regarding the *mitigating supportive moves* and the head acts used by the participants. Table 2. below shows the distribution of native and non-native requesting *mitigating supportive move strategies*:

**Table 2. Distribution of Native and Non-native *Requesting Mitigating Supportive Moves***

| Requesting Mitigating Supportive Moves identified in the data | Native participants |                  | Non-native participants |                 |
|---------------------------------------------------------------|---------------------|------------------|-------------------------|-----------------|
|                                                               | Tokens              | Percentage s (%) | Tokens                  | Percentages (%) |
| Grounder                                                      | 62                  | 37.8             | 61                      | 42.7            |
| Disarmer                                                      | 35                  | 21.3             | 23                      | 16.1            |
| Preparator                                                    | 23                  | 14               | 39                      | 27.3            |
| Imposition minimizer                                          | 24                  | 14.7             | 11                      | 7.9             |
| Promise of reward                                             | 12                  | 7.3              | 5                       | 3.4             |
| Precommitment                                                 | 3                   | 1.8              | 2                       | 1.3             |
| * Appreciation                                                | 5                   | 3.1              | 2                       | 1.3             |
| TOTAL                                                         | 164                 | 100              | 143                     | 100             |

### Comparison of the Native and Non-native Apologizing Strategies

The comparison of the American and Uzbek participants' apology productions show that even though all of the five apologizing strategies identified by Blum-Kulka et al. in the CCSARP Coding Manual are used by both groups, their distribution between the two groups has some differences.

**Table 3. Distribution of Native and Non-native Apologizing Strategies**

| Apologizing strategies identified in the data | Native participants |                 | Non-native participants |                 |
|-----------------------------------------------|---------------------|-----------------|-------------------------|-----------------|
|                                               | Tokens              | Percentages (%) | Tokens                  | Percentages (%) |
| 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         | 135                 | 40.7            | 137                     | 43.5            |
| Offer of Repair                               | 88                  | 26.5            | 73                      | 23.2            |
| Taking on Responsibility                      | 55                  | 16.5            | 53                      | 16.8            |
| Explanation or Account                        | 46                  | 13.9            | 49                      | 15.6            |
| Promise of Forebearance                       | 8                   | 2.4             | 3                       | 0.9             |
| TOTAL                                         | 332                 | 100             | 315                     | 100             |

### CONCLU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request* and *apology* productions of randomly selected American and Uzbek English majoring university students in English in a comparative manner.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20 American and 20 Uzbek students were given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s. After collecting the data, the strategies used by the two groups while producing *requests* and *apologies* were identified and compared based on Blum-Kulka et al.'s (1989) CCSARP Coding Manual. The *request* productions were analyzed in two sections as *head acts* and *mitigating supportive move strategies*. *Apologies* were analyzed as a whole based on the five different apologizing strategies presented in the CCSARP Coding Manual (Blum-Kulka et al. 1989).

*Preparatory, want statement, hedged performative, mood derivable* and *strong hint* head act strategies were identified in the native speaker *request* productions out of the nine head act strategies (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 hedged performative, locution derivable, want statement, suggestory formula, preparatory, strong hint, and mild hint) proposed in the CCSARP Coding Manual (1989).

The requesting head act strategies identified in the non-native data same with native data were *preparatory, mood derivable, want statement, hedged performative* and *strong hint*. Also, there were some productions in the non-native data which could not be included in any of the head act categories proposed by Blum-Kulka et al. (1989). Out

of the six mitigating supportive moves (*preparator, getting a precommitment, grounder, disarmer, promise of reward, and imposition minimizer*) proposed by Blum-Kulka et al. (1989), all of them were identified in both the native and non-native data. Plus, in the non-native and native requesting productions a new category, “*appreciation*” was identified.



## Prosodic marking of focus in Korean learners of English

Liu, Jun and Lee, Yong-cheol  
(Cheongju University)

We conducted a production experiment using phone number strings to examine whether Korean learners of English produce a native-like prosodic marking of focus and a perception experiment using audio stimuli from the production experiment to test whether native listeners identify the corrected digits in focus. Korean learners of English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dvanced, intermediate, low) based on their English proficiency and were compared to native speakers. In the production experiment, we found that both intermediate and low groups did not produce clear prosodic effects of focus (i.e., increased duration, intensity, and pitch in the focus positions) nor noticeable post-focus compression, when directly compared to English native speakers. Advanced speakers yielded clear prosodic effects of focus in all the three parameters (i.e., pitch, intensity, and duration) and two of them (i.e., intensity and duration) were equivalent to native speakers' focus marking. However, their performance of PFC was not comparable to that of native speakers in terms of duration and pitch. The perception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intermediate and low groups obtained an average identification rate of 11.4% and 12.3% respectively; the advanced group had the highest average identification rate of 81.3% among the three Korean learner groups, but still far lower than the native group's 97.2%. The results of production and perception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both intermediate and low groups had a strong negative prosodic transfer, derived from their first language (L1), although this negative transfer is known to decrease as their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s (Swerts & Zerbian, 2010). The current study also provides support for the findings in previous studies (e.g., Chen, Guion-anderson, & Xu, 2012), post-focus compression is hard to transfer between languages, and later acquired, later than on-focus expansion.

Although both English and Korean are characterized by on-focus expansion and post-focus compression, the two languages differ greatly in how they realize prosodic focus. English is said to be a stress-accent language due to its lexical stress, so its prosodic focus is realized by a nuclear pitch accent on the primary stressed syllable in the focused word (de Jong, 2004; Ueyama & Jun, 1998). Korean is a language which has neither lexical stress nor lexical pitch accent (Jun, 1998), and so its prosodic focus is reported to be realized by inserting a phrase boundary at the beginning of a focused word (Jun, 2011; Lee, 2012, 2017). Another crucial difference between English and Korean is that the size of prominence of a focused word and PFC after the focused element in English is much larger than in Korean (Lee, 2015). According to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CAH) (1957), features that are similar to L1 are easy to acquire, but those different from L1 are more difficult to acquire. Therefore, given that Korean and English differ considerably in how prosodic focus is encoded, we posit that Korean learners of English will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English prosodic

marking of focus. Although L2 prosody is inevitably influenced by their L1, its interference decreases as L2 proficiency increases (Swerts & Zerbian, 2010), but it still poses challenges to even advanced learners (Kang et al., 2012; Swerts & Zerbian 2010). We thus posit that English proficiency impacts L1 prosodic transfer; when their English becomes more proficient, L1 effect would be weaker but still cannot be overcome entirely even by the high-level learners, showing negative prosodic features, particularly for post-focus compression.

We used 100 ten-digit phone number strings designed in the form of (NNN)-(NNN)-(NNNN). The strings were randomly generated so that (1) each digit (0-9) appears equally often in each position of each digit string and a combination of every two digits appears equally often in each digit string. Three groups (advanced, intermediate, low)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2 females and 3 males in each group) produced the target stimuli embedded in two focus conditions: broad focus and corrective focus. The broad-focus stimuli were recorded in isolation as a background reading. In the corrective-focus condition, the same sequences were designed in a Q&A form, in which speakers made a response by correcting only one incorrect digit in the question (“No, Mary’s number is 787-412-4699”). Five native English speakers from Lee (2015) were included for control data.

Our basic analysis was to make a direct comparison between broad focus and corrective focus by observing pitch patterns for each focus condition. Figure 1 displays time-normalized pitch contours in the two focus conditions, averaged over the digit string (389-343-4492), produced by five speakers in each group. In the figure, “target” refers to a focus position, and the dotted line indicates a phrase boundary. Figure 1 illustrates that corrective focus shows a higher pitch peak in the focus position and a lower pitch valley in the post-focus positions in both the native and advanced groups but the size of pitch raising and lowering in native group is much larger than in advanced group. By contrast, both intermediate and low groups exhibit no such clear indication of prosodic changes in the focus and post-focus 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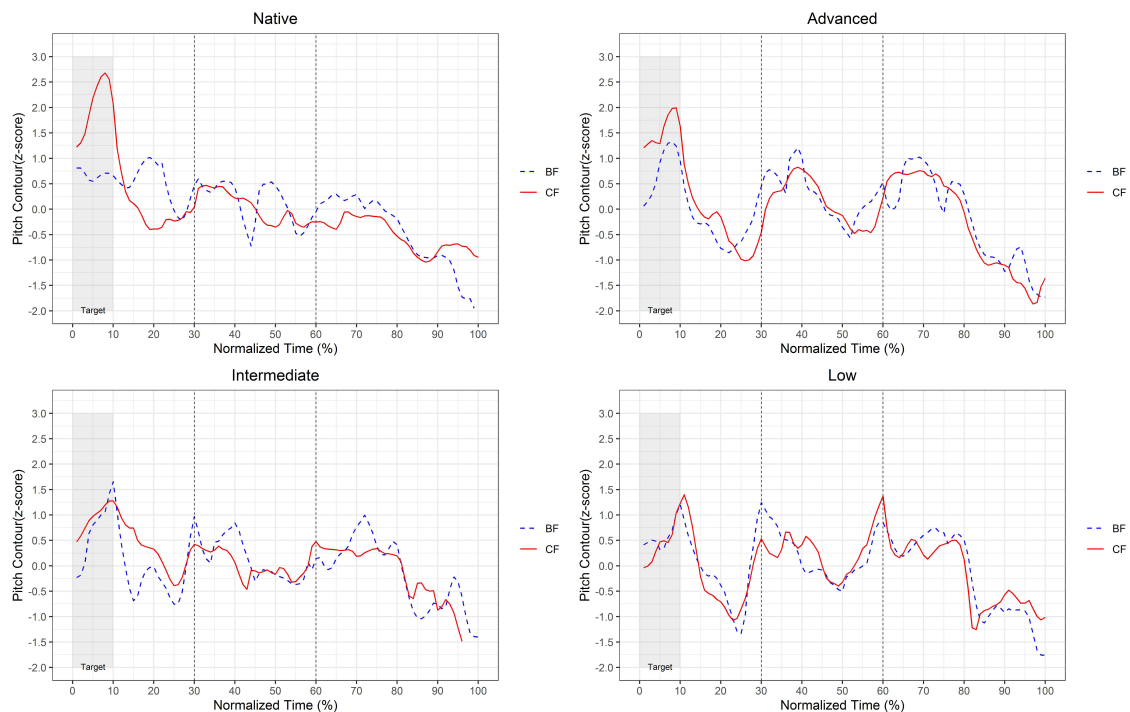


Figure 1. Time-normalized pitch contours of the digit string (389-343-4492) produced by five speakers of each group in the two focus conditions, separated by languag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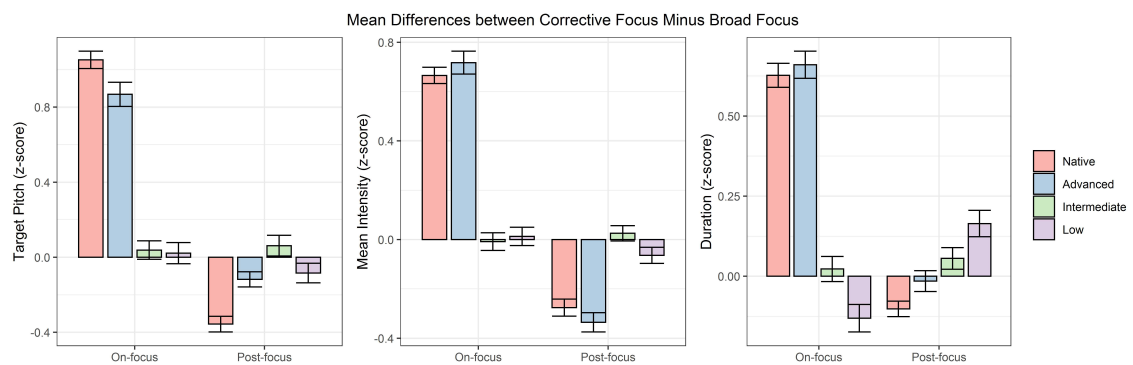


Figure 23. Changes of target pitch, mean intensity, and duration (z-score) by focus position and language group. Bars represent mean differences calculated by corrective focus minus broad focus and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To verify whether the differences observed in Fig. 1 is statically significant, we conducted repeated measures ANOVA in terms of pitch, mean intensity and duration. The interactions between language group and focus position were significant (pitch:  $F(3, 177) = 89.83, p < 0.001$ ]; mean intensity:  $F(3, 177) = 114.8, p < 0.001$ ; duration:  $F(3, 177) = 72.53, p < 0.001$ ); the effects of language group (pitch:  $F(3, 177) = 37.92, p < 0.001$ ; mean intensity:  $F(3, 177) = 18.41, p < 0.001$ ; duration:  $F(1, 59) = 67.55, p < 0.001$ ) and focus position (pitch:  $F(1, 59) = 312.5, p < 0.001$ ; mean intensity:  $F(1, 59) =$

237.7,  $p < 0.001$ ; duration:  $F(3, 177) = 37.92$ ,  $p < 0.001$ ) were significant. In on-focus position, both native and advanced language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pitch, mean intensity, and duration in spite of greater increase (not significant) in the acoustic cues of intensity and duration, and significantly smaller increase of pitch in the advanced group, relative to native group. In post-focus positions, native group significantly compressed all the three cues. Advanced group did not produce noticeable PFC in all cues but in intensity. Neither intermediate nor low groups produced such systematic changes in the cues of target pitch, mean intensity, and duration.

## References

- Chen, Y., Guion-anderson, S., & Xu, Y. (2012). Post-focus compression in second language Mandarin.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12*, 410 - 413.
- de Jong, K. (2004). Stress, lexical focus, and segmental focus in English: Patterns of variation in vowel duration. *Journal of Phonetics*, 32(4), 493 - 516.
- Kang, S., Ahn, H., & Hong, M. (2012). The Acquisition of L2 English Focus by Korean learner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1), 1 - 23.
- Jun, S.-A. (1998). The Accentual Phrase in the Korean prosodic hierarchy. *Phonology*, 15, 189 - 226.
- Jun, S.-A. (2011). Prosodic markings of complex NP focus, syntax, and the pre-/post-focus string. *Proceedings of the 28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WCCFL 28)* (pp. 214 - 230).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e, Y. (2012). Prosodic correlation between the focusing adverb *ozik* 'only' and focus/givenness in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2(2), 85 - 111.
- Lee, Y. (2015). *Prosodic focus within and across languages*. PhD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ee, Y. (2017). Prosodic focus in Seoul Korean and South Kyungsang Korean. *Linguistic Research*, 34(1), 133-161.
- Swerts, M., & Zerbian, S. (2010). Prosodic transfer in Black South African English. In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10* (pp. 100198: 1-4).